ISSN 2635-8891

아시아 陶磁文化 研究

제3호

2020

국립광주박물관
Gwangju National Museum

아시아 陶磁文化 研究

제3호

2020

국립광주박물관
Gwangju National Museum

아시아 陶磁文化 硏究

제3호

기획논문 |

005 신안선 선박 연구 현황과 전망
Current State and Future Prospects of Sinan Shipwreck
최유리 Choi Yu Ri

025 신안선 출수 명문자료 연구 현황과 전망
Current State and Future Prospects of Artifacts with Inscriptions Recovered from the Sinan Shipwreck
박예리 Park Yeri

053 신안선 도자기 연구 현황과 전망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of Ceramics Excavated from Sinan Shipwreck
김영미 Kim Youngmi

081 신안선 출수 금속공예품 및 목공예품의 연구현황과 전망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of Metal and Woodcrafts Excavated from Sinan Shipwreck
이용진 Lee Yong Jin

101 원대의 도자기 유통 – 도자사에서 몽골의 영향 –
Distribution of Yuan Ceramics: The Mongol Impact on the History of Ceramics
모리 다쓰야 Mori Tatsuya

149 서구의 신안선 연구 현황과 전망
Current State and Outlook of Research on the Sinan Shipwreck in the West
윤희나 Heena Youn

일반논문 |

165 건요 "공어" · "진잔" 명흑유완(建窯 "供御" · "進琖" 銘黑釉碗)과 그 지평(地平)을 넘어 –건요(建窯) 조사기(調査記) (3)
The black glazed bowl marked with "*Gongyu* (供御)" or "*Jinzhan* (進琖)" of Jian ware and beyond its horizon – Third research report on Jian kiln (建窯)
이희관 Lee Heegwan

197 크락자기(Kraak ware) 재고찰 – 중국 내 소비시장을 중심으로 –
A Further Discussion of Kraak Ware: Focusing on the Domestic Market in China
류자오후이 Zhaohui Liu

자료소개 |

243 「청량산방시회축(淸凉山房詩會軸)」의 사료적 가치와 유불(儒佛) 교유
The historic value and meaning of *Cheongryang Sanbang Sichuk*
박동춘 Park Dongchoon

259 아시아 陶磁文化 硏究 발간규정
Publishing Regulations

일러두기

1. 기획논문은 2020년 12월 23일 국립광주박물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신안선 출항 700주년 준비 세미나③ "신안선 연구의 현황과 전망"에서 발표된 논문을 다시 정리해 엮은 것이다.

일정 및 내용 **2020. 12. 23. wed**

10:00~10:20	인사말	이수미 | 국립광주박물관장 김연수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박태영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직무대리
	축사	박우량 | 신안군수
	〈1주제〉 신안선과 출수품	
10:20~10:40	1 신안선 선박 연구 현황과 전망	최유리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토론 문경호 | 공주대학교
10:40~11:00	2 신안선 명문자료 연구 현황과 전망	박예리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토론 이용현 | 국립경주박물관
11:00~11:20	3 신안선 도자기 연구 현황과 전망	김영미 | 전 국립중앙박물관 토론 고미경 | 서울공예박물관
11:20~13:00	점심식사	
13:00~13:20	4 신안선 출수 금속공예품과 목공예품의 연구 현황과 전망	이용진 | 국립중앙박물관 토론 신명희 | 국립중앙박물관
13:20~13:40	5 국립광주박물관과 신안선 발굴 이후 여정(1976–2020)	최명지 | 국립광주박물관
	〈2주제〉 해외의 관점과 현황	
13:40~14:00	6 원대의 도자기 유통 – 도자사에서 몽골의 영향	森 达也 | 일본 오키나와현립예술대학 토론 한성욱 | 민족문화유산연구원
14:00~14:20	7 서구의 신안선 연구 현황과 전망	윤희나 | 프랑스 독립학자 토론 Eline Vanden Berg | 네. 프린세스호프 국립도자박물관
14:20~14:30	장내 정리 및 휴식	
	〈종합토론〉 신안선 연구의 향후 과제	
14:30~16:30	신안선 연구의 향후 과제는?	좌장 장남원 | 이화여자대학교 발표자 및 토론자 특별토론 박재상 | 아시아문화전당

2.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https://gwangju.museum.go.kr) '학술 〈 아시아 도자문화 연구'에서 제1~3호 학술지를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안선 선박 연구 현황과 전망

최유리*

Ⅰ. 머리말

Ⅱ. 신안선 선박 연구 현황

Ⅲ. 신안선 구조적 특징

Ⅳ. 신안선과 한선의 구조 비교

Ⅴ. 향후 연구 방향

Ⅵ. 맺음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신안선 선박 연구 현황과 전망

최유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Ⅰ. 머리말

대한민국 최초 수중발굴된 신안선은 중국의 선박이다. 잔존규모 28.4m, 선폭 6.6m의 대형 선체와 함께 도자기 등 유물 2만 6천여점이 함께 발굴되었다. 방대한 유물 수량으로 인해 지금까지 신안선 관련 연구는 도자기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대한민국 해역에서 발굴된 고선박은 총 14척이다. 전통선박 관련된 문헌과 회화 등의 기록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해역에서 발견된 중국선박은 신안선과 진도선 2척이다. 그렇다 보니 신안선의 선박에 대한 연구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진행된 신안선 관련 연구는 1980년대 발굴보고서에서 신안선의 매몰상황과 인양선편 등을 개괄하고 고려와 중국선박의 구조 비교를 통해 신안선의 선체구조를 규명하여, 주요 선체편과 선저구조, 부분조립도 등을 작성하고 신안선 전체의 제원을 제시하였던 것을 시작으로, 이후 축소모형, 문헌자료, 조선공학적 분석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신안선 선형과 복원척도를 규명하는 연구가 지속되었다. 특히 보존처리가 끝나고 신안선 복원이 진행된 2000년대에 그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다. 최근에는 3D스캔 정밀실측, 3D가상복원, 조선공학적 검토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신안선 원형복원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진행한 신안선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기존의 신안선 선박 관련 연구 현황을 종합하고 신안선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본 다음 향후 신안선 선박 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신안선 선박 연구 현황

1. 신안선 개요

신안선은 1975년 신안 앞바다에서 중국 도자기가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 발견은 한국 최초의 수중문화재 발굴로 이어져, 1976년부터 1984년까지 각종 무역품 2만6천여 점과 중국 동전 8백만 개가 발굴되었다.

신안선은 원나라 때인 1323년 중국 저장성(浙江省) 칭위엔(慶元)에서 출발하여 일본 교토(京都)를 목적지로 하는 국제무역선으로 밝혀졌다. 칭위엔은 닝보(寧波)의 옛 지명으로, 지리적으로 중국 대륙의 운하와 바닷길이 연결되는 물류 유통의 중심지였다. 칭위엔은 가까운 항저우가 남송의 수도가 되면서 국제무역항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이후 원(元)나라때 국가의 정책적 지원으로 더욱 발전하여 고려와 일본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아라비아 상인까지 왕래하였던 지역이다. 신안선의 목적지인 교토[京都]는 신안선과 함께 발굴된 목간 364점으로 확인되며, 최대 화물 주인은 일본의 사찰인 동복사(東福寺)였으며, 이외에 후쿠오카지역 하카타의 조적암(釣寂庵), 궁기팔번궁(筥崎八幡宮), 승려, 귀족층 등도 확인된다.

신안선은 중국 전통 3대 선박 중 하나인 복선으로 보는데에 현재까지 이견이 없다.[1]

복선은 푸젠[福建] 연해에서 만들어진 선박으로 중국의 해선 중 원거리 항해에 가장 우수한 형태로 알려져 있다. 복선은 원거리 항해에 유리한 선박의 형태로 V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맨 밑바닥에는 수직으로 용골이 설치되고 물 속에 깊이 잠기기에 파도가 심한 지역의 항해에 유리한 모습이다. 복선의 뱃머리는 날카롭고 고물은 넓은 형태의 양 끝이 곧추세워졌으며 고물이 막힌 구조의 말굽모양으로 널찍한 갑판이 있으며 두꺼운 판자로 고정했다라고 전해진다. 구조적인 형태에서도 복선임을 확인할 수 있지만, 용골의 접합부에서 발견된 보수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수공은 중국의 복건지역의 전통 풍속으로, 용골의 연결처에 원형의 구멍을 얕게 파고 동경과 동전 7개를 놓는다.[2] 이는 복건 천주고선에서도 함께 발견되었으며, 국내 해역에서 발견된 중국선박인 진도선에서도 확인되었다.

신안선 인양은 1976년부터 1983년까지 8년간 총 9차에 의해 이뤄졌는데, 선체의 인양은 1981년도 제7차 때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총 720편의 선체를 인양하였다(표1).

표 1. 연도별 신안선 선체편 인양현황(수중발굴 고선박 원형복원 연구–신안선편)

품목 \ 연도	79	80	81	82	83	84	계
선체편	11	8	18	182	211	4	434
용골편				1	3		4
포판재				48	175		223
수통					59		59
계	11	8	18	231	448	4	720

1 원효춘, 「한국신안침몰선과 중국 고대침선 비교연구」, 『신안선 보존과 복원, 그 20년사』(2004).

2 원효춘, 위의 글(2004).

신안선 선체의 복원은 1994년부터 시작하여 2002년 완료되었으며, 신안선 발굴부재 720편 중 포판재(선체를 보호하기 위한 얇은판재) 223편을 제외한 497편을 복원하였다. 이후 2003~2004년에는 유실된 부분의 전체규모를 알수 있도록 선체하중계산과 설계과정을 통하여 선형프레임을 복원하여 현재까지 전시공개 되고 있다.[3]

2. 신안선 선박 연구 현황

신안선 선박에 대한 연구는 발굴 직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이뤄져왔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진행된 신안선 선박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차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신안선 발굴결과를 담아 1984~88년에 발간한 『신안해저유물』보고서가 있으며, 신안선 보존처리 및 복원을 완료하고 2004년도의 『신안선 보존 · 복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그리고 3D스캔 및 조선공학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담은 『수중발굴 고선박 원형복원연구–신안선편』이 2008년도에 발간되었다.

『신안해저유물』에는 신안선의 발굴당시 상황과 인양된 선편 등을 개괄하고 신안선 각 부분의 결합방식등의 구조를 확인하고 전체 규모의 제원을 제시하였다. 『신안선 보존 · 복원보고서』에서는 신안선의 보존처리와 잔존부 복원의 과정이 담겼으며, 수중촬영이 원활하지 않았던 발굴당시에 기록하지 못했던 신안선 세부구조 결합방식 등이 자세히 촬영되어 기술되어있다. 『수중발굴 고선박 원형복원연구–신안선편』은 선체의 3D스캔 정밀실측, 원형추정 설계, 조선공학적 검토, 3D 모델링으로 원형을 복원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또한 신안선 발굴 및 보존 · 복원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발굴당시 참여한 김재근은 1970~80년대에 신안선 선체구조, 복원 척도 등을 제시하였다. 이 후 신안선 복원이 완료된 2000년대에 신안선 관련된 국제학술대회 개최되면서,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성과 공유하며 개인 연구자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신안선 보존과 복원을 마치는 2004년에 개최된 『신안선 보존과 복원, 그 20년사』 국제학술대회에서 김용한[4]은 신안선의 구조적 특성 기술, 천주 후저선 복원자료 및 복건 일대의 현대 목범선의 관행적 척도를 참고하여 신안선의 복원척도 제시하였으며, 이철한은[5] 신안선 실측 및 모형복원을 통한 신안선 복원연구에 대한 성과를 발표하였으며, 최항순[6]은 발굴 도면을 기반으로 3차원 CAD 프로그램으로 신안선 형상 구현,신안선의 배수량, 경화중량, 재화중량, 조파저항, 점성저항, 종강도 해석을 통하여 신안선의 규모 파악하였다. 중국의 학자인 원효춘[7]은 중국 침몰선박에 대한 개요, 신안선의 조선방법, 형태, 돛대 개수 등에 대해 제시하였다.

---

3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신안선 보존 · 복원 보고서』(2004).

4 김용한,「신안해저 인양 침몰선의 구조 연구」, 『신안선 보존과 복원, 그 20년사』(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4).

5 이철한, 「신안선 복원연구」, 『신안선 보존과 복원, 그 20년사』(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4).

6 최항순,「신안침몰선에 대한 조선공학적 고찰」, 『신안선 보존과 복원, 그 20년사』(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4).

7 원효춘, 「한국 침몰선과 중국 고대침선 비교연구 침몰선」, 『신안선 보존과 복원, 그 20년사』(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4).

2008년 『동아시아 전통선박과 조선기술』 국제학술대회에서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의 선박전문가들이 연구성과를 공유하였으며, 중국 연구자 석룡비(席龍飛[Xi Longfei])는 중국 전통선박의 연구현황, 원효춘(袁曉春[Yuan xiaochun])은 중국 전통 선박의 특징과 제작기술에 대해 제시하였다.

최근에는 침몰 원인을 찾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016년 개최된 『아시아 태평양 해양네트워크와 수중문화유산』 학술대회에서 김병근은 「신안선의 항로와 침몰 원인」에서 외판 7격벽이 있는 위치의 부재가 부러지고 안쪽으로 휘어져 있는 흔적을 침몰의 원인으로 추정하였으며[8], 2017년 조진욱은 「신안선의 무역모델과 의미」을 통해 좌현에 가로로 길게 남겨진 파손부위를 침몰원인으로 제시하였다.[9]

1) 『신안해저유물』 발굴보고서

『신안해저유물』 발굴보고서는 1980년대에 총4권으로 발간되었으며, 2006년도에 이를 새롭게 정리한 『신안선』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신안해저유물』에서는 선체 발굴현황에 대해서 소개하고 용골에서부터 선수재, 저판, 용골익판, 선저구조, 외판, 현장, 현장지주, 갑판, 격벽, 격벽늑골, 격벽스티프너, 선수사행늑골, 선미부재, 장좌, 장각, 액체 탱크 등 세부선체에 대한 도면과 수치와 함께 기술하고 선저구조, 외판의 조립, 선수 · 선미 구조, 장좌의 조립, 고착방법 등 각 부분의 결합구조를 확인하였다.

발굴보고서에 따르면 선체조사는 매몰상태의 정확한 파악, 해중저토 상면에 노출되어 있는 선체윤곽의 파악, 매몰상태의 규명, 선형과 구조의 파악, 인양 및 보존방법 강구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 졌으며, 1979년 선체중앙부근과 선미부의 잔존유물과 토사를 제거 하고 내부 단면형상을 조사 · 실측하여 신안선의 선체구조가 처음으로 밝혀지게 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10]

1) 본선은 선체횡단면이 V형을 이룬 첨저형선이다.
2) 단면이 사각형인 방형용골이 최저부에 존재한다.
3) 첨저선체는 해저평면에 15° 가량 우현으로 경사해서 매몰되어 있고, 따라서 우측현이 좌형측보다 선체가 더 많이 남아 있다.
4) 선내에서 최심부의 깊이는 2.1m이다.
5) 외판은 단판구조이되 종연(seam) 홈을 파서 겹쳐 이어나간 라베트 붙이 클링커이음으로 되어 있는 독특한 구조이다.

『신안해저유물』에서 신안선 잔존부위의 전체길이는 28m, 선폭은 8m로 종합하였으며, 원형추정규모로 전체길이 30m, 선폭 9.4m, 선심은 3.7로 제시하였다.

---

8 김병근, 「신안선의 항로와 침몰 원인」, 『아시아 태평양 해양네트워크와 수중문화유산』(2016).

9 조진욱, 「신안선의 무역모델과 의미」, 『동북아 역사논총』(2017).

10 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신안해저유물Ⅱ(자료편)』(1984).

1980년대 초반에 수중내에서 사진촬영이나 실측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규명된 구조 및 제원은 현재와 커다란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평판선수재의 존재 미확인으로 인한 선수용골을 선수재로 확인하여 선형에 대한 오류가 있었던 점과 갑판연측구조에 대한 오류가 있었으나 후의 복원과정에서 확인되어 수정되었다.

2) 신안선 보존 · 복원보고서

신안선의 보존처리는 1980년대 초반부터 1999년도까지 약 20여년의 시간동안 이뤄졌으며, 보존처리가 완료된 부재들을 1994년도부터 2004년까지 복원 완료하였으며, 2004년 그 모든 과정이 담긴 보고서 『신안선 보존 · 복원보고서』로 출간되었다.

신안선 복원부분에서는 신안선의 구조적 특징에 대해 정리하고 신안선의 현황과 복원방법을 소개하고 복원과정과 함께 각 세부구조들의 구조의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하였다.

신안선의 선체 구조적 특징에서는 첨저형의 용골구조, 평판형 선수재와 선미의 형상, 선체외판 구조형식, 선체 중앙횡단면 구조, 격벽에 의한 구획 구조, 제구 및 코킹(결구방법), 선체 의장품의 구조 등으로 구성되었다.

신안선 복원 현황과 복원과정에서는 신안선의 현황, 규모, 선재 주요명칭, 연도별 복원현황, 복원 순서 및 부재별 명칭, 복원 장비 및 도구를 소개하고 있으며, 신안선 복원부분에서는 용골조립, 익판조립, 격벽조립, 외판조립, 갑판과 현장조립, 선수재 조립, 장좌와 장각조립, 늑골조립, 물탱크 조립, 연결보강판 조립의 각 세부구조의 복원과정, 복원방법이 상세히 담겨있으며, 세부구조의 복원된 모습을 사진으로 담고 있다. 신안선의 복원은 용골→격벽1단→익판→격벽2~4단→외판1~5단→늑골→격벽5~8단→외판6~13단→스티프너→선수판재→돛대→물통구조물→연결보강판 순으로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신안선의 안전과 전시성 그리고 완형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는 복원프레임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3) 수중발굴 고선박 원형복원연구-신안선

『수중발굴 고선박 원형복원연구-신안선』은 2016년~2018년 신안선의 잔존선체를 3D스캔방식으로 정밀 실측하여 선편 및 선형 데이터로 원형추정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신안선 관련 문헌, 회화,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선체의 추정 설계도를 작성하고, 조선공학적 검토하여 선체 원형의 모습을 3D모델링과 모형제작으로 복원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머리말에서는 연구개요, 배경, 추진일정 등을 소개하고, 두 번째 장에서는 신안선의 구조 및 복원현황에서는 신안선의 잔존규모와 구조, 신안선의 복원 등 기존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담고 있으며, 세 번째 장에서는 선체의 3D스캔 정밀실측, 원형추정 설계, 조선공학적 검토, 3D 모델링으로 원형을 복원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마지막 네 번째 장에서는 원형추정 모형을 3D프린팅 모형과 목재 모형을 제작하여 선체의 구조와 제작기술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잔존부재에서 일부 확인 가

능한 갑판 및 현장부의 구조나, 장좌 · 돛대 등 추진구, 확인이 불가한 상장 및 의장부의 구조를 문헌조사 및 조선공학 분석을 기반으로 복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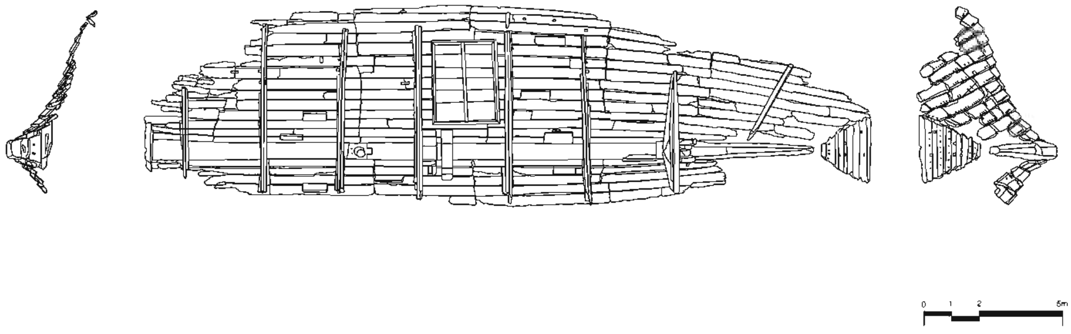
Ⅲ. 신안선 구조적 특징[11]

앞서 연구된 자료를 기반으로 살펴본 신안선의 구조적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신안선은 중국선박으로 V자 형태의 단면을 가진 첨저형으로나, 선수와 선미는 평판형 판재를 사용하였다. 용골은 3재로 구성되며, 내부는 7개의 격벽을 세워 구분하였으며, 격벽은 늑골과 스티프너로 고정하였다. 신안선의 잔존선체의 주요치수 및 원형추정규모는 보고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게 제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표2).

표 2. 신안선 잔존선체 및 원형추정규모 주요치수 비교

항목 (단위:m)	신안해저유물		신안선 보존 · 복원보고서		수중발굴 고선박 원형복원연구-신안선	
	잔존선체	원형추정규모	잔존선체	원형추정규모	잔존선체	원형추정규모
전장	28	30	28.4	32	26.2	32
선폭	8	9.4	6.6	10.9	7.27	10.9
깊이	2.1	3.7	3.66	4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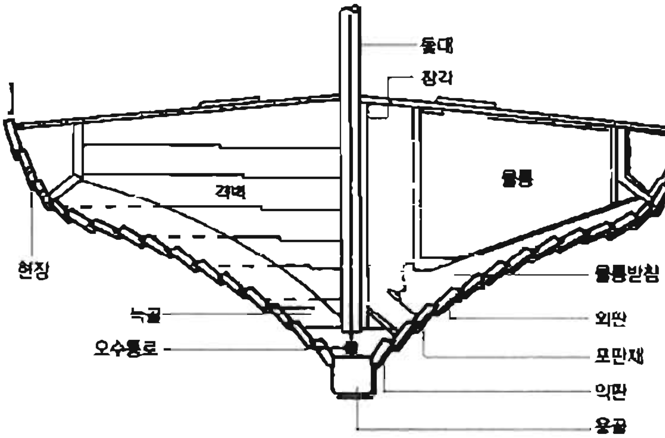
돛대의 구조는 2곳이 확인되었으나, 회화 및 문헌자료 등을 통해 3곳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Ⅳ격벽과 Ⅴ격벽사이에는 수통이 좌우로 자리하였으며, 일부지만 갑판부와 현장의 구조도 확인된다(도1, 2).



도 1. 잔존선체 평면도 · 입면도(출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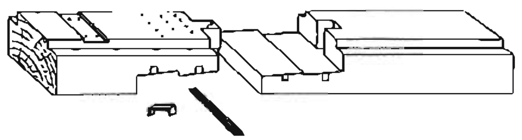
---

11 『신안해저유물』, 『신안선 보존 · 복원보고서』, 『수중발굴 고선박 원형복원연구-신안선편』의 보고서의 내용을 취합 정리함.



도 2. 신안 침몰선 복원 단면도(국립해양유물전시관, 앞의 책, 2004)

1. 저판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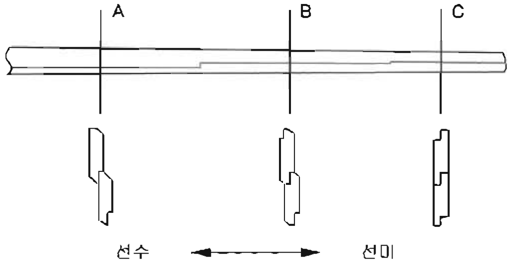

도 3. 용골 연결부(출처: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앞의 책, 2004)

신안선은 첨저형 구조로 사각형의 방형 용골을 중심으로 v자 형태로 외판이 올라가는 형태이다. 신안선의 용골은 단면이 사각형인 방형용골로, 전용골, 주용골, 미용골의 3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부가 높고 양단부가 아래쪽으로 완만하게 만곡(彎曲)되어있는 형태이다. 용골의 접합은 엇걸이촉이음 방식으로 결합하였으며, 장축의 벌림쐐기와 대칭정으로 조립되어 있다(도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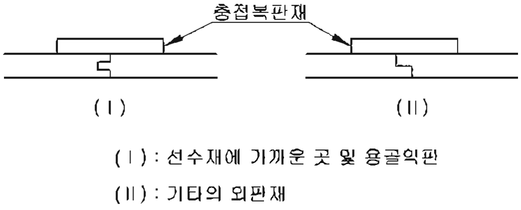
신안선에는 용골과 외판을 연결하는 용골익판이 존재한다. 그 두께는 20cm이며, 신안선 외판재가 12cm에 비해 상당히 두껍게 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폭은 대략 40cm 내외로 외판재의 폭보다는 약간 좁게 제작되었다.

2. 외판구조

외판은 내부에 구조된 구조물을 감싸고 최종적인 선형을 이루는 부재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잔존해 있는 선체는 우현13단, 좌현 4단이 남아 있다. 종연(縱緣)과 횡연(橫緣)에 따라 방식을 달리한다. 종연 연결은 홈붙이 클링커식 이음을 기본으로 하면서 반턱이음 형태의 평접상태로 변화하는 방식을 띠고 있다. 횡연은 홈턱솔이음과 반턱이음 방식을 같이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횡연의 이음부는 선 내측에 연결보강판을 덧대고 못을 사용하여 고착하였다. 외판의 평균두께는 11~12cm, 폭은 45~50cm 정도이다. 또한 외판 바깥부분에는 얇은 포판재를 설치하였다(도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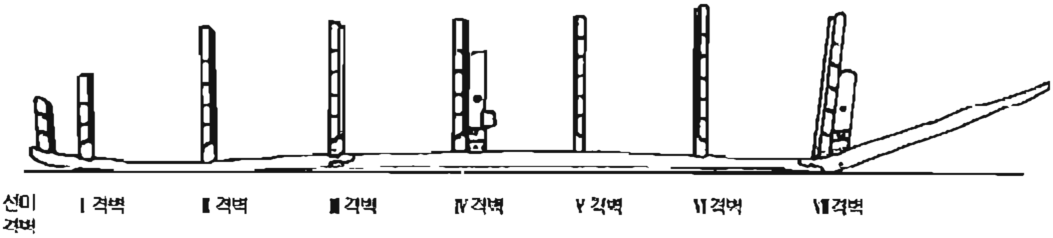
도 4. 신안선 외판연결1(출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18)



도 5. 신안선 외판연결2(출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18)

3. 격벽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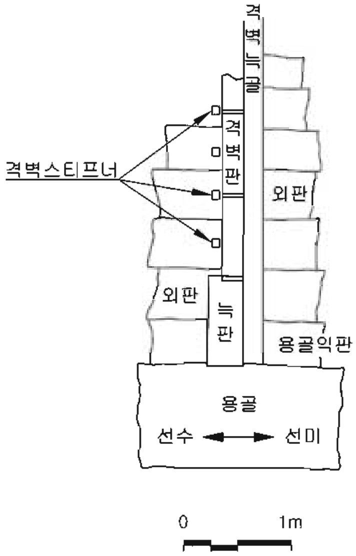
격벽은 신안선 선체의 골격을 이루는 주요 구조다. 신안선은 7개의 격벽을 설치하였으며, 이를 통해 선내를 8개의 창으로 구획하였다. 격벽의 최하단에는 늑판을 설치하였으며, 늑판의 두께는 22cm, 격벽의 두께는 12cm로 한쪽면을 일치시켜 늑골로 고정하였으며, 반대편에는 스티프너로 고정하였다. 또한 중앙을 중심으로 Ⅰ~Ⅳ, Ⅴ~Ⅶ의 늑골과 스티프너 방향을 다르게 설치하였으나, 아직까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없으나, 중앙부에서 가장 넓고 선수선미로 갈수록 좁아지는 구조상 늑골의 크기를 크게 제작하여 강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보여진다(도6,7,8, 표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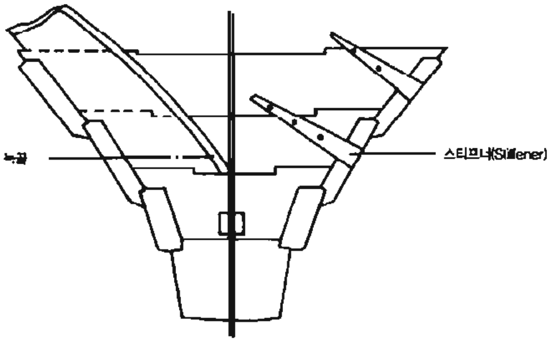
도 6. 격벽구간(출처: 국립해양유물전시관,앞의 책(2004), 70p)

표 3. 격벽구간 간격

		Ⅰ(선미)	Ⅱ	Ⅲ	Ⅳ	Ⅴ	Ⅵ	Ⅶ	Ⅷ(선수)
신안해저유물 발굴보고서		1310	2750	2770	2740	278.	2900	–	
수중발굴고선박 복원연구	(좌)	1450	2780	2820	3130	3080	2800	3380	4740
	(횡)	1400	2790	2800	2850	3360	2750	3380	4770



도 7. 격벽 단면도(출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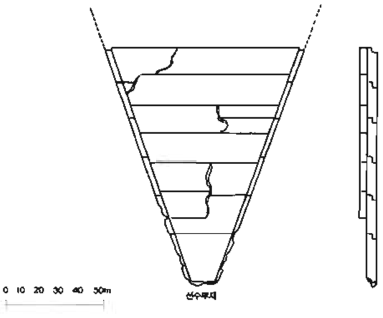


도 8. 늑골 스티프너 구조도(출처: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앞의 책,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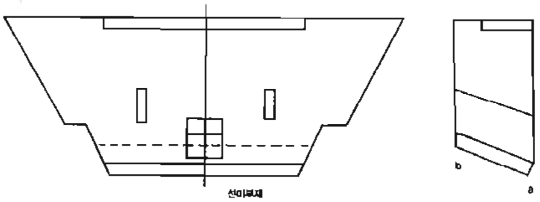
4. 선수선미

신안선은 서양의 첨저선과는 달리 선수와 선미가 판재로 이뤄져 있다. 이는 복선(福船)이 그려진 회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중국 광저우 인근 해역에서 발굴된 남해1호도 같은 구조로 확인된다.

신안선의 선수재는 역사다리꼴 형태로 좌우측 끝단에는 외판재가 마감이 되도록 L자형 턱을 따고 내측에 판재를 덧대어 보강하였다. 선수재의 두께는 11~12cm이며, 반턱이음으로 연결되었다. 선미는 22cm두께의 선미판을 격벽과 동일한 방식으로 쌓아올린 형태이다. 선미 방향으로 17°의 경사를 보이며, 내측에 늑골을 설치하여 보강하였다(도9,10).



도 9. 선수판재(출처:국립해양유물전시관, 앞의 책,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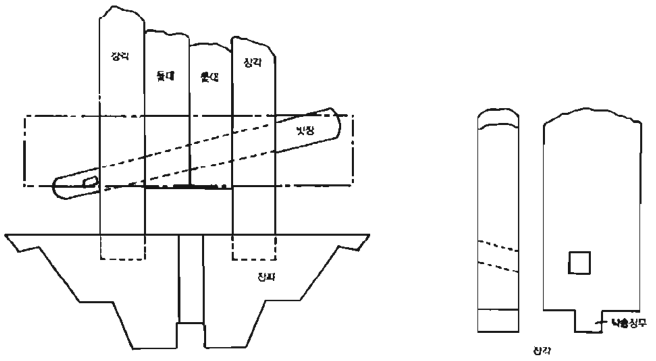


도 10. 선미부재(출처:국립해양유물전시관, 앞의 책, 2004)

5. 기타구조

– 돛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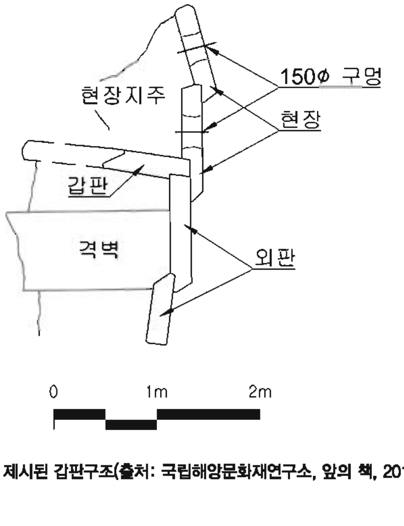
신안선의 잔존부재에서는 2개의 돛대가 확인되었다. Ⅳ격벽에 위치한 장좌와 장각은 신안선 중심에 있고, Ⅶ격벽 장좌와 장각은 선수쪽에 설치되어 있다. 격벽에 위치한 돛대는 장각과 함께 빗장으로 결구하고 있다. Ⅳ격벽에 위치한 장각은 1재에서 2재로 분리되어 있으며 장좌에 턱솔장부 맞춤으로 결구되어 있다. 장좌는 장각을 받쳐주는 부재로 상면의 사각형의 장부 구멍을 만들어 장각을 결구하는 방식이다. 선수 쪽 돛대는 3~4개 부재로 추정되지만 현재 남아있는 부재는 2재이다(도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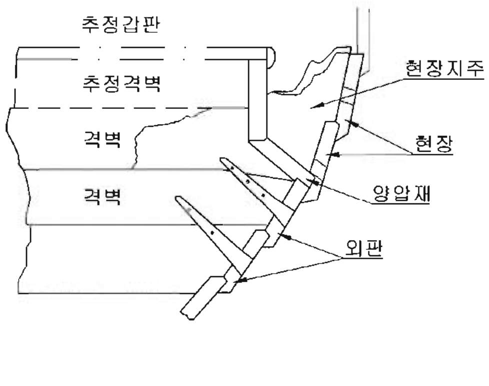
도 11. 장좌와 장각(출처: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앞의 책, 2004)

– 갑판 및 현장

신안선 중앙부 우현쪽에서 갑판과 현장부재 일부가 발견되었다. 이음은 홈붙이 클링커식을 사용하였다. 발굴당시 보고서에서는 현장이 외판을 따라 경사지게 올라갈 것으로 추정하였나, 이후 상단 격벽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갑판과 직각되게 올라가는 구조로 확인되었다(도1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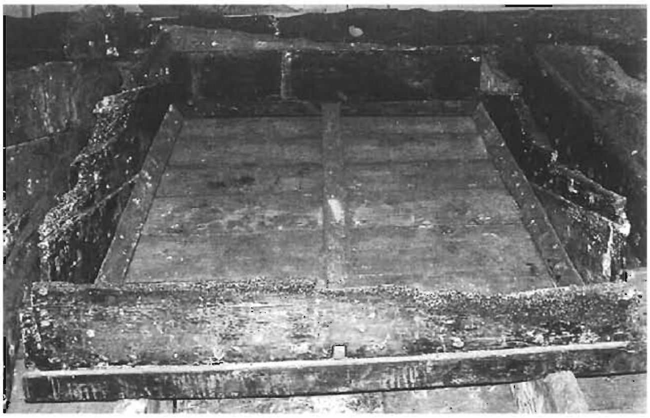
도 12. 초기 제시된 갑판구조(출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18)



도 13. 수정된 갑판구조(출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18)

– 수통

신안선 내에는 Ⅳ와 Ⅴ격벽사이에 수통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우현의 1개가 잔존되어 있으나, 배의 균형을 위해서는 양쪽에 설치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우현 밑판 6재, 좌우측면 4재, 상연우측 1재, 하연좌측 1재에 판재로 구성되고 면구조는 상하 반턱이음으로 조립되며, 작은 스티프너를 사용한 사개맞춤형식으로 결구하였다. 상연우측과 하연좌측에 조립된 판재 또한 반턱이음으로 조립된 것을 볼 수 있다(도14).



도 14. 수통복원모습(출처: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앞의 책, 2004)

수통 밑판 접합은 반턱맞춤 이음을 사용하였으며, 상단을 조립하기 위해서 하단 밑판에 U자형 홈을 주었다. 밑판과 측면 상판 늑골 보강재는 삼각형구조를 만들어 덧붙인 방법을 사용하였다.[12]

–결구 방식

신안선의 결구방식은 세부구조마다 다양한 이음방식을 선택하였지만, 공통적으로 철정을 사용하여 고정하였다. 타정방식은 경사지게 아래로 향하게 하였으며, 철정의 형태는 방형과 원형을 섞어 사용하였다.

외판부재는 포판이라고 하는 얇은 판재로 덮어져 있었으며, 이는 외판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보여지나, 현재 포판재는 복원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수밀을 위하여 중국의 전통 방수 방법인 동유회(桐油灰)를 사용하였다.[13]

Ⅳ. 신안선과 한선의 구조 비교

앞에서는 신안선의 세부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다. 신안선은 중국선박으로 첨저형 구조이며, 한선은 평저선의

신안선과 우리의 전통한선의 구조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하여 발굴된 선박을 통해 비교해 보고자 한다(도15,1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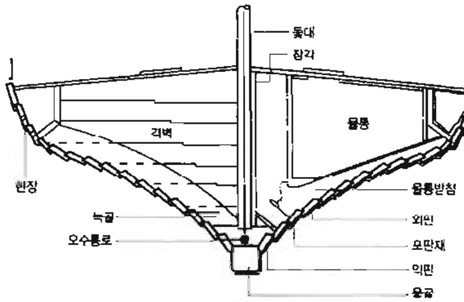
---

12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앞의 책(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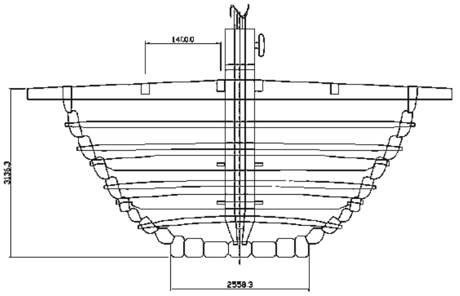
13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앞의 책(2004), p. 56.

1. 저판구조 및 선형

신안선은 용골을 중심으로 v자형 첨저선으로, 저판은 용골 1열로 구성되어 있다. 한선은 저판이 평평한 평저선의 구조로 3~7열의 저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 15. 신안 침몰선 복원 단면도(출처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앞의 책,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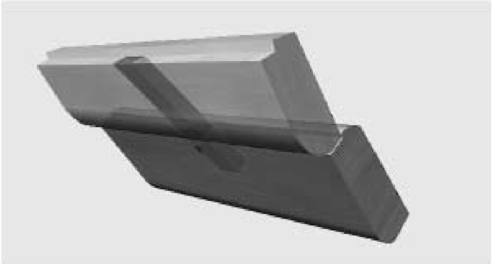


도 16. 마도1호선 복원 단면도(출처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고선박 복원보고서3-마도 1호선 구조 설계와 조선」, 2013)

위의 (도15, 16)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신안선과 전통한선은 완전히 다른 선형을 보이고 있다. 첨저선인 신안선은 용골을 중심으로 V자 형태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으며, 평저선인 한선은 저판의 폭은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나 부드럽게 곡선지어 올라가는 U자 형태의 단면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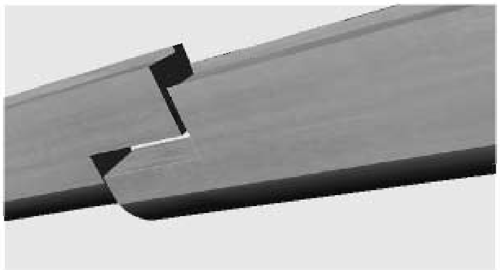
2. 외판구조(선형, 이음구조)

외판의 연결은 외판을 쌓는 방식과 한 단 내에서 부재를 연결하는 방식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외판을 쌓는 방식은 같은 신안선과 한선 모두 홈붙이 클링커 이음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신안선은 외판 하단에 반턱 홈을 올려 아랫단 상단에 붙이는 방식을 사용하는 한편, 한선은 외판 상단에 반턱 홈을 두어 상판을 올리는 방식의 이음을 사용하고 있다(도17).



도 17. 한선 외판 연결 모식도

한 단 내에서 부재를 연결하는 방식은 신안선에서는 외판이 접합되는 면에 홈턱솔이음과 반턱이음을 혼합하여 사용했으며, 이음 부분에 충접 복판재를 사용하여 보강하였다. 한선에서는 대부분 반턱이음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선박에서 맞댄이음도 확인되었다(도18).



도 18. 한선 반턱이음 모식도

3. 외판결구구조(격벽, 늑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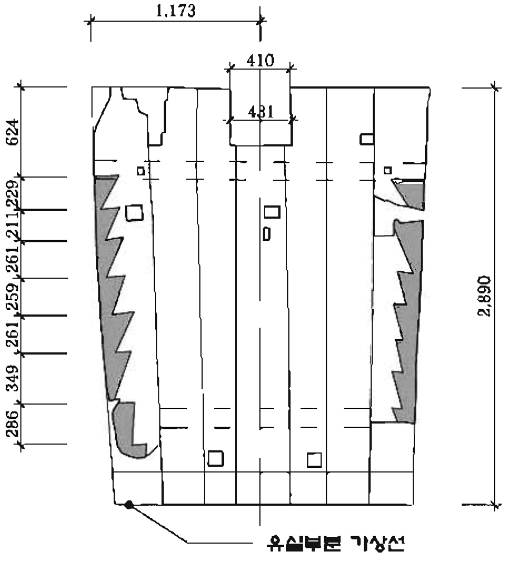
신안선은 7개의 격벽을 설치하여 저판과 양측 외판을 결구하였으며, 격벽은 늑골과 스티프너로 고정하였다. 중국학자 원효춘에 의하면 외판을 모두 완성한 후 격벽과 늑골을 맞추어 설치하였다고 한다.[14]

한선은 선재인 멍에, 가룡, 차가룡으로 외판을 결구시키는 방식을 사용한다. 가룡은 가장 얇은 부재이며, 외판을 관통시켜 설치한다. 차가룡은 외판중간에 멍에처럼 외판 상단에 얹어 설치되는 부재이며, 상부는 외판과 일치하게 가공하여 상단의 외판을 설치한다. 멍에는 가장 상부 외판의 상단에 얹어 설치되는 부재로, 한옥의 대들보와 같은 역할을 한다.

4. 선수 선미

선수와 선미는 신안선과 한선 모두 판재를 사용하고 있다. 선수는 모두 역사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나, 신안선의 경우 판재를 쌓아올리는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한선은 부재를 세로로 세워 결합하였다.

신안선의 경우 역사다리꼴 모양이 세모에 가깝운 형태이며, 내부에 선수보강판을 덧대어 2중으로 제작되었으며, 반턱이음으로 외판과 결구되었다. 한선의 경우 마도1호선에서 선수의 형상을 잘 살펴볼 수 있는데, 역사다리꼴 모양이나 사각형에 가까운 형태이며, 선수의 내측 양옆에는 외판이 결구될 수 있게 톱니바퀴 모양의 홈을 파서 연결하였다(도19).



도19. 마도1호선 선수부재(출처: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13)

선미재 역시 역사다리꼴의 형태이나 모두 쌓아올리는 형태로 되어 있다. 신안선의 경우 격벽 제작과 마찬가지로 외판 형태에 맞게 계단모양으로 제작하여 끼워넣은 구조이다. 한선의 경우에는 달리도선에서 잘 나타나는데, 외판에 닿는 부분을 얇게 다듬어 외판내부에 홈을 파고 맞추어 넣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도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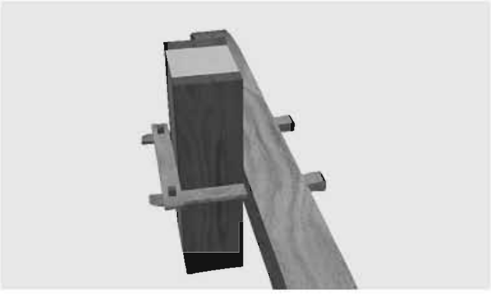
14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앞의 책(2004).

도 20. 달리도선 선미부재(출처: 국립해양물전시관, 「목포 달리도배」, 1999)

도 21. 달리도선 선미부재 삽입 홈(우현 1-3)

5. 돛대구조

신안선의 경우 잔존부재에서 2개의 돛대가 확인되었으며, 돛대와 장각이 함께 빗장으로 결구하고 있다. 한선의 경우 현재까지 발굴된 선박들은 1곳에서의 돛대가 확인되고 있으며, 돛대구조가 확인되는 것 중 안좌선을 예로 들어보면 중앙부 차가룡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결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도22).



도 22. 안좌선 돛대 결구 모식도

V. 향후 연구 방향

현재까지 국내에서의 신안선 연구는 신안선의 선박구조를 확인하고 원형복원을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며, 최근 들어서는 침몰원인을 제시하는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향후 신안선 선박 연구방향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다.

먼저 한선과의 비교연구다. 중국선박과 한선은 세부구조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확연히 확인되는 차이만을 기술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중국과 한국 선박의 구조적 차이점이 배의 성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유사한 중국선박과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신안선의 선체는 현장구조까지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잘 남아있어, 문헌과 회화등을 기반으로 당시의 선박 모습을 복원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 발굴된 중국선박은 신안선과 진도선 2척이지만, 중국의 천주만 송대해선, 남해1호 등 신안선과 유사한 시기에 사용되었으며 국제무역선으로 밝혀진 선박들의 발굴 성과들이 있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중국과의 선박 연구 공유가 많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신안선 연구는 현재 원형복원 이상의 진척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신안선의 선박 연구를 위해서는 중국과의 학술적 교류를 기반으로 중국에서 발굴된 선박들과의 비교 연구가 필수일 것으로 보여진다.

세 번째는 조선공학적 분석의 인문학적 해석이 수반된 선박 연구이다. 현재 전통선박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인문학을 기반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들어 조선공학적 분석이 전통선박 연구 분야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으나, 그 분석결과가 기존 선박연구와 융합되기에는 이질감이 있는 상황이다. 향후 전통선박의 실제적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조선공학적 접근은 분명히 필요한 분야이다. 이를 실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해석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문학과 조선공학 두 가지를 접목하여 복원된 신안선의 운항 성능과 난파원인 등 다양한 분야로의 연구가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Ⅵ. 맺음말

대한민국 최초 수중발굴된 신안선은 중국의 선박이다. 잔존규모 28.4m, 선폭 6.6m의 대형 선체와 함께 도자기 등 유물 2만 6천여점이 함께 발굴되었다. 방대한 유물 수량으로 인해 지금까지 신안선 관련 연구는 도자기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선박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진행된 신안선 선박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차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신안선 발굴결과를 담아 1984~88년에 발간한 『신안해저유물』보고서가 있으며, 신안선 보존처리 및 복원을 완료하고 2004년도의 『신안선 보존 · 복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그리고 3D스캔 및 조선공학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담은 『수중발굴 고선박 원형복원연구-신안선편』이 2008년도에 발간되었다.

또한 신안선 발굴 및 보존 · 복원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2004년에 개최된 『신안선 보존과 복원, 그 20년사』 국제학술대회와 2008년 『동아시아 전통선박과 조선기술』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국내 · 외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공유되었으며, 최근에는 신안선의 침몰 원인을 찾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향후 신안선 선박 연구방향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다. 먼저 한선과의 비교연구다. 향후 연구에서는 중국과 한국 선박의 구조적 차이점이 배의 성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두 번째로 유사한 중국선박과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신안선의 선박 연구를 위해서는 중국과의 학술적 교류를 기반으로 중국에서 발굴된 선박들과의 비교 연구가 필수일 것으로 보여진다. 세 번째는 조선공학적 분석의 인문학적 해석이 수반된 선박 연구이다. 인문학과 조선공학 두 가지를 접목하여 복원된 신안선의 운항 성능과 난파원인 등 다양한 분야로의 연구가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투고일 2020. 11. 27. | 심사개시일 2020. 12. 1. | 게재 확정일 2020. 12. 11.

참고문헌

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신안해저유물』, 1984~1988

국립해양물전시관, 『목포 달리도배』, 1999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신안선 보존 · 복원보고서』, 2004

__________, 『신안선 보존과 복원, 그 20년사』, 2004

__________, 『신안선』, 2006

__________, 『동아시아 전통선박과 조선기술』, 2008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마도2호선』,2011

__________, 『고선박 복원보고서3-마도 1호선 구조 설계와 조선』,2013

__________, 『수중발굴 고선박 원형복원연구-신안선편』, 2018

김병근, 「신안선의 항로와 침몰 원인」, 『아시아 태평양 해양네트워크와 수중문화유산』, 2016

조진욱, 「신안선의 무역모델과 의미」, 『동북아 문화논총』,2017

강원춘, 「신안선 기초설계를 중심으로 한 조선공학적 분석연구」,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2018

신안선 선박 연구 현황과 전망

최유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진행된 신안선 선박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차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신안선 발굴결과를 담아 1984~88년에 발간한 『신안해저유물』보고서가 있으며, 신안선 보존처리 및 복원을 완료하고 2004년도의 『신안선 보존 · 복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그리고 3D스캔 및 조선공학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담은 『수중발굴 고선박 원형복원연구-신안선편』이 2008년도에 발간되었다.

또한 신안선 발굴 및 보존 · 복원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2004년에 개최된 『신안선 보존과 복원, 그 20년사』 국제학술대회와 2008년 『동아시아 전통선박과 조선기술』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국내 · 외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공유되었으며, 최근에는 신안선의 침몰 원인을 찾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향후 신안선 선박 연구가 나아가할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먼저 한선과의 비교연구다. 향후 연구에서는 중국과 한국 선박의 구조적 차이점이 배의 성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유사한 중국선박과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신안선의 선박 연구를 위해서는 중국과의 학술적 교류를 기반으로 중국에서 발굴된 선박들과의 비교 연구가 필수일 것으로 보여진다. 세 번째는 조선공학적 분석의 인문학적 해석이 수반된 선박 연구이다. 인문학과 조선공학 두 가지를 접목하여 복원된 신안선의 운항 성능과 난파원인 등 다양한 분야로의 연구가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신안선, 한선, 전통선박구조, 신안선 복원

Current State and Future Prospects of Sinan Shipwreck

Choi Yu Ri

The research on the Sinan Shipwreck conducted by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NRIMCH) has produced three highly meaningful reports: the Report on the Relics Salvaged from the Sea off Sinan published in 1984-1988, which covers the results of the excavation of the boat; the Report on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the Sinan Shipwreck published in 2004; and the Study on the Restoration of an Ancient Shipwreck - the Sinan Shipwreck, which was published in 2008 and presents the results of the 3D scan-based analysis from a shipbuilding engineering perspective.

The researchers who took part,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process of excavation,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the Sinan Shipwreck conducted the relevant research. They shared the results of their research at various international symposiums held in 2004 under the title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the Sinan Shipwreck and Its 20-Year History and in 2008 under the title of "Traditional Vessels and Shipbuilding Skills of East Asia. More recently, they have endeavored to explore the cause of the Sinan's sinking.

The desirable future directions of research on the Sinan Shipwreck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is a need for research based on a comparison of the Sinan with Korean-made boats, with the focus on the impact that structural differences have on the performance of vessels made in Korea and vessels made in China. Second, there is a need for comparative research with similar Chinese-made boats based on academic exchanges with China. Third, there is a need for research and analysis from a shipbuilding perspective and interpretation from a humanities studies perspective in order to ascertain the sea-worthiness and the cause of the sinking of the boat.

Keywords : Shinan Shipwreck, Korean Traditional Ship, Structure of the traditional ship, Restoration of Shinan Shipwreck

신안선 출수 명문자료 연구 현황과 전망

박예리*

Ⅰ. 머리말

Ⅱ. 신안선 출수 명문의 종류

Ⅲ. 신안선 출수 명문자료 연구 현황과 성과

Ⅳ. 신안선 출수 명문자료 연구과제와 제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신안선 출수 명문자료 연구 현황과 전망

박예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Ⅰ. 머리말

1970~80년대 신안선 수중발굴조사는 중세 동아시아 해상교류사와 문화사 연구의 전환점이었다. 특정 시대의 유물이 대량으로 선적된 난파선은 타임캡슐이라는 찬사와 함께 폭넓은 연구자료를 제공해주었다. 신안선이라는 명칭은 발견된 지명을 따른 것으로 '신안 침몰선', '신안 해저선' 등으로도 불린다.[1] 신안선에는 7백여 년 전의 귀한 무역품들로 가득차 있었다.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송·원대의 중국 도자기, 금속 공예품, 석제품, 향신료, 한약재 등 모두 2만 6천여 점이 실려 있었다. 신안선 화물칸 아래쪽에는 동남아시아 고급 향나무 1천여 점, 중국 동전 8백만 개도 실려 있었다. 그야말로 역사상 최대의 보물선 가운데 하나로, 신안선과 그 선적품들은 중세 중국, 고려, 일본의 해상교류뿐 아니라 생활문화, 경제, 사회 등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신안선은 아시아 수중고고학의 시작이라 할 정도로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었다. 아울러 열악한 수중환경에서도 학계와 정부가 주도한 비교적 체계적이고 학술적인 조사로 평가받고 있다. 이후 아시아 해역 곳곳에서 침몰선들이 발견되고 그 가운데 일부만이 수중발굴조사가 이뤄졌다. 신안선과 비슷한 성격과 시기의 난파선으로는 난하이 1호(南海 1호)와 천주 해선(泉州 海船)이 있다. 난하이 1호는 남송 시기인 12~13세기 초경에 중국 광동성 광주(廣州) 해역에서 침몰된 무역선이다. 1989~2007년 수중발굴조사로 중국 도자기 18만 여 점과 금은 장신구, 금속 공예품, 죽제품, 동전 등이 인양되었다. 천주 해선은 13세기 복건성 천주 해역에서 침몰된 무역선이다. 신안선이 동북아시아 무역선이었다면 난하이 1호와 천주 해선은 동남아시아와 서아시아 무역선이라 할 수 있다. 두 난파선은 송·원대의 새로운 연구 자료를 축적시켜 주었고, 특히 주요 선적품인 무역 도자기 연구 활성화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신안선에 대한 연구는 발굴조사 이후 40여 년 간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가 폭넓게 이뤄져 왔다.

---

1 2016년 국립중앙박물관의 신안선 발굴 40주년 기념 특별전에서는 '신안해저선'을 사용하였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신안선에 대한 연구 동향을 정리하고, 그 안에서 유형별 명문 유물에 대한 연구 성과와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간략하나마 서술해보고자 한다.

Ⅱ. 신안선 출수 명문의 종류

한국 최초의 수중문화재 발굴조사인 신안해저발굴은 1976~1984년까지 9년간 11차에 걸쳐 이뤄졌다. 조사 결과 무역선 1척, 동전 28톤(약 8백만개), 자단목 1100여 점, 그 외 유물 27,617점이 인양되었다(표1).

표 1. 신안선의 주요유물 현황[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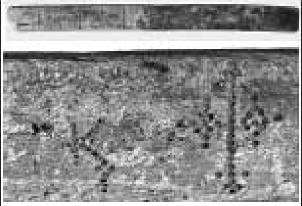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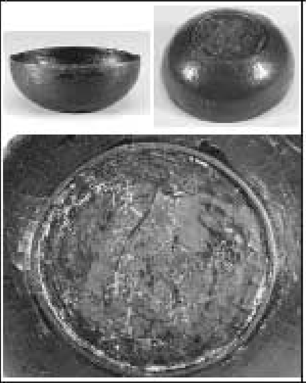
구분	도자기	나무	금속	무시유 도기(토제)	식물씨앗향신료 한약재	석제	기타	계
수량	24,547	1,301	1,065	469	86	66	82	27,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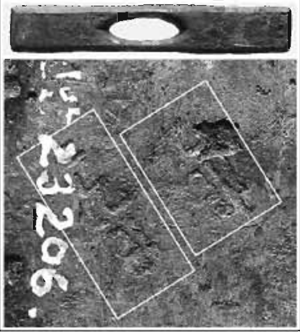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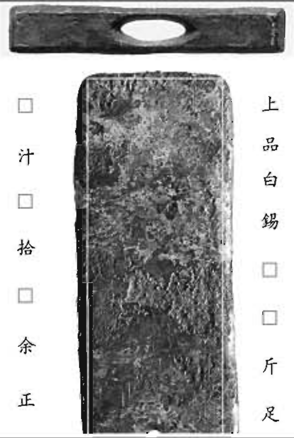
신안선의 명문자료 처음 발견된 시기는 1978년 4차 조사이다. 〈'慶元路' 명청동저울추〉와 묵서명 목간(木簡)으로 신안선의 구체적인 출항지와 항해시기, 항로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관심이 집중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종류의 유물들에서 문자와 기호(표식) 등 명문들이 확인되었다. 명문 자료 현황에 대해 종합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향후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주로 먹으로 쓴 묵서(墨書)와 음각, 양각이 가장 많으며, 재료와 형식도 매우 다양하다. 아래 표는 그 가운데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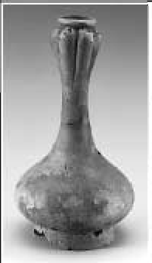
표 2. 신안선의 주요 명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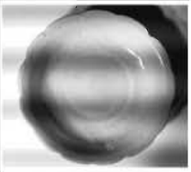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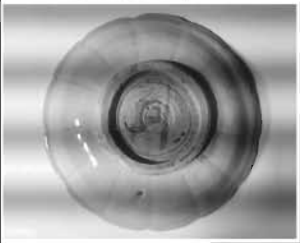
구분	형식	유물명 (유물번호)	사진	명문내용
목제상자	묵서	목제상자 (신안 7209)		(앞면) 大吉
		목제상자	-	(앞면) 得
		목제상자	-	(앞면) 子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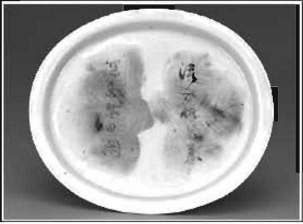
2 국립중앙박물관, 『신안해저문화재 조사보고 총서 1 - 무시유 도기』(지앤에이커뮤니케이션, 2016).

구분	형식	유물명 (유물번호)	사진	명문내용
목제상자		목제상자 (미확인)		(앞면) 大◆ 또는 大勢, 大易
		목제원통형상자 (미확인)		(두껑과 앞면) —十□ 또는 □十—
목간	묵서 (墨書)	목간 (신안 23735 등 364점)		(앞면) 항해시기, 목적지, 화물주인 등 (뒷면) 화물종류와 수량 등
목제자	점서 (點書)	목제 자 (신안 23880)		(앞면) 大吉
목제칠기	음각 (刀刻)	목제발우 (신안 10568)		(굽 내저면) 辛未令舖 珍万一舖造
지단목	음각 묵서	다수		아라비아 숫자, 기호 용도 등에 관한 명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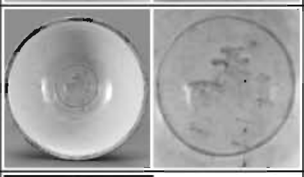
구분	형식	유물명 (유물번호)	사진	명문내용
청동저울추	음각	청동명추 (신안 9937)		(앞면) 庚申年 (뒷면) 慶元路
금속원료	음각	주석정 (신안 22306) (신안 23418)		(뒷면) 王九郎 九郎
	음각	주석정 (신안 23207)		(뒷면) 上品白錫□□斤足 □汁□拾□余正
금속제품	음각	은제연화문잔 (신안 6649) (신안 5943)		(내저면) 王九郎
		은제합 (신안 13282)		(뚜껑) 壽

구분	형식	유물명 (유물번호)	사진	명문내용
금속제품	전서 (篆書)	청동병 (신안 6642)		(굽 내저면) 子孫永寶用之
	전서 (篆書)	청동병		(굽내저면) 宜爾子孫
	전서 (篆書)	청동작 (신안 4041) (신안 6640)		(구연부 외면) 光風霽月
	양각	청동종 (신안 24513)		(동체) 漢□鐘 □□宮 眉壽
청동 거울	양인각	청동거울 (신안 23838)		(뒷면) 家, 常, 富, 贵
		청동거울 (신안 6644)		(뒷면) 子厚

구분	형식	유물명 (유물번호)	사진	명문내용
도자기	묵서	청자접시 (신안 13917)		(굽 내저면) 묵흔이 일부 지워짐
		청자접시 (신안 4981)		(굽 내저면) 묵흔이 일부 지워짐
		청자접시 (신안 4839)		(내저면) 묵서 5자
		청자접시 (신안 4752)		(내저면) 묵서 5자

구분	형식	유물명 (유물번호)	사진	명문내용
도자기	묵서	청자대접		(내저면) 묵흔이 일부 지워짐 福으로 추정
		청자대접 (신안 4807)		(내저면) 묵흔이 일부 지워짐
		흑유사이호 (신안 9276)		(뚜껑 내부) 綱司
		도기사이호 (신안 17916)		(동체 중심부) 十一
		도기사이호 (신안 8381)		(동체 중앙부) 長長
	유리홍	청백자접시 (신안 18994)		(내저면) 流水何太急 深宮盡日閑

구분	형식	유물명 (유물번호)	사진	명문내용
도자기	음각	청자접시 (신안 6717)		(굽 내저면) 使司帥府公用
		청자접시 (신안 15778)		(굽 내저면) 使司帥府公用
		청자접시 (신안 18414)		(굽 내저면) 進
	인각	백자완 (신안 1879 등 다수)		(내저면) 白玉滿堂

구분	형식	유물명 (유물번호)	사진	명문내용
도자기	인각	백자대접 (신도 1708 등 다수)		(내저면) 壽山福海
		백자대접 (신도 937 등 다수)		(내저면) 長命富貴
		백자접시		(내저면) 麝香眼石竹 鸚鵡啄金桃
		청자뚜껑 (미확인)		(외면) 天下太平
놀이도구	묵서	목제장기판 (신안 12703)		묵흔의 격자 장기판
		목제장기말 (신안 23930 등)		(앞뒷면) 묵서

Ⅲ. 신안선 출수 명문자료 연구 현황과 성과

1. 신안선 연구 40년 현황

신안선에 대한 연구는 발굴조사가 시작된 1년 후부터 시작되었다 할 수 있다. 1977년 국립중앙박물관은 신안선 유물을 최초로 공개하는 신안해저유물 특별전과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3] 1976~77년은 신안선에서 고려청자 3점을 비롯하여 유물 6,900여 점이 인양되었던 시기이다. 학

3 국립중앙박물관, 『新安海底文物:新安海底引揚文化財圖錄』(월간문화재사, 1977) ; 同著, 『新安海底文物』(삼화출판주식회사, 1977) ; 同著,, 『新安海底文物 國際學術大會 主題發表』(광명인쇄공사. 1977) ; 中國古外銷陶瓷研究會編, 『中國古外銷陶瓷研究資料』第 I 輯(1981) ; 月刊文化財社, 『新安海底引揚文化財圖錄』, 月刊文化財社(1977).

술대회 발표 주제는 신안선의 항로와 13~14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 송원대 무역 도자기 등이었다. 이때 신안선에서 출수된 청자대화병과 퍼시벌 데이비드 파운데이션(현 The British Museum)의 〈'泰定四年' 명청자양인각모란당초문대화병〉(1327년)의 기형적 유사성을 근거로 신안선 도자기의 하한이 1320년대로 제시됨으로써, 송·원대의 세계 도자기 무역에서 동아시아 지역 무역 도자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비교 연구의 이끌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4]

1978년 4차 조사에서는 5,046점이 인양되었다. 이때 〈'慶元路' 명청동저울추〉와 묵서명 목간 등 문자 명문 유물이 발굴되어 신안선 연구는 더욱 활력을 얻었다. 13~14세기 중국 송·원대 무역선으로만 추정되었던 신안선의 구체적인 항해시기와 항로까지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관심이 집중되지는 않았지만 간지(干支)가 쓰여진 〈'辛未兮捷' 명칠기발〉 1점도 발견되었다. 1981년 7차 조사에서는 원나라(元)의 관청에서 사용되었던 〈'使司帥府公用' 명청자접시〉가 인양되어 기물별 세부적인 편년 연구 자료가 되었다. 그리고 선체 좌현과 선수 등에서 동전이 집중적으로 확인되는 등 다양한 종류의 유물들이 대량 출수되었다. 이 시기부터는 출수품을 근거로 신안선의 침몰 시기와 항로(출항지·목적지), 무역 활동의 주체, 활물주, 유물의 연대, 산지, 용도, 신안선 선체 구조와 보존 등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와 관심이 이뤄졌다.[5]

---

4 고미경, 「신안선 도자기 연구 40년과 쟁점」, 『해양문화재』제9호(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6), p. 182.

5 ① 도자기 – 정양모, 「陶磁器」『新安海底遺物(資料篇Ⅰ)』(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편, 1981), pp. 271~237 ; 同著, 「陶磁器」, 『新安海底遺物(資料篇Ⅱ)』(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편, 1984), pp. 13~37 ; 同著, 「陶磁器」, 『新安海底遺物(資料篇Ⅲ)』(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편, 1985), pp. 7~56 ; 同著, 「陶磁器」, 『新安海底遺物(綜合篇)』(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편, 1988), pp. 367~396 ; 정양모저, 程曉中譯, 「新安海底發現的陶瓷器的分類與有關問題」, 『海交史研究』총15기(1985) ; 정양모, 「新安海底遺物을 통해 본 14世紀 東Asia의 陶磁文化」, 『震檀學報』제71·72호(진단학회, 1991), pp. 382~394 ; 同著, 「韓国新安沖海底引き上げ文物」, 『世界美術大全集–元』(1999), 東京:小學館 ; 西田宏子, 「新安海底に沈んだ茶壷」, 『陶說』364, (日本陶磁協會, 1983) pp. 42~45 ; 中島誠之助, 「墨書銘青白磁香爐」, 『陶說』 364, pp. 50~54 ; Wondong Kim, "Chinese Ceramics from the Wreck of a Yuan Ship in Sinan, Korea–with Particular Reference to Celadon Wares", Ph.D dissertation(University of Kansas 1986) ; 이지연, 「十二至十四世紀中國瓷器的發展和外銷」, 『中國歷史博物館館刊』(北京:中國國家博物館, 1992), pp. 31~36 ; 亀井明德, 「新安沈没船の問題点」, 『陶說』364, pp. 21~34 ; 同著, 「日元陶磁貿易の樣態–新安沈没船をめぐって–」, 『日本貿易陶磁史の研究』(1986) ; 同著 「和好賞翫の青瓷」, 『専修大學人文科學年報』第28號(1998) ; 山本信夫, 「新安海底遺物」, 『考古學による日本歷史10–對外交涉』(東京:雄山閣出版株式會社, 1997) ; 横田賢次郎·森本朝子·山本信夫, 「新安沈船と大宰府、博多の貿易陶磁器–森田勉氏の研究成果に寄せて—」, 『貿易陶磁研究』9(日本貿易陶磁研究會, 1989), pp. 15~25 ; 國立歷史民俗博物館編, 『陶磁器の文化史』(1998) ; 宮井善朗, 「新安海底沈沒船とその引揚遺物」, 『福岡市博物館特別企画展別册圖錄 : 北条時宗とそ時代展』(福岡 : セソトテル印刷株式會社, 2002) ; 國立歷史史民俗博物館, 「東アジア中世海道 –海商·港·沈沒船–」(東京 : 每日新聞社, 2005) ; 金英美, 『국립중앙박물관名品選集 18 – 신안선과 도자기의 길』(通川文化史, 2005) ; 고미경, 「신안해저 출토 용천요 청자 연구」(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新安船과 東아시아 陶瓷交易』(그라픽네트, 2016) ; 栗建安, 「從山林到海洋–貿易全球化中的福建陶瓷生産與外銷」, 『考古學視野中的閩商』(北京 : 中華書局, 2010), pp. 49~63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한국 마도Ⅱ구역 해저 출수의 중국 福建도자와 도자교역」, 『고려의 난파선과 문화사』(2016), p. 119 ; 국립중앙박물관, 『신안해저문화재 조사보고총서 1 – 무시유 도기』(지앤에이커뮤니케이션, 2016) 등.
② 금속기 – 李浩官, 「金屬製品」, 위의 책(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편, 1981), pp. 238~260 ; 同著, 「金屬製品」, 위의 책(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편, 1984), pp. 38~72 ; 同著, 「金屬製品」, 위의 책(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편, 1985), pp. 35~56 ; 同著, 「金屬製品(銅錢)」, 위의 책(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편, 1988), pp. 147~243 ; 矢部良明, 「韓国新安沖引き揚げの青銅器の意義」, 『陶說』 364, pp. 39~41 ; 국립해양유물전시관編, 『신안선 속의 金屬工藝』(예맥출판사, 2017) ; 久保智康著, 彭濤譯, 「新安沉船裝載的金屬工藝品—其特點以及新安沉船返航的性質」, 『南方文物』第4期(南

신안선 발굴이 마무리되어 가던 1983년에는 한일 양국의 공동주관으로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6] 여기에서 윤무병은 신안선에서 출수된 〈'至治三年' 명목간〉을 근거로 신안선의 침몰 연대를 1323년이라 제시하였다. 또한 '慶元路' 와 '庚申年' 명 청동저울추, '東福寺' 묵서명 목간을 근거로 출항지와 항해 시기, 목적지를 제시하였다.[7]

2006년 국립해양유물전시관(현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은 신안선 발굴조사 30주년을 기념한 특별전과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국내외 학자들이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8] 이 시기는 명문 연구보다 14세기 아시아 해상무역과 신안해저유물이라는 주

昌 : 江西省文物考古研究所, 2008), pp. 142~154 ; 久保智康著, 留井譯, 「新安沉船中的金屬工藝品-以其特點及新安船航綫的性質爲中心」, 『福建文博』(2009), pp. 113~126 ; 국립중앙박물관, 『신안해저문화재 조사보고 총서 2 - 금속공예』(삼성문화인쇄, 2016).

③ 동전 - 윤무병, 「銅錢」, 위의 책(문화공보부 · 문화재관리국 편, 1984), pp. 73~81.

④ 목간 - 윤무병, 「木牌」, 위의 책(문화공보부 · 문화재관리국 편, 1984), pp. 89~97 ; 同著, 「木牌」, 위의 책(문화공보부 · 문화재관리국 편, 1985), pp. 62~66 ; 同著, 「木牌」, 위의 책(문화공보부 · 문화재관리국 편, 1988), pp. 253~260 ; 西谷正, 「新安海底発見の木簡について」, 『九州文化史研究所紀要』 第30號(九州大學九州文化史研究施設, 1985).

⑤ 석제품 - 이난영, 「石制品」, 위의 책(문화공보부 · 문화재관리국 편, 1981), pp. 261~263 ; 同著, 「石制品」, 위의 책(문화공보부 · 문화재관리국 편, 1984), pp. 82~84. ; 김기웅, 「石制品」, 위의 책(문화공보부 · 문화재관리국 편, 1985), pp. 57~58.

⑥ 목제품과 골제품 - 김기웅, 「木制品」, 위의 책(문화공보부 · 문화재관리국 편, 1981), pp. 264~268 ; 同著, 「木制品 · 骨制品」, 위의 책(문화공보부 · 문화재관리국 편, 1984), pp. 85~88 ; 同著, 「木制品」, 위의 책(문화공보부 · 문화재관리국 편, 1985), pp. 59~61.

⑦ 이창복, 「植物材料」, 앞의 책(문화공보부 · 문화재관리국 편, 1981), pp. 269~273 ; 同著, 「植物材料」, 앞의 책(문화공보부 · 문화재관리국 편, 1984), pp. 113~120 ; 同著, 「植物類」, 앞의 책(문화공보부 · 문화재관리국 편, 1988), pp. 261~265 ; 金子量重, 「植木鉢の示唆するもの」, 『陶說』364, pp. 45~48.

⑧ 항해시기와 항로 - 三上次男, 「新安海底の元代宝船と沈没の年代」, 『陶說』 364, pp. 15~21 ; 金元東, 「新安引揚을 中心으로 한 元代海外貿易에 關한 小考」, 『大邱史學』 第34集(大邱史學會, 1988) ; 同著, 「新安에서 沈沒된 元代 木船의 沈沒年月과 引揚된 陶磁의 編年에 관한 研究」, 『美術資料』제 42호(국립중앙박물관, 1988).

⑨ 신안선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침몰선 · 침몰선 發現遺物의 保存處理』(예맥출판사, 2001), 국립해양유물전시관, 『新安船 보존 · 복원 보고서』(예맥출판사, 2004)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발굴 고선박 원형복원 연구-신안선』(2020).

6 東京國立博物館編, 『침몰선 · 침몰선 發現遺物의 保存處理』『新安海底引揚げ文物報告書』(東京:中日新聞社, 1983) ; 東洋陶磁學會編, 『東洋陶磁』10 · 11(東京 : 東洋陶磁學會, 1984). 이 책의 수록 논문으로 三上次男, 「新安海底引揚げ文物 国際シンポジウムに寄せて」, pp. 5~7 ; 尹武炳, 「新安引揚げ文物の性格と歴史的意義」, pp. 9~14 ; 정양모, 「新安発見陶磁器の種類と諸問題」, pp. 15~20 ; 馮先銘, 「新安海底沉沒船引揚げ陶磁器に関連した問題に対する検討」, pp. 27~32 ; 崔淳雨, 「朝鮮半島出土の宋元陶磁と新安引揚げの高麗陶磁」, pp. 33~36 ; 楢崎彰一, 「日本出土の宋元陶磁と日本陶磁」, pp. 37~58 ; Watt James C., "Chinese Trade Ceramics in South east Asia", pp. 57~62 ; Evangelista Alfredo E., "Trade Ceramics Recovered from a Sunken Wreck off the Southwestern Coast of Marinduque Island, Central Philippines", pp. 62~65 ; 葉文程, 「宋元時代の中国東南沿岸地区における輸出陶磁器の実情」, pp. 67~74 ; 三上次男, 「十三-十四世紀の中国陶磁の商圏」, pp. 75~87 ; 松木哲, 「十三-十四世紀の貿易船(泉州 · 新安の船を中心に)」, pp. 89~91 ; 長谷部樂爾, 「新安出土の青磁について」, pp. 103~105 ; Wirgin Jan C., "Ch'ing-pai and Other White Porcelain Wares from Sinan", pp. 107~120 ; Ayers John, "Chi-chou and Temmoku Wares from Sinan", pp. 121~130 ; 佐藤雅彦, 「新安出土の[ホウ]鈞窯白濁釉陶について」, pp. 131~136 ; 李知宴, 「新安海底文物の発見から龍泉青磁の発展をみる」, pp. 137~146 ; 徳川義宣, 「いわゆる「呂宋壺」」, pp. 147~152 ; 李蘭暎, 「新安出土の金工品」, pp. 153~158.

7 고미경, 「신안선 도자기 연구 40년과 쟁점」『해양문화재』 제9호(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6), p. 184.

8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신안선과 동아시아 도자 교역』(그라픽네트, 2016)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개최 신안선 발굴 30

제로 신안선의 의의, 신안선 출수 도자기, 아시아 해상교통과 무역, 아시아 수중고고학 현황과 전망 등에 대한 관심이 주를 이루었다. 2016년 신안선 발굴조사 40주년을 계기로 국립중앙박물관은 국제학술대회와 특별전 〈신안해저선에서 찾아낸 것들〉을 개최하였다.[9] 학술대회에서 小池富雄(고이케 도미오)는 「신안선의 중국 칠기로 판명된 칠공예사 상의 중요한 지견」발표문에서 〈‘辛未兮揗’ 명목제칠기발우〉(신안 10569) 등 신안선 칠기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칠공예사를 비교 연구하였다. 특별전에서는 신안선의 중세 문화 기호와 14세기 동아시아 해상무역을 주제로 소장품의 90%인 2만 여점의 유물을 공개하였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도 2016년 〈대한민국 수중발굴 40년〉과 2017년 특별전 〈신안선과 그 보물들〉을 개최하여 신안선 출수 유물들을 집중 조명하였다. 다만, 지금까지의 전시에서는 신안선의 다양하고 의미 있는 명문 유물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으며 관련 연구 성과도 반영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다음으로는 현재까지의 신안선 출수 주요 명문 유물에 대한 연구 성과를 주제별로 정리해 보았다. 아울러 명문 판독과 해석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문자, 기호 등이 확인된 사례들을 간략하게나마 명문 형태와 내용 등으로 분류하여 소개하고자 하였다.

2. 출항지 단서

신안선은 중국 남부 복건성에서 건조된 240톤(선체 중량 118톤, 화물 중량 122톤), 길이 30.1m, 높이 4m, 너비 11.7m 규모의 대형 무역선이다.[10] 1976년 수중발굴조사가 시작되면서 어

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2006.11.17.~11.19.) “14세기 Asia 해상교역과 신안해저유물”은 모두 5개 주제로 진행되었다. 第1主題 ‘新安海底發掘의 意義’. 정양모, 「新安船調査成果의 意義」; 李盆株, 「新安海底遺蹟의 歷史와 意義」. 第2主題 ‘Asia 海上Silk Road의 歷史와 文化’. 洪錫俊, 「東Asia의 海上Silk Road와 港口城市, 그리고 伊斯蘭」; Singgih Tri Sulis tiyono, “Southeast Asian Maritime Silk Road and Trade Activities : Patterns of Trade Around the Strait of Malacca Before the Coming of Europeans”; 楊照全, 「14世紀 Asia海運과 文化交流-韓中關係를 中心으로」; 藤田明良, 「中世 東Asia의 海港의 立地와 環境-中國日本」. 第3主題는 ‘Asia海上交易와 交易品’. 謝明良, 「清香壺에 關하여 – 台湾發现事例를 中心으로」; 池田榮史, 「琉球에서 본 中世 東北Asia의 交易路와 交易品」; John Carswell, “The Shinan Wreck:Sri Lanka, Syria, the Red Sea, and westwards into Europe”; Regina Krahl, “Yuan Ceramics in Islamic Lands”. 第3主題 ‘新安海底出土 陶磁器의 生産과 流通’. 金英媛, 「新安海底 出土 中國磁器의 現況과 性格」; 沈岳明, 「龍泉青瓷的對外輸出」; 江建新, 「景德鎮宋元时期瓷器外銷与新安沉没船中的瓷器-兼論高麗青瓷和朝鮮白瓷青花與景德鎮窯之關係-」; 韓盛旭, 「新安船出土高麗青磁性格」; 小野正敏, 「日本における新安船出土陶磁器の用途と意味」. 第5主題 ‘Asia의 水中考古學現況과 展望’. 金聖范, 「韓國水中考古學現況과 新安海底遺蹟, 그리고 展望」; 張威, 「中國水中考古學의 基本原則과 方法의 活用」; 林田憲三, 「日本の水中考古学の现況と展望」; Jean-Luc Massy, “Present and Future of the Underwater Archaeology in Europe”; 袁曉春, 「中國蓬萊水城古船發掘與成果」; Michel L’Hour, “The Brunei Shipwreck Excavation : Asian Maritime trade along the Borneo Coast at the End of the 15th Century”.

9 국립중앙박물관, 『발굴 40주년 기념 특별전 : 신안해저선에서 찾아낸 것들』(그라픽네트, 2016); 국립중앙박물관, 『신안해저선 발굴 4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2016) 자료집에는 秦大樹, 「원대 해상무역과 신안선 관련 문제」; morris Rossabi, 「원나라의 해상활동」; 森達也, 「신안선 발견 중국도자의 조성 연구」; 小池富雄, 「신안선의 중국 칠기로 판명된 칠공예사 상의 중요한 지견」, 김영미, 「송·원대 항저우 미술품 시장과 교역」; 김영원, 「신안선 자기와 고려 유적 출토 원대 자기」; 小林仁, 「중국에서 출토된 고려청자 –신안선에서 발견된 고려청자에 대한 새로운 관점」; 장남원, 「물질문화 관점으로 본 고려청자」가 실렸다.

10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신안선 원형 복원 보고서』(2018), p. 141.

는 시대, 어느 나라 국적의 선박일까라는 것에 관심이 크게 집중되었다. 이것은 9년간의 수중발굴 성과인 신안선과 선적품들을 통해 하나씩 밝혀지게 되었다.

신안선 선체에서 발견된 단서는 중국 복건성 천주지역의 선박 건조방식과 전통 풍습 흔적이다. 중국은 기다란 해안선을 따라 산동성의 사선(沙船), 절강성의 조선(鳥船), 복건성의 복선(福船), 광동성의 광선(廣船) 등 4종류의 선박 유형이 발달하였다. 신안선은 용골(龍骨)을 중심으로 좌 · 우현, 선수, 선미가 이어져 V자를 이루는 첨저형 선박인데 이것은 복건지역 선박의 구조적 특징이다. 또한 선체에서 확인된 '보수공(保壽孔)'은 신안선의 국적과 출항지에 대한 중요 단서를 제공해주었다. 보수공은 선박의 안전한 건조와 항해를 위해 선체에 구멍을 뚫어 청동거울이나 동전을 넣는 것으로 천주지역의 오랜 전통 풍습이었다.[11]

그러나 결정적인 출항지 단서는 '慶元路'가 새겨진 청동저울추 1점에 있었다(도1). 이 저울추는 1978년 4차 수중발굴에서 발견되었다. 저울추는 무역과 상거래에 사용되는 도량형 도구로서 신안선에서는 저울추, 저울접시, 자(尺) 등 25점이 출수되었다.[12] 육각과 원형 두 종류인데, 육각 저울추 1점(높이 9.3cm, 무게 248.76g, 신안 9937)에는 '庚申年'(앞면), '慶元路'(뒷면)가 각각 새겨져 있다. 경원로는 오늘날 중국 절강성 영파(寧波)의 원나라 때 지명으로 신안선의 출항지가 당시 국제무역항 '경원'이었음을 알려주었다. 경신년은 저울추가 제작된 시기로, 목간의 '至治三年'(1323) 묵서기록과 신안선 여러 선적품들의 편년으로 볼 때 1320년일 가능성이 높다.

도 1. 경원로명 저울추(뒷면), 신안선 출수

도 2. 1281년 저울추(至元18年), 절강성박물관

도 3. 1305년 저울추(大德9年, 慶元路總管府), 영파시립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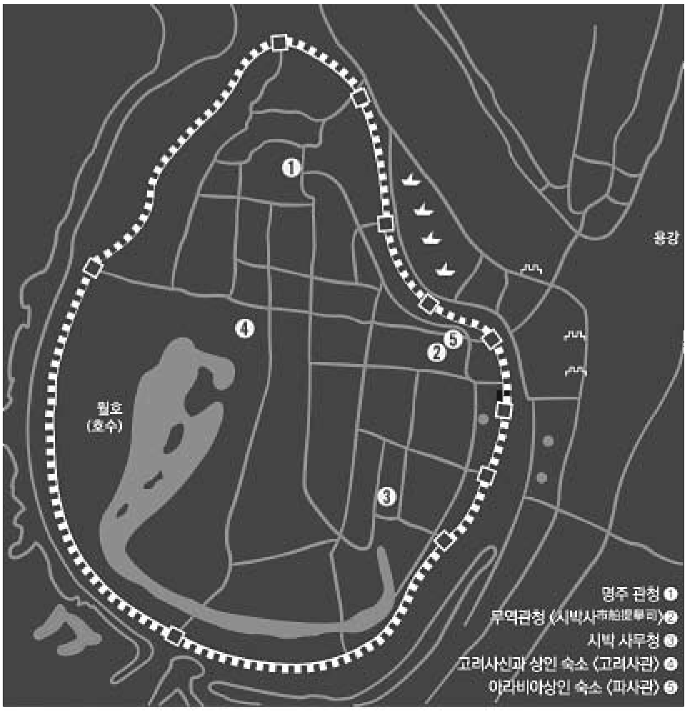
도 4. 1325년 저울추(泰定2年, 慶元路提官), 영파시립박물관

이후 중국 절강성박물관 영파시립박물관, 우주구문물관리위원회(鄞州区文物管理委員會) 소장의 유사한 저울추 유물들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慶元路' 명 저울추〉의 성격을 보다 폭넓

11 김병근, 『신안보물선의 마지막 대항해』(주류성, 2014), pp.84~86.

12 국립중앙박물관, 『신안해저문화재 조사보고 2 - 금속공예』(지엔케뮤니케이션, 2016), p. 191.

게 이해할 수 있었다. 원나라(1271~1368) 때는 관부(管府)에서 도량형기를 독점적으로 제작하였으며, 건국 이후부터 지정(至正, 1341~1368) 연간까지 해마다 연호가 바뀌면 새로운 연호를 기물들에 새겼다. 이때 만든 연호명 저울추는 오늘날까지 전해온다. 절강성박물관은 '至元十八年' (1281)부터 '至和元年' (1328), '至正元年' (1343)에 이르는 명문 청동저울추 여러 점을 소장하고 있다. 영파시 우주구문물관리위원회(鄞州区文物管理委員會)에도 〈'慶元路' 명 저울추〉 2점이 있는데 황제 연호와 관부 명칭이 새겨져 있다. ① 앞면 '泰定二年造', 뒷면 '慶元路ㅁㅁ 提ㅁ官', ② 앞면 '乙巳大德九年', 뒷면 '慶元路 總管府' 등이다. 태정2년은 1325년이며, 대덕9년은 1305년으로 모두 성종 재위 시기에 경원로 관부에서 제작한 것임을 알 수 있다(도2~4).[13]



도 5. 송대 경원항 지도(당시 명주, 현 중국 영파시)

경원은 지리적으로 용강(甬江), 봉화강(奉化江), 요강(姚江) 등 대륙의 운하와 바닷길이 연결되어 중국 남·북방 물산의 국내외 유통 거점이었다. 북송시기에는 왕실 선박을 건조하는 관영 조선소가 설치되었다. 남송의 수도가 항주(杭州)로 옮겨지면서 가까운 경원은 이후 주요 국제무역항으로 성장하였다. 당시 천주(泉州)와 광주(廣州)가 중계 무역항이었다면, 경원은 내륙의 생산지와 연결된 국제 무역항이었다(도5). 특히 신안선이 항해했던 원대 때는 고려와 일본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아라비아 상인까지 왕래하는 국제 항구 도시로 크게 성장하였다. 1277년 경원에는 중국의 해상무역 관청인 '시박사(市舶司)'가 설치되었다. 시박사는 당대부터 명대 때까지 운영된 관청으로, 무역선의 허가증[공빙, 公憑] 발급과 세금 징수, 화물 검사, 불법행위 단속 등을 담당하였다. 송·원나라는 활발한 교류를 위해 고려 사신의 편의시설인 정(亭)·관(館)을 주요 무역항에 세웠다. 11~12세기경 절강성 경원에는 낙빈관(樂賓館, 1079)과 고려사관(高麗使館, 1117)이 만들어졌다.

13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그라픽네트, 2016). pp. 102~105.

이상으로 〈‘慶元路’ 명 청동저울추〉를 중심으로 신안선 출항지 연구와 관련 자료들을 살펴 보았다. 청동저울추의 ‘경원로’(오늘날 영파시), ‘경신년’(제작시기 1320) 명문을 통해 신안선의 출항지와 항해시기를 규명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아시아 해양교류사에서 중국 경원항의 위상과 성격을 이해할 수 있었다.

3. 항해 시기와 목적지 단서

신안선의 항해시기와 항로는 다량의 묵서명 목간, 〈‘庚申年’ 명 청동저울추〉(1320), 주조와 유통 시기가 확인된 중국동전, 〈‘辛亥’ 명 목제칠기발우〉, 〈‘使司帥府公用’ 명 청자접시〉 등이 출토되면서 연구자들의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다.

먼저, 목간은 신안선의 명문이 가장 잘 남아 있는 묵서 유물이라 할 수 있다. 목간은 『新安海底遺物』 자료편 Ⅱ · Ⅲ · 종합편에 형식과 내용 등이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후 보고서 공개자료를 중심으로 판독과 해석에 대한 여러 견해들이 제시되었다.[14] 목간은 항해 시기뿐만 아니라 당시 무역 상황을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히 복원해주는 명문 자료이다. 즉, 신안선이 1323년 음력 6월 초 이후에 중국 경원항에서 일본 하카타와 교토를 향해 출항하였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던 것은 목간의 풍요로운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신안선의 목간은 모두 364점 확인되었으며 화물표 성격의 표찰이다. 지금까지 한 유적에서 발굴된 중세 아시아 목간으로는 가장 많은 수량으로 추정된다. 목간은 1976년 신안해저발굴이 시작되고 6년이 지난 1982년에 발견되었으며 이듬해 1983년까지 선체 내부 여러 구역에서 집중적으로 발굴되었다. 주로 무역품 상자나 동전꾸러미 등과 함께 있었다. 길이는 약 10~20cm, 넓이 2~3cm 정도로 재질은 소나무나 삼나무이다. 묵서는 평편하게 다듬어진 나무 앞 · 뒷면에 적혀 있다. 아래 표(목간 현황)는 364점 가운데 284점을 분류한 것이다(표3).

표 3. 주요 목간 현황[15]

명문	東福寺	釣寂庵	筥崎八幡宮	綱司私	教仙	一田早米	八郎	松菊得	菊一	福四斗	又七	甘草(?)郎	本とう二郎	とう二郎	いや二郎	まこ三郎
수량	41	5	3	110	7	14	18	6	9	10	2	1	2	8	2	9

14 윤무병, 「木牌」, 『新安海底遺物(資料篇Ⅱ)』(문화공보부 · 문화재관리국 편, 1984), pp. 89~97 ; 同著, 「木牌」, 『新安海底遺物(資料篇Ⅲ)』(문화공보부 · 문화재관리국 편, 1985), pp. 62~66 ; 同著, 「木牌」, 『新安海底遺物(종합편)』(문화공보부 · 문화재관리국 편, 1988), pp. 253~260 ; 西谷正, 「新安海底発見の木簡について」, 앞의 책(九州大學九州文化史研究施設, 1985 · 1986) ; 龜井明德, 「日元陶磁器貿易の失態 -新安沈沒船をめぐって」, 『日本貿易陶磁史の研究』(1987) ; 김원동, 「신안에서 침몰된 원대 목선의 침몰년월과 인양된 도자의 편년에 관한 연구」『미술자료』 42(1988) ; 이용현, 「신안해저발견 목간에 대하여」『고려 조선의 대외교류』(국립중앙박물관, 2002) ; 김병근, 『신안 보물선의 마지막 대항해』(주류성, 2014) ; 同著, 『수중고고학에 의한 동아시아 무역관계 연구』(국학자료원, 2004).

15 이용현, 위의 글(국립중앙박물관, 2002), p. 166. ; 김병근, 위의 글(주류성, 2014), pp.213~230.

명문	又三郎	衛門次郎	教仙	道阿於	常得	隨忍	秀忍	元仁	守中	子哲	妙行	元仁	得法	戒心	正悟	계
수량	3	3	7	4	3	5	2	2	2	1	1	1	1	1	1	284

목간의 명문은 화물 관련 사람이름, 일본 사찰과 신사명, 날짜, 수량, 무게, 품목, 화압 등의 내용으로서, 신안선의 항해시기와 화물의 성격에 대한 풍요로운 정보가 담겨 있다. 사람이름과 일본 사찰, 신사명은 화물의 목적지(주인 · 주문자)나 대리인 등으로 추정된다.

날짜가 기록된 목간은 121점이다. 1323년을 뜻하는 '至治三年(參年)' 과 4월 2일부터 6월 3일까지 약 두 달간의 날짜가 적혀 있어 신안선은 적어도 1323년 6월 3일 이후에 항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날짜들은 항해 시기 또는 무역품 구입(수집), 포장 시기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많은 것은 '綱司(강사)' 명으로 110점이다. 주로 강사 목간의 앞면에는 綱司私+수결, 뒷면에는 날짜와 품명, 수량 등이 적혀 있다. 사(私)자는 공(公)과 사(私) 의미가 아닌 하물의 처분 판매권의 의미한다는 의견이 있다.[16] 날짜는 5월 11일과 6월 3일 두 차례이며, 6월 3일 목간 48점에는 '七十三包六百內' 라 적혀 있다.

강사는 개인 이름이 아닌 고려와 일본을 오갔던 중국 상인 조직(상단)이나 선단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중국의 기록을 근거로 불교 승려들을 감독하는 승강사(僧綱司)의 줄임말로 보는 의견도 있다.[17] 묵서 '綱(강)' 이 기록된 유물은 신안선 외에도 서해의 태안 마도해역, 일본 하카타 대외교류 유적, 중국 천주만 해선(海船)과 남해1호 유적, 대만, 필리핀 등에서도 출토된 사례가 있다. 천주만 해선은 중국 복건성 천주만의 후저항(后渚港)에서 난파된 13세기 후반경의 송나라 무역선으로, '綱司' 명 목간을 포함한 목간 33점, 도자기, 장기알 등 다양한 묵서 명문들이 확인되었다. 중국식 장기말의 경우 將(장), 車(차), 象(상), 馬(마), 士(사) 등이 적혀 있는데, 신안선에서도 묵서명 장기말을 비롯한 바둑알, 주사위 등 놀이도구가 출수되었다.

목적지의 단서가 되는 지역과 장소가 적힌 목간은 49점이다. 일본 '東福寺(동복사)' (41점) , '釣寂庵(조적암)' (5점), '筥崎八幡宮(궁기팔번궁)' (3점)이다(도6). 동복사 명 목간에는 대부분 동전과 '公用(공용)' 자가 적혀 있다. 동복사는 임제종(臨濟宗) 사찰로 924년 성일국사(聖一国師)가 세웠다. 1319년 화재로 불에 타 1325년 재건되었는데, 이때 중국에 건장사조영선을 파견하였다는 가마쿠라막부의 공식 기록이 있다. 일본의 국제무역 관문인 하카타(博多)의 조적암(釣寂庵)은 승천사(承天寺) 탑두(塔头, 암자)의 하나로 동복사와 마찬가지로 성일국사가 창건하였다. 하카타의 하코자키야와타궁(筥崎八幡宮)은 해상 교통과 국방 안전을 기원하는 신사로 알려져 있다.

16 이용현, 위의 글(국립중앙박물관, 2002), p. 162.

17 김병근, 위의 책(주류성, 2014), p. 224.

도 6. 동복사명이 적힌 목간

도 7. 사람이름이 적힌 목간

사람이름이 적힌 목간은 '敎仙(교선)', '一田早米(일전조미)', '八郎(팔랑)', '松菊得(송국득)', '菊一(국일)', '得法(득법)' 등 27종 125점이다. 이름은 상인, 개인, 승려 등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한자와 일본 히라가나를 혼용하여 적은 이름도 있다. 이들 중에는 동복사(東福寺), 조적암(釣寂庵), 하코자키야와타궁(筥崎八幡宮) 관련 유학 승려들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교선' 목간의 경우, 이름 성격뿐만 아니라 '筥崎奉加錢(궁기봉가전)', '勸進聖(권진성)', 동전 관련 기록 등이 함께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승려 신분으로 보인다. 이 목간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동전을 뜻하는 '錢(전)'과 '大錢(대전)', 동전의 수량을 뜻하는 '足(족)', '貫(관)' 등이 함께 적혀 있다는 것이다(도7).

신안선에는 중국 동전 약 28톤(약 8백만 개)가 실려 있었다. 주로 포대기와 항아리, 목상자 등으로 포장되어 주로 신안선의 선미와 중앙 화물창고에 선적되었다. 소량의 베트남 동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국 동전이다. 중국 화천(貨泉, AD.14)부터 지대통보(至大通寶, 1310)에 이르기까지 약 1300년에 걸쳐 주조된 것으로 종류가 66종이다. 지대통보는 목간과 함께 신안선의 항해 시기를 밝혀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가장 많은 것은 송나라 동전이다. 송나라 때는 사회경제와 상업이 발달하면서 화폐 사용이 보편화되었다. 동전을 대량으로 주조하여 연간 생산량이 5백만~6백만 관貫(1관: 4kg, 1000개 내외)에 이를 때도 있었다. 중국 동전은 교역 물품으로서 고려, 일본, 요, 서하, 금, 베트남으로 수출되었다. 고려를 비롯한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동전을 제조하였으나, 중국이 주도했던 국제교역에서 중국 화폐는 통용되었다. 특히 일본에서는 수많은 중국 동전이 시중에 유통되어 화폐경제 활성화시켰다.

4. 생산자와 소비지 단서

신안선에는 묵서명 목간 외에도 생산지나 제작자 정보가 적힌 선적품들이 있다. 먼저 금속공예품의 원료인 주석정(朱錫錠)과 황동판(黃銅板) 등 금속원료 사례이다. 일부 자료에 장인(匠人) 이

름으로 추정되는 ‘平心(평심)’, ‘王九郎(왕구랑)’, ‘王乙斗(왕을두)’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왕구랑 주석정은 가장 많은 30여 점이다. 왕구랑은 주석제잔과 은제잔에서도 확인되었다. 그리고 주석정에 ‘上品白錫中ㅁㅁ斤足, ㅁ汁ㅁ拾ㅁ余正’라는 품질과 무게 관련 내용이 새겨진 것도 있다. 주석은 무르고 값이 비싸기 때문에 고대부터 대부분 납과 합금하거나 그릇 표면에 주석을 도금여 마치 은제품처럼 사용할 정도로 귀한 원료였다.

중국도자기 중에는 생산지와 소비지가 기록된 청자접시가 있다. 〈‘使司帥府公用’ 명청자음각연국화모란문접시〉는 2점으로 1977년과 1980~1983년에 각각 발견되었다(도8, 9). 내면에는 음각의 연꽃·국화·모란무늬, 외면에는 연꽃잎무늬가 장식되어 있는 양질의 접시이다. ‘사사수부공용’ 6자는 접시 굽 안쪽에 세로 2줄로 쓰여 있는데 번조 이전에 새긴 것이다. 사사수부(使司帥府)는 원나라 때의 관청인 ‘선위사사도원수부(宣慰使司都元帥府)’의 약칭이다. 사사수부는 대덕(大德) 6년(1302)부터 지정(至正) 14년(1354)까지 약 50년간 각 도에 설치된 관청으로써 행성(行省)과 군현(郡縣)을 연결하는 군사, 행정을 담당하였다. 원대 절강성(당시 浙東道)의 경우 경원로(慶元路)에 설치되었다.[18] 경원로는 청동저울추 명문에서도 확인된 신안선의 출항지이다.

도 8. 〈‘使司帥府公用’ 명 청자음각연국화모란문접시〉(신안6717), 높이3.6, 구경16.1, 저경6.2, 국립중앙박물관

도 9. 〈‘使司帥府公用’ 명 청자음각연국화모란문접시〉(신안15779), 높이3.9, 구경16, 저경7, 국립중앙박물관

18 掌軍民之務, 分道以總郡縣, 行省有政今則布於下, 郡縣有請則達於省. 有邊陲軍旅之事, 則衆都元帥府, 其次則止為元帥府……凡六道……浙東道, 慶元路置(「元史」 百官七)

이 청자접시는 명문 내용과 같이 사사수부에서 공용(公用)으로 주문한 그릇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元史』 권74 제사삼(祭祀三) 기록에 의하면, “중통(中統, 1260~1263) 이래 원에서는 송대 때의 금은 제기를 사용했으나, 지치초(至治初, 1321)에 새로운 그릇이 만들어져 강절행성(江浙行城)으로 보내고 옛 기물은 몇몇 기관에 두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언급한 관용 새로운 제기(祭器)를 생산한 곳은 용천요로 추정됨에 따라[19] 〈‘使司帥府公用’ 명 청자접시〉는 지치초(至治初, 1321) 이후의 용천요 양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20]

5. 명문 도자기

신안선 출수 도자기는 24,547점으로 묵서를 비롯하여 음각과 양인각, 유리홍 등 다양한 명문 기록이 있다. 도자기 연구는 국내외 고고학적 자료 비교를 통한 형식 분류와 생산 시기, 산지 추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아울러 무역 도자기로서의 성격과 소비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 결과 신안선의 도자기는 대부분 중국 남방지역 생산품이지만 북방 도자기까지 중국 전 지역의 생산품까지 포함되었으며 세부적인 생산지를 밝히는 연구까지 진전되었다.

1) 묵서명 중국도자기

묵서(墨書)는 신안선의 도자기 명문 중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침몰 이후 7백 여년 간의 수중 매몰과 수중인양 과정 등에서 지워져 육안 판독이 어려운 예가 많다. 확인된 것은 청자호문호, 청자삼족향로, 청자대반, 청자대접, 청자접시, 백자대접, 백자접시, 흑유사이호, 도기사이호 등이다. 청자호와 향로는 굽 내저면에, 흑유사이호는 뚜껑에, 도기사이호는 동체에 묵서가 있으며, 청자대반 · 대접 · 접시와 백자대접 · 접시류 내저면에 주로 적혀 있다. 묵서 내용과 필적, 소재, 방법 등이 다양한 것으로 보인다. 명문은 유약이 없는 곳에 적힌 ‘綱司(강사)’, ‘十一(십일)’, ‘長長(장장)’ 등과 그릇 내저면 ‘福(복)’, 기복문, 시문으로 분류된다. 도기 호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자기는 양질이다. 주로 그릇 내저면의 유약층 위에 묵서가 적혀 있는데, 이로 볼 때 무역과정에서 임시로 기록한 것이거나 일본 신사, 사찰 등지에 바칠 공양물일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묵서명 도자기는 주로 중국 도자기에서 확인된다. 연대는 대체로 11세기 후반에서 14세기까지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태안 마도해역과[21] 일본 하카타(博多) 등지에서[22] 다량 출토되었으며, 중국, 베트남, 동남아시아에도 보고된 바 있다. 일본 하카타 등지의 출토품은 일상생활용 도자기의 유약이 없는 굽 내저면에서 주로 적혀 있으며, 명문은 ‘綱(강)’, ‘綱司(강사)’, ‘성씨+綱(강)’, ‘성씨+綱(강)+화압’, ‘숫자+화압’, 중국인 이름, 일본인 이름, 숫자 등이다. 중국은 남송

---

19 中統(1260-1263年) 以來雜金宋祭器而用之. 至治初(1321年) 始造新器於江浙行省, 其舊器悉置幾閣.(『元史』 권74 祭祀三)

20 고미경, 앞의 논문(명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 133.

21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안 마도 출수 중국도자기』(2013).

22 일본 하카타연구회(博多硏究會), 『博多遺跡群出土墨書資料集成』(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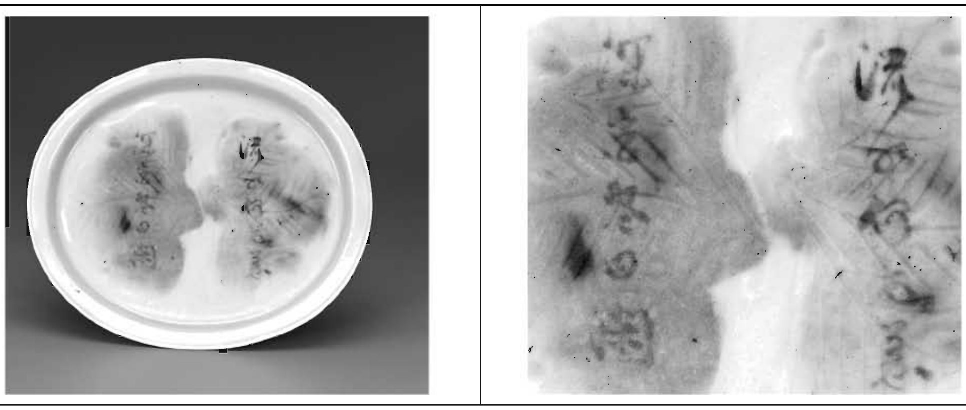
대 무역선 '남해 1호' (910점)와 산동성, 저장서, 강소성, 복건성, 광동성, 그리고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묵서명 도자기가 출토되었다. 내몽고 자치구의 원대 유적에서는 묵서명 도자기 2,689점이 출토되었다. 남해 1호의 묵서명 도자기에는 사람이름, 도자기 용도, 지명, 부호, 화압, '綱(강)', '直(직)' 등이 적혀 있다.

2) 시문명 청백자접시

신안선에는 중국 당때의 시문(詩文)이 기록된 〈청백자유리홍쌍엽문접시(靑白磁釉裏紅雙葉文詩銘盤)〉 1점이 있다. 마치 하얀 접시 위에 붉은 글씨가 적힌 단풍잎을 올린 것 같이 아름다운 접시이다(도10).

시문 「流水何太急, 深宮盡日閑(유수하태급, 심궁진일한)」은 "은근한 마음 붉은 잎에 실어 보내니, 인간 세상으로 쉬이 흘러가기를…"이라는 내용이다. 이 시는 중국 『당송전기집(唐宋傳記集)』「유홍기(流紅記)」에 나온다. 중국 당나라 때 어느 궁녀가 적막한 궁 생활을 쓴 시를 계곡에 흘려 보냈는데, 마침 한 선비가 계곡 풍경을 감상하다가 이것을 발견하고 오랫동안 간직하였다. 훗날 부부의 인연으로 맺어진 두 사람은 그 시에 대한 서로의 사연을 알고 감격하였다는 사랑이야기이다.

이러한 유리홍(釉里紅) 자기는 유약 밑에 붉은 무늬를 그린 것으로 번조환경이 까다로워 성공률이 낮은 특징이 있다. 붉은 구리로 만든 재료[동홍료, 銅紅料]를 착색제로 써서 무늬를 만들어 투명한 흰색 유약[투명유, 透明釉]을 씌운 다음, 높은 온도에서 환원 상태로 구우면 붉은색 무늬가 나타난다. 유리홍은 원(1271~1368)대 경덕진요(景德鎭窯)에서 시작되었고, 명대 초기 영락(永樂) 시기에 크게 발전하였다. 옹정(雍正) 시기에는 최고의 품질이 나오며, 건륭(乾隆)시기에는 백자 이외에 청자, 천람(天藍), 황유(黃釉), 녹유(綠釉) 자기에도 사용되었다.



흐르는 물은 어찌 저리도 급한가 流水何太急 유수하태급
깊은 궁궐은 종일토록 한가한데 深宮盡日閑 심궁진일한
은근한 마음 붉은 잎에 실어 보내니 殷勤謝紅葉 은근사홍엽
인간 세상으로 쉬이 흘러가기를 好去到人間 호거도인간

도 10. 청백자유리홍쌍엽문접시(신안18994), 높이1.4, 너비16.4, 국립중앙박물관

3) 공양과 기복 명문

신안선의 중국도자기와 금속공예품에는 인간의 다섯가지 복[五福]과 자손의 번성을 기원하는 명문이 많다. 주로 음인각 또는 전서체 명문이다. 이것은 중세 동아시아 사람들이 부처님에게 드리는 공양과 기복, 인생관, 행복관 등을 엿볼 수 있는 자료들이다.

도자기는 주로 백자음구대접과 완에서 확인되는데, 수산복해(壽山福海, 목숨은 산처럼 복은 바다처럼), 백옥만당(白玉滿堂, 백옥 같은 보물이 집안에 가득하다), 부귀장명(富貴長命, 수명이 길고 부귀를 기원하다), 옥출곤산(玉出崑山, 옥은 곤륜산에서 나온다), 금옥만당(金玉滿堂, 금같은 보물이 집안에 가득하다), 복록구전(福祿求全, 행복과 벼슬이 함께 구한다) 등이다. 금속공예품으로는 청동산형구병에 자손영보영지(子孫永寶用之), 의이자손(宜爾子孫), 청동삼족작에 광풍제월(光風霽月)이 있다. 이 가운데 자손영보용지는 '자손이 번성하여라' 는 뜻으로, 북송 때 고동기(古銅器) 도록인『宣和博古圖(선화박고도)』에 많이 나타는 명문으로 원대 때에도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의이자손은『시경』「주남 종사」에 나오는 구절이다.

이러한 명문은 영국 퍼시벌 데이비드 파운데이션(Percival David Foundation)[23]과 일본 가고시마현(鹿児島) 히라키키신사(枚聞神社)[24] 소장품에도 있다. 영국의 퍼시벌 데이비드 파운데이션(Percival David Foundation) 소장의〈'泰定四年' 명청자양각모란문대화병〉은 신안선의 대화병과 형태, 무늬, 제작기법이 매우 유사하다. 대화병의 구연 둘레에는 "括蒼劍川流山萬安社居奉三寶弟子張進成燒造大花瓶壹雙捨入覺林院大法堂佛前永流供養祈福保安家門吉慶者泰定四年丁卯歲仲秋吉日謹題"(括蒼 劍川 流山의 萬安社에 사는 불자 張進成은 대화병 한쌍을 구워서 覺林院 大法堂의 佛前에 바쳐 공양드리고, 평안과 축복이 가문에 깃들어 경사로운 일이 많기를 기원하노라. 태정 4년 정묘년 중추 길일에 삼가 씁니다) 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25] 태정 4년 정묘는 중국 원 진종(眞宗) 시기인 1327년으로 신안선이 항해한 1323년 이후 제작되었다. 이 시기에는 공양, 기복, 평안, 가문의 번창 등을 기원하는 명문을 기물에 적는 문화가 유행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Ⅳ. 신안선 출수 명문자료 연구과제와 제언

지금까지 신안선 명문 자료와 연구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1976년 수중발굴조사 이래 4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본 신안선 연구는 수중고고학과 해상실크로드, 고고미술사, 조선공학적 시각 등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출수품에 대한 연구는 주로 무역 도자기와 금속공예품, 동전, 목간 등 일부 명문 자료에 집중되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신안선의 항해 시기와 출항지, 항로, 목적지,

---

23 Percival David Foundation은 퍼시벌 데이비드 경(1892~1964)이 수집한 중국 도기 컬렉션으로 1951년 런던 대학에 기증되고 공개되었다. 송~청대에 이르는 총 1400여점의 관요 유물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24 鹿児島神宮所藏陶瓷器調査團,『鹿児島神宮所藏陶瓷器の研究』(2013)

25 김원동, 앞의 논문(국립중앙박물관, 1988), pp.73~74.

무역품들의 생산지와 소비지 등이 규명되어 왔다.

신안선의 명문 자료들은 14세기 해상무역과 성격을 보다 밝혀주는 결정적인 단서들을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적 중요도와 학술적 가치에 비해 명문 자료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크지 않았다. 아쉽게도 수중발굴 이후 학계의 관심은 희미해졌으며, 초기 연구 이래 한정된 공개 자료의 의존한 점,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후속 연구는 한계가 많았다.

신안선 출수 명문 자료의 관점에서 바라본 앞으로의 연구과제는 새로운 관심과 시각, 그리고 지금까지 연구의 한계 극복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신안유물 소장기관에서는 신안선의 폭넓은 명문 자료들을 전수조사한 종합적인 자료집성 제공이 필요하다. 이 작업에는 명문 기록의 주체와 필체, 소재, 재질, 형식, 기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와 연구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데이타베이스는 여러 분야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학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신안선의 명문 자료는 출수 위치, 공반 유물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아울러 중세 해상무역에서의 기록과 행정, 그리고 문자생활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명문 자료의 이해 폭을 넓히고 신안선 무역활동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묵서명 명문 유물의 중요성이다. 목간, 목상자, 장기말, 중국도자기 등에 적힌 묵서는 모두 학술적 가치가 높고 흥미로운 연구 분야이지만,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는 미흡하였다. 묵서 자료는 국내외 중세 난파선 사례에도 많기 때문에 동아시아 문화권 문자 활동의 시각에서 비교하고 융합적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기존의 판독과 해석에 대한 검토, 그리고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명문 자료 규명도 연구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23년은 신안선이 항해한지 7백년이 되는 해이다. 앞으로의 신안선 출수 명문자료 연구가 7백년전 동아시아 바다를 누볐던 신안선 항해를 다시 복원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투고일 2020. 11. 27. | 심사개시일 2020. 12. 1. | 게재 확정일 2020. 12. 11.

참고문헌

문화공보부 · 문화재관리국 편, 『新安海底遺物(資料篇 I)』, 1981.

______, 『新安海底遺物(資料篇 II)』, 1984.

______, 『新安海底遺物(綜合篇)』, 1988.

국립역사사민속박물관, 2005, 『東アジア中世海道 -海商 · 港 · 沈沒船-』, 東京 : 毎日新聞社, 2005.

국립중앙박물관, 『新安海底文物 國際學術大會 主題發表』, 광명인쇄공사, 1997.

______, 『新安海底文物:新安海底引揚文化財圖錄』, 월간문화재사, 1997.

______, 『新安海底文物』, 삼화출판주식회사, 1997.

______, 『신안해저선 발굴 4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2016.

______, 『발굴 40주년 기념 특별전 : 신안해저선에서 찾아낸 것들』, 그라픽네트, 2016.

______, 『신안해저문화재 조사보고 총서 1-무시유 도기』, ㈜지앤에이커뮤니케이션, 2016.

______, 『신안해저문화재 조사보고 총서 1-금속공예』, 삼성문화인쇄, 2016.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신안선 보존 · 복원 보고서』, 예맥출판사, 2004.

______, 『신안선과 동아시아 도자 교역』, 그라픽네트, 2006.

______, 『침몰선 · 침몰선 발견유물의 보존처리』, 예맥출판사, 2001.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고려의 난파선과 문화사』, 2016.

____________, 『신안선 원형 복원 보고서』, 2018.

고미경, 「신안선 도자기 연구 40년과 쟁점」, 『해양문화재』 제9호, 2016.

______, 「신안해저 출토 용천요 청자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김영미, 『국립중앙박물관명품선집 18 – 신안선과 도자기의 길』, 通川文化史, 2005.

김병근, 『신안보물선의 마지막 대항해』, 주류성, 2014.

______, 『수중고고학에 의한 동아시아 무역관계 연구』, 국학자료원, 2004.

김용한, 「신안해저 인양 침몰선의 복원 연구」『보존과학회지』4권1호,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1995.

김원동, 「신안에서 침몰된 원대 목선의 침몰년월과 인양된 도자의 편년에 관한 연구」『미술자료』42, 1988.

이용현, 「신안해저발견 목간에 대하여」『고려 조선의 대외교류』, 국립중앙박물관, 2002.

정양모, 「신안해저유물을 통해 본 14세기 동Asia의 도자문화」, 『진단학보』제71 · 72호, 진단학회, 1991.

西谷正, 「新安海底発見の木簡について」, 『九州文化史研究所紀要』30 · 31, 九州大學九州文化史研究施設, 1985 · 1986.

龜井明德, 「日元陶磁器貿易の失態 -新安沈沒船をめぐって」, 『日本貿易陶磁史の研究』, 1987.

국문초록

신안선 출수 명문자료 연구 현황과 전망

박예리

1970~80년대 신안선의 수중발굴은 중세 동아시아 해상교류사와 문화사 연구의 전환점이었다. 마치 타임캡슐처럼 특정 시기의 유물이 대량으로 선적된 침몰선은 연구 한계를 극복시켜준 중요 자료로서 신안해저유물의 학술적 가치는 매우 높다. 이들 선적품들은 중세 중국, 고려, 일본의 해상교류뿐 아니라 생활문화, 경제, 사회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신안선에 대한 연구는 수중발굴 이후 40여년 간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가 폭넓게 이뤄져 왔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의 신안선에 대한 연구 동향을 정리하고, 그 안에서 유형별 명문유물에 대한 연구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아울러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간략하나마 서술해보고자 한다.

수중발굴 시작부터 40년이 지난 시점에 바로 본 신안선 연구는 국내외 고고학적 자료와의 비교 연구가 폭넓게 이뤄져 왔다. 선적 유물을 중심으로 항해시기와 항로, 무역품들의 성격에 대해 많은 연구가 전전되었다. 특히 다양한 유물들에 기록된 명문과 각종 기호들은 신안선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해주었고, 중세 동아시아 문화사 복원을 위한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다. 그 결과, 신안선은 1323년 여름경 중국을 출발하여 일본으로 향하던 한 무역선으로 고려 신안 앞바다에서 침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주요 연구는 공예품을 비롯한 무역 도자기에 집중되었다.

이에 비해 명문이 기록된 유물 연구는 명확한 편년 자료와 풍요로운 중세 문화 기호를 제공하는 학술적 가치에 비해 심도있는 관심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향후 연구를 위해서는 먼저 신안선 유물에 대한 정보 제공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명문유물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형식분류, 기록 시기, 주체, 내용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묵서명 유물의 경우, 목간과 해당 선적품 조사가 선행되고 목간의 인물, 화물, 수량, 단위 등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묵서명 도자기는 신안선 이외도 서해 태안 마도해역, 일본, 중국, 베트남, 동남아시아에도 사례가 있으므로 국내외 사례와 비교하다면 신안선 항해시기 무역도자기에 대한 규명과 동시대 기록문화에 대한 복원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수중고고학, 신안선, 난파선, 목간, 묵서, 명문 도자기

Abstract

Current State and Future Prospects of Artifacts with Inscriptions Recovered from the Sinan Shipwreck

Park Yeri

The underwater excavation of the Sinan Shipwreck in the 1970s and '80s was a turning point in the study of the history of maritime trade and culture of medieval Asia. The shipwreck, which, like a time capsule, had been laden with a vast number of goods from a particular period, is an important discovery that has helped expand research boundaries, and the uncovered relics provide substantial academic value. The cargo that had been loaded on the merchant vessel vividly reveals not only the landscape of maritime trade but also the cultural, economic, and social realities in the countries of China, Korea (Goryeo), and Japan during the Middle Ages. Extensive research on the Sinan shipwreck has been conducted both in Korea and abroad over the four decades following its series of excavations. This paper aims to provide a mapping of existing studies on the Sinan shipwreck and to explore achievements that have been made in the research on artifacts with inscriptions. In addition, it will briefly discuss future tasks and prospects.

Research on the Sinan shipwreck – as seen forty years after the commencement of its underwater excavation – has constituted comprehensive comparative analyses of archaeological data gathered from across the world. Based on the recovered artifacts,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ascertain the period and route of the voyage of the sunken vessel an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rade commodities. The writing and symbols inscribed on varied artifacts have offered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vessel and served as a new source of vitality in illuminating the cultural history of medieval East Asia. As a result, it was revealed that the Sinan shipwreck had been a merchant ship that departed from the port of Qingyuan (present-day Ningbo) in China in the summer of 1323 and was enroute to Japan when it sunk in the waters off the coast of Sinan. Up to now, major research concerning the Sinan shipwreck has been focused on recovered craftworks including ceramics produced for export.

On the other hand, there has been a relative lack of in-depth interest in the study of artifacts with inscriptions despite their significant academic value provided by the precise chronological information and wealth of medieval cultural symbols. For future research, information on the Sinan shipwreck

relics must be provided first, followed by a systematic survey and categorization of the artifacts bearing inscriptions and moreover an in-depth study of period, subject, and content of the inscriptions. In the case of artifacts with written inscriptions, a survey of wooden tags (mokgan) and relevant trade goods should be preceded prior to the systematic study of the content of the inscriptions on the tags including names of people and the cargo details such as quantity and unit. There are examples of ceramic vessels with inscriptions that were recovered from other underwater excavations including those conducted in Mado Island in Taean as well as other countries such as Japan, China, Vietnam, and Southeast Asia. Therefore, a comparative analysis of examples from different nations is expected to provide further insight on trade ceramics and a restoration of archival culture at the time of the voyage of the Sinan shipwreck.

Keywords : Sinan Shipwreck, Underwater archology, Underwater excavation, Wooden tags (mokgan), Maritime trade

신안선 도자기 연구 현황과 전망

김영미*

Ⅰ. 머리말

Ⅱ. 연구와 전시의 궤적

Ⅲ. 신안선 출수 도자기의 생산지별 연구 성과

Ⅳ. 맺음말 : 향후 연구방향과 제언

*전 국립중앙박물관

신안선 도자기 연구 현황과 전망

김영미
전 국립중앙박물관

Ⅰ. 머리말

2023년은 신안선이 닝보항을 출발한 지 곧 700년이 되는 해이다. 그리고 신안 앞바다에서 약 650년 동안 잠자다가 1975년 어부가 우연히 건져 올린 청자 화병으로 인해 세상에 드러난 지 벌써 40년이 지났다. 1976년부터 1984년까지 11차례의 수중발굴로 인양된 도자기는 무려 24,000여 점이다. 신안선에 실린 무역상품의 주종은 단연코 도자기였다.

본 고는 신안선 발굴 후 지금까지 약 40년간 이루어진 연구의 결과물과 전시, 신안선 도자기의 연구 현황을 정리해 보고 남은 과제 및 향후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와 전시의 궤적

필자는 신안선 도자기 연구의 궤적을 크게 두 개의 시기로 나누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신안선 도자기 연구의 초석을 마련한 시기였으며, 2000년대 이후는 신안선 도자기 연구의 본격적인 발전 · 도약의 시기로 보았다. 시기별로 연구를 바탕으로 한 학술적인 성과와 전시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

1. 1970년~1990년대

신안선이 처음 발견된 다음 해인 1976년부터 수중고고발굴이 이루어졌으며 다음 해인 1977년 국립중앙박물관은 인양된 문화재 전시[1]와 함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2] 이 학술대회에서

1 『新安海底文物: 新安海底引揚文化財圖錄』(月刊文化財社, 1977) ; 『新安海底文物』(三和出版株式會社, 1977).

2 『新安海底文物 國際學術大會 主題發表』(國立中央博物館, 1977). 이 논문집에는 金元龍, 「新安海底遺物發現의 意義와

의 주요 의제는 도자기와 동아시아의 무역 교류에 관한 내용이었다. 정양모는 송 · 원대 청자에 대한 개괄과 함께 영국 데이비드 파운데이션 〈'泰定四年(1327)' 명 청자양각모란문대화병〉과 일본의 金澤貞顯 묘에서 출토된 것으로 알려진 청자호를 근거로 신안선의 원대 청자의 편년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 학술대회에 참가한 하세베 가쿠지(長谷部 樂爾)은 일본 가마쿠라 시대부터 무로마치 시대까지 큰 환영을 받은 키누타(砧青磁) 청자 즉 남송시기 용천요의 분청자(粉青瓷)를 소개하면서 관요 형태의 키누타가 일본에서 크게 환영받았다는 견해를 보였다.[3]

이 시기의 신안선 도자기에 대한 자료는 송 · 원시기 동아시아 도자 교역의 현황을 보여주는 실증자료로서 중국도자사학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4]

이어서 1983년 한국과 일본이 공동 주최한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5] 정양모와 펑셴밍(馮先銘)은 신안선의 용천요 분청자가 고미술품일 가능성을 시사하였지만, 하세베 가쿠지(長谷部 樂爾)와 리즈옌(李知宴)은 원대중기의 제품으로 비정하였다.[6] 중국의 학자들은 신안선에서 발견된 도자기를 수출 도자기의 시각에서 분석하며 수출의 규모와 지역 등에 대해 견해를 발표하였다.[7]

課題」; 閔鬥基, 「十三世紀後半~十四世紀前半의 東Asia의 國際關係-特히 中日關係를 中心으로」; 尹武炳, 「新安沉沒船의 航路와 諸問題」; 全海宗, 「高麗의 宋元과의 貿易」; 鄭良謨, 「新安海底陶磁器의 編年的考察」; 三上次男, 「宋元代의 貿易陶磁器」; John Ayers, "On The Dating of Lung-Ch' uan Celadon Wares of The Southern Sung To Yuan Periods"; John A.Pope, "The Chinese Porcelain Trade Around The World in Early Times"; 崔淳雨, 「韓國出土宋元代陶磁」; 長谷部樂爾, 「日本에 傳世하는 砧青磁」 등 총 14篇이 수록되었다.

3 長谷部樂爾, 「일본 소장의 키누타(Kinuta) 청자」, 『新安海底文物 國際學術大會 主題發表』(國立中央博物館, 1977), pp. 39~43. 하세베 가쿠지는 이 논문에서 용천요청자를 최고의 질인 키누타(砧青磁), 이등품인 천룡사청자(天龍寺青磁), 보통품질의 칠관청자(七官青磁)로 분류하였다.

4 鄭良謨, 「韓國新安海底文物について」, 『東洋陶磁』6(1979); 李德金 · 蔣忠義 · 關甲堃, 「朝鮮新安海底沉船中的中國瓷器」, 『考古學報』第2期(北京:科學出版社, 1979), pp. 245~254.

5 東京國立博物館編, 『新安海底引揚げ文物報告書』(東京: 中日新聞社, 1983); 『東洋陶磁』10 · 11(東京: 東洋陶磁學會編, 1984). 이 책의 수록 논문으로 三上次男, 「新安海底引揚げ文物」国際シンポジウムに寄せて」, pp. 5~7; 尹武炳, 「新安引揚げ文物の性格と歴史的意義」, pp. 9~14; 鄭良謨, 「新安発見陶磁器の種類と諸問題」, pp. 15~20; 馮先銘, 「新安海底沉沒船引揚げ陶磁器に関連した問題に対する検討」, pp. 27~32; 崔淳雨, 「朝鮮半島出土の宋元陶磁と新安引揚げの高麗陶磁」, pp. 33~36; 楢崎彰一, 「日本出土の宋元陶磁と日本陶磁」, pp. 37~58; Watt James C., "Chinese Trade Ceramics in Southeast Asia", pp. 57~62; Evangelista Alfredo E., "Trade Ceramics Recovered from a Sunken Wreck off the Southwestern Coast of Marinduque Island, Central Philippines", pp. 62~65; 葉文程, 「宋元時代の中国東南沿岸地区における輸出陶磁器の実情」, pp. 67~74; 三上次男, 「十三-十四世紀の中国陶磁の商圈」, pp. 75~87; 松木哲, 「十三-十四世紀の貿易船(泉州 · 新安の船を中心に)」, pp. 89~91; 長谷部樂爾, 「新安出土の青磁について」, pp. 103~105; Wirgin Jan C., "Ch'ing-pai and Other White Porcelain Wares from Sinan", pp. 107~120; Ayers John, "Chi-chou and Temmoku Wares from Sinan", pp. 121~130; 佐藤雅彦, 「新安出土の[ホウ]鈞窯白濁釉陶について」, pp. 131~136; 李知宴, 「新安海底文物の発見から龍泉青磁の発展をみる」, pp. 137~146; 徳川義宣, 「いわゆる「呂宋壺」」, pp. 147~152; 李蘭暎, 「新安出土の金工品」, pp. 153~158.

6 鄭良謨, 「新安發見陶磁器の種類と諸問題」; 馮先銘, 「新安海底沈船引揚げ陶磁器に關聯した問題に對する檢討」; 長谷部樂爾, 「新安出土の青磁について」; 李知宴, 「新安海底文物の發見から龍泉窯青磁の發見を見る」, 『東洋陶磁』10(東洋陶磁研究會, 1984).

7 李德金 等, 「朝鮮新安海底沈船中的中國瓷器」, 『考古學報』(1979년 제2기); 馮先銘, 「南朝鮮新安沈船及瓷器問題探討」, 『故宮博物院院刊』(1985년 제3기); 葉文程, 「從新安海底沈船打撈的文物看元代我國陶瓷器的發展和外銷」, 『中國古陶瓷研究論文集』(紫禁城出版社, 1988), pp. 97~106.

1976년부터 1983년까지 이루어진 수중고고발굴 자료에 대한 순차적인 정리와 자료 보완의 과정을 거친 결과물이 4개의 보고서로 출간되었다.[8]

중국도자사학계에서는 신안선의 발견을 계기로 송 · 원대 용천요 청자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활발해졌으며 신안선의 용천요 청자를 기준으로 원대 중기의 용천요 청자의 면모가 드러났다. 그러나 분청자에 대하여 생산연대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양상 등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9] 한편 일본의 일부 학자들은 신안선 발견 용천요 청자를 무역품으로써 일본 각지에서 출토된 자료와 비교하면서 저부 형태의 차이에 따라 분류하는 새로운 연구 방법을 보여주었다.[10]

신안선 도자기를 문화사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998년 일본 국립민속박물관이 진행한 전시 〈陶磁器の文化史〉일 것이다.[11] 이 전시와 도록에서는 일본에 전해지는 문헌과 회화 자료, 현지 발굴 자료 등을 가지고 일본의 중국 도자기의 수입 역사와 기물을 문화사적인 도구로 해석하고 회화나 현지 출토자료를 가지고 사용계층이나 용도 등을 증명해 보였다.

2. 2000년대

이 시기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진행된 발굴 자료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신안선 도자기에 대한 문화사적인 접근과 도자기의 생산지, 그리고 용도에 대한 고증 등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된 시기이다. 2000년대 초반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에서는 〈東アジア中世海道 －海商 · 港 · 沈沒船－〉전시를 개최하여 유적에서 출토된 중국 도자기와 문헌 및 회화 자료를 종합적으로 비교하며 당시 가마쿠라 막부 사회의 중국 열풍을 보여 주었다.[12]

2006년 신안선 발견 30주년을 맞아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은 특별전[13]과 국제학술대회[14]를 개최하였다. 특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신안선의 역사와 의의, 신안선 도자기의 생산과 유통, 14세기 해상교역과 무역품, 수중고고학의 현황과 전망 등 다양한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었다.[15]

---

8 文化公報部 · 文化財管理局編, 『新安海底遺物』(1983) ; 文化公報部 · 文化財管理局編, 『新安海底遺物(資料篇 Ⅰ)』(1983) ; 文化公報部 · 文化財管理局編, 『新安海底遺物(資料篇 Ⅱ)』(1984) ; 文化公報部 · 文化財管理局編, 『新安海底遺物(資料篇 Ⅲ)』(1985) ; 文化公報部 · 文化財管理局編, 『新安海底遺物(綜合篇)』(1988).

9 馮先銘, 「南朝鮮新安沉船及瓷器問題探討」, 『故宮博物院院刊』第3期(紫禁城出版社, 1985), pp. 112~113 ; 浙江省考古研究所, 『龍泉東區窯址發掘調查報告』(北京:文物出版社, 2005), pp. 268~291, pp. 406~407 ; 楊冠福著, 『河濱遺範』(浙江古籍出版社, 2011).

10 横田賢二郎 · 森本朝子 · 山本信夫, 「新安沈船の大宰府博多の貿易陶磁器－森田勉氏の研究成果によせて－」, 『貿易陶磁研究』9(1989).

11 國立歷史民俗博物館, 『陶磁器の文化史』(1998).

12 「新安海底沈沒船とその引揚遺物」, 『福岡市博物館特別企画展別册圖錄－北条時宗とそ時代展』(福岡: セソトテル印刷株式會社, 2002) ; 國立歷史史民俗博物館, 「東アジア中世海道 －海商 · 港 · 沈沒船－」(東京: 每日新聞社, 2005).

13 國立海洋遺物展示館編, 『新安船과 東아시아 陶瓷交易』(2006).

14 國立海洋遺物展示館編, 『新安船－本文篇』, 『新安船(青磁 · 黑瓷)』, 『新安船－白磁 · 其他遺物』(2006)』.

15 新安船 發掘 30周年 紀念 國際學術大會 "14世紀 Asia 海上交易과 新安海底遺物"은 모두 5개 주제로 진행되었다. 第1主題 '新安海底發掘의 意義'. 鄭良謨, 「新安船調查成果의 意義」 ; 李益株, 「新安海底遺蹟의 歷史와 意義」. 第2主

김영미는 신안선 도자기를 종류별로 분류하고 일본에 수출된 중국 도자기와 14세기 동아시아에 불었던 차 · 향 · 꽃 문화 열풍을 소개했으며[16] 2008년 국립중앙박물관은 신안해저문화재에 담긴 14세기 동아시아의 문화를 보여 주는 테마 전시를 열었다. 〈경덕진 청백자-푸르름 속에 핀 순백의 미〉에서는 나열 중심의 전시를 벗어나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도자기에 담겨 있는 이야기를 끌어내어 관람객과 소통하는 전시로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마음을 담은 그릇-신안 향로〉에서는 고대의 향의 역사와 향을 담은 향로의 변천사를 다루며 당시의 향문화를 재현하였다.[17]

2000년대에 들어 중국의 복건 지역 도자기의 해상교역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중고고 발굴과 요지발굴이 활성화되어 신안선의 복건 지역 도자기에 대한 관심도 동반 상승하였다. 이러한 관심은 경덕진요 백자 혹은 청백자로 분류되었던 것이 복건 지역의 생산품으로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18]

2011년 부산박물관에서는 〈흙을 빚어 옥을 만들다-용천청자〉 특별전을 진행하면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신안선 인양 용천요 청자 이외에 우리나라 각지 및 일본 하카타 유적에서 출토된 용천요 청자를 대여하여 무역 자기인 용천요 청자의 시대별 특징과 제작기법[19], 그리고 일본의 용천요 청자 유입과 소비 경향 등을 보여주었다.[20]

2012년 한중 수교 20주년 및 절강성박물관과의 자매 교류 5주년을 맞은 광주박물관에서는 기념 특별전으로 〈천하제일 강남 명품-절강성의 보물〉을 개최하고, 절강성박물관에서는 〈大元帆影

題 'Asia 海上Silk Road의 歷史와 文化'. 洪錫俊, 「東Asia의 海上Silk Road와 港口城市, 그리고 伊斯蘭」; Singgih Tri Sulistiyono, "Southeast Asian Maritime Silk Road and Trade Activities; Patterns of Trade Around the Strait of Malacca Before the Coming of Europeans"; 楊照全, 「14世紀 Asia海運과 文化交流-韓中關係를 中心으로」; 藤田明良, 「中世 東Asia의 海港의 立地와 環境-中國日本」. 第3主題는 'Asia海上交易와 交易品'. 謝明良, 「清香壺에 關하여 - 台湾發現事例를 中心으로」; 池田榮史, 「琉球에서 본 中世 東北Asia의 交易路와 交易品」; John Carswell, "The Shinan Wreck:Sri Lanka, Syria, the Red Sea, and westwards into Europe"; Regina Krahl, "Yuan Ceramics in Islamic Lands". 第3主題 '新安海底出土 陶磁器의 生産과 流通'. 金英媛, 「新安海底 出土 中國磁器의 現況과 性格; 沈岳明, 「龍泉青瓷的對外輸出」; 江建新, 「景德鎮宋元时期瓷器外銷与新安沉没船中的瓷器-兼論高麗青瓷和朝鮮白瓷青花與景德鎮窯之關係-」; 韓盛旭, 「新安船出土高麗青磁性格」; 小野正敏, 「日本における新安船出土陶磁器の用途と意味」. 第5主題 'Asia의 水中考古學現況과 展望'. 金聖范, 「韓國水中考古學現況과 新安海底遺蹟, 그리고 展望」; 張威, 「中國水中考古學의 基本原則과 方法의 活用」; 林田憲三, 「日本の水中考古学の现况と展望」; Jean-Luc Massy, "Present and Future of the Underwater Archaeology in Europe"; 袁曉春, 「中國蓬萊水城古船發掘與成果」; Michel L' Hour, "The Brunei Shipwreck Excavation : Asian Maritime trade along the Borneo Coast at the End of the 15th Century".

16 金英美, 『국립중앙박물관명품선집 18-신안선과 도자기의 길』(通川文化社, 2005).

17 국립중앙박물관, 『경덕진요 청백자-푸르름 속에 핀 순백의 미』(사회평론, 2008) ; 국립중앙박물관, 『마음을 담은 그릇-新安香爐』(社會評論, 2008).

18 栗建安, 「從山林到海洋-貿易全球化中的福建陶瓷生産與外銷」, 『考古學視野中的閩商』(北京: 中華書局, 2010), pp. 49~63 ;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 마도Ⅱ구역 해저 출수의 중국 福建도자와 도자교역」, 『고려의 난파선과 문화사』(2011), p. 119 등.

19 金英美, 「신안선에서 발견된 용천요 청자」, 『흙을 빚어 玉을 만들다, 龍泉青瓷』(釜山博物館編, 2011), pp. 199~211.

20 田中克子, 「龍泉窯系 青瓷」, 『흙을 빚어 玉을 만들다, 龍泉青瓷』(釜山博物館編, 2011), pp. 212~225.

-신안선 특별전〉과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21] 절강성박물관에서 열린 신안선 특별전은 해외에서 발견된 중국 침몰선과 문물에 대한 자국민들의 큰 관심을 일으켰고, 학술대회를 통해 신안선의 산지 불명이었던 도자기에 대한 열띤 토론과 의견 교환이 있었다.

2016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신안선 발굴 40주년 기념 특별전 〈신안해저선에서 찾아낸 것들〉을 개최하였다.[22] 특별전은 수장고 40년 동안 묻혀있던 신안선 인양 문화재 약 2만 점을 수장고형 전시로 기획하였다. 전시는 '신안선에 담긴 문화 기호 읽기', '14세기 최대의 무역선', '보물창고가 열리다'의 섹션으로 나누어 중국 복고풍의 제기들과 차, 향, 꽃에 관련된 기물들을 소개하면서 당시 일본의 차, 향, 꽃 감상문화에 얽힌 기록, 그림들을 같이 비교해 선보이고 신안선에서 인양된 거의 모든 유물을 다 꺼내어 보였다. 특별전 연계 국제학술대회에서는 한국·중국·일본·미국 등 세계적인 학자들이 신안선 관련 신안선의 항로, 교역품 고려와의 관계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23] 특별전을 통해 신안해저문화재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한국수중고고학 4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는데 해상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용천요 청자의 발전과 대외 수출현황의 변화가 토론되었다.[24]

2016년 국립중앙박물관은 신안선 발굴 40주년 기념 특별전을 개최와 함께 지금까지 기초적 수준에 머물렀던 조사 연구를 체계적, 전문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신안해저문화재 조사보고 총서 1권 『무시유도기』, 2권 『금속공예』[25]를 발간하였다. 이어서 2017년에는 3권 『흑유자』[26]과 동시에 상설전시실 아시아관 신안해저문화재실을 개편하여 2016년 특별전을 일부 재연하였다. 그리고 흑유자 보고서 연구 성과를 전시에 반영한 테마전으로 흑유자기의 역사와 동아시아의 차문화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흑유자 전시와 연계하여 신안선의 흑유자와 중국의 차문화, 고려시대 차문화, 북한의 회령요 등의 내용으로 강연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호응을 얻었다.[27]

---

21 浙江省博物館編, 「韓國新安沉船出水文物精華 "大元帆影"」(北京:文物出版社, 2012) ; 沈瓊華主編, 『2012海上絲綢之路-中國古代瓷器輸出及文化影響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杭州:浙江人民美術出版社, 2013).

22 國立中央博物館, 『신안해저선에서 찾아낸 것들』(서울: 그라픽네트, 2016).

23 국립중앙박물관, 『신안해저선 발굴 4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2016) 秦大樹, 「원대 해상무역과 신안선 관련문제」 ; 森達也, 「신안선 발견 중국도자의 조성 연구」 ; 김영미, 「송원대 항저우 미술품 시장과 교역」 ; 김영원, 「신안선 자기와 고려유적 출토 원대자기」 ; 小林仁, 「중국에서 출토된 고려청자-신안선에서 발견된 고려청자에 대한 새로운 관점」 ; 장남원, 「물질문화 관점으로 본 고려청자」.

24 沈瓊華, 「대항해 이전의 찬란한 번영-용천요 청자의 해외시장으로 본 절강의 고대 대외무역」, 『아시아 태평양 해양 네트워크와 수중문화유산』(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6), pp. 81~87.

25 국립중앙박물관, 『신안해저문화재 조사보고총서 2-금속공예』(2016).

26 국립중앙박물관, 『신안해저문화재 조사보고 총서3-흑유자』(2017).

27 김영미, 「신안흑유자로 본 중국 차문화의 변천」 ; 장남원, 「고려시대 차문화와 다기」 ; 박경자, 「고려조선의 흑유자와 북한의 회령요」 발표 요지문 참조.

Ⅲ. 신안선 출수 도자기의 생산지별 연구 성과

현재까지 등록된 신안해저문화재의 총 수량은 26,905건 27,617점이다. 『新安海底遺物(종합편)』에 의하면 중국도자기는 총 20,691점이었지만 2016년 신안해저문화재 조사보고에 의하면 도자기의 총수량은 24,547점이다. 전체 인양 문화재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도자기는 종류별로 청자 16,345점, 청백자 3,443점, 백자 3,058점, 흑유자 721점, 백탁유자 394점, 갈유자 116점, 천목 74점, 잡유 2,665점이다.[28]

지금까지 신안선 도자기에 대한 연구 현황은 주요 쟁점 및 고찰을 정리한 것과 신안선 발견 중국 도자기 생산지 연구의 새로운 성과를 정리해 놓은 것[29]이 있다.

필자는 신안선 발견 중국 도자기를 남방의 절강, 강서, 복건, 광동, 그리고 북방의 하북, 하남, 그리고 고려청자, 일본 도자 등 지역 생산지별로 분류하고 그간의 새로운 연구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중국남방(中國南方)

1) 절강성(浙江省)

남방의 도요지는 절강성, 복건성, 강서성, 광동성, 강소성에 걸쳐 산지가 분포하고 있으며 신안선에서 발견된 도자기의 70% 이상이 절강성 지역에 산지를 두고 있다. 절강성 지역의 가마로는 용천요(龍泉窯), 철점요(鐵店窯), 노호동요(老虎洞窯)가 있다.

(1) 용천요

신안선 용천요청자의 남송양식에 대한 개념이 처음으로 표출된 것은 1983년 국제학술대회에서이다. 정양모와 펑셴밍(馮先銘)은 신안선의 용천요 분청자가 고미술품일 가능성을 시사하였고, 하세베 가쿠지(長谷部 樂爾)와 리즈옌(李知宴)은 원대 중기의 제품으로 비정하였다.[30]

그 후 1990년대에 들어 중국 사천성 수녕(遂寧)의 남송후기 교장(窖藏)에서 분청자를 포함한 대량의 도자기가 발견되었다.[31] 수녕교장 출토유물은 1998년부터 1999년 사이 일본 각지에서 전시가 개최되었으며 심포지엄을 통해 교장의 연대 문제를 중심으로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발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신안선의 용천요청자와 일본 전세품과의 비교를 통해 남송과 원의 양식을 구분

28 국립중앙박물관, 『신안해저문화재 조사보고총서 1-무시유도기』(2016), p. 19.

29 고미경, 「신안선 도자기 연구 40년과 쟁점」, 『해양문화재』제19호(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6), pp. 180~194 ; 김영미, 『발굴 40주년 기념 특별전 : 신안해저선에서 찾아낸 것들』(그라픽네트, 2016), pp. 302~313.

30 鄭良謨, 「新安發見陶磁器の種類と諸問題」, 馮先銘, 「新安海底沈船引揚げ陶磁器に關聯した問題に對する檢討」 ; 長谷部樂爾, 「新安出土の青磁について」 ; 李知宴, 「新安海底文物の發見から龍泉窯青磁の發見を見る」, 『東洋陶磁』10(東洋陶磁硏究會, 1984).

31 庄文彬, 「四川遂寧金魚村南宋窖藏」, 『文物』(1994.4)

하며 편년 문제를 언급하기도 하였다.[32]

신안선에서 발견된 용천요청자의 편년을 본격적으로 진행한 모리 다쓰야(森達也)는 신안선에서 발견된 기년 자료인 '지치삼년[至治三年, 1323]' 명 목패를 기준으로 일본의 전국 유적지에서 출토된 자료 및 중국의 교장과 묘장에서 발견된 자료를 종합하여 용천요청자의 분기를 삼기(三期)로 나누고[33] 신안선의 분청자의 시기를 남송후기에서 원대초기로 보았으며 중고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설을 주장하였다.[34] 김영미는 신안선에 실렸던 남송말에서 원초의 용천요 청자 등 고기물 도자기는 당시 일본에서 유행했던 당물취미(唐物趣味)와 함께 복고풍의 유행으로 생산된 관요풍의 도자기와 관계가 있다고 언급하였다.[35] 남송후기부터 원초에 이르는 상품으로는 〈청자어룡식양이병〉(도1), 〈청자장경병〉(도2), 〈청자연판문접시〉(도3) 등이 있는데 유색은 천청(天靑)에 가깝고, 유약이 두터운 것이 특징이다. 연판의 폭이 두껍거나 유면에는 마찰흔이 심하게 남아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 발굴성과와 연계하여 용천요 청자의 소비유통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36] 신안선의 용천요 청자의 시기를 원대 중기와 남송 후기에서 원초로 분류하고 기형을 삼대 청동기와 비교하며 소개한 것과 한국과 일본에서 출토된 용천요 청자를 소개하며 교통 노선을 밝힌 논문도 있다.[37]

도 1. 청자어룡식양이병(신안6558), 용천요

도 2. 청자장경병(신안6734), 용천요

도 3. 청자연판문접시(신안15439), 용천요

32 出川哲郎,「遂寧窖藏出土の龍泉窯青瓷と新安沖沈船及び日本傳世品との比較」; 森達也,「遂寧窖藏出土の陶磁年代について」,『封人された南宋陶磁展』(東京: 朝日新聞社, 1998).

33 森達也,「宋·元代龍泉窯青磁の編年的研究」,『東洋陶磁』29(1999-2000);「日本出土的龍泉窯青磁」,『故宮文物』311호(國立故宮博物院, 2009년 제2기) ;「アジアの海を渡った龍泉青磁」,『モノから見た海域アジア史ーモノゴル~宋元時代のアジアと日本の交流』(九州大學, 2008), pp. 98~120 ;「元代龍泉窯的分期研究」,『故宮學術季刊』(2002,秋季), pp. 19~48. 森達也는 龍泉窯의 第一期는 南宋後期, 第二期는 南宋末에서 元代初期, 第三期는 元代中期에 해당한다고 발표하였다.

34 森達也,「宋・元代竜泉窯青磁の編年的研究」,『東洋陶磁』29(東京:東洋陶磁學會, 2000) ;「宋元代窖藏出土陶磁と竜泉窯青磁の編年觀について」,『貿易陶磁研究』21(日本貿易陶磁研究會, 2001) ; 森達也,「元代龍泉窯的分期研究」,『故宮學術李刊』 20(紫禁城出版社, 2002), pp. 19~48.

35 김영미,「원대 항주의 미술품 시장과 신안선의 고기물」,『미술자료』90호(국립중앙박물관, 2016), pp. 89~108.

36 고미경,『신안해저 출토 용천요 청자 연구』(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申浚,『元明時期龍泉窯研究』(北京大學博士學位論文, 2014年).

37 金英美,「新安海底出水龍泉青瓷」, pp. 330~342 ; 申浚,「東亞地區發現元明時期龍泉窯瓷器」, pp. 343~354,『中國古瓷窯大系-中國龍泉窯』(中國華僑出版社, 2015).

(2) 노호동요

『新安海底遺物(綜合篇)』에서 관요 유형으로 분류된 청자 18점 가운데 일부는 원대의 방남송 관요(倣南宋官窯) 청자로 여겼는데[38] 기종으로는 〈청자관이병〉(도4), 〈청자소병〉(도5), 〈청자향로〉(도6) 등이 있다. 최근에 이들은 항주의 노호동요에서 만들어진 원대 자기로 알려졌다.[39]

항주에 위치하며 발굴 자료에 의하면[40] 요업 유적은 주로 상하 두 개의 문화층으로 나누어졌으며 하층의 연대는 남송으로 상층의 연대는 원대로 보았다. 하층은 궁정용 청자를 전문적으로 소성하였으며, 남송시대 문헌에 등장하는 '수내사관요(修內司官窯)' 라고 하였다. 수내사관요의 성립 시기는 소흥14년(1144) 전후로 보는 것[41]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노호동요에서 관요를 제작한 시기는 적어도 남송중기(13세기 전기)까지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상층은 전체 발굴구역에 분포하며 조사 발굴에서 발견된 유물 중에는 전형적인 원대 용천요 풍이 있으며, 이른바 '가요(哥窯)' 류의 관요를 모방한 용천요 풍이 남아 있는 것이 있다. 특히 지정(支釘) 위에 모인(模印)한 파스파문자가 있어 이 층의 시대 판단에 진귀한 실물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 층에서 발견된 요도구에서 발견된 파스파문과 "대원ㅁ육년(大元ㅁ六年)"의 명문을 기준[42]으로 상층의 연대를 원대 조기의 지원년간(1271-1294)으로 약 10~20년간으로 산정하였다. 어떤 학자들은 노호동요 원대층 산품을

도 4. 청자관이병(신안11971), 노호동요

도 5. 청자소병(신안19540), 노호동요, (現 국립광주박물관 전시)

도 6. 청자향로(신안7246), 노호동요

---

38 文化公報部 · 文化財管理局編, 「新安海底遺物(綜合篇)」(1988), pp. 367~396.

39 杭州市文物考古所, 『杭州老虎洞窯址瓷器精選』(文物出版社, 2002), p. 167, 圖141(T1②) ; 森達也, 「杭州老虎洞窯出土青瓷の編年について」, 『爱知县陶磁資料館博物館研究纪要15』(2010), p. 80.

40 唐俊杰, 「關于杭州老虎洞南宋窯址性質的探討」, 『南宋官窯與哥窯-杭州南宋官窯老虎洞窯址國制學術研討會論文集』(浙江大學出版社, 2004), pp. 16~25.

41 杜正賢, 「杭州老虎洞窯址發掘情況簡介」, 『南宋官窯與哥窯-杭州南宋官窯老虎洞窯址國制學術研討會論文集』(浙江大學出版社, 2004), p. 5.

42 파스파문(八思巴文)은 원세조(元世祖) 쿠빌라이(忽必烈)가 국사 파스파(八思巴)에게 특명을 내려 창제한 일종의 병음문자(拼音文字)로 지원육년[至元六年, 1269] 2월에 반포하였으며, 원대에는 "대원(大元)"연호가 없으며 ㅁ六年은 16년 혹은 26년일 것이다. 원대에 16년을 넘는 연호는 원 시조 쿠빌라이 "지원(至元)"(1271-1294) 및 원 혜제(惠帝)가 토곤테무르(妥懽帖睦爾) "지정(至正)"(1341-1368)이 있다. 지정(至正)16년(1356) 장사성(張士誠) 군대가 항주성(杭州城)을 함락하고 후에 苗帥揚完者와 萬戶普賢을 격파하고 그 후 항성(杭城) 병화가 끊임없었기 때문에 '지정(至正)' 이 아닌 '지원(至元)' 이 될 것이다.

가요로 보고 있는데 이유는 노호동요 원대층에서 출토된 자편과 전세되어 온 가요(哥窯)와 화학분석 결과가 유사하기 때문이다.[43]

노호동요지 원대 층 출토 자편과 요도구를 통해 남송관요를 제작한데 이어 원대에도 여전히 작은 규모의 요장이 있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주요 산품은 남송 수내사관요를 모방한 자기이다. 노호동요지 원대의 산품에는 반(盤), 역형향로(鬲形香爐), 세(洗), 병(甁), 향로(香爐) 등 진설용기가 주류를 이룬다. 노호동요 청자가 중국 이외 지역에서 발견된 것은 신안해저유적이 유일하다.

(3) 철점요

신안선의 철점요 유탁유 자기의 기종은 화분, 완, 〈백탁유주자〉(도7), 〈백탁유병〉(도8) 등이 있다. 특징이 절강성 금화시(金華市) 철점촌(鐵店村)에서 생산한 제품과 같다.[44] 철점촌에서 제작한 기종으로는 완(碗), 반(盤), 관(罐), 분(盆), 병(甁), 향로(香爐), 주자(注子), 고족배(高足杯) 등이 있는데 태색은 어두운 자색(紫色), 짙은 회색(灰色), 그리고 회색을 띠며 노태부분은 담자홍색(淡紫紅色)이다. 유질은 유탁(乳濁) 상태이며 대부분의 유색은 천청색(天靑色), 소량은 천람색(天藍色), 월백색(月白色)이 있다. 유탁유자(乳濁釉瓷) 외에도 소량의 흑자 및 갈유자도 제작한다. 평굽은 철점요의 큰 특징이다.

도 7. 백탁유주자(신안170), 철점요

도 8. 백탁유병(신안15391), 철점요,
(現 국립광주박물관 전시)

도 9. 미황유삼족향로(신안15924), 경덕진요

2) 강서성(江西省)

(1) 경덕진요

신안선의 경덕진요 제품으로는 청백자, 미황유자기, 방정요제품이 있다. 신안선의 청백자는 3,400여 점으로 용천요 청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양을 차지한다. 경덕진요 청백자와 관련하여

43 李家治, 「杭州鳳凰山麓老虎洞窯出土的瓷片勭的工藝研究」, 『建築材料學報』제3권 제4기(2002).

44 貢昌, 「浙江金華鐵店村瓷窯的調查」, 『文物』第12期(1984), pp. 45~49 ; 貢昌, 「略論南朝鮮新安沉船出土鈞窯系瓷器的窯口」, 『考古』第6期(1988) ; 貢昌, 「略論南朝鮮新安沈船出土鈞窯系瓷器的窯口」, 『考古』 제6기(1998), pp. 567~570 ; 魏進飛, 「鐵店村窯乳濁釉瓷探討」, 『收藏界』 제2기(2007), pp. 70~71.

호전요지(湖田窯址) 발굴[45] 이후 2013년 낙마교(落馬橋) 유적 발굴 자료를 통해 원대 경덕진요 자료가 보충되었다.[46]

신안선의 〈미황유삼족향로〉(도9), 〈미황유향로〉(도10), 매병, 관, 〈미황유소병〉(도11) 등 4점의 미황유자기(米黃釉瓷器)의 산지에 관하여 길주요(吉州窯), 덕화요(德化窯), 장주요(漳州窯) 등 의견이 분분하였는데 최근 경덕진중국도자박물관(景德鎭中國陶瓷博物館)에서 개최된 〈송원미황유자기국제학술대회(宋元米黃釉瓷器國際研討會)〉에서 신안선의 미황유자기의 산지가 경덕진 낙마교 요지라는 의견이 비정되었다.[47]

그리고 신안선의 경덕진요 가운데 방정요(倣定窯) 백자가 있는데 망구(芒口)로 내측에 인화문 장식이 꽉 채워진 금대 정요와 유사하여 원대 정요 백자의 하한을 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평셴밍(馮先銘)은 〈인화봉황문반(印花鳳凰紋盤)〉(도12)은 남방지역의 방정요 제품이라고 했지만, 〈인화화훼문반(印花卉紋盤)〉(도13)은 정요의 것이라 했으나 정양모는 두 점 모두 경덕진요의 방정요라고 보았다.[48] 〈인화귀면문반(印花鬼面紋盤)〉(도14)은 저부가 평저에 가까운 가권족으로 세(洗)라고 불리는 기종에 가깝다. 이것은 정요에서 보이지 않는 문양과 조형으로 방정요라는 견해가 있다.[49] 한편 모리 다쓰야(森達也)는 이들을 모두 금대 정요로 보고 있어 주목된다.[50]

도 10. 미황유향로(신안1953), 경덕진요, (現 국립광주박물관 전시)

도 11. 미황유소병(신안7554), 경덕진요

도 12. 인화봉황문반(신안6665), 경덕진요

45 江西省文物考古研究所 · 景德鎭湖田窑陳列館, 「江西湖田窑址H區發掘简報」, 『考古』(2000.12), pp.73~88 ; 肖發標 · 徐長青 · 李放, 「湖田劉家塢“樞府窑”清理報告」, 「南方文物」(2001.2), pp. 6~14 ; 江西省文物考古研究所 · 景德鎭民窑博物館, 『景德鎭湖田窑址 1988-1999年 考古發掘報告』(北京: 文物出版社, 2007).

46 徐文鵬, 「景德鎭落馬橋窯址出土元代瓷器分期研究」(北京大學 考古文博學院 碩士學位論文,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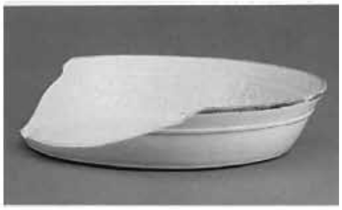
47 陸明華, 「韓國新安沈船米黃釉開片釉瓷產地再探」 ; 翁彦俊, 「景德鎭落馬橋窯址出土米黃釉瓷器及其相關問題研究」 ; 黃清華, 「宋元之際景德鎭窯業創新再思考」 ; 肖建文, 「論景德鎭米黃釉瓷器」, 『宋元米黃釉瓷器國際研討會』(景德鎭中國陶瓷博物館, 2020).

48 鄭良謨, 「新安発見陶磁器の種類と諸問題」, pp. 15~20 ; 馮先銘, 「新安海底沉没船引揚げ陶磁器に関連した問題に対する検討」, pp. 27~32, 『東洋陶磁』10 · 11(東京: 東洋陶磁學會, 1984).

49 高美京, 『定窯研究』(北京大學考古文博院 博士學位論文, 2015).

50 森達也, 「원대의 도자기 유통」, 『2023 신안선 출항 700년 준비 세미나3-신안선 연구의 현황과 전망』(국립광주박물관, 2020), p. 100.

도 13. 인화화훼문반(신안6670), 경덕진요,
(現 국립광주박물관 전시)



도 14. 인화귀면문반, 경덕진요

(2) 길주요

길주요는 지역 특색 및 민족 예술의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공예 특징이 선명하고, 선(禪)적인 분위기가 있는 수엽잔(樹葉盞), 독특한 개성이 있는 전지첩화(剪紙貼花) 및 질박하고 수려한 유하채회(釉下彩繪)가 가장 유명하여 관련 자기들이 국내외에서 환영받았다.[51]

신안선의 흑유자기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면서[52] 길주요 제품의 면모가 드러나게 되었다. 길주요로 여겨지는 것으로는 〈흑유전지첩화치자화문완(黑釉剪紙貼花梔子花紋碗)〉(도15)[53], 〈흑유대모반문매병(黑釉玳瑁斑紋梅瓶)〉(도16)[54], 백지흑화파수문병(白地黑花波濤紋瓶) 등이 있다.

도 15. 흑유치자문완(신도1544), 길주요

도 16. 흑유매병(신안13217), 길주요(現 국립광주박물관 전시)

51 江西省文物工作隊 等, 「江西吉州窯遺址發掘簡報」, 『考古』 제5기(1982), pp. 481~489.

52 「中國古代黑釉瓷器暨吉州窯國際學術討論會論文稿」(深圳市博物館編, 2012) ; 栗建安, 「水下考古發現的福建古代黑釉器」, p. 123 ; 高美京, 「關于韓國發現宋元時期中國黑釉瓷器的研究」, p. 136 ; 森達也, 「建窯與灰被天目」, p. 112 참조 ; 李榕青, 「新安沉船與福建陶瓷」, 『南方文物』 (2010.1), pp.110~117.

53 국립중앙박물관편, 『신안해저문화재 조사보고 총서3-흑유자』(가을 기획, 2017), p. 29, 도20.

54 郭學雷, 「對元代吉州窯瓷器的新探索」, 「中國古代黑釉瓷器暨吉州窯國際學術討論會論文稿(深圳市博物館編, 2012), pp. 1~39. 국립중앙박물관편, 앞의 책(2017), p. 198.

(3) 칠리진요

유적은 장시 성 감주시(贛州市) 동북교 4km 지점에 위치하고, 공수(貢水) 북안에 인접하다.[55]칠리진요는 만당오대부터 제작되기 시작하여 주로 청유자와 유백유자를 제작하였다. 송에 들어가면서 주로 청백자와 유백자 그리고 흑유자를 제작하였다. 남송부터 원대까지 갈유자와 흑유자를 주로 제작하였고, 청백자도 소량 제작하였다. 그 종류가 매우 많아 완, 반, 접, 호, 향로, 병, 소조상 등이 있다. 그 중 〈흑유노태유두문호(黑釉露胎柳斗紋壺)〉(도17), 〈흑유유두문호(黑釉柳斗紋壺)〉도18)와 〈흑유소병(黑釉小瓶)〉(도19)는 칠리진요의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다. 칠리진요는 복건성(福建省)의 홍당요(洪塘窯)에 비해 태토가 무거운 것이 특징이다.[56]

도 17. 흑유노태유두문호(신안17668), 칠리진요

도 18. 흑유유두문호(신안1040), 칠리진요

도 19. 흑유소병(신안8322), 칠리진요

3) 복건성(福建省)

(1) 건요

건요[57]는 송대 명요 중 하나로, 요지는 현 복건성 건양시(建陽市) 수길진(水吉鎭) 일대에 있으며, 흑유토호잔(黑釉兎毫盞)의 산지로 유명하고, 일부 상품에는 "공어(供御)", "진잔(进盏)"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1950년대 이래로 건요 유적에서 여러 차례의 고고 조사 및 발굴을 통해, 중국에서 가장 긴 고대 용요(길이 135.6m)를 발굴하였다. 건요는 당, 오대에 청자를 제조하고, 북송초부터 흑유기 제작을 시작하여 남송말까지 활발히 제작하다가 이후 청백자로 변경 제작하였다. 송대 음다(飮茶)는 점다(點茶)를 주로 하며, 송 황실 및 상류계층에서 투다(鬪茶) 풍속도 중시하여 흑유자가 활발히 생산되었다. 복건 건요에서 제작한 토호(兎毫), 유적(油滴), 요변(窯變) 등 흑유잔은

---

55 江西省文物考古研究所 等, 「江西贛州七里鎭窯址發掘簡報」, 『江西文物』 제4기(1990), pp. 3~23 ; 余家棟 등, 「贛江上游的瓷業明珠-江西贛州七里鎭窯」, 『南方文物』 1기(2007), pp. 114~119.

56 葉文程, 「宋元時代の中国東南沿岸地区における輸出陶磁器の実情」, 『東洋陶磁』(1980) ; 薛翘 · 唐昌朴, 「江西贛州七里鎮古瓷窯址調查」, 『中國古窯址調查發掘報告集』(北京:文物出版社, 1984), pp. 124~132 ; 江西省文物考古研究所等, 「江西贛州七里鎭窯址發掘簡報」, 『江西文物』第4期(1990), pp. 3~23 ; 국립중앙박물관편, 앞의 책(2017), pp. 134~138, 204~210.

57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福建建陽縣水吉建窯遺址1991-1992年度發掘簡報」, 『考古』제2기(1995), pp. 148~159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等, 「福建建陽縣水吉北宋建窯遺址度發掘簡報」, 『考古』제12기(1990), pp. 1095-1099 ; 鄧宏文, 「吉州窯和建窯黑釉的研究」, 『湖南考古輯刊』(1999), pp. 301~334.

당시 흑유잔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생산품이다. 일부 흑유잔은 일본에 전해져, "천목(天目)"이라는 다완으로 불렸으며 일본의 음다 풍속, 다도 문화 및 흑유자의 생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신안선에서는 약 60여 점의 〈흑유완〉(도20,21,22)이 발견되었다. 대부분은 송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구연부가 깨어졌거나 기물의 내외측에 마찰흔이 심하게 나 있어 오랜 시간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58] 몇 점의 흑유다완 구연부에 둘러진 금속테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황동으로 밝혀졌다.[59]

도 20. 흑유완(신안1979), 건요

도 21. 흑유완(신안22664), 건요

도 22. 흑유완(신안11822), 건요

(2) 홍당요

홍당요(洪塘窯)[60]는 복주시(福州市) 홍당촌(洪塘村)에 위치하고, 자기 기종에는 관, 병, 합, 발, 등, 수주 등이 있으며, 그중 짙은 갈색의 박태소호(薄胎小壺)(도23,24)의 수량이 가장 많은데 직구(直口), 단경(短頸), 원견(圓肩), 고복(鼓腹), 평저(平底)로 갈색유를 기본적인 특징으로 하고, 유약이 흘러내린 현상이 있다.

고고 조사를 통해 이러한 박태장유자기(薄胎醬釉瓷器)는 복주성시(福州城市) 유적에서도 같은 종류의 기물이 생산되었으며[61], 일본 다도에서 사용한 '가라모노 차이레(唐物茶入)' 이라고 불리는 기물과 유사함을 발견하였다. '가라모노 차이레' 는 일본에

도 23. 흑유소호(신안14033), 홍당요

도 24. 흑유소호(신안6089), 홍당요, (現 국립광주박물관 전시)

58 김영미, 「신안선 발견 흑유자의 유형별 특징과 성격」, 앞의 책(2017), p. 234.

59 황현성 등, 「금구자기의 금구 성분분석과 제작기법에 관한 연구」, 앞의 책(2016), p. 315.

60 李榕青, 「新安沈船與福建陶瓷」, 『南方文物』 제1기(2010), pp. 110~117.

61 栗建安, 「福州湖東路出土的薄胎醬釉器及相關問題」, 『福建文博』(1999.1), pp. 103~111 ; 栗建安, 「福建地區薄胎醬釉器的初步研究」, 『陳昌蔚紀念論文集-陶瓷』第二輯, 臺灣:財團法人陳昌蔚文教基金會(2003), p. 51.

서 말차를 보관하는 소호로 사용되면서 다도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신안선에서 발견된 홍당요 박태소호 가운데 정향(丁香)이 담겨져 있는 것도 있어서 향료 또한 귀한 무역품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62]

(3) 자조요

자조요(磁竈窯)[63]는 복건성 진강시(晋江市) 서북부에 위치하였고, 남조 만기부터 시작하여 수당, 오대, 북송을 거치며 남송에서 원대에 최고조에 이르렀으며, 명청 시대까지도 계속 제작되었으며 모두 26개의 요지가 있다. 송원 시기, 자조요는 생활일용품을 주로 제작하였는데, 정병, 주자, 철화화문대반 등 생산품이 수출되었다. 기종은 접시, 병, 호, 대형호 등이 있다. 유색은 흑유가 주류를 이루며 청백유, 청유, 녹유 장유 등이 있다. 몸체가 무거운 편이다. 자조요 도자는 한국 ·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많이 출토되었다.

신안선에서 확인된는 자조요는 청유수반(青釉水盤), 청유화분(青釉花盆), 흑유소병(黑釉小瓶), 〈흑유유개호(黑釉有蓋壺)〉(도25), 〈흑유척화모란문매병(黑釉剔花牡丹紋梅瓶)〉(도26) 등이 있다. 그리고 〈남유국화문반(藍釉菊花紋盤)〉(도27), 〈남유봉황문반(藍釉鳳凰紋盤)〉(도28)이 있다. 이 가운데 〈흑유척화모란문매병(黑釉剔花牡丹紋梅瓶)〉은 일찍이 길주요라고 비정되었다가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의 흑유자 보고서에서는 자조요라고 명시하였다.[64] 이와 관련해서 가고시마 일대 유적에서 출토된 동일 기형의 파편으로 중국 남방지역 요장 제품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65]

도 26. 흑유척화모란문매병(신안12111), 자조요

도 25. 흑유유개호(신안18569), 자조요

도 27. 남유국화문접시(신안15491), 자조요

도 28. 남유봉황문 접시(신안12569), 자조요

62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2017), p. 154.

63 陳鵬 等, 「福建晋江磁竈古窯址」, 『考古』 제5기(1982), pp. 490~489 ; 張衛軍, 「晋江磁竈窯及産品」, 『收藏』 제10기(2012), pp. 75~81.

64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2017), p. 197.

65 고미경, 앞의 논문(2016), p. 192 ; 鹿兒島県姶良市教育委員會 編, 『姶良市埋蔵文化財発掘調査報告書(第4集): 市頭A遺跡,市頭B·C遺跡-県営農村振興総合整備事業加治木地区に伴う発掘調査報告書』(2013).

(4) 민청의요

도 29. 백유 '白玉滿堂' 명완(신안1674), 민청의요

민청의요(閩淸義窯)는 복주시(福州市) 민청현(閩淸縣) 의요촌(義窯村)에 위치한다. 고고자료에 따르면 민청의요는 청백자를 주로 제작하는 대형 요장으로, 연대는 남송에서 원대로 추정된다. 민청의요는 주로 일용 자기를 생산하고 완, 반, 접, 병, 로, 세, 호 등을 포함한다.[66] 최근 해저발굴이 확대에 따라 중요 해저유적에서 민청의요 도자기가 발견되었다.[67] 당시 민청의요가 생산한 일용자기는 주로 중국 국내 주변 지역에서 판매되었고 일부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지에서도 판매되었다. 뤄젠안(栗建安)과 모리 다쓰야(森達也)는 복건지역 가마터 조사자료를 근거로 신안선의 경덕진요 청백자라고 파악되었던 〈백유 '白玉滿堂' 명완〉(도29), 〈백자 '玉出皇山' 명망구완〉이 복건 민강유역 요장에서 생산되었다고 주장하였다.[68]

(5) 차양요

차양요(茶洋窯)[69] 유적은 남평시(南平市) 태평진(太平鎭) 차양촌(茶洋村) 북쪽에 있으며 1995년 겨울부터 1996년 봄까지 댐 건설 및 개발을 위해, 복건성 박물관은 차양요 유적에 대한 긴급 발굴 작업을 진행하였다. 발굴면적은 600평방미터에 달하고, 용요(龍窯) 11기와 다량의 도자기가 출토되었다. 자기는 청자, 청백자, 흑유자 및 녹유자가 있고, 기형은 완, 반, 접, 세, 배, 합, 호, 병, 로, 잔탁, 집호, 침, 기개, 기좌 및 동물모형 등이 있다. 신안선에서 발견된 차양요의 주요 기종은 〈흑유완〉(도30, 31)인데[70] 송대 건요의 쇠락에 따른 흑유 다완의 대용품으로 제작되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었다.[71] 아마도 점다법(點茶法)의 유행이 점차 사라지는 시점에서 포다(泡茶) 혹은 자다(煮茶)에 필요한 찻잔으로 팔린 것은 아닐까 여겨진다.

---

66 李華, 「閩淸的支柱産業-陶瓷業」, 『福建地理』 제12권(1997), pp. 42~47 ; 曾凡, 『福建陶瓷考古槪論』(福州: 福建省地圖出版社, 1995), p. 174.

67 栗建安, 「從山林到海洋-貿易全球化中的福建陶瓷生産與外銷」, 『考古學視野中的閩商』(北京: 中華書局, 2010), pp.49~63.

68 森達也, 「從出土陶瓷來看宋元時期福建和日本的貿易路線」 ; 栗建安, 「從山林到海洋-貿易全球化中的福建陶瓷生産與外銷」, 『考古學視野中的閩商』(北京: 中華書局, 2010).

69 曾凡, 『福建陶瓷考古槪論』(福州: 福建省地圖出版社, 1995, pp. 169~170) ; 福建省博物館 等, 「福建南平宋元窯址調査簡報」, 『景德鎭陶瓷』 26기(1984), pp. 144~149.

70 김영미, 앞의 논문(2017), pp. 228~229.

71 森達也, 「일본의 建盞과 天目 수용」, 앞의 책(2017), p. 303.

도 30. 흑유완(신안11774), 차양요

도 31. 흑유완(신도2069), 차양요

2. 중국북방(中國北方)

신안선에서 발견된 도자기 가운데 북방지역 도요지에서 생산된 것은 하북성(河北省)의 자주요(磁州窯)가 있다. 자주요는 현 하북성 한단시(邯鄲市) 팽성진(彭城鎭)과 자현(磁縣)의 관태진(觀台鎭) 일대에 위치한다. 송대 중기부터 자기를 제작하기 시작하여 남송, 원, 명, 청까지 계속되었다. 자주요는 백지흑화자(白地黑花磁) 생산으로 유명하며 자기 회화 장식의 새로운 영역을 펼친 동시에, 송대 이후 경덕진요 청화 및 채회자기가 발전하는 데 중요한 기초를 다지기도 하였다.[72]

송대 자주요는 대부분 일상생활용품으로, 자유분방하여 민간예술이 갖춘 호방하고 소박한 풍격을 보여준다. 장식기법은 당시 유행하던 단색유의 한계를 탈피하고 각화, 획화, 척화를 함께 사용하였다. 원대에 이르러 팽성(彭城) 지구의 자주요는 또 한 번의 전성기를 맞게 되는데, 생산 규모 확대를 통한 대형기물의 생산 역시 증가하였다. 자기는 두껍고 무거우며, 기형은 매우 크고 풍만하다.

신안선에서 발견된 자주요는 운룡, 초화문이 그려진 백지흑화, 흑유다완, 흑유병, 흑유호 등이 있다. 〈백지흑화용문호〉(도32)는 대표적인 자주요의 호이다. 〈흑유다완〉(도33), 〈흑유양이병〉(도

도 32. 백지흑화용문호(신안1), 자주요,
(現 국립광주박물관 전시)

도 33. 흑유다완(신안1980), 자주요

도 34. 흑유양이병(신안15891), 자주요

---

72 北京大學考古學系 等,『觀台磁州窯址』(文物出版社, 1997), pp. 470~513 ; 秦大樹,「磁州窯的研究史」,『文物春秋』 제4기(1990), pp. 26~31.

34) 역시 자주요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흑갈유철반문호〉(도35)는 큰 입과 불룩한 어깨를 가진 호로 먼저 얇은 갈색 유약을 입힌 후 짙은 갈색 유약을 입히고 손으로 듬성듬성 수직으로 긁어내어 소박한 문양을 만들어내고 있다.

도 35. 흑갈유철반문호(신안15566), 자주요

3. 한국 고려청자와 일본 도자기

신안선의 고려청자는 매병, 사자형연적, 상감청자완, 상감청자잔탁 2점, 뚜껑, 베개 등 모두 7점(도36)이다. 당시 정양모는 고려청자의 시기를 12세기에서 13세기로 보았는데 이후 새로운 발굴 자료 등을 근거로 연대가 매병을 제외한 6점의 연대는 13세기 후반에서 14세기로 재인식되었다.[73]

고려청자 7점 가운데 매병은 다른 6점에 비해 만든 시점도 이르고, 바닥의 접지면이 갈아낸 것처럼 매끄러워 사용한 흔적이라고 확언할 수는 없으나, 다른 고려청자에 비해 시간의 흔적이 보인다. 제작지는 부안 유천리와 강진 사당리 가마터에서 유사한 편들이 확인된다고 하였다.[74] 이들은

도 36. 신안선 출수 고려청자

73 편년 설정에 참고한 자료는 坡州 惠陰院址(1234年下限), 江華 熙宗 碩陵(1237年), 元德太后 坤陵(1239年), 保寧 元山島 海域遺址(1230年代) 등이 있다.

74 韓盛旭, 「新安船 出土 高丽青磁 性格」, 『지방사와 지방문화』10(2016), pp. 337~349 ; 朴正敏, 「14世紀前半 高麗青瓷」(明知大學 碩士學位論文, 2006) ; 朴正敏, 「14世紀前半 高麗象嵌青瓷梅瓶의 새로운 變化」, 『美術史學』21(2007), pp. 183~205.

14세기 고려청자의 교류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한편 고바야시 히토시(小林 仁)는 중국에서 출토된 고려청자의 자료를 분석하고 당시 일본의 고려청자에 대한 인식은 단지 중국에서 구입해 온 '가라모노'로 여겼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75]

도 37. 세토매병(신안12986),
(現 국립광주박물관 전시)

도 38. 세토매병(신안11590)

일본 도자기는 2점의 세토요(瀨戶窯) 매병(도37,38)이 있으며, 그 외에 인화국화문이 장식된 토기 화로 2점도 일본제이다.[76] 매병은 14세기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楢崎彰一과 藤澤良祐는 '松崎天神緣起'(1311)와 '慕歸繪詞'(1351) 등의 그림에 보이는 기물 도안과 비교하여 당시의 세토매병은 술병으로 썼을 것이라 하였다.[77] 이들 도자기는 신안선에 올랐던 일본인의 소유물로 선상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Ⅳ. 맺음말 : 향후 연구방향과 제언

신안선의 도자기 연구는 197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선학들이 쌓아놓은 연구의 초석을 바탕으로 2000년대에 들어 후학들의 관심과 열의가 커졌다. 2016년 신안선 발굴 40주년을 맞아 국립중앙박물관이 기획한 특별전 〈신안해저선에서 찾아낸 것들〉에서 신안선의 모든 것을 공개한 이후 다양한 분야의 학계에서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신안선 도자기의 산지는 중국의 남방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남방지역에 속하는 절강성의 용천요 청자, 철점요 백탁유자, 노호동요, 강서성의 경덕진요 청백자, 길주요 백지흑화자, 흑유자, 칠리진요 흑유자기, 복건성의 건요, 홍당요, 자조요, 덕화요(德化窯), 환계요(宦溪窯), 차양요에서 제작된 흑유자, 백자, 청자 등이 있다. 북방지역에서는 하북성 자주요의 백자, 백지흑화자, 흑유자, 정요 백자가 확인되었으며, 그리고 소량이지만 한국의 고려청자와 일본의 도자기 등도 실려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신안선 도자기 연구의 과제를 꼽는다면 우선 이미 3권까지 나온 『신안해저문화재 조사

75 小林仁, 「중국에서 출토된 고려청자」, 앞의 발표자료집(국립중앙박물관, 2016), pp. 197~209.

76 森達也, 「신안선 발견 중국 도자의 組成 연구」, 앞의 발표자료집(국립중앙박물관, 2016), p. 81.

77 楢崎彰一, 「新安海底引扬げの古瀨户瓶子」, 『三上次男博士喜寿纪念论文集(陶瓷篇)』(東京: 平凡社, 1985) ; 藤澤良祐, 「新安船出土의 古瀨戶窯」, 『新安船과 東아시아 陶瓷交易』(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06), p. 241.

보고 총서」가 종류별로 순차적으로 나와줘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 아직 해결되지 않은 도기갈유사이호, 도기흑갈유호 등의 생산지에 관한 문제[78]이다. 이 중에는 생산 시기가 송대로 올라가는 것들도 꽤 있으며, 이러한 도기들은 광동성(廣東省) 석만요(石灣窯), 강소성(江蘇省)의 의흥요(宜興窯), 절강성 영파(寧波) 등 광범한 지역에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생산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더 자세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세 번째, 신안선에 실린 도자기의 이동 경로에 관한 문제이다. 신안선은 최초 복건의 천주(泉州)에서 자단목이나 향료, 동전을 싣고 닝보로 향했을 것이다. 그리고 전국의 상품이 운집하는 항저우와 닝보 지역에서 용천요 청자, 철점요, 경덕진요, 자주요 등 각지에서 모인 도자기를 싣고 일본을 향해 출항했을 것이라 여겨진다.[79] 하지만 일부 일본에서는 거의 출토되지 않는 도자기가 동남아 일대에서는 흔히 발견된다는 점으로 볼 때 최종 도착지 해결을 위해서 연구의 영역을 동남아 지역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한 · 중 · 일 공동 조사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중국 각지의 가마터 조사, 일본의 신안선 도자기와 같은 유형의 도자기가 출토된 유적 조사, 그리고 신안선 도자기 조사 등을 진행하면서 산지 불명의 문제를 해결하고 삼국의 서로 다른 문화적 심미관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바란다.

투고일 2020. 11. 27. | 심사개시일 2020. 12. 1. | 게재 확정일 2020. 12. 11.

78 Li Baoping and Li Jianan, "Chinese Storage Jar in China and Beyond", Chigusa and the Art of Tea(Washington, DC: Freer Gallery of Art ans Arthur M. Sackler Gallery, 2014), pp. 73~86.

79 杭州市文物考古所, 『南宋臨安府治與府學遺址』(北京: 文物出版社, 2013), pp. 260~316 ; 寧波市文物考古研究所, 『永豊庫-元代倉儲遺址發掘報告』(北京: 科學出版社, 2013), pp. 93~110.

참고문헌

〈國文〉

1. 보고서 및 도서

국립중앙박물관, 『新安海底文物: 新安海底引揚文化財圖錄』, 月刊文化財社, 1977.

__________, 『新安海底文物』, 三和出版株式會社, 1977.

__________, 『新安海底文物 國際學術大會 主題發表』, 三和出版社, 1977.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신안해저유물-자료편 Ⅰ』, 1983.

__________________, 『신안해저유물-자료편 Ⅱ』, 1984.

__________________, 『신안해저유물-자료편 Ⅲ』, 1985.

__________________, 『신안해저유물-종합편』, 1988.

김병근, 『수중고고학에 의한 동아시아 무역 관계 연구-신안해저유물을 중심으로』, 국학자료원, 2004.

金英美, 『신안선과 도자기 길』, 통천문화사, 2005.

문화재청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신안선 The Shinan Wreck Ⅰ -본문』, 2006.

______________________, 『신안선 The Shinan Wreck Ⅱ -청자 · 흑유』, 2006.

______________________, 『신안선 The Shinan Wreck Ⅲ -백자 · 기타유물』, 2006.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4세기 아시아의 해상교역과 신안해저유물」 신안선 발굴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2006.

국립해양유물전시관, 『新安船과 동아시아 陶瓷交易』, 2007.

문화재청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신안선 속의 금속공예』, 2007.

국립중앙박물관, 『마음을 담은 그릇, 신안향로』, 2008.

__________, 『경덕진요 청백자, 푸르름 속에 핀 순백의 미』, 2008.

부산박물관, 『흙을 빚어 옥을 만들다, 용천청자』, 2011.

국립중앙박물관, 『발굴 40주년 기념 특별전 : 신안해저선에서 찾아낸 것들』, 2016.

__________, 『신안해저선 발굴 4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16.

2. 논문

정양모, 「新安海底 陶磁器의 編年的 考察」, 『月刊文化財』 11호, 1977.

_____, 「新安海底 中國陶磁器의 種類」, 『考古美術』 138 · 139호, 1978.

_____, 「1976 · 1977年 調査 新安海域 陶磁器의 編年的 考察」, 『考古美術』 136 · 137호, 1978.

_____, 「新安海底遺物을 통해 본 14世紀 東Asia의 陶磁文化」, 『震檀學報』第71 · 72號, 震檀學會, 1991.

金元東, 「新安에서 沈沒된 元代木船의 沈沒年月日과 引揚된 陶瓷의 編年에 관한 硏究」, 『美術資料』 42, 1988.

_____, 「新安引揚을 中心으로 한 元代海外貿易에 關한 小考」, 『大邱史學』 第34集, 大邱:大邱史學會, 1988.

김병근, 「水中考古學에 의한 동아시아 貿易關係 硏究 : 新安海底遺物을 中心으로」, 건국대학교 석사논문, 2003.

고미경, 「신안해저 출토 용천요 청자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韓盛旭, 「新安船 出土 高麗青瓷의 研究」, 『지방사와 지방문화(地方史与地方文化)』 Vol.10 No.2, 歷史文化學會, 2007.
申浚, 「元明時期龍泉窯研究」, 北京大學 考古文博學院 博士學位論文, 2014.
高美京, 『定窯研究』, 北京大學考古文博學院 博士學位論文, 2015.
김영미, 「신안선 발견 흑유자의 유형별 특징과 성격」, 『신안해저선에서 찾아낸 것들』, 2016.
_____, 「원대 항주의 미술품 시장과 신안선의 고기물」, 『미술자료』90호, 2016.

〈日文〉
鄭良謨, 「韓國新安海底文物について」, 『東洋陶磁』6, 1979.
東京國立博物館編, 『新安海底引揚げ文物報告書』, 東京:中日新聞社, 1983.
西田宏子, 「新安海底に沈んだ茶壷」, 『陶說』364, 日本陶磁協會, 1983.
西谷正, 「新安海底発見の木簡について」, 『九州文化史研究所紀要』 第30號, 九州大學九州文化史研究施設, 1985.
楢崎彰一, 「新安海底引扬げの古瀬户瓶子」, 『三上次男博士喜寿纪念论文集(陶瓷篇)』, 平凡社, 1985.
亀井明德, 「日元陶磁貿易の様態-新安沈没船をめぐって-」, 『日本貿易陶磁史の研究』, 1986.
茶道資料館編, 『唐物天目―福建省建窯出土天目と日本伝世の天目―』, MOA美術館, 1994.
横田賢次郎・森本朝子・山本信夫, 「新安沈船と大宰府・博多の貿易陶磁器-森田勉氏の研究成果に寄せて-」, 『貿易陶磁研究』 9, 日本貿易陶磁研究會, 1989.
山本信夫, 「新安海底遺物」, 『考古學による日本歷史10-對外交涉』, 東京:雄山閣出版株式會社, 1997.
亀井明德, 「和好賞翫の青瓷」, 『専修大學人文科學年報』第28號, 1998.
國立歴史民俗博物館編, 『陶磁器の文化史』, 1998.
朝日新聞社文化企画局文化企画部編 : 『封印された南宋陶磁展』, 東京 : 朝日新闻社, 1998.
鄭良謨, 「韓国新安沖海底引き上げ文物」, 『世界美術大全集-元』, 東京:小學館, 1999.
陸明華, 「四川遂寧出土陶磁器と窖蔵の年代問題の検討」, 『シンポジウム「宋・元時代の龍泉窯青磁を考える」資料集』, 1999.
森達也, 「宋・元代竜泉窯青磁の編年的研究」, 『東洋陶磁』29, 東京: 東洋陶磁學會, 2000.
_____, 「宋元代窖藏出土陶磁と竜泉窯青磁の編年觀について」, 『貿易陶磁研究』21, 日本貿易陶磁研究會, 2001.
宮井善朗, 「新安海底沈没船とその引揚遺物」, 『福岡市博物館特別企画展別册圖錄, 2002.
國立歴史史民俗博物館, 『東アジア中世海道 -海商・港・沈沒船-』, 東京 : 毎日新聞社, 2005.
田中克子, 佐藤一郎. 「Ⅲ.陶磁の海道－貿易陶磁器の推移」, 『中世都市の博多を掘る』, 福岡:海鳥社, 2008.
木下尚子編集, 『13-14世紀の琉球と福建 : 13-14世紀海上貿易からみた琉球国成立要因の実証的研究 – 中国福建省を中心に』, 熊本大学文学部木下研究室, 2009.
森達也, 「杭州老虎洞窯出土青瓷の編年について」, 『爱知県陶磁資料館博物館研究紀要15』, 2010.
鹿兒島県姶良市教育委員會 編, 『姶良市埋蔵文化財発掘調査報告書(第4集) : 市頭A遺跡, 市頭B・C遺跡-県営農村振興総合整備事業加治木地区に伴う発掘調査報告書』, 鹿兒島県姶良市教育委員會, 2013.

〈中文〉

李德金・蔣忠義,「朝鮮新安海底沉船中的中國瓷器」,『考古學報』第2期, 北京: 科學出版社, 1979.

薛翘,「江西贛州七浬鎮古瓷窯址調查」,『中國古代窯址調查發掘報告集』, 北京: 文物出版社, 1984.

馮先銘,「南朝鮮新安沉船及瓷器問題探討」,『故宮博物院院刊』第3期, 1985.

福建省泉州海外交通史博物館編,『泉州灣宋代海船發掘與研究』, 北京: 海洋出版社, 1987.

貢昌,「略論南朝鮮新安沉船出土鈞窯系瓷器的窯口」,『考古』第6期, 1988.

鄭良謨著, 程曉中譯,「新安海底發現的陶瓷器的分類與有關問題」,『海交史研究』總15期, 1989.

江西省文物考古研究所等,「江西贛州七里鎮窯址發掘簡報」,『江西文物』第4期, 1990.

李知宴,「十二至十四世紀中國瓷器的發展和外銷」,『中國歷史博物館館刊』, 北京: 中國國家博物館, 1992.

栗建安,「福州湖東路出土的薄胎醬釉器及相關問題」,『福建文博』第1期, 1999.

______,「福建地區薄胎醬釉器的初步研究」,『陳昌蔚紀念論文集-陶瓷』第二輯, 臺灣:財團法人陳昌蔚文教基金會, 2003.

浙江省考古研究所,『龍泉東區窯址發掘調查報告』, 北京:文物出版社, 2005.

景德鎮民窯博物館 [共]編著,『景德鎮湖田窯址: 1988-1999年考古發掘報告』, 北京: 文物出版社, 2007.

久保智康著,留丹譯,「新安沉船中的金屬工藝品-以其特點及新安船航綫的性質爲中心」,『福建文博』2009年增刊, 2009.

森達也,「從出土陶瓷來看宋元時期福建和日本的貿易路綫」,『考古學視野中的閩商』, 2010.

福建博物館・晋江博物館編,『磁灶窯址-福建晋江磁灶窯址考古調查發掘报告』, 北京 : 科学出版社, 2011.

浙江省博物館編,『韓國新安沉船出水文物精華 "大元帆影"』, 北京:文物出版社, 2012.

成都文物考古研究所・遂宁市博物館編,『遂寧金魚村南宋窖藏』, 文物出版社, 2012.

沈瓊華主編,『2012海上絲綢之路-中國古代瓷器輸出及文化影響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杭州:浙江人民美術出版社, 2013. 2013.

〈英文〉

Rosemary scott, "IMPERIAL TASTE-Chinese ceramics from The Percival David Foundation",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Chinese, 1989.

Li Baoping, "Inscribed Chinese stoneware storage jars from the 14th century Sinan wreck in Korea: the context of Asian ceramic trade and Japanese tea culture", in National Museum of Korea 2012 Museum Network Fellowship Research Papers, National Museum of Korea, Ed., 서울, 2013.

Li Baoping and Li Jian'an, "Chinese stoneware storage jars: connecting Japan, China and the world, in Chigusa", Louise Cort and Andrew Watsky, Eds., Washington: The Freer Gallery of Art and the Arthur M. Sackler Gallery, Smithsonian Institution, forthcoming, 2014.

신안선 도자기 연구 현황과 전망

김영미

본고는 신안선 발굴 후 지금까지 약 40년간 이루어진 연구의 결과물과 전시, 신안선 도자기에 대한 연구 현황을 정리해 보고 남은 과제 및 향후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필자는 신안선 도자기 연구의 궤적을 크게 두 개의 시기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다. 우선, 1970년대부터 1990년대는 신안선 도자기 연구의 초석을 마련한 시대이다. 2000년대에 들어 신안선 도자기 연구의 본격적인 발전 · 도약의 시대로 보았다.

신안선의 도자기 연구는 197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선학들이 쌓아놓은 연구의 초석을 바탕으로 2000년대에 들어 후학들의 관심과 열의가 싹 트기 시작하였다. 2016년 신안선 발굴 40주년을 맞아 국립중앙박물관이 기획한 특별전 〈신안해저선에서 찾아낸 것들〉에서 신안선의 모든 것을 공개한 이후 다양한 분야의 학계에서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신안선 도자기의 산지는 중국의 남방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남방지역에 속하는 절강성의 용천요 청자, 철점요의 백탁유자, 노호동요, 강서성의 경덕진요 청백자, 길주요 백지흑화자, 흑유자, 칠리진요 흑유자기, 복건성의 건요, 홍당요, 자조요, 덕화요, 환계요, 차양요에서 제작된 흑유자, 백자, 청자 등이 있다. 북방지역에서는 하북성의 자주요의 백자, 백지흑화자, 흑유자 등이 확인되었으며, 그리고 소량이지만 한국의 고려청자와 일본의 도자기 등도 실려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신안선 도자기 연구의 향후 과제를 꼽는다면 우선 이미 3권까지 나온 『신안해저문화재 조사보고 총서』가 종류별로 순차적으로 나와주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도기갈유사이호, 도기흑갈유호 등의 생산지에 관한 문제이다. 이 중에는 생산 시기가 송대로 올라가는 것들도 꽤 있으며, 이러한 도기들은 광동성의 석만요, 강소성의 의흥요, 절강성의 영파 등 광범한 지역에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생산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더 자세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은 신안선에 실린 도자기의 이동 경로에 관한 문제이다. 신안선은 최초 복건의 천주에서 자단목이나 향료, 동전을 싣고 닝보로 향했을 것이다. 그리고 전국의 상품이 운집하는 항저우와 닝보 지역에서 용천요 청자, 철점요, 경덕진요, 자주요 등 각지에서 모인 도자기를 싣고 일본을 향해 출항했을 것이라 여겨진다. 하지만 일부 일본에서는 거의 출토되지 않는 도자기가 동남아 일대에서는 흔히 발견된다는 점으로 볼 때 최종 도착지 해결을 위해서 동남아 지역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한 · 중 · 일 공동 조사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중국 각지의 가마터 조사, 일본의 신안선 도자기와 같은 유형의 도자기가 출토된 유적 조사, 그리고 신안선 도자기 조사 등을 진행하면 생산지 불명의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삼국의 서로 다른 문화적 심미관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

주제어 : 신안선, 도자기, 연구와 전시, 새로운 성과, 회고와 전망

Abstract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of Ceramics Excavated from Sinan Shipwreck

Kim Youngmi

This study intends to shed light 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conducted on the Sinan Shipwreck and its cargo of pottery over the past forty years and to propose a future direction for research. Previous research on the pottery excavated from the Sinan was conducted during two distinct periods, i.e. the 1970s to the 1990s, during which the initial groundwork for the research was laid, and the 2000s, when full-scale research began in earnest.

In the 2000s, the research attracted the interest of younger generations thanks to the groundwork laid by old-timers in the first period. It was encouraging to see many scholars from diverse fields show keen interest in the special exhibition held in 2016 by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NMK") under the title "Relics Excavated from the Sinan Shipwreck" on the occasion of the 40th anniversary of the Sinan's excavation.

Most of the pottery wares found on the Sinan were produced in diverse parts of China, i.e. the southern provinces of China (blue celadon from the Longquan Kiln, etc.); Zhejiang Province (blue/white celadon from the Jingdezhen Kiln, etc.); Jiangxi Province (porcelain bowls with black glaze, white celadon, blue celadon from the Jianayo Kiln, etc.); and Fujian Province. However, there were some exceptions, including white porcelain from the Cizhou Kiln, etc. in Hebei Province in the north, Goryeo blue celadon from Korea, and porcelains of Japanese origin.

As regards future tasks related to research on the porcelains excavated from the Sinan, it is our fervent hope that further volumes of A Collection of Reports on the Survey of Heritage Items Salvaged from the Sea off Sinan Vol. 1 - 3 will be published.

Furthermore, certain questions have yet to be answered, such as the location of the production site of porcelain potteries with dark brown glaze, etc., many of which originate from the Song Dynasty of China. As they appear to have been produced in a variety of places including the Shiwanyao kiln in Guangdong Province, the Yixingyao kiln in Jiangsu Province, and the Ningboyao kiln in Zhejiang Province, further survey and research will be necessary.

With regard to the routes used to transport the porcelain wares found on the Sinan, it is assumed that the ship sailed from Quanzhou in Fujian towards Ningbo in Zhejinag laden with a cargo of rosewood,

incense, and coins. Then, it set sail for Japan with a cargo blue celadon produced at the Longquan kiln, etc. at Hangzhou and Ningbo, where various kinds of goods were collected from across China. However, considering that pottery wares rarely unearthed in Japan are often found in Southeast Asia,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whether Southeast Asia was a possible destination.

Finally, we have a suggestion to make. We believe that the problem concerning the lack of certitude about the production site could be resolved by conducting a joint survey of kiln sites in China and Japan where porcelain items similar to those found on the Sinan have been unearthed. We feel that this will provide the participants with an opportunity to deepen their understanding of the sense of esthetic quality different from each other.

Keywords : Sinan Shipwreck, Ceramics, Research and Exhibition, New Achievements, Retrospections and Prospects

신안선 출수 금속공예품 및 목공예품의 연구현황과 전망

이용진*

Ⅰ. 머리말

Ⅱ. 신안선 출수 금속공예품의 연구 성과

Ⅲ. 신안선 출수 목공예품의 연구 성과

Ⅳ. 신안선 출수 금속 · 목공예품의 과제와 전망

Ⅴ. 맺음말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신안선 출수 금속공예품 및 목공예품의 연구현황과 전망

이용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Ⅰ. 머리말

1976년부터 1984년까지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해역에서 발굴한 22,000여점의 신안선 발굴품 중 금속공예품은 1,000여점에 이른다.[1] 신안선 출수 금속공예품들은 크게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한 수출용품과 선상에서 사용하였던 선상용품으로 분류할 수 있고, 14세기 전반 원대 금속공예품의 경향 및 가마쿠라 후기 일본에 수출되었던 금속공예품의 면모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발굴 이후 신안선의 금속공예품에 대해서는 발굴 보고서와 전시를 통해 발굴품의 분류와 용도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졌으나 미진한 부분들이 많았다.

신안선 발굴 이후 10년 단위로 개최된 전시와 학술대회는 신안선 출수품의 연구 성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1981년부터 1988년까지 간행된 신안선 발굴보고서 이후 2006년까지 신안선 출수 금속공예품은 발굴보고서에 준하는 분류와 용도가 주된 경향이었다. 그러나 2007년 신안선 발굴 30주년 기념 전시와 학술대회를 계기로 신안선 출수 금속공예품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2016년 신안선 발굴 40주년 기념 〈신안해저선에서 찾아낸 것들〉 특별전시와 국제학술대회, 신안선 출수 금속공예 보고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재질과 용도, 명문 등을 새롭게 밝힌 것이다. 신안선 출수 목공예품에 대한 연구는 2016년에 처음으로 진행되었지만, 칠기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글에서는 신안선 출수품 발굴보고서 이후 현재까지 금속공예와 목공예의 연구성과를 정리, 분석하고자 한다. 신안선 출수 금속공예품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지만, 자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목공예품은 2016년 신안해저선 발굴 4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

1 문화공보부 · 문화재관리국, 『신안해저유물』자료편 Ⅰ～Ⅲ, 종합편(1981～1988); 문화재청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신안선』본문편(2006); 문화재청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신안선 속의 금속공예』(2007). 2016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신안선 발굴 40주년을 기념하는 〈신안해저선에서 찾아낸 것들〉 특별전시를 2016년 7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개최하였고, 약 20,000여점을 전시하였다.

처음으로 다루기 시작할 정도로 연구는 미미한 편이다. 신안선 출수 금속공예품과 목공예품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고 금속공예품과 목공예품 연구의 경향과 향후의 방향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Ⅱ. 신안선 출수 금속공예품의 연구 성과

1976년부터 1984년까지 신안선의 발굴은 9년간 11차례에 걸쳐 진행되었고, 이중 금속공예품은 2차 발굴부터 최종 확인 발굴까지 출수되었다. 동전을 제외한 금속공예품의 발견수량을 연차별로 살펴보면, 2차(1976.11.9~12.1) 12점, 3차(1977.6.27~7.31) 264점, 4차(1978.6.16~8.15) 86점, 5차(1979.6.1~7.20) 6점, 6차(1980.6.5~8.4) 31점, 7차(1981.6.23~8.22) 105점, 8차(1982.5.5~9.30) 109점, 9차(1983.5.29~11.25) 102점, 10차(1984. 6.1~8.17) 14점, 최종 확인 발굴(1984.9.17) 14점 등 총 729점이 발굴되었다. 이들 유물들은 보존처리와 분류작업을 통해 총 993점으로 확인되었다.

993점에 이르는 신안선 출수 금속공예품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1981년부터 1988년까지 간행된 신안선 발굴보고서였다.[2] 신안선 발굴보고서에서는 금속공예품을 甁類, 銅鏡, 香爐, 錘, 燈盞, 燭臺, 盞, 匙, 觚·爵, 盤, 釜, 盒, 投壺, 匙箸, 鍋, 銅鈸, 鉦, 靑銅鍤, 자물쇠, 注子, 집게, 칼코등이, 廚房用器, 金屬製鉢, 金屬鋌 등의 35가지로 분류하고, 현상설명과 특징, 판독가능한 명문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여 신안선 출수 금속공예품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발굴보고서 간행 이후 신안선 출수 금속공예품에 대한 연구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1).

표 1. 신안선 출수 금속공예품 연구 성과

연번	논문명	저자	연도	비고
1	「新安出土の金工品」	이난영	1980, 1981	『東洋陶磁』10 · 11
2	「新安海底遺物中 重要遺物에 대하여」	이호관	1983	『문화재』16
3	「新安海底 發掘遺物」	이호관	1984	『문화재』17
4	「신안선 출토 금속유물의 용도와 조형적 특징」	이영희	2007	『신안선 속의 금속공예』
5	「신안선 출토 동전의 용도와 성격-일본사의 관점에서」	櫻木晋一	2007	『신안선 속의 금속공예』
6	「한국 및 중국 동전 고전의 성분조성 비교」	강형태	2007	『신안선 속의 금속공예』
7	「고려와 중국의 금속공예 교류관계」	신숙	2007	『신안선 속의 금속공예』
8	「원대 금은기와 기타 유물양식」	齊東方	2007	『신안선 속의 금속공예』
9	「14세기 일본 금속공예와 신안선 유물」	久保智康	2007	『신안선 속의 금속공예』

2 문화공보부 · 문화재관리국, 「신안해저유물」종합편(1988); 문화재청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신안선』본문편(2006).

연번	논문명	저자	연도	비고
10	「新安沈船裝載的金屬工藝品- 其特點以及新安沈船返航的性質」	久保智康	2008	『南方文物』2008-4
11	「中世日本における倣古銅器の受用と模倣」	久保智康	2010	『東アジアをめぐる金屬工藝』
12	「新安沈船出水仿古金屬器研究」	袁泉	2013	
13	「新安沈船出水仿古器物討論-以爐瓶之事爲中心」	袁泉	2013	『故宮博物院院刊』2013-5
14	「新安船 出水 倣古銅器의 기형과 용도」	김성아	2015	『미술사학』29
15	「신안침몰선 출수 기물 叢考」	揚之水	2016	『해양문화재』9
16	「신안선 금속공예품의 특징과 의의」	이용진	2016	『신안해저문화재 조사보고 총서』2 금속공예

신안선 출수 금속공예품에 대한 연구는 발굴보고서 간행 이후 2000년대 들어 본격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주요 논문의 발표시점을 보면 이것은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연구 성과들 중에서 주요 논문과 성과들을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 이영희, 「신안선 출토 금속유물의 용도와 조형적 특징」, 『신안선 속의 금속공예』(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7)

이영희의 「신안선 출토 금속유물의 용도와 조형적 특징」은 신안선의 금속공예품만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연구이다. 2007년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의 『신안선 속의 금속공예』 전시도록에 게재한 것으로 국내 학자가 다룬 최초의 종합적 성격의 글이다, 이 연구에서는 출수 금속공예품을 금속정, 기명류, 분향구 · 조명구류, 화장용구류, 불교의식구와 악기류, 주방용구류, 생활용구류, 무기류, 장식구와 기타의 9가지로 분류하고, 이들의 용도와 조형성에 대해 다루었다.

■ 久保智康, 「14세기 일본 금속공예와 신안선 유물」, 『신안선 속의 금속공예』(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7)

구보 토모야쓰(久保智康)의 「14세기 일본 금속공예와 신안선 유물」은 신안선 출수 금속공예품 중 佛具와 唐物銅器, 銅鏡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 금속공예품과의 영향관계를 다루었다. 그는 신안선 출수 불구를 香具, 燈火具, 梵音具로 분류하고, 이중 범음구인 경자와 바라 등이 일본에서 사용된 것이라는 점을 흥미롭게 보았다. 唐物銅器는 사찰의 공양구와 막부의 위세품으로 보았으며, 동경은 중국경, 고려경, 일본경으로 분류하고 이들 동경은 수출품이 아닌 선상용품으로 보았고, 신안선 출수 금속공예품 중 일본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은 고려를 포함한 타국의 것으로 추정하였다.

■ 久保智康, 「中世日本における倣古銅器の受用と模倣」, 『東アジアをめぐる金屬工藝』(勉誠出版, 2010)

구보 토모야쓰의 「中世日本における倣古銅器の受用と模倣」은 중세 일본의 唐物熱風에 따른 중국 방고동기의 유행을 신안선 출수품과 일본 내 삼구족 중의 觚, 당물을 모방한 삼구족의 성립, 管耳瓶과 蒜形口瓶 수입과 모방, 중세 일본 방고동기 수용과 특색에 대해 다루었다. 그는 신안선 출수 금속공예품을 중국제 수출품, 중국 이외 국가의 수출품, 일본제 금속공예품으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중세 일본의 전래된 중국의 방고동기는 일본의 삼구족 성립에 영향을 미쳐, 일본 내에서의 모방이 이루어졌고, 일본에서의 방고동기 수용은 사찰의 공양구와 완방용품 등을 선택하여 수용하였고, 가마쿠라시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남북조시대 전반에 정착되었다고 언급하였다.

■ **袁泉, 「新安沈船出水仿古器物討論-以爐瓶之事爲中心」, 『故宮博物院院刊』2013-5(臺灣 故宮博物院, 2013)**

袁泉의 「新安沈船出水仿古器物討論-以爐瓶之事爲中心」은 신안선 출수 금속공예품 중 향로와 병의 형식을 중국의 출토 사례 등을 제시하면서 당시의 경향과 제작시기를 14세기 전반으로 추정하였다. 14세기 전반 방고동기의 생산과 소비 및 사용계층 등과 함께 일본에서의 소비는 중국의 경향을 따르되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기물만을 선택적으로 하였고, 신안선의 향로와 병은 사찰의 공양물로서의 一爐二瓶의 삼구족(삼사)의 역할과 함께 당시 막부를 포함한 지배층의 文玩清賞의 취미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 **김성아, 「新安船 出水 倣古銅器의 기형과 용도」, 『미술사학』29(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15)**

김성아의 「新安船 出水 倣古銅器의 기형과 용도」는 신안선 출수 방고동기의 주류를 병과 향로로 보고, 기형적 원류는 송대의 『선화박고도』로 보았지만, 일부 향로는 명대 편찬한 『宣德彝器圖譜』의 향로와 유사하다고 밝히면서, 이들 고동기는 당시 민간에서 유행한 방고동기 양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신안선의 방고동기는 중세 일본 사찰의 공양구와 당시 일본 지배층의 감상문화와 관련된 것으로 언급하였다.

■ **揚之水, 「신안침몰선 출수 기물 竈考」, 『해양문화재』9(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6)**

양지수의 「신안침몰선 출수 기물 竈考」는 신안선 출수품 중 주석제 주자와 경자, 자기 인물상에 다룬 글이다. 이중 주자는 남송대부터 원대까지 사용된 기형으로 술을 데우는데 사용하는 것이라 언급하였고, 경자는 송대부터 제작되어 원, 명대까지 사용된 새로운 범음구로 보고, 고려와의 관련성도 언급하였다. 이 글은 신안선 출수 주자와 경자를 중국 출토품과의 비교를 통해 용도와 시대를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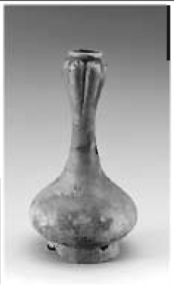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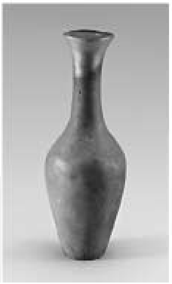
■ **이용진, 「신안선 금속공예품의 특징과 의의」, 『신안해저문화재 조사보고 총서』2 금속공예(국립중앙박물관, 2016)**

이용진의 「신안선 금속공예품의 특징과 의의」는 신안선 출수 금속공예품에 대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기형의 새로운 분류와 용도, 제작기법, 재질과 명문 등을 새롭게 조명한 글이다. 특히 이 글에서는 그 동안의 반복되었던 재질의 오류를 X선 형광분석을 통해 재질의 오류를 수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물에 새겨진 명문도 새롭게 규명하였다. 이 글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다.

이 글에서는 신안선 출수 금속공예품을 생활용품과 주방용품, 향도구, 범음구, 도량형구, 장식구, 금속정의 7개 범주로 분류한 후 세부적인 재분류를 하였다. 생활용품은 瓶과 盞, 楪匙, 注子, 숟가락, 燈燭具, 銅鏡과 자물쇠, 주방용품은 鑊을 비롯해 냄비와 깔때기, 기름을 거르는 채, 향도구는 香爐를 포함해 香盒, 香瓶, 香匙와 香箸, 범음구는 편종과 磬子, 鈸鑼, 도량형구는 추와 저울접시, 장식구는 배 안을 장식하기 위한 것과 기물의 일부분을 포함시켰고, 금속정은 朱錫鋌을 비롯해 鐵鋌을 포함시켰다. 이와 같은 분류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기형과 용도 등을 고려한 것이다.

생활용품 중 병은 蒜形口瓶, 2개의 대롱형 장식이 달린 貫耳瓶, 목이 긴 長頸瓶, 2개의 귀가 달린 兩耳瓶, 주구와 첨대가 달린 淨瓶 등이 있다(표2).

표 2. 신안선 출수 병의 종류

					
觚 (신안23336)	蒜形口瓶 (신안6642)	貫耳瓶 (신안1989)	長頸瓶 (신안1990)	兩耳瓶 (신안24525)	淨瓶 (신안1986)

신안선에서 발견된 병류는 觚를 비롯해 蒜形口瓶과 貫耳瓶, 長頸瓶 등으로 대부분 화훼의 용도로 사용된 것들이다. 古銅瓶이 화훼용으로 사용된 것은 남송대로 조희곡의 『洞天淸錄集』古銅瓶鉢養花果條에서는 땅속에 있던 고동기는 土氣를 깊이 받아들여 꽃이 잘 자라고 선명하다고 언급하고 있어 고동기를 화훼에 사용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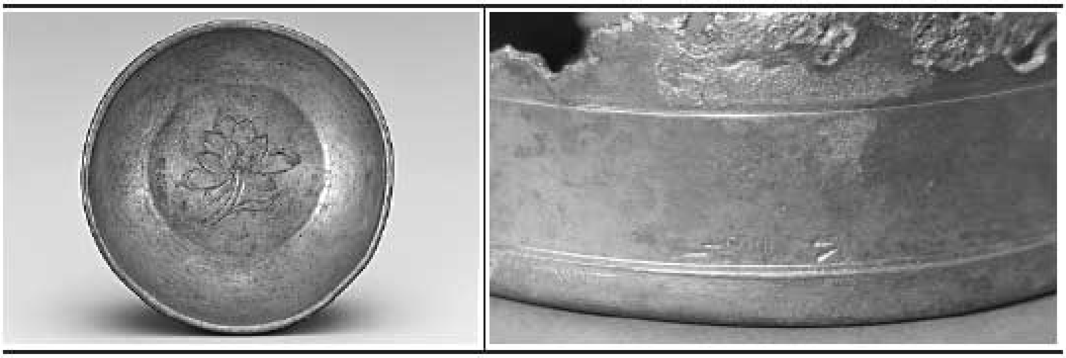
신안선 출수 병의 재질은 대부분 청동이지만, 황동으로 만든 觚와 주석으로 만든 양이병과 정병도 있고, 신안선 출수 병은 굽과 몸체, 장식을 별주 후 땜으로 붙인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 판독하지 못했던 명문은 '子孫永寶用之'와 '宜爾子孫' 등 자손의 번성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선화박고

도』와 「詩經」의 내용을 따르고 있다. '子孫永寶用之' 는 周代 고동기에 많이 새겨진 명문으로 『선화박고도』를 참고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표8).[3]

표 3. 신안선 출수 [illegible]의 명문(신안 6942(좌), 신안2008(우))

盞은 고동기 爵을 방제한 것과 굽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으며, 재질은 청동과 황동, 주석으로 확인되었다. 爵에는 '光風霽月' 의 명문이 새겨진 것이 있고, 주석 잔에는 王九郞과 小參郞 등 장인의 이름이 명문이 압인되어 있었다(표4).

표 4. 신안선 출수 盞의 명문 王九郞造 朱錫盞(신안6646)과 小參郞造 朱錫盞(신안1993)



접시는 압출과 두드려서 성형한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압출접시는 황동과 주석으로 만들었다. 황동접시는 두께가 매우 얇으며 고부조의 압출로 문양을 표현하였고, 주석제 접시도 고부조의 압출과 선조기법으로 문양을 표현하였다.

주자는 둥근 몸체에 주구와 손잡이가 달린 것, 원통형 몸체에 주자가 달린 것, 원통형 몸체 상부에 片口嘴이 붙은 것이 있다(표5).

---

3 『宣和博古圖』에는 '子孫永寶用之', '子孫永寶用享', '子孫永寶用' 등 자손의 번성을 기원하는 명문이 많이 있는데, 周代에 만든 鼎, 彝, 卣, 壺, 敦, 匜, 鐘 등에 새겨져 있다.

표 5. 신안선 출수 주자

청동주자(신안23246)	주석제 주자(신안13903)	주석제 주자(신안6647)

신안선 출수 주자 중 원통형 몸체가 달린 것은 원통형 몸체와 주자 부분을 별주 후 땜으로 붙인 것이 특징이고, 기형적으로도 특이하다.

수저는 약시를 포함해 18점에 이르며, 이중에는 3점의 고려시대 숟가락이 포함되어 있어 신안선에 고려 선원이 승선하였던 개연성을 높여 주는 증거물이라 할 수 있다.

등촉구는 燈盞과 烛대가 있으며 납 성분이 함유된 주석으로 만들었고,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안선 출수 등잔과 烛대는 각 부분을 별주 후 땜으로 접합한 것이 특징이다(표6).

표 6. 신안선 출수 등촉구

등잔 (신안23282, 신안6659)	소형 烛대 (신안4063, 신안23796)	대형 烛대 (신안5589, 6653)	삼족형 烛대 (신안23497)

銅鏡은 모두 24점으로 형태는 圓形과 方形, 八稜形을 비롯해 손잡이가 있는 柄鏡 등이 있다(표7). 신안선 발견 동경은 宋代와 元代, 高麗 및 가마쿠라 후기 일본의 동경으로 추정된다. 원형은 海獸葡萄文鏡을 비롯해 子厚銘雙魚文鏡, 소문경이 있고, 방형은 1점으로 뉴 위에 두 마리의 새가 표현된 雙鳥文鏡이 있다. 팔릉형은 무늬가 없는 素文鏡과 '湖州眞石家 念二叔照子' 가 새겨진 湖州銘鏡이 있다. 이들 동경은 수량으로 보아 수출용품 보다는 배에서 사용한 선상용품으로 추정된다.

표 7. 신안선 출수 동경

圓形(신안23828)	方形(신안11646)	八稜形(신안10918)	柄形(신안10315)

신안선 출수 廚房用品은 鑊을 비롯해 냄비와 깔때기, 기름을 거르는 채 등이 있다(표8). 鑊은 60여점에 이르고, 지름 10cm의 소형과 지름 28cm 이상의 대형 확도 같이 발견되어 선상과 수출용으로 보았다.

표 8. 신안선 출수 주방용품들

확(신안5209)	기름 거르는 채 (신안6646)	프라이팬 (신안3062)	깔때기 (신안23825)	냄비(신안2362)

香道具는 香爐를 포함해 香盒, 香瓶, 香匙와 香箸가 포함되며, 향로가 28점, 향도구가 17점이었다. 향도구 들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향로 중에는 고동기 鼎을 방제한 鼎形香爐와 삼족향로 등이 있다(표9).

표 9. 신안선 출수 鼎形香爐(신안980, 2002, 6637, 24518)

신안선 출수 정형향로 중에는 고동기 鬲의 다리와 새끼줄 모양의 귀, 몸체에 12개의 뉴가 달린 것이 가장 많았는데, 元代에 나타나는 새로운 양식적 요소이고, 중국 浙江大學 墓蹟, 福建省 南平 窖藏, 江西省 宜春 窖藏, 北京 延慶窖藏 등 주로 중국 남부지역에서 발견되었다.[4]

4 王牧, 「中國南方地域における宋・元期の仿古青銅器」, 『東アヅアをめぐる金屬工藝』(勉誠出版, 2010), pp. 134~135.

신안선에서 발견된 향도구 중 향로 이외의 것으로는 향합과 향시, 향저, 향병 등이 있다. 향병과 향시, 향저는 향로와 세트로 사용하는 향도구로 남송대 陳敬의 『陳氏香譜』에서 확인되며, 이후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5]

범음구는 磬子, 鈸囉, 鉦, 編鍾 등이 있다(표10).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경자는 높이 3cm의 소형 경자부터 높이가 30cm에 가까운 대형의 경자도 있다. 이중 대형경자는 宋代부터 보편화되어 元明代에도 제작되었고, 일본에서는 가마쿠라 후기에 전래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으나 당시 고려에서는 대형 경자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경자는 목간에 기록된 사찰인 東福寺와 釣寂庵 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10. 신안선 출수 梵音具

磬子(신안24509)	鈸囉(신안6651)	鉦(신안6082)	編鍾(신안24513)

편종은 1점 발견되었고, 평면이 타원형으로 弧形의 천판에는 파도문이 새겨져 있고, 뉴는 사라졌다. 연곽과 연곽사이의 명문곽에는 漢□鍾, □□宮을 篆書로 새겼고, 그 아래에는 역시 篆書로 眉壽를 새겼다. 眉壽는 『宣和博古圖』에 나오는 명문으로 신안선에서 발견된 편종의 명문은 『宣和博古圖』를 참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도1).

도 1. 신안선 출수 편종의 명문 眉壽와 「宣和博古圖」의 眉壽

5 陳敬, 『陳氏香譜』卷3 香品器.

도량형구는 청동추와 저울접시, 척이 발견되었고, 육각의 청동추에는 慶元路와 庚申年의 명문이 새겨져 있었다.

장식구에는 불사약을 빻고 있는 토끼가 새겨진 원형 장식판과 기마인물과 물고기, 종 등을 표현한 장식구가 있으며, 이들의 용도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배 안에 장식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반면 〈코끼리 장식〉은 중국 浙江省 新昌에서 출토된 양이병의 장식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신안선 출수 〈코끼리 장식〉도 양이병의 장식으로 볼 수 있고, 양이병의 굽부분도 신안선 출수품 중에서 확인되었다(도2).[6]

도 2. (좌) 신안선 출수 코끼리 장식(신안23325)과 굽(신안 23194), (우) 중국 浙江省 新昌출토 코끼리 장식 양이병

한편 그 동안 용장식으로 알려졌던 것은 붓을 놓기 위한 筆架로 확인되었다(도3).[7]

도 3. 용모양 筆架(신안 23327), 元代 14세기, 높이 6.4㎝, 길이 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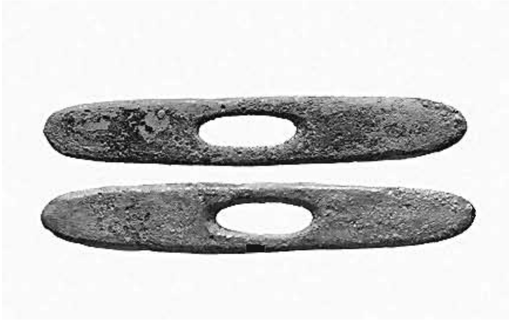
6 俞国璋, 「新昌出土青铜象首衔环瓶考」, 『東方博物』 50輯(浙江省博物館, 2014).

7 久保之康, 「中世日本における倣古銅器の受用と模倣」, 『東アジアをめぐる金属工藝』(勉誠出版, 2010), pp.186~187.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필가를 雙頭雨龍形筆架로 부르고 있다.

가마쿠라 후기 일본에서 수입한 방고동기 중에는 동물 모양의 필가와 연적이 많았는데, 신안선 출수 용모양 필가는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金屬鋌은 349점으로 朱錫鋌과 鐵鋌 등으로 형태는 방형과 타원형이 있으며, 모두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 있다(표11).

표 11. 신안선 출수 금속정의 형태

	
방형 금속정(신안23209)	타원형 금속정(신안23212)

이들 금속정 중 방형의 주석정 중에는 王九郎이 새겨진 것이 30여점 이상 발견된다.[8] 王九郎은 주석정 뿐만 아니라 〈주석잔〉(신안6649)에도 새겨져 있어 주석제 공예품을 전문적으로 만들었던 장인으로 보인다. 주석정에는 왕구랑 이외에 王乙斗라는 장인의 이름도 확인되었다.

Ⅲ. 신안선 출수 목공예품의 연구 성과

신안선 출수 목제품은 도자기를 운반하기 위해 넣었던 목상자와 칠기, 목기류 등이있다. 목상자는 대부분 분해된 잔편이고, 완전한 상태로 보이는 것은 10여점에 지나지 않는다. 칠기는 塗漆의 박락과 더불어 목심의 결실이 심하였고, 목기류는 표면이 벗겨져 변색된 상태였다. 이들 목공예품에 대한 연구는 2016년 이전까지 발굴보고서의 내용이 전부였다. 2016년 신안선 발굴 4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일본인 학자 고이케 도미오(小池富雄)의 「신안선의 중국 칠기로 판명된 칠공예사 상의 중요한 지견」이 유일한 것이다.[9] 이 글에서 小池富雄은 잔편으로 남은 〈공작·꽃무늬 장식판〉과 〈흑칠발〉에 주목하였다(표12).

---

8 王九郎이 새겨진 주석정은 신안23206, 신안23207, 신안23208, 신안23209, 신안23232, 신안23240, 신안23418, 신안23431, 신안23434, 신안23442, 신안23454, 신안23458, 신안23459, 신안24517, 신안24521 등이 있다.

9 小池富雄, 「신안선의 중국 칠기로 판명된 칠공예사 상의 중요한 지견」, 『신안선 발굴 40주년 기념 학술대회』(국립중앙박물관, 2016), pp.107~118.

표 12. 신안선 출수 목공예품

공작 · 꽃무늬 장식판(신안12842)	흑칠발(신안10569)

그는 〈공작 · 꽃무늬 장식판〉을 송대의 전형적인 〈堆黑長方形盒〉으로 보고 퇴흑층은 흑칠을 두껍게 칠하고 층 중간에 주칠층을 포함하고 있으며, 새나 식물문양 부분은 황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송대의 전형적인 〈堆黑長方形盒〉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흑칠발〉은 '刀刻塼朱漆' 銘이 새겨져 있는데, 이와 같은 명문은 북송대 칠기의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금속기를 본 딴 칠기의 제작이 많아져 넓은 계층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언급하였다.

Ⅳ. 신안선 출수 금속 · 목공예품의 과제와 전망

지금까지 신안선 출수 금속공예품과 목공예품의 주요 연구 성과를 살펴보았다. 발굴 보고서 이후 금속공예는 2000년에 주로 진행되었으나 특정 주제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안선 출수 금속공예품을 종합적으로 다룬 이영희와 이용진의 연구를 제외한 久保智康, 袁泉, 김성아, 揚之水 등은 신안선 출수 방고동기의 기형적 특징과 용도, 유행 이유 등에 대해 다루었다. 연구의 시작은 주로 일본과 중국의 학자들이 시작하였고, 국내에서는 2010년대에 들어 신안선 출수 방고동기에 대해 다루면서 출발이 늦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신안선 출수 금속공예품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 저조했던 이유는 동시기 우리나라의 금속공예품과 신안선 출수 금속공예품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발굴보고서 간행 이후 이들 금속공예품에 대한 용도와 재질과 제작기법, 명문 등에 대해 자세하게 다룬 자료가 없었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향후 신안선 출수 금속공예품은 어떤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해보고자 한다. 2016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신안선 발굴 40주년 기념 조사보고서가 간행되었지만, 이 보고서에서도 밝히지 못한 것이 많이 남아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가 중국 본토 출

토품과의 비교를 통해 용도와 유행양상들을 다루었다면 앞으로는 기존의 연구와 조사보고서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다루어야 할 것이다.

먼저 신안선 출수 방고동기를 비롯한 금속공예품의 제작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신안선 출수 금속공예품들이 주로 중국 남부지방에서 발견되고 있어 제작지도 중국 남부지방으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제작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신안선 금속공예품의 제작지를 밝혀 생산과 유통, 소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중국의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두 번째, 신안선 출수 금속공예품의 장인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신안선 출수 금속공예품 중 주석잔과 주석정에는 王九郎과 小參郎 등의 장인의 이름이 압인되어 있다. 이 장인들은 주석 공예품에 특화된 장인으로 추정되는데, 14세기 전반 중국 남부지방의 금속공예 장인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세 번째, 신안선 출수 금속공예품과 고려시대 금속공예품과의 연관성을 밝혀야 한다. 14세기 전반 중국의 무역품으로서의 신안선 금속공예품은 당시 동아시아 금속공예의 주요한 흐름이었으나 고려는 이와 같은 흐름을 무시하지는 않았으나 적극적인 수용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4세기 고려의 금속공예품 중 일부가 신안선 및 원대 금속공예품과의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14세기 원대의 금속공예 속에서 신안선 금속공예품과 고려시대 금속공예품과의 관련성을 찾는 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네 번째, 용어에 관한 것으로 국립박물관에서는 '신안해저선' 과 '신안해저유물' , 문화재청과 소속기관에서는 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서는 '신안선' 과 신안선 출수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학계를 비롯한 관련기관에서 통용할 수 있는 용어의 사용이 필요하다.

다섯째, 신안선 출수품과 중국에서 발견된 다른 침몰선 출수품과의 비교를 통해 수출용품과 선상용품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신안선 출수품에는 아직도 성격이 불명확한 것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연구가 진행되면 출수품의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목공예품은 2016년 처음으로 시작되었고, 〈공작 · 꽃무늬 장식판〉과 〈흑칠발〉이 송대의 것이라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신안선 출수 목공예품은 수량이 적어 향후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알 수 없지만, 송대부터 원대까지 목공예의 경향을 바탕으로 고려의 목공예와 신안선 출수 목공예품을 다루는 연구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 맺음말

지금까지 신안선 출수 금속공예품과 목공예품의 연구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신안선 출수 금속공예품과 목공예품은 14세기 전반 동아시아 공예의 흐름과 전파를 연구하는데 중

요한 자료들이다. 신안선 출수 청자를 비롯한 도자기에 비해서는 금속공예품의 연구가 미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2000년대에 들어 중국과 일본의 학자들이 방고동기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국내에서도 신안선 출수 방고동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들 연구는 국적과 용도가 분명한 것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파악하지 못한 금속공예품들이 많이 남아 있다.

향후 신안선 금속공예품의 연구는 제작지와 장인 등에 대한 폭 넓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도 신안선 금속공예품과 고려시대 금속공예품과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아직까지도 국적과 용도를 알 수 없는 금속공예품이 많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분석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元과 가마쿠라 후기 일본의 금속공예품에서 찾을 수 없는 것들은 고려시대의 금속공예품에서 연결고리를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목공예품은 이제 첫걸음을 뗀 상황이므로 향후 보다 많은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투고일 2020. 11. 27. | 심사개시일 2020. 12. 1. | 게재 확정일 2020. 12. 11.

참고문헌

〈사료〉

趙希鵠, 『洞天淸錄』

陳敬, 『陳氏香譜』

洪芻, 『香譜』

〈국문 보고서〉

국립중앙박물관, 『신안해저선에서 찾아낸 것들』, 2016

______, 『신안해저문화재 조사보고 총서』2 금속공예, 2016

문화공보부 · 문화재관리국, 『신안해저유물』(종합편), 1988

문화재청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신안선』(본문편), 2006

______, 『신안선 속의 금속공예』, 2007

〈국문 논문〉

久保智康, 「14세기 일본의 금속공예와 신안선 유물」, 『신안선 속의 금속공예』, 문화재청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7

강형태, 「한국 및 중국 동전 고전의 성분조성 비교」, 『신안선 속의 금속공예』,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7

김성아, 「신안선 출수 방고동기의 기형과 용도」, 『미술사학』29,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15

신 숙, 「고려와 중국의 금속공예 교류관계」, 『신안선 속의 금속공예』,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7

齊東方, 「원대 금은기와 기타 유물양식」, 『신안선 속의 금속공예』,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7

揚之水, 「신안침몰선 출수 기물 叢考」, 『해양문화재』9,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6

櫻木晋一, 「신안선 출토 동전의 용도와 성격」, 『신안선 속의 금속공예』,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7

이난영, 「新安出土の金工品」, 『東洋陶磁』10 · 11, 東洋陶磁學會, 1980, 1981 · 1984

이영희, 「신안선 출토 금속유물의 용도와 조형적 특징」, 『신안선 속의 금속공예』, 문화재청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7.

이용진, 「宋代 工藝批評書들과 鑑識眼」, 『미술사학』30,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15

______, 「고려시대 정형청자 연구」, 『미술사학연구』252, 한국미술사학회, 2006

______, 「신안선 금속공예품의 특징과 의의」, 『신안해저문화재 조사보고 총서』2 금속공예, 국립중앙박물관, 2016

이호관, 「新安海底遺物中 重要遺物에 대하여」, 『문화재』16, 국립문화재연구소, 1983

______, 「新安海底 發掘遺物」, 『문화재』17, 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1984

〈중문〉

宋美英, 「諸暨桃花岭南宋紀年墓研究」, 『東方博物』33輯, 2009

施德華, 「中國鈸的歷史及其形制之研究」, 『屏東教育大學學報』第38期, 2012

袁　泉, 「新安沈船出水仿古器物討論」, 『故宮博物院院刊』2013年 第5期.
俞國璋, 「新昌出土青銅象首銜環瓶考」, 『東方博物』50輯, 浙江省博物館, 2014

〈일문〉
久保智康, 「中世日本における倣古銅器の受用と模倣」, 『東アヅアをめぐる金屬工藝』, 勉誠出版, 2010
王　　牧, 「中國南方地域における宋・元期の仿古青銅器」, 『東アヅアをめぐる金屬工藝』, 勉誠出版, 2010

국문초록

신안선 출수 금속공예품 및 목공예품의 연구현황과 전망

이용진

신안선 출수 금속공예는 2000년대에 들어 괄목한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신안선 전시와 보고서는 이를 대표할 만한 전시와 보고서라 할 수 있다. 그간 신안선 출수 금속공예는 방고동기를 중심으로 기형적 특징과 용도, 유행 이유 등에 대해 다루었다. 주로 일본과 중국의 학자들이 시작하였고, 국내에서는 2010년대에 들어 신안선 출수 방고동기에 대해 다루면서 출발이 늦었다고 할 수 있다. 신안선 출수 금속공예에 대한 국내의 연구가 저조했던 이유는 동시기 우리나라의 금속공예품과 신안선 출수 금속공예품과의 연관성을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더불어 발굴보고서 간행 이후 이들 금속공예품에 대한 용도와 재질과 제작기법, 명문 등에 대해 자세하게 다룬 자료가 없었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신안선 출수 목공예품은 2016년 처음으로 〈공작 · 꽃무늬 장식판〉과 〈흑칠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절대량의 부족으로 인한 한계가 있었다.

향후 신안선 출수 금속공예품과 목공예품은 어떤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가 중국 본토 출토품과의 비교를 통해 용도와 유행양상들을 다루었다면 앞으로는 기존의 연구와 조사보고서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다루어야 할 것이다. 먼저 신안선 출수 방고동기를 비롯한 금속공예품의 제작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신안선 출수 금속공예품의 장인에 관한 것이다. 세 번째는 신안선 출수 금속공예품과 고려시대 금속공예품과의 연관성을 밝히는 것이다. 네 번째는 용어에 관한 것으로 학계에서 통용할 수 있는 용어를 통일해서 사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중국의 다른 침몰선 출수품과의 비교를 통해 수출용품과 선상용품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목공예품은 관련 연구자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송대부터 원대까지 목공예의 경향을 바탕으로 고려의 목공예를 다루는 연구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아직까지도 국적과 용도를 알 수 없는 공예품이 많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분석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元과 가마쿠라 후기 일본의 공예품에서 찾을 수 없는 것들은 고려시대 공예품에서 연결고리를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신안선 출수 금속공예, 화훼용 병, 향도구, 퇴흑장방형합, 주석정

Abstract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of Metal and Woodcrafts Excavated from Sinan Shipwreck

Lee Yong Jin

In the 2000s noticeable progress has been made concerning the metal artifacts salvaged from the Sinan, particularly with regard to the exhibitions and reports of the NMK. Researchers have paid close attention to these items, particularly the antique-shaped Chinese bronze relics, with a focus on their extraordinary shapes, uses, and the reasons for their popularity. Japanese and Chinese researchers were the first to look more closely at these items, followed by Korean researchers only in the 2010s. The reason for Korean researchers' late arrival in this respect is the difficulty in finding any inter-connectivity between contemporary metal artifacts from Korea and those found on the Sinan. The absence of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ir usage, specifications, production techniques, inscriptions and so forth was another reason for their tardiness.

With regard to the wooden artifacts recovered from the Sinan, Korean researchers began to study the decorative boards with peacock/flower patterns and lacquered bowls in 2016, but there were limits to what they could achieve due to the small number of such relics.

Here, we would like to make a few comments about the desirable directions for research on the metal and wooden artifacts found on the Sinan Shipwreck.

So far, the research has been focused on their uses and popularity by comparing them with relics unearthed in China, but future research will have to deal with other matters that have not been addressed in previous studies, surveys, and reports. One important thing to do is to identify the production site of the metal artifacts, including the antique-shaped Chinese bronze items found on the Sinan, and then try to find out who made them. Next, the researchers should try to discover a plausible inter-connectivity between these metal artifacts and those of Goryeo. Then, they will have to reach an agreement on the relevant terminologies. Finally, they should try to distinguish between the export cargo and objects used by the ship's crew by comparing them with objects salvaged from other sunken boats of China, which will be a rather difficult task.

As for the wooden artifacts,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on the art of the Goryeo Period based on information concerning the Song to Yuan Periods of China, although few researchers specialize in such wooden artifacts.

As for the many other artifacts whose place of origin and function remain unknown, it is thought that connections could be found with relics dating from the Goryeo Period, if not with relics dating back to the Yuan Period of China or the late Kamakura Period of Japan. We hope that further progress will be made in this area.

Keywords : Metal artifacts excavated from the Sinan shipwreck, Vase, Incense Tools, Lacquerware of Square-shaped Coverd box, Tin ingots

원대의 도자기 유통
– 도자사에서 몽골의 영향 –

모리 다쓰야*

Ⅰ. 다카시마 원구(元寇)유적에서 발견된 도자기

Ⅱ. 신안선에서 인양된 도자기

Ⅲ. 중국도자사에서의 몽골 영향

Ⅳ. 맺음말

*오키나와현립예술대학 교수

원대의 도자기 유통
– 도자사에서 몽골의 영향 –

모리 다쓰야
오키나와현립예술대학 교수

원대(元代)는 중국 도자사상의 대변혁기이자 방대한 양의 도자기가 중국에서 세계 각지로 운반된 시기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인류가 만들어낸 도자기라는 가장 보존성이 높은 기물의 하나를 자료로 삼아, 다카시마[鷹島] 해저유적과 신안선에서 발견된 중국 도자의 분석과 함께 그 전후 시기의 침몰선이나 도시유적에서 출토된 도자의 조성과 기종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몽골시대 도자 기술의 발전, 사람과 물질의 이동 및 교류와 가치관, 미의식의 변화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중국 도자의 생산과 유통을 크게 변화시켰던 도자사에서의 몽골 임팩트에 대해서도 언급하도록 한다.

Ⅰ. 다카시마 원구(元寇)유적에서 발견된 도자기

다카시마 해저유적은 원의 두 번째 일본 원정[弘安の役, 1281]과 관련된 유적으로, 원군(元軍)의 선박일 것으로 생각되는 목조선의 선체 일부와 닻, 석제 닻, 무구(武具), 무기류, 칠기, 금속기 등과 함께 중국 도자가 발견되었다. 다카시마 주변 해역에서는 1281년 7월 하순, 그해 5월 한국 합포(合浦)에서 출항한 몽한군(蒙漢軍)과 고려군으로 구성된 동로군(東路軍) 약 4만 2천 명, 6월 중국 영파(寧波)에서 출항한 강남군(江南軍) 약 10만 명이 집결하였으나 7월 30일 밤 폭풍으로 인해 다수의 군선이 침몰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카시마 원구유적에서 발견된 중국 도자는 의흥요(宜興窯)를 비롯한 강소성 남부부터 절강성 북부에서 생산된 갈유가 시유된 장동사이호(長胴四耳壺), 사이호(四耳壺), 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외 절강의 용천요 청자나 복건의 백자, 청자, 흑유천목형완(黒釉天目形碗) 등 화남지역의 도자기를 중심으로 자주요계(磁州窯系) 갈유사이호(褐釉四耳壺), 균요(鈞窯) 청유자(青釉瓷) 등 화북의 도자기도 소량 발견되었다. 이러한 도자기는 대부분 1281년의 일본 원정과 관계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일본에 파견된 원군의 선박 안에서 사용되었던 도자기의 실상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도자기의 편년 연구에도 중요하다.

다카시마 해저유적에서 발견된 도자기 중 수량이 가장 많은 것은 갈유장동사이호(褐釉長胴四耳壺), 사이호, 병이다(도1). 강소성 남부 의흥요부터 절강성 북부 일대에 걸쳐 송대부터 명대 초기 경까지 생산된 것으로, 일본의 육상 유적에서 출토되기도 하며 경통(経筒)으로 전용된 것이 경총(経塚)에서 출토된 예도 있다. 산지에 대해서는 일찍이 필자가 강소성 의흥요에서 생산되었음을 보고한 바 있는데(도2),[1] 그 후 2016년 12월 현지 조사를 통해 절강성 북부 호주(湖州)나 덕청(德清)에서도 생산했음을 확인하였다(도3). 이러한 점으로 보아 강소성 남부부터 절강성 북부에 걸친 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이 분명하다. 한국 남서부에서 1323년경 침몰한 신안선(중국에서 일본으로의 무역)에서는 천 점 가까이 인양되었으며(도4),[2] 그 외 한국 제주도 신창리 해저유적에서도 발견되었다.

도 1. 1: 褐釉長胴四耳壺, 2: 褐釉四耳壺, 3: 褐釉壺

도 2. 褐釉長胴四耳壺, 의흥요 출토

도 3. 褐釉長胴四耳壺, 절강성 덕청 青年塢窯 출토

도 4. 褐釉長胴四耳壺, 한국 신안선

1 森達也, 「褐釉長胴四耳壺の生産地と年代について」, 『鷹島海底遺跡 V』(長崎縣鷹島町教育委員會, 2001).

2 森達也, 「新安沈船発見中国陶瓷の組成研究－中国´日本´東南アジア´西アジア出土元代陶瓷との比較を通じて－」, 『美術資料』(국립중앙박물관,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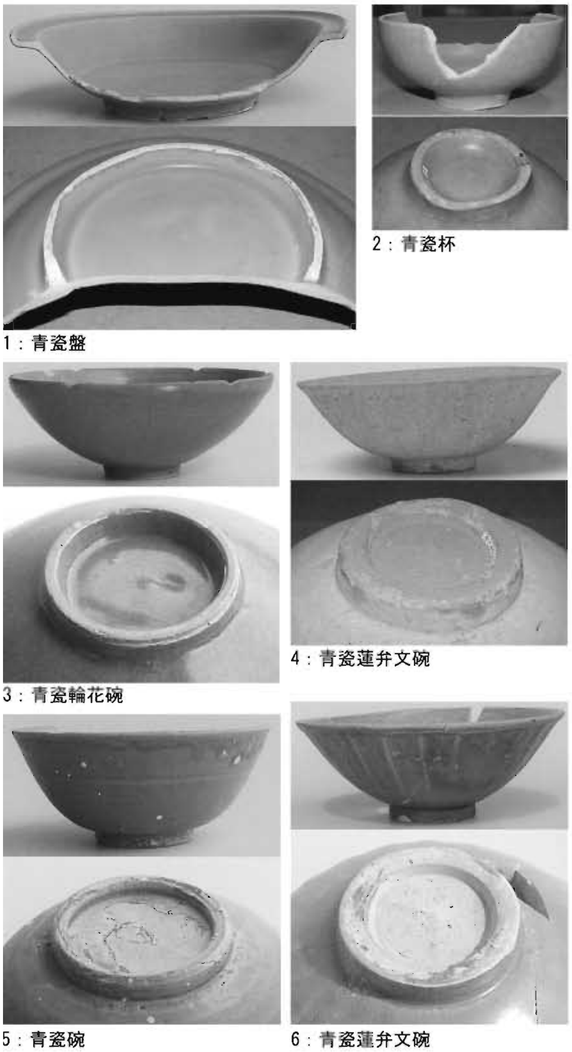
중국의 유적에서는 우물과 같이 물과 관련된 유구에서 자주 발견되어 액체를 넣기 위한 용기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중국에서는 남송대 금군(金軍)에 맞섰던 장군 한세충(韓世忠, 1088-1151)이 이끌던 군대가 사용했던 것에 기인하여 '한병(韓瓶)' 이라고 부른다. 이를 통해 다카시마 해저유적의 예는 아마도 원군의 상륙부대용, 혹은 군선용 액체용기였을 것으로 보인다.[3]

2011년 출판된 다카시마 해저유적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발견된 도자기 1,307점 중 호나 옹 등의 저장구가 1,110점이며 그 중 96%인 1,066점이 이 갈유장동사이호 · 사이호 · 병으로, 도자기 전체의 82%를 차지한다.[4]

이러한 대량의 갈유병과 호류 외에는 중국 남부 절강성 용천요 청자나 복건의 백자, 청자, 흑유천목형완 등 화남 지역의 도자기와 극히 소량이지만 화북 지역 도자기도 발견되고 있다.

용천요 청자는 반(盤)이나 완(碗), 배(杯) 등이 발견되었다. 기형은 저부의 조형 등으로 보아 13세기 후반에서 말경의 특징을 가진 것이 주를 이룬다(도5). (도5-5)는 언뜻 12세기 말에서 13세기 초두 획화문완(劃花文碗)의 특징과 유사해 보이지만, 굽 끝부분의 형태가 고식의 것과 약간 다르게 굽 하단부 외측을 크게 면각하고 있어 13세기 후반의 것으로 보아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복건성에서 생산된 도자기는 연강요(連江窯)나 복청요(福清窯) 등 복주(福州) 주변 지역의 제품이 대부분으로, 병이나 호 등의 저장용기는 천주(泉州) 남쪽에 위치한 자조요(磁竈窯) 제품이 주를 이룬다. 복건의 청자완에는 무문의 것과(도6) 외면에 두꺼운 선과 연판문(연꽃의 꽃잎)이 그려진 것이 있는데(도7), 모두 복주 북부에 위치한 연강(連江) 포구요(浦口窯) 제품에



도 5. 용천요 청자, 다카시마 해저유적

3 주1)의 문헌과 동일.

4 長崎縣松浦市教育委員會, 『松浦市鷹島海底遺跡 総集編』(長崎縣松浦市教育委員會, 2011), p. 323.

가깝다. 천목완은(도8) 복주 남부의 복청(福清) 동장요(東張窯), 혹은 민후요(閩侯窯)의 제품과 유사하다. 구연부 끝 부분에 유약이 시유되지 않은 것[口禿]이 특징인 백자완은(도9) 13세기 후반부터 14세기 전반경 일본 각지의 유적에서 다량으로 출토되었는데, 다카시마에서 발견된 구연부가 시유되지 않은 백자는 일본 유적에서 출토된 것과는 기형이나 저부의 조형적 분위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백자는 복건성 북부부터 절강성 남부 지역에서 생산되었으며 일본에서 자주 보이는 타입이 어떠한 가마에서 소성되었는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도 6. 청자완, 복건, 다카시마 해저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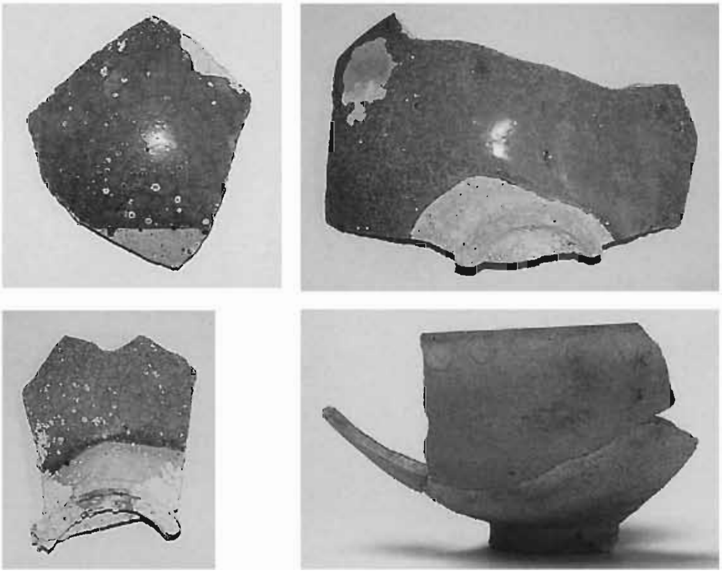
도 7. 청자연판문완, 복건, 다카시마 해저유적

도 8. 흑유완(天目), 복건, 다카시마 해저유적

도 9. 백자완(口禿), 복건 혹은 절강, 다카시마 해저유적

다음으로 화북 지역과 한반도의 제품을 소개하도록 한다.

화북의 도자기에는 균요계와 자주요계의 제품이 있다. 균요계 청유자기완은 몇 점이 발견되었는데(도10), 이러한 제품은 하남성, 산동성, 하북성, 산서성 등 화북의 여러 지역에서 생산되어 이들이 반드시 하남성 우주(禹州) 균요에서 소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균요계 도자기는 일본 육상유적에서 출토된 사례가 전혀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며 중국에서도 항주나 영파 등 강남 도시유적에서는 거의 출토되지 않는다. 또 신안선이나 중국 남부부터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발견된 원대 침몰선에서 발견된 사례도 필자의 관견으로는 언급된 바가 없다. 반면 중국 북부부터 몽골지역이나 한반도에서는 자주 보인다. 이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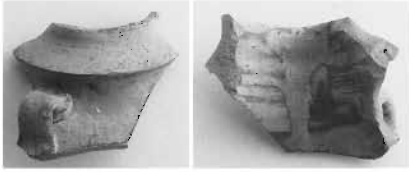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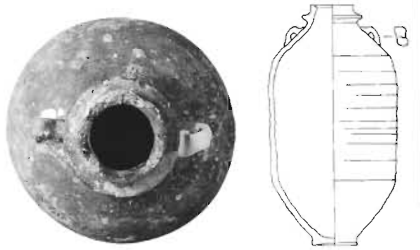
도 10. 균요계 청유완, 화북, 다카시마 해저유적

균요계 청유완(도11)이 다카시마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은, 중국 북부의 한인(漢人)과 고려 병사로 구성된 동로군과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자료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도 11. 균요계 청유완, 내몽고 土城子古城窖蔵 출토

자주요계 장동사이호(도12)는 앞서 말한 의흥요 등의 갈유장동사이호와 비교해 볼 때 구연부가 좁은 기형이다. 이러한 타입의 구연이 좁은 갈유장동사이호나 쌍이호(雙耳壺)는 자주요(자주磁州 관태진요觀台鎮窯)에서 출토되며(도13),[5] 그 외 자주요에서 가까운 지점에서 발견된 자현(磁縣) 남개하촌침선(南開河村沈船)(도14),[6] 발해만(渤海灣)에서 자주요 제품을 가득 실은 상태로 발견된 수중삼도강원대침선(綏中三道崗元代沈船)(도15)[7] 외에 산동성 하택원대침선(菏沢元代沈船),[8] 한국 신안선(도16)[9] 등에서도 발견되었다. 이 자주요계 갈유장동사이호도 균요계 도자와 동일하게 동로군과 관련된 자료일 가능성이 높다.


도 12. 褐釉長胴四耳壺 구부편, 자주요계, 다카시마 해저유적


도 13. 褐釉長胴雙耳壺, 磁州 觀台鎮窯 출토

도 14. 褐釉長胴雙耳壺, 자주요계, 磁縣 南開河村沈船沈

도 15. 褐釉長胴雙耳壺 자주요계, 綏中三道崗元代沈船

도 16. 褐釉長胴四耳壺 구부편, 자주요계, 한국 신안선

고려 상감청자(도17)는 기형이나 문양이 14세기 후반 무렵의 분위기를 지닌 것으로 이런 유형이 13세기 말에 출현했을 가능성은 적으며, 원구와도 관계가 없는 유물일 가능성이 높다.

(지도1)은 다카시마 해저유적에서 발견된 도자기의 산지를 표시한 것이다. 동로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화북의 제품은 극히 소량이며 강남군과 관련된 중국 남부의 제품이 대부분을 차

5 北京大學考古系・河北省文物研究所・邯鄲地區文物保護所, 『観台磁州窯址』(文物出版社, 1997), 圖版50-2.

6 磁縣文化館, 「河北磁縣南開河村元代木船発掘簡報」, 『考古』(1978年 6期), pp. 388~389.

7 磁縣文化館, 「河北磁縣南開河村元代木船発掘簡報」, 『考古』(1978年 6期), pp. 388~3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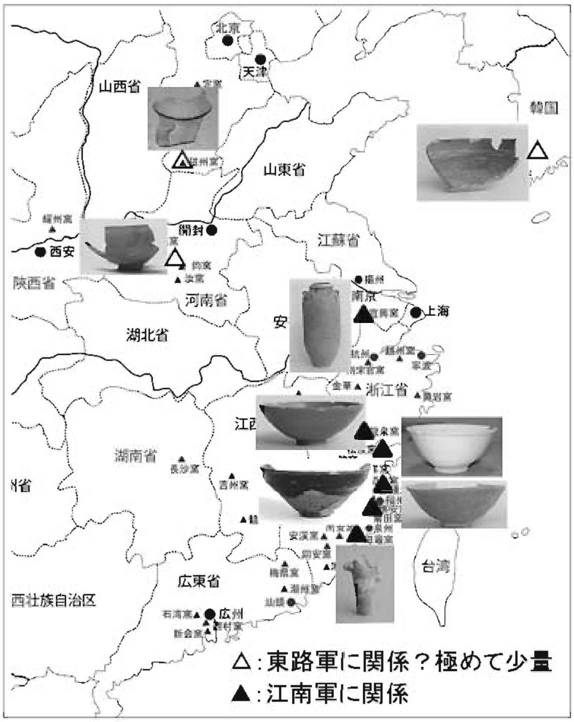
8 荷澤市博物館에서 필자가 실견함. 王守功・張啟龍・李罘, 「菏沢古沈船出土元代青花瓷」, 『文物天地』(2011年 第1期).

9 한국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新安海底遺物 総合編』(1988).

지한다. 이러한 비율은 강남군 10만명 3,500척, 동로군 4만 2천명 900척이라는 병사의 수나 선박 수의 차이를 반영함과 함께, 강남군은 거의 궤멸 상태였던 것에 비해 동로군은 약 7할의 병사가 귀국했다는 피해의 크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다카시마 해저유적에서 발견된 도자기는 부대나 군선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자료로, 당시 중국 도자의 일반적인 유통 상황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송원시대 무역선으로 추정되는 침몰선에서 인양된 중국 도자의 조성은 용천요 청자, 복건 도자, 경덕진 도자 등 상품으로 선적된 것으로 보이는 자기류가 대부분으로, 다카시마 해저유적과 같이 도제(陶製)의 호나 옹이 주체를 점하는 것은 없다. 액체용기가 많다는 점은 군선에서의 도자기 조성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도 17. 상감청자완, 한국, 다카시마 해저유적



지도 1. 다카시마 해저유적에서 발견된 도자기의 산지

Ⅱ. 신안선에서 인양된 도자기

신안선은 1976년 한국의 서남단에 위치한 전라남도 신안군 연해에서 발견되었으며 같은 해부터 1984년까지 11차에 걸쳐 수중조사가 실시되었다. 전체 길이 약 28m, 폭 약 9m에 해당하는 목조 범선의 선체와 도자기 2만여 점, 금속 제품 7백여 점, 동전 약 28톤, 은정(銀錠), 목제품, 칠기, 석제품(다구茶臼, 벼루 등), 유리 제품, 향료, 목재(자단紫檀) 등 다채로운 유물이 인양되었다.

발견된 '지치3년(至治三年)' (1323)명 목간, '하코자키[筥崎]' (하카타 하코자키하치만구筥崎八幡宮)명 목간, '동복사(東福寺)' 명 목간, '경원로(慶元路)' 명 청동추 등을 통해 이 배는 1323년 경원(慶元, 영파寧波)에서 일본의 하카타를 향해 출항한, 교토의 동복사(東福寺)와 관련이 깊은 무역선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 세토요[瀬戸窯] 도기, 일본의 장기(將棋)와 나막신, 일본도(日本刀)

의 부품 등을 통해 승조원과 승객 중 적지 않은 일본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인양된 도자기는 2만여 점의 중국 도자 이외에도 고려청자 7점, 일본 도자 4점이 있다. 중국 도자의 반 이상은 절강성 용천요 청자, 3분의 1은 강서성 경덕진요 자기이며 그 외 복건성의 백자, 청자, 흑유자, 갈유호, 화북 지역의 자주요계 도자, 강서성의 길주요 자기와 감주(贛州) 칠리진요(七里鎮窯) 도자, 광동성 석만요(石湾窯) 갈유사이호, 하북성 정요(定窯) 백자, 강소성 남부 혹은 절강성 북부의 갈유사이호, 절강성 금화철점요(金華鐵店窯), 절강성 항주 노호동요(老虎洞窯) 청자 등 중국 각지에 산지를 둔 제품이 있다. 신안선은 중국 영파를 출항해 하카타로 향했던 무역선으로 추정되는데, 어떻게 이 선박에 중국의 여러 지역에 걸친 다양한 산지의 제품이 실렸던 것일까?

본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명하기 위하여 출항지인 영파와 그 부근인 항주의 유적, 목적지인 하카타를 중심으로 한 일본 각지의 유적, 동남아시아 각지의 유적, 이란을 중심으로 한 서아시아의 유적 등에서 출토된 원대 중국 도자의 산지 조성이나 기종 조성을 비교검토하여, 신안선에 선적되어 일본에 운반될 예정이었던 도자기의 특성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10]

1. 신안선에서 발견된 도자의 산지와 수량

신안선에서 인양된 도자기의 분류나 수량을 알 수 있는 자료는 1981년부터 85년에 걸쳐 출판된 『新安海底遺物 資料編』Ⅰ~Ⅲ과[11] 1988년 출판된 보고서 『新安海底遺物 総合篇』이 있다.[12] 『総合篇』의 「표1」(pp. 368-370)에 분류된 도자기의 수량 합계표(1983년까지의 인양 수량)는 18,832점이지만 「표1」 하단의 부기에 의하면 1984년 인양된 도자기가 2,018점으로, 이를 더하면 합계 20,850점의 도자기가 인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84년 인양 유물의 분류와 내역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산지나 기종별 수량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는 『総合篇』「표1」의 총계 18,832점뿐으로, 이 수치를 기본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들 보고서의 도자기 분류나 산지의 특정은 30년도 넘은 중국 도자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이에 최신 연구 성과를 더해 도자기 산지 분류를 재차 실시하여 산지별 수량을 표시한 것이 (표1)이다.[13] 또 지금까지의 보고서 중 상세한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약'으로 표시하였다.

이 새로운 산지 분류에서 신안선의 도자기 중 수량이 가장 많은 것은 용천요 천자로 10,627점이 56%를 점한다. 다음은 경덕진요 자기 약 4,100점: 약 21%, 복건산 도자기 약 1,650점: 8.8%, 절강성 금화철점요 도자기 1,144점: 6.1%, 의흥요 혹은 절강성 북부의 도기호(陶器壺)류 967점: 5.1%, 강서성 감주 칠리진요 도자 82점: 0.44%, 자주요계 도자 70점: 0.37%, 광동성 석만요의

10 본절의 내용은 다음을 바탕으로 덧붙이거나 일부 소략한 것이다. 森達也, 위의 논문(2016), pp. 110~142.

11 한국문화공보부 · 문화재관리국, 『新安海底遺物資料編 Ⅰ』(1981) ; 한국문화공보부 · 문화재관리국, 『新安海底遺物資料編 Ⅱ』(1984) ; 한국문화공보부 · 문화재관리국, 『新安海底遺物資料編 Ⅲ』(1985)

12 한국문화공보부 · 문화재관리국, 앞의 보고서(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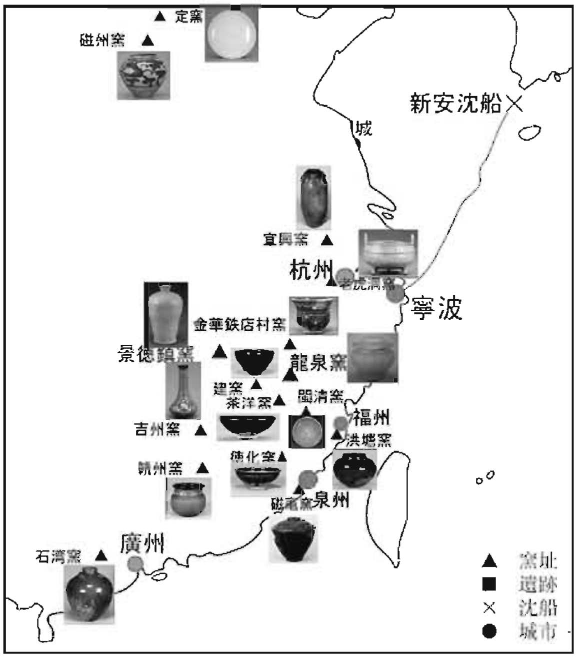
13 본고에서는 도자 산지 재분류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 할애하였다.

갈유사이호 22점: 0.12%, 절강성 항주 노호동요의 방관요(倣官窯) 청자 18점: 0.1%, 강서성 길주요 도자 11점: 0.06%, 고려청자 7점: 0.04%, 일본 도기 4점: 0.02%, 하북성 정요백자 2점: 0.01%, 산지 불명 약 120점: 0.64%이다.

	産地	数量	比率(%) (x÷18,832×100)
1	龍泉窯	10,627	56
2	景徳鎮窯	約4,100	21
3	福建	約1,650	8.8
4	金華·鉄店窯	1,144	6.1
5	宜興窯 (または浙江北部)	967	5.1
6	江西·贛州窯	82	0.44
7	磁州窯系	70	0.37
8	広東·石湾窯	22	0.12
9	杭州·老虎洞窯	18	0.1
10	吉州窯	11	0.06
11	高麗青瓷	7	0.04
12	日本	4	0.02
13	定窯	2	0.01
14	不明	約120	0.64
合計		18,832 (新安『総合圖録』の数値)	

표 1. 신안선에서 발견된 도자의 산지와 수량

이러한 도자 산지를 지도 위에 표시한 것이 (지도2)이다. 이 분포 범위는 북쪽으로는 하북성부터 남쪽으로는 광동성까지 넓은 지역에 이르며, 당시 중국 전역의 대표적인 도자 산지 제품 대부분이 신안선에 실려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지도 2. 신안선에서 발견된 중국 도자 산지

2. 신안선에서 발견된 도자의 연대

신안선에서 발견된 도자기의 대부분은 침몰 연대인 지치 3년(1323)보다 조금 앞서 생산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중에는 건잔(建盞)과 같이 원대에는 이미 생산되지 않았던 도자기도 포함되어 있으며, 연대가 오래되었음이 분명한 도자기도 있다.

건요(建窯) 수길요(水吉窯)에서 생산된 건잔(표2-33)은 가마터 발굴조사 결과 남송 말기에는 생산이 종료되었다. 신안선에서 발견된 건잔의 대부분에는 내저부에 차를 점다(點茶)하면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마찰흔이 있으며 구연에 금속제 복륜(覆輪)을 씌운 것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연대가 오래된 것임이 분명하다. 신안선의 연대보다 반세기 이상 이전에 생산된 건잔이 42점(『新安海底

遺物 総合篇」의 '표1' 에서 집계한 수치[14]이나 발견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은 우연히 신안선에 선적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오래된 것을 모아 일본으로 향하는 배에 실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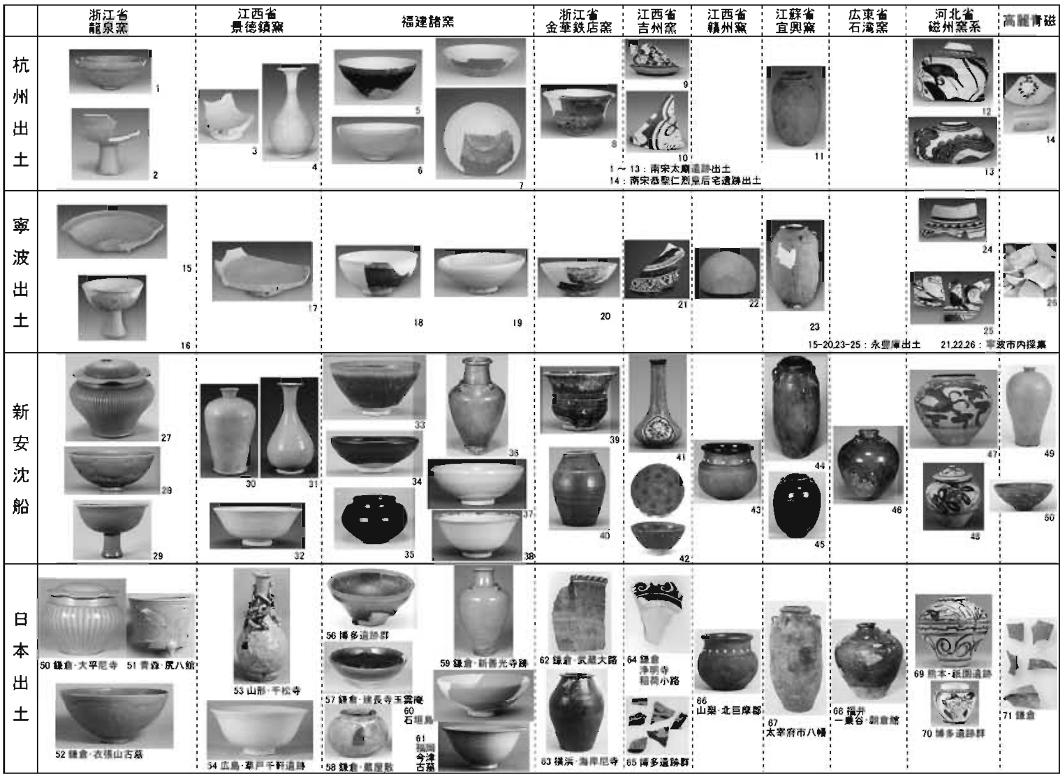


표 2. 원대 중국 도자의 산지 조성 비교(항주, 영파, 신안선, 일본)

신안선에서 발견된 2점의 정요 백자도 동일하게 금대(金代)에 생산되어 연대가 오래된 것이다.[15]

또한 대량으로 발견된 용천요 청자 중에도 분명하게 연대가 오래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기물이 있다.

「新安海底遺物 総合篇」에 표시된 10,627점의 용천요 청자 중 남송 양식(Ⅰ－2－①類)인 것은 37점(0.35%), 원 양식의 우량질 및 양질(Ⅰ－3－①類)인 것은 117점(1.1%)이며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원 양식의 일반품질(Ⅰ－3－②類)인 것 10,469점(98.5%)이다.

이 남송 양식의 37점이 전세품인지 동시대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발견 당시부터 문제시되어 왔

14 1983년까지의 인양 자료 총계. 1984년 조사에서의 인양자료를 더하면 60점을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15 1984년의 조사에서도 몇 점의 정요백자가 인양되었으며 그중에는 원대의 제품도 있으나 정식으로 자료가 게시되어 있지 않아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다.

는데, 1998년 가메이 아키노리[亀井明德]씨는 이를 골동품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으며 새로운 양식이 만들어져도 얼마간은 오래된 양식이 일정량 남는 감소 현상이라고 언급하였다.[16] 또한 같은 해인 1998년 데가와 데쓰로[出川哲朗]씨는 '침청자(砧青瓷)' 타입은 신안 선적하물 중 극히 일부인 0.2%로, '일본에서 인기가 있었던 13세기의 침청자가 「고미술」로 운반되었다' 는 전혀 반대의 의견을 들어,[17] 논의가 일치되지 않고 있다.

신안 보고서에는 사용흔이 있다고 해설되어 있는 〈鎬蓮弁文盤〉이 있는데,[18] 연판의 폭이 넓고 굽의 만듦새도 매우 정성스러워 남송대 제품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 2점의 대형 〈雙鯱耳瓶〉 중 1점은 어룡[鯱]의 꼬리 부분에 흠집이 있는데, 실견한 결과 오래된 상처로 보인다.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이것도 전세품일 가능성이 있다.

건잔이나 정요백자와 같이 연대가 오래되었음이 확실한 일군이 있고, 용천요 청자 중 '남송 양식' 이라고 불리는 일군 중 적어도 1~2점은 사용흔이 남아있는 오래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가메이씨가 말한 바와 같이 용천요 청자 전부가 동시대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보고서에서 '남송 양식' 으로 사진이 발표된 것에는 〈雙鯱耳瓶(大)〉 2점, 〈雙鯱耳瓶(小)〉 1점, 〈雙鳳耳瓶(小)〉 2점, 〈筍瓶〉 1점, 〈下膨瓶〉 1점, 〈管瓶〉 2점, 〈袴腰香爐〉 11점, 〈雙耳三足香爐〉 1점, 〈査斗〉 1점, 〈鎬蓮弁文盤〉 1점, 〈鎬蓮弁文端反碗〉 1점, 〈束口碗〉 3점, 〈斗笠碗〉 1점, 〈碗蓋〉 1점 등이 있다.

이 중 〈雙鯱耳瓶(大)〉, 〈鎬蓮弁文盤〉, 〈鎬蓮弁文端反碗〉, 〈査斗〉, 〈斗笠碗〉은 형태적으로는 남송 후기의 사천 수녕교장(遂寧窖蔵)[19]이나 사천 동계원예장묘(東渓園芸場墓)[20] 출토품과 유사하여 13세기 전반 단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 외의 것은 올라간다 하더라도 13세기 후반 남송 말부터 원 초기 단계까지일 것이다.[21]

일본에서는 남송대 용천요의 분청색(粉青色) 청자를 '침청자' 로 부르며 특별히 진중하였는데, 신안선에서 남송 양식으로 분류된 37점의 청자는 모두 이 '침청자' 타입이다. 이 모든 것이 남송대 산품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건잔과 같이 일본인의 애호에 맞춰 오래된 물건들을 모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 외 경덕진요 제품에도 〈青白磁枕〉 등 남송대 제품일 가능성이 지적되는 것이 있다. 길주요의 〈梅花天目碗〉(표2-42)도 남송의 제품이다. 또 고려청자도 전부가 동시대의 것이 아니며 대부분 생산 연대가 13세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들이다.

16 亀井明徳, 「倭好賞翫の青瓷　試論」, 『専修大學人文科學年報』第28號(1998), p. 80.

17 出川哲朗, 「遂寧窖蔵出土の龍泉窯青磁と新安沖沈船及び日本伝世品との比較」, 『封印された南宋陶磁展　圖錄』(朝日新聞社, 1998), pp. 122~126.

18 한국문화공보부 · 문화재관리국, 앞의 보고서(1988), p. 422의 도11.

19 成都文物考古研究所 · 遂寧市博物館, 『遂寧金魚村南宋窖蔵』(文物出版社, 2012).

20 四川省文物管理委員會, 「四川省簡陽縣東渓園芸場元墓」, 『文物』(1987年 第2期).

21 森達也, 「宋´元代竜泉窯青磁の編年的研究」, 『東洋陶磁』29(東洋陶磁學會, 2000).

이상과 같이 신안선에서 발견된 도자기 중에는 소량이기는 하지만 생산 연대가 남송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연대가 오래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일본인의 취향을 의식하여 의도적으로 수집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신안선에서 발견된 도자와 항주, 영파, 일본 출토 원대 중국도자의 비교

최근 광주와 영파 시내유적의 발굴조사 보고에서 수많은 출토도자기가 보고되면서 신안선에서 발견된 도자기와 비교 가능한 좋은 자료가 늘어났다(표2: 2~3단).

특히 중요한 것은 남송 태묘(太廟)유적의 원명대 문화층 출토유물로[22] 용천요 청자, 경덕진요 제품, 복건 도자 외에 자주요계 도자, 강서성 길주요 제품, 의흥요 장유사이호(醬釉四耳壺), 절강성 금화철점촌요 방균자(倣鈞瓷), 정요 백자 등이 출토되었으며 그 내용은 신안선에서 발견된 도자기 생산지와 일치하는 점이 많다.

남송 태묘유적 보고서에는 출토층위별 도자기의 수량이 표시되어 있다(동보고서: 附表1~2, p. 120). 원대에 해당하는 제3층부터는 612점의 도자기편이 출토되었으며, 수량이 가장 많은 것은 용천요 청자 412점(67%), 다음으로 많은 것이 경덕진요 및 산지불명의 청백자 131점(21%)이다(생산지가 불명한 청백자에는 복건 제품이 포함되어 있다). 복건 도자는 수치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생산지가 불명한 청백자의 대부분과 흑유자기 일부가 복건 제품이며 산지 불명의 청자 대다수는 절강성 금화철점촌요의 방균자로 이 두 가마에서의 수량이 경덕진요 다음으로 많다. 그 외 자주요계 도자, 의흥요 장유사이호, 정요백자의 출토수는 극히 소량이다. 이처럼 용천요 청자가 반 이상을 차지하며 그다음으로 경덕진요 도자, 이어서 복건 도자와 철점요 제품이 뒤를 잇는 정황은 전술한 신안선의 도자기 조성과 매우 유사하다(표2: 1단).

남송대 수도였던 항주는 원대에도 중국 남부 최대의 도시로 번영을 이루었으며 화남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였다. 남송 태묘유적 원명대 문화층 출토유물의 양상을 통해 원대에 전국 각지의 도자기가 항주로 운반되어 소비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각지의 제품이 항주로 모이는 유통 시스템이 확립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신안선의 출항지인 영파 시내에서도 정식적인 고고발굴에 의한 자료는 아니지만 항주 출토도자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산지의 제품이 출토되었다.[23] 여기서는 항주 남송 태묘유적에서는 출토되지 않은 감주요(贛州窯) 제품도 발견되었다. 또 최근 보고서가 간행된 영파 영풍고(永豊庫, 원대의 창고)에서도 용천요 청자, 경덕진요 자기, 복건 도자, 금화철점촌요 방균자, 자주요계 도자, 정요 백자 등이 출토되었으며 항주나 신안선과 유사한 도자기 조성이 확인된다(표2: 2단).

22 杭州市文物考古所, 『南宋太廟遺址』컬러판(文物出版社, 2007), pp. 38, 50, 51, 52, 54, 57, 115-120, 125, 140, 141 외. 다만 보고에서는 대부분의 복건 도자가 「未定窯口(가마 불명)」으로 표기되어 있다.

23 朱勇偉 · 陳鋼, 『寧波古陶瓷拾遺』(寧波出版社, 2007) ; 寧波市文物考古研究所, 『永豊庫 元代倉儲遺址発掘報告』(科學出版社, 2013).

영파와 항주는 운하로 연결되어 있으며 항주에서 사용된 전국 각지의 도자기가 운하를 통해 영파로 들어와 유통되었고, 그 일부가 일본으로 향했던 배에 선적되었을 것이다. 해로를 통해 항주에 들어온 도자기는 영파를 거쳐 운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 신안선의 도자기는 용천요 청자와 경덕진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타 산지의 제품은 이 두 가마에 비하면 상당히 소량이다. 용천요 청자와 경덕진 제품은 수출용 상품으로 영파에 대량 운반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복건 도자를 비롯한 다른 가마의 제품은 수출용 상품으로 항주나 영파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의 소비를 위해 항주나 영파에서 유통되었던 것 중 일부가 일본 수출에 융통되었을 가능성도 고려된다.

신안선과 동시대의 일본 국내 유적에서 출토되는 중국 도자는 용천요 청자가 가장 많고, 이어서 복건 도자와 경덕진요 자기가 일정량을 차지한다. 하카타나 교토, 가마쿠라[鎌倉] 등 당시의 대도시에서는 자주요계 도자, 길주요 제품, 감주요 제품, 의흥요 장유사이호, 절강 금화철점촌요 방균자, 광동 석만요 장유사이호 등 신안선에서 발견된 각 산지의 도자기가 소량이나마 출토되었으며 신안선 도자기 조성과 공통성이 높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신안선에 선적되었던 도자기의 구성이(표2: 3단) 당시 일본에 수입되었던 중국 도자의 표준적 조성(표2: 4단)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24]

4. 신안선에서 발견된 도자와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출토 원대 중국 도자의 비교

필자는 2007년 페르시아만의 키시섬[Kish, 基什島](도18)과 마흐루반(Mafruban) 유적에서 중국 도자의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신안선과 거의 동일한 시기의 원대 도자와 관련해서는 두 유적 모두 용천요 청자가 과반을 차지하였으며 그다음이 복건의 백자와 청자였다. 경덕진의 백자나 청화자기는 복건 도자보다도 수량이 적었고, 광동 석만요의 갈유호도 소량 확인되었다.[25] 2014년, 2016년 재차 이란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옛 호르무즈 유적군을(도19) 조사했을 때에도 거의 동일한 양상의 조성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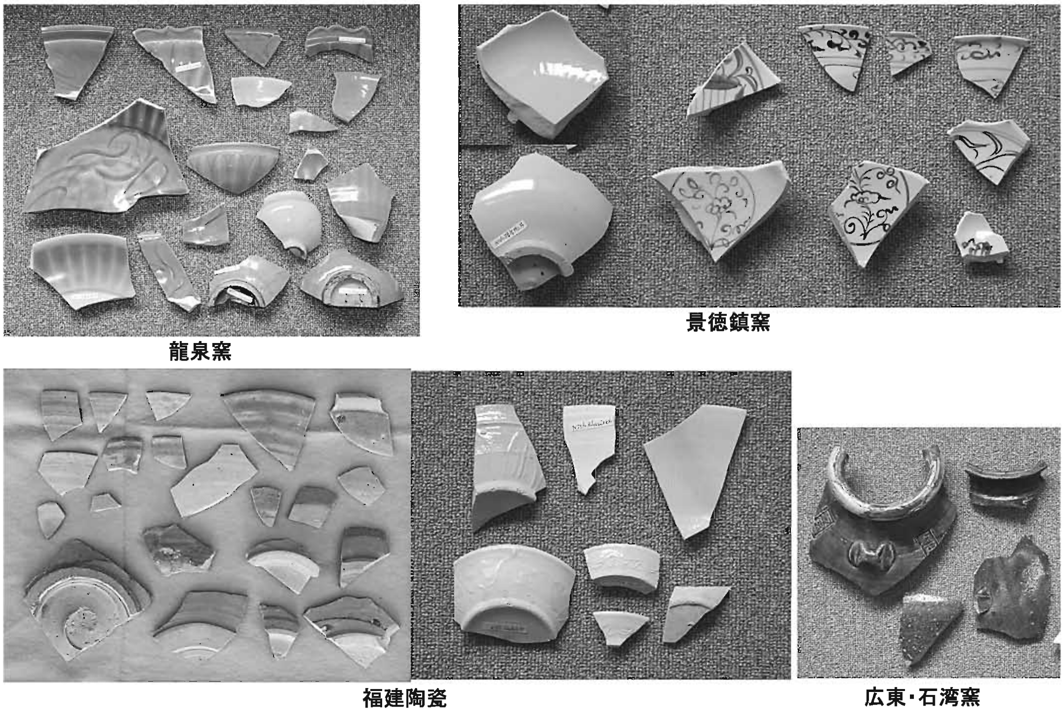
동남아시아와 서아시아 등지에서 발견된 원대의 중국 도자는 용천, 복건, 경덕진, 광동 제품으로 거의 한정적이며 드물게 자주요계 도자가 출토된다. 양적으로는 용천이 과반을 점하며 그다음이 복건 도자, 그 뒤를 경덕진, 광동의 제품이 잇고 있으며 자주요계 도자는 극히 드물다.

이러한 도자 조성을 신안선과 비교해보면, 용천요가 과반을 차지한다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복건 자기와 경덕진 자기의 비율이 역전되어 복건 도자가 점하는 비율이 더 높다. 이는 동남아시아나 서아시아로의 도자기 수출이 주로 복건 천주(泉州)를 거점으로 행해졌기 때문으로, 천주에 가까운 복

---

24 최근 강소성 태창(太倉)유적의 조사가 진행되며 원대부터 명대 초기 무역항으로 주목되고 있다. 태창유적 출토 도자기는 신안선 도자기와 근사한 조성을 보이며 신안선이 태창에서 출항했을 가능성도 지적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태창유적에서는 신안선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남송대 다기나 자기의 출토는 확인되지 않아, 필자는 현 시점에서는 태창에서 출항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태창유적의 보고서 출판을 기다린 후 재차 논의해보고자 한다.

25 森達也, 「伊朗波斯湾北岸幾個海港遺址発現的中国瓷器」, 『中国古陶瓷研究』第14輯(紫禁城出版社, 2008), pp. 414~429.



도 18. 이란 키시섬 하리레유적 발견 중국 도자

도 19. 이란 옛 호르무즈 항만도시유적 발견 도자기

건성 내에서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된 도자기가 대량으로 선적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동남아시아와 서아시아에서 발견된 원대 중국 도자는 용천, 복건, 경덕진 및 소량의 광동 제품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다른 가마의 제품은 드물게 극소량의 자주요계 도자를 동반하는 정도이다. 이는 천주에서의 도자 수출은 무역항인 천주에 수출을 목적으로 대량 집적된 용천요, 복건, 경덕진요의 제품으로 거의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화남 제일의 도시인 항주에 인접한 영파에서는 수출용으로 대량 집적되고 있었던 용천요와 경덕진요 제품뿐만 아니라, 국내 유통을 통해 거대 도시 항주에 모인 중국 각지의 도자기를 오래된 물건까지도 포함하여 입수할 수 있었고, 이처럼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던 도자기를 일본행 배에 선적할 수 있었으므로 신안선과 같이 다채로운 도자 조성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5. 신안선 인양 도자의 특성

이상과 같이 신안선의 도자 조성은 당시 항주나 영파에서의 도자 유통 상황을 깊이 반영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나아가 동시대 일본에서 출토된 중국 도자의 조성과도 공통점이 많다.

일본과의 교류 창구가 항주와 가까운 영파에 위치함에 따라 천주를 창구로 삼았던 동남아시아나 서아시아에 비해 다채로운 중국 도자기가 일본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인데, 그 원인은 영파가 대도시인 항주에 인접했었다는 지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일본인이 중국을 강하게 동경하고 있었다는 일본 측의 요인도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12세기부터 14세기 중경에 걸쳐 일본에서는 많은 유학승이나 상인들이 중국에 건너갔다.[26] 유학승은 단순히 불교를 수학할 뿐 아니라 다채로운 중국 문화를 배워 일본에 전했으며, 상인들은 중국의 여러 기물을 일본에 들여왔다. 그 결과 당시 일본인은 중국과 그들의 문화에 강한 동경을 가지게 되었고, 중국에서 수입한 기물을 '당물(唐物)'이라고 부르며 진중했던 것이다.

신안선에서는 도자기 외에도 유교 예기(禮器)를 중심으로 한 여러 금속기나 칠기 등도 발견되어 당시 일본인이 도자기 외에도 중국의 다양한 기물에 흥미를 가지고 수용했음을 알 수 있다. 신안선에서는 서화의 목제축이 발견되었는데, 이 시기 중국의 서화나 서적 등도 활발하게 수입하여 일본에 수많은 전세품이 남아있다.

중국에 대한 동경 의식을 바탕으로 일본에서 영파로 건너간 상인들은 영파 혹은 항주에서 손에 넣을 수 있는 온갖 종류의 도자기를 사들여 일본에 들이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당시 영파나 항주에서 유통되고 있었던 도자기의 조성을 깊이 반영한 조성의 도자기군이 신안선에 적재되었던 것이다.

또 당시 일본인은 단순히 중국의 기물을 즐기기 위해 왕성하게 수입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 기물의 배경에 있는 중국 문화까지도 아울러 수입하고자 하였다. 예컨대 다완을 수입한 배경에는 차문화의 수용이 있었고, 유교 예기 수입의 배경에는 유교의 수용이 있었던 것이다. 그저 단순한

26 榎本渉, 『東アジア海域と日中交流－九～一四世紀』(吉川弘文館, 2007) 외.

기물의 수입을 넘어, 그 기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문화적 배경까지도 함께 일본에 들여오고자 했던 것이다.

동시대 서아시아의 중국 도자 수용은 이러한 일본의 수용과는 달리 그 기물의 배경에 있는 중국 문화는 흥미의 대상이 아니었고, 아름다우면서도 견고하고 완성도 높은, 기물로써의 흥미에 바탕을 둔 수입이었다. 즉 중국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었는지 보다는 그들이 어떠한 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점으로 수입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이나 일본에서 다도구로 진중되었던 건잔이 서아시아에 수출되었던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수입할 필요가 없는 기물로 취급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듯 기본적으로는 일본인의 중국 문화에 대한 동경 의식과 영파의 지리적 요인이 신안선의 다채로운 도자 조성을 성립시켰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건잔이나 정요 백자, 용천요의 침청자 등 신안선에서 발견된 연대가 오래된 도자기를 통해서는 중국 문화에 대한 일본인의 독특한 수용 양상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는 이미 쇠퇴하기 시작한 한 시대 이전의 차문화나 다도구가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유행하고 있었고, 이처럼 오래된 다기를 의식적으로 사들인 행위나 일본인이 특히 동경했던 송대의 중국 도자를 대표하는 용천요의 침청자나 정요 백자 등의 오래된 물건을 구하는 행위를 통해, 당시의 일본인이 동시대 중국 문화를 동경함과 동시에 그들이 즐겨온 한 시대 이전의 중국 문화에 대한 강한 동경을 품고 중국 문화와 기물을 복층적으로 수용했음을 신안선의 도자기 조성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신안선에서 발견된 도자기는 당시 일중 교류의 정신적인 배경까지 보여주는 흔치 않은 연구 자료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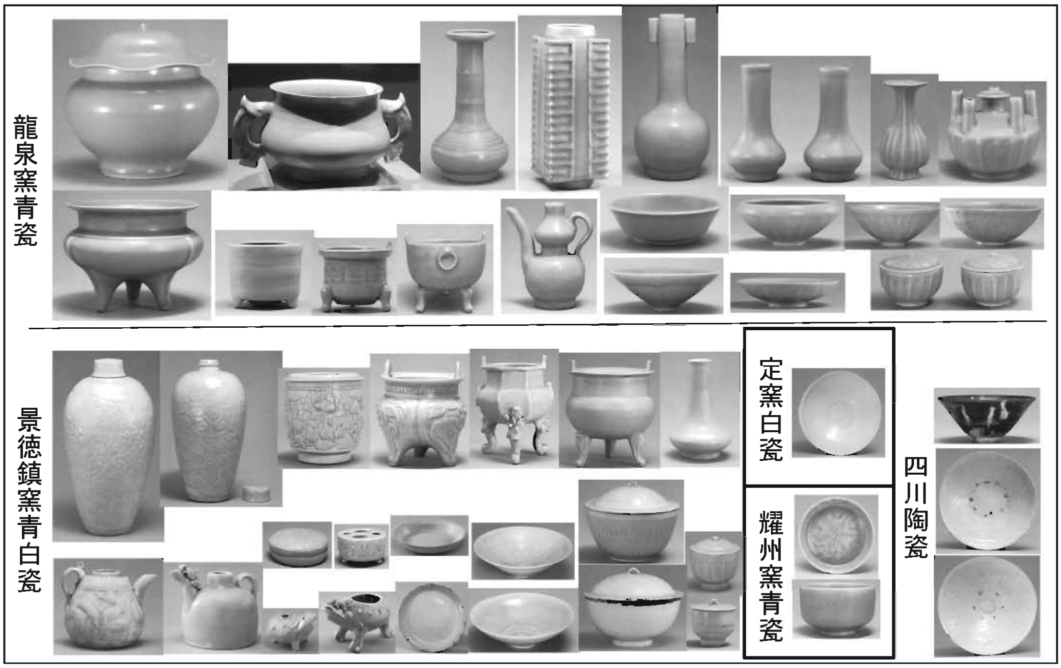
Ⅲ. 중국도자사에서의 몽골 영향

다음으로 원대 중국 도자의 양식과 유통에 어떠한 커다란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도자기의 기형, 장식, 조성의 변화와 함께 그 유통의 변화에 대해 개관하도록 한다.

1. 도자기의 기형, 장식, 조성의 변화

우선 몽골이 중국에 침입하기 이전 단계 중국 도자의 양상을 확인해두고자 한다. (도20)은 1240년 전후 몽골군이 중국 남부 사천성을 공격했을 때 형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천성 요녕 금어촌교장(金魚村窖藏)에서 출토된 도자기이다.[27] 이 교장에서는 985점의 도자기가 출토되었는데, 그

27 庄文彬, 「四川遂寧金魚村南宋窖藏」, 『文物』(1994年 第9期) ; 朝日新聞社編, 『封印された南宋陶磁展 圖錄』(1998) ; 成都文物考古研究所 · 遂寧市博物館, 『遂寧金魚村南宋窖藏』(文物出版社, 2012).



도 20. 사천 遂寧窖蔵 출토 자기

중 용천요 청자가 355점이며 경덕진요 청백자 604점, 요주요 청자 2점, 정요 백자 8점, 사천 도자 16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단계의 도자기 중 용천요 청자는 연판문 이외에는 거의 문양이 없는데, 경덕진 청백자와 백자는 획화문(劃花紋)이나 첩화문(貼花紋) 등 풍부한 문양이 시문되어 있다. 높이가 30㎝ 정도인 것이 가장 큰 부류로, 기본적으로 대형의 제품은 적다.

이어서 13세기 후반부터 변화가 시작된다. (도21)는 가마쿠라 이마코우지니시[今小路西]유적의 고급무사 저택 화재층에서 일괄출토된 도자기로,[28] 13세기 후반부터 말경의 양상을 보여준다. 용천요 청자는 첩화문 등의 장식이 풍부하며 대형반을 비롯한 대형 기종이 나타난다. 경덕진요의 제품에서는 아직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다음 단계인 14세기 전반이 되면 더욱 현저한 변화가 나타난다. 이 단계의 대표적인 자료는 신안선에서 인양된 도자기이다(도22).[29] 용천요에서는 60㎝를 넘는 화병 등 대형 기종이 출현하며 병이나 호, 반, 발 등 대형 제품이 두드러진다. 장식은 첩화문, 획화문, 각화문(刻花紋), 철반문(鉄斑紋) 등이 자주 사용되고 원대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마상배(馬上杯)가 출현한다(도22, 용천

28 鎌倉市教育委員會, 『今小路西遺跡(御成前小学校内)発掘調査報告書』(鎌倉市教育委員會, 1990).

29 한국문화공보부 · 문화재관리국, 앞의 보고서(1981) ; 한국문화공보부 · 문화재관리국, 앞의 보고서(1984) ; 한국문화공보부 · 문화재관리국, 앞의 보고서(1985) ; 한국문화공보부 · 문화재관리국, 앞의 보고서(1988); 문화재청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新安船』(2006).

도 21. 가마쿠라 今小路西遺跡 출토 중국 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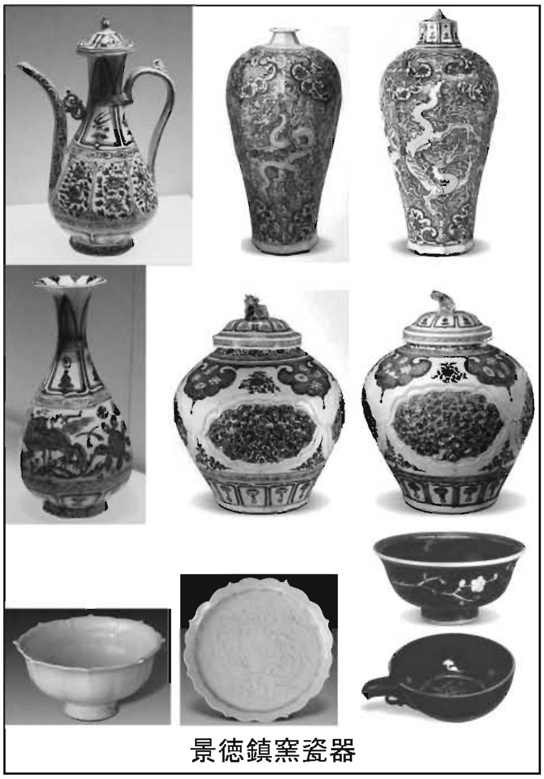
도 22. 한국 신안선 인양 중국도자

요 청자의 하단 좌측부터 2번째와 3번째).

경덕진요의 제품에서는 유리홍(釉裏紅), 철반문, 철화 등 새로운 장식 기법이 생겨난다. 신안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 시기에는 코발트 안료로 그림을 그린 청화자기가 탄생하였는데, 생산이 본격화되는 것은 14세기 중경 이후이다.

이어서 14세기 중경의 예로 강서 고안교장(高安窖蔵)(도23)[30]과 하북 보정교장(保定窖蔵) 출토 도자(도24)[31]를 들 수 있다. 이 단계의 용천요 청자는 이전 단계와 그다지 큰 변화는 없으나, 전단계에 탄생한 경덕진요의 청화자기는 이 단계에 생산이 본격화되며 호, 병, 매병, 발, 반 등의 대형 기종이 활발히 만들어졌다.

도 23. 강서 高安窖蔵 출토 도자기



도 24. 하북 保定窖蔵 출토 도자기

이렇게 원대에 생겨난 기형의 대형화, 잦은 장식의 사용, 색채 장식의 탄생, 청화의 탄생 등은 새로운 지배자인 몽골인 및 그들과 함께 중국에 들어온 색목인(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유럽인)의 애호에 부응하기 위해 일어난 변화이다. 특히 경덕진요의 청화자기와 용천요 청자의 대형 반이나

30 劉裕黒 · 熊琳, 「江西高安縣発現青花 釉裏紅等瓷器窖蔵」, 『文物』(1982年 第2期) ; 劉金成, 『高安元代窖蔵瓷器』(朝華出版社, 2006).

31 河北省文物研究所, 「河北定興元代窖蔵文物」, 『文物』(1986年 第1期).

발이 원대 중기 경 출현하여 급속도로 유행한 배경에는 이러한 용기에 음식을 가득 쌓아 올리는 초원 민족의 식습관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유통의 변화

다음으로 유통의 변화에 대해 언급해두고자 한다.

몽골이 중국 전역을 지배하기 전인 남송대에는 이미 해상 교역로에 의한 중국 도자의 수출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일본,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동아프리카, 지중해 지역에 용천요 청자, 복건 도자, 경덕진 도자, 광동 도자 등이 수출되고 있었다.

필자는 최근 페르시아만 북쪽의 도시유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곳에서의 조사를 통해 남송대부터 원대에 걸친 급격한 중국 도자 무역량의 증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32]

호르무즈 왕국의 항만도시유적에서는 13세기 말부터 14세기 초두의 중국 도자가 방대한 양으로 확인되는데, 이를 통해 이 시기 중국 도자의 무역량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용천요 청자의 수량이 가장 많고, 이어서 복건 도자, 소량의 경덕진 도자와 광동 도자가 확인되었다(도19).

호르무즈 왕국은 14세기 초두에 현재의 호르무즈섬으로 거점을 옮긴 것으로 전해지며 이 항만도시유적은 이 때 방치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중국 도자의 연대가 이를 뒷받침한다.

키시는 13~14세기 호르무즈 왕국과 갈등이 이어졌으며 1320년대에 호르무즈에 패배한 이후 쇠퇴하였다. 하리레유적은 키시의 중심이 되는 도시유적으로, 여기서는 13세기부터 14세기 중반 경의 유물이 다수 확인되었다(도18). 13세기 말부터 14세기 전반 중국 도자의 수량이 가장 많다. 용천요 청자가 최다를 이루고, 이어서 복건 도자, 소량의 경덕진 자기와 광동 도자가 확인되어 호르무즈 왕국의 항만도시유적과 거의 동일한 조성을 보이는데, 옛 호르무즈보다 조금 더 늦은 시기의 중국 도자가 많으며 경덕진 청화자기도 확인되었다.

그 외 인도네시아 투반유적이나[33] 태국 수코타이유적[34] 등지에서도 동일하게 용천, 복건, 경덕진이라는 조성이 확인되었다(도25, 도26). 또한 동남아시아나 서아시아에서는 이들 도자기 외에도 극히 소량이기는 하지만 자주요계 도자가 공반되기도 한다.

다음으로 내몽고(內蒙古) 등 중국 북부 내륙 유적에서 출토된 도자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내몽고 집녕로(集寧路)유적과[35] 내몽고 연가량(燕家梁)유적은[36] 원대 교통로의 역(駅)과 관련된 도시유적으로, 모두 경덕진 자기, 용천요 청자 등 중국 남방 도자와 함께 화북의 자주요계나 균요계 도자기가 대량으로 출토되었다(도27, 도28). 또 이들 유적에서 출토된 자주요계나 균요계 도자기는 산서 지역의 제품이 다수를 점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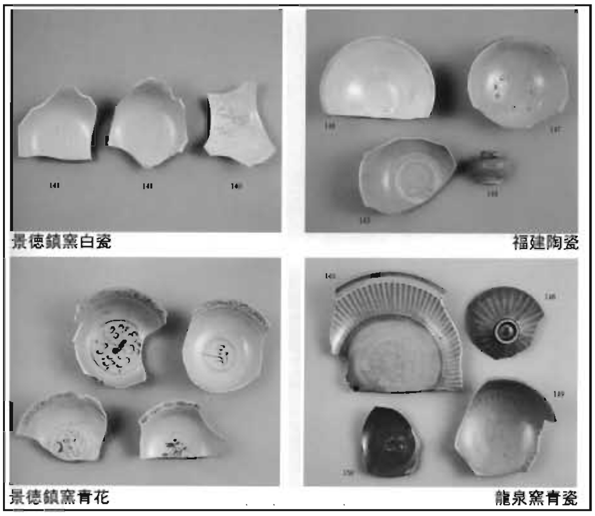
32 森達也, 「伊朗波斯湾北岸幾個海港遺址発現的中国陶瓷」, 『中国古陶瓷研究』第14輯(紫禁城出版社, 2008).

33 出光美術館, 『陶磁の東西交流』(出光美術館, 1990).

34 태국 국립수코타이박물관에서 필자가 실견함.

35 陳永志, 『内蒙古集寧路古城遺址 出土瓷器』(文物出版社,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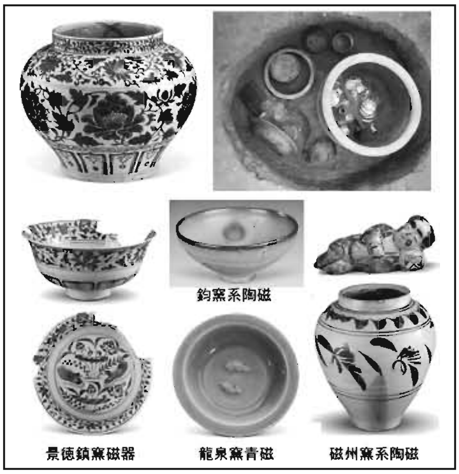
36 内蒙古自治區文物考古研究所 · 包頭市文物管理処, 『包頭燕家梁遺址発掘報告』(科學出版社, 2010).



도 25. 인도네시아 투반유적 발견 중국 도자

도 26. 태국 수코타이유적 출토 중국 도자

도 27. 내몽고 集寧路遺跡 출토 도자기



도 28. 내몽고 燕家梁遺跡 출토 도자기

몽골 카라코룸유적이나 카라호트유적 등 초원길 유적에서도 거의 동일한 양상의 조성이 확인된다. 중국 북방 내륙부부터 몽골지역(이른바 초원길)에서도 이렇듯 화북 도자와 강남 도자가 공반되는 조성이 확인된다.[37]

원대에 행해진 일본으로의 도자기 수출은 다른 지역과 양상이 약간 다르다. 일본으로 향하는 무역선인 신안선의 도자기 조성을 분석해보면, 약 2만점의 중국도자 중 절반 정도는 용천요 청자, 3분의 1은 경덕진 도자가 차지하며 복건 도자, 절강 도자, 강서 도자, 광동 도자 등 화남의 도자기 외에도 자주요계 도자나 정요 백자 등 화북의 도자를 포함한 중국 각지의 도자기가 망라된다. 이

37 弓場紀知, 『青花の道－中国陶磁が語る東西交流』(NHKブックス, 2008).

러한 정황은 출항지인 영파나 영파에 인접한 거대도시인 항주에서 소비되었던 도자기의 조성과 유사함을 알 수 있으며(표2) 나아가 이전 시기의 다도구 등도 포함되어 있다. 원대에 일본에 들어온 도자기의 조성은 당시 강남 지역의 도자기 소비 상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38] 그러나 양적으로 일본에서의 14세기 중국 도자 출토량은 13세기보다도 급증하지 않아 이 단계에 세계 각지에서 중국 도자의 전래가 급증한 상황과는 상이하다. 이는 원의 일본 원정 이후 일원(日元) 간의 미묘한 교류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무역선은 원의 일본 원정 이후에도 영파로 향했지만, 원은 일본을 적성(敵性) 국가로 경계하며 일본 상인에 대한 관리도 엄격하게 실시하였다. 또 14세기 전반 일본 상인들이 영파에서 폭동을 일으키는 일 등이 일어나기도 하여 무역량이 안정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대에 들어선 13세기 말경부터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동아프리카 등지에서는 중국 도자의 출토량이 급증하며 그 조성은 용천청자가 주를 이루고 복건 도자가 그 뒤를 잇는다. 경덕진 자기, 광동 도자가 소량 확인되며 드물게 자주요계 도자가 확인된다. 같은 시기부터 중국 북부~몽골 일대 내륙부에서의 중국 도자 유통도 활발해지는데, 화북의 자주요계 도자와 균요계 도자를 중심으로 화남의 용천 청자, 경덕진 자기 등도 운반되었다. 일본에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14세기가 되면 중국 도자 수입량이 줄어들지만 용천요 청자, 경덕진 자기를 중심으로 중국 각지에 있는 다양한 산지의 도자기가 수입되었다.

이와 같이 도자 유통 상황의 변화를 통해 당시 인간의 교류가 변화한 정황을 알 수 있다.

Ⅳ. 맺음말

몽골이 세계를 지배한 시대는 인간과 물질의 움직임이 세계적인 규모로 활성화하여 유라시아 대륙을 중심으로 한 세계 안에서 사회와 문화가 크게 변화하였다. 이 시대 중국 도자는 몽골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지배자를 바탕으로 기형이나 기종, 장식 기법이 획기적으로 변화하였으며 중국에서 서방을 향한 수출 제품으로 이전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도자기라는 '물질'을 연구재료로 삼아 원구유적과 원대 도자기 생산의 변화, 유통의 변화에 대해 서술하였다. 이와 같이 '물질'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연구자료화함에 따라, 인간의 활동이나 교류의 변화뿐만 아니라 감성의 변화, 문화의 변화 등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번역 : 지세리

투고일 2020. 11. 27. | 심사개시일 2020. 12. 1. | 게재 확정일 2020. 12. 11.

38 주1)의 문헌과 동일.

元時代の陶瓷器流通
—陶瓷史上のモンゴル·インパクトについて—

森　達也
沖縄県立芸術大学 教授

元時代は、中国陶瓷史上の大変革期であり、同時に膨大な量の陶瓷器が中国から世界各地に運ばれた時代でもある。本稿では陶瓷器という人類が生み出した最も保存性の高い器物の一つを資料として用いて、鷹島海底遺跡と新安沈船で発見された中国陶瓷の分析を行うとともに、その前後の時代の沈船や都市遺跡の出土陶瓷の組成や器種の比較研究を行い、モンゴル時代の陶瓷技術の発展や人とモノの移動・交流と価値観や美意識の変化について考える。併せて中国陶瓷の生産と流通を大きく変化させた陶瓷史上のモンゴル・インパクトについても触れる。

一. 鷹島元寇遺跡発見の陶瓷器

鷹島海底遺跡は二度目の元寇である弘安の役(1281年)に関わる遺跡と考えられており、元軍の船と考えられる木造船の船体の一部や碇、碇石、武具・武器類、漆器、金属器などとともに中国陶瓷が発見されている。鷹島周辺の海域では1281年7月下旬に、同年5月に韓国・合浦を出港した蒙漢軍と高麗軍からなる東路軍約4万2千人と6月に中国・寧波を出発した江南軍約10万人が終結し、7月30日夜の暴風により多くの軍船が沈没したとされている。

鷹島元寇遺跡で発見された中国陶瓷は、大部分が宜興窯をはじめ江蘇省南部から浙江省北部で生産された褐釉がかけられた長胴四耳壺・四耳壺・瓶で占められている。そのほかに浙江の龍泉窯青瓷や福建の白瓷、青瓷、黒釉天目形碗など華南地域の陶瓷器を中心に、磁州窯系の褐釉四耳壺、鈞窯青釉瓷など華北の陶瓷器も少量発見されている。こうした陶瓷器の多くは、1281年の弘安の役に関係する可能性が高く、日本派遣の元軍の船上で用いられた陶瓷器の実像を知ることができるだけでなく、陶瓷器の編年研究する上でも重要である。

鷹島海底遺跡で発見された陶瓷器の中で最も量が多いのは褐釉長胴四耳壺・四耳壺・瓶である(図1)。江蘇省南部の宜興窯から浙江省北部の一帯で宋時代から明時代初期頃まで生産されたもので、日本の陸上の遺跡でも出土することがあり、経筒に転用されたものが経塚から出土した例もある。産地については、筆者はかつて江蘇省宜興窯での生産が確認されていることを報告したことがあるが(図2)、[1]その後2016年12月に現地調査を行ない浙江省北部の湖州や徳清でも生産されたことを確認した(図3)。こうしたことから、江蘇省南部から浙江省の北部にわたる地域で生産されていたことが明らかである。韓国の南西部で1323年頃に沈没した新安沈船(中国から日本に向かった貿易)からは千点近く引き上げられたほか[2](図4)、韓国済州島の新昌里海底遺跡でも発見されている。

図 1. 褐釉長胴四耳壺:1、褐釉四耳壺:2、褐釉壺:3

図 2. 褐釉長胴四耳壺　宜興窯出土

図 3. 褐釉長胴四耳壺　浙江省徳清・青年塢窯出土

図 4. 褐釉長胴四耳壺　韓国・新安沈船

1　森達也「褐釉長胴四耳壺の生産地と年代について」『鷹島海底遺跡Ⅴ』長崎県鷹島町教育委員会, 2001年。

2　森達也「新安沈船発見中国陶瓷の組成研究ー中国、日本、東アジア、西アジア出土元代陶瓷との比較を通じてー」『美術資料』90韓国国立博物館, 2016年。

中国の遺跡では井戸など水にかかわる遺構から発見されることが多いことから液体を入れるための容器として用いられたと考えられる。また、中国では南宋時代に金軍と戦った将軍・韓世忠(1088-1151年)が率いた軍隊が用いたとされることに因んで「韓瓶」と呼ばれている。こうしたことから、鷹島海底遺跡の例は、恐らく元軍の上陸部隊用または軍船用の液体容器であったと考えられる。[3]

2011年に出版された鷹島海底遺跡の調査報告書では、発見された陶瓷器1,307点の内、壺や甕などの貯蔵具が1,110点を占め、その内96%の1066点がこの褐釉長胴四耳壺・四耳壺・瓶で、陶瓷器全体の82%を占めている。[4]

こうした大量の褐釉瓶・壺類の他には、中国南部の浙江省・龍泉窯の青瓷や福建の白瓷、青瓷、黒釉天目形碗などの華南地域の陶瓷器と、ごく少量ではあるが華北地域の陶瓷器も発見されている。

龍泉窯青瓷は盤や碗、杯などが発見されている。器形や底部の造形などから見て、13世紀後半から末頃の特徴を持っているものが主体である(図5)。図5-5については一見すると12世紀末から13世紀初頭の劃花文碗の特徴に近いと思われるが、高台の端部の形態は古いタイプとはやや異なって高台下端部外側の面取りが大きく、13世紀後半に位置付けても問題ないと思われる。

福建省で生産された陶瓷器は、碗は連江窯や福清窯など福州周辺地域の製品が主で、瓶や壺などの貯蔵容器は泉州の南に位置する磁竈窯の製品が主体を占めている。福建の青瓷碗には無紋のもの(図6)と外面に太い線で蓮弁紋(蓮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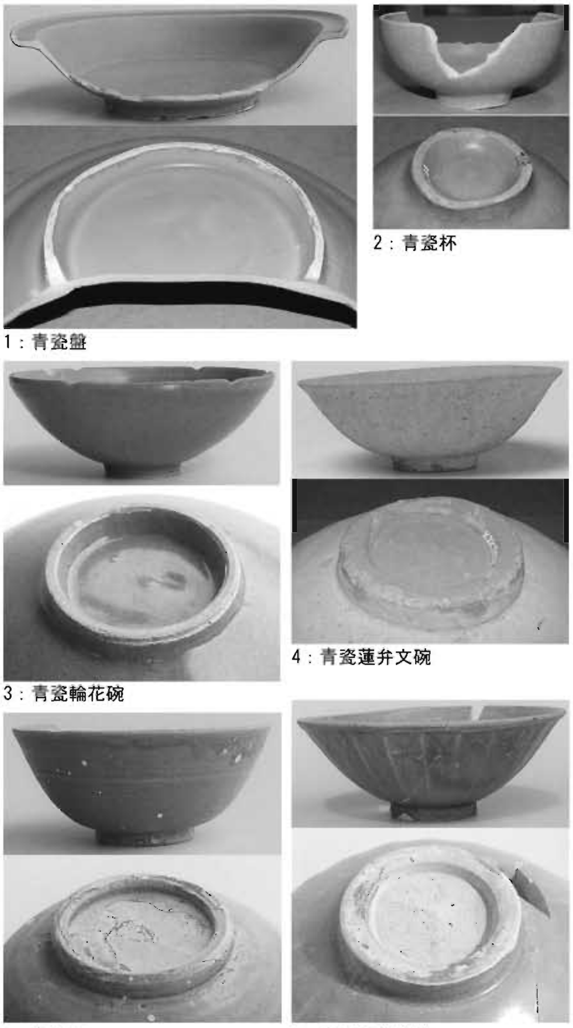

1：青瓷盤
2：青瓷杯
3：青瓷輪花碗
4：青瓷蓮弁文碗
5：青瓷碗
6：青瓷蓮弁文碗

図 5. 龍泉窯青瓷　鷹島海底遺跡

3　註1文献に同じ。

4　長崎県松浦市教育委員会『松浦市鷹島海底遺跡　総集編』長崎県松浦市教育委員会，2011年，p. 323。

花弁)が描かれるものとがあり(図7)、どちらも福州北部に位置する連江・浦口窯の製品に近い。天目碗(図8)は福州南部の福清・東張窯または閩侯窯の製品に近似する。口縁部の端部に釉が施されないことが特徴の口禿の白瓷碗(図9)は、13世紀後半から14世紀前半頃の日本各地の遺跡から数多く出土しているが、鷹島で発見された口禿白瓷は、日本の遺跡で出土するもとは器形や底部の造形の雰囲気が少し異なる。こうした白瓷は福建省北部から浙江省南部の地域で生産されているが、日本で多く見られるタイプがどこの窯で焼かれたかはまだ明らかになっていない。

図 6. 青瓷碗　福建　鷹島海底遺跡

図 7. 青瓷蓮弁文碗　福建　鷹島海底遺跡

図 8. 黒釉碗(天目)　福建　鷹島海底遺跡

図 9. 白瓷碗(口禿)　福建または浙江　鷹島海底遺跡

次に華北地域や朝鮮半島の製品を紹介する。

華北の陶瓷器には、鈞窯系と磁州窯系の製品がある。鈞窯系の青釉瓷器碗が数点発見されているが(図10)、こうした製品は河南省、山東省、河北省、山西省など華北の広い地域で生産されており、必ずしも河南省禹州鈞窯で焼かれたものではない。鈞窯系の陶瓷器は、日本の陸上の遺跡で出土した例はまったくと言ってよいほどなく、中国でも杭州や寧波など江南の都市遺跡でもほとんど出土しない。また、新安沈船や中国南部から東南アジア一帯で発見されている元時代の沈船から発見された例も管見に触れていない。一方、中国北部からモンゴル地域や朝鮮半島では数多くみられる(図11)。こうした鈞窯系青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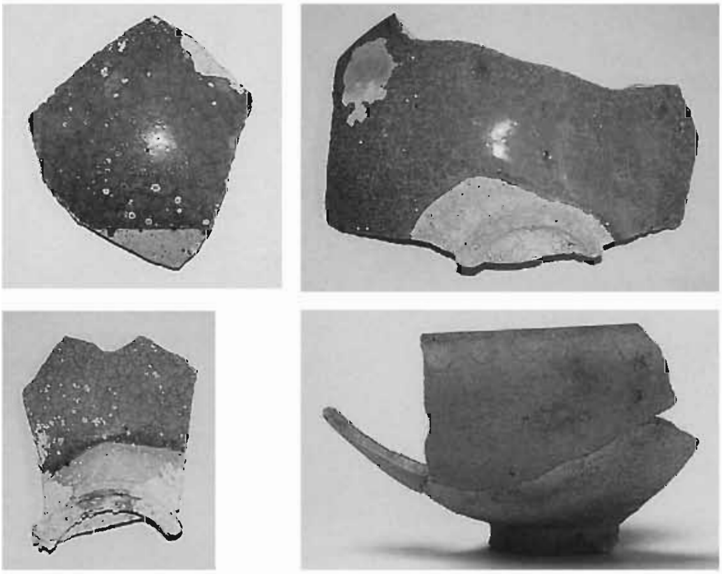


図 10. 鈞窯系青釉碗　華北　鷹島海底遺跡

碗が鷹島で発見されていることは、中国北部の漢人と高麗の兵から構成された東路軍との関係を物語る資料として位置づけられるのではないかと考えられる。

図 11. 鈞窯系青釉碗　内蒙古・土城子古城窖蔵出土

磁州窯系の長胴四耳壺(図12)は、前述した宜興窯などの褐釉長胴四耳壺と比べると口が細い器形である。このタイプの口の細い褐釉長胴四耳壺や双耳壺は、磁州窯(磁州・観台鎮窯)で出土している(図13)[5]ほか、磁州窯から近い地点で発掘された磁県南開河村沈船(図14)[6]や渤海湾で磁州窯製品を満載した状態で発見された綏中三道崗元代沈船(図15)[7]のほか、山東省菏沢元代沈船[8]、韓国・新安沈船(図16)[9]などからも発見されている。この磁州窯系の褐釉長胴四耳壺も鈞窯系陶瓷と同様に東路軍と関わる資料である可能性が高い。

図 12. 褐釉長胴四耳壺口部破片　磁州窯系　鷹島海底遺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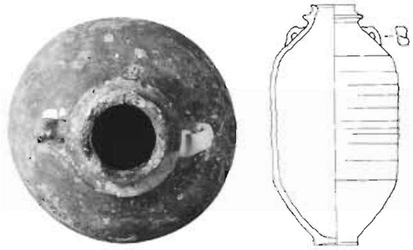


図 13. 褐釉長胴双耳壺　磁州□観台鎮窯出土

図 14. 褐釉長胴双耳壺　磁州窯系　磁県南開河村沈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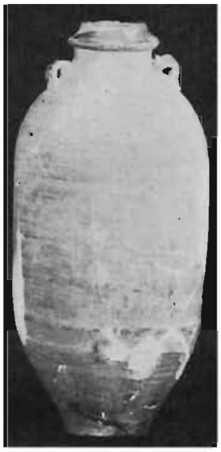


図 15. 褐釉長胴双耳壺　磁州窯系　綏中三道崗元代沈船

図 16. 褐釉長胴四耳壺口部破片　磁州窯系　韓国・新安沈船

高麗の象嵌青瓷(図17)は器形や施文は14世紀後半頃の雰囲気をもつものであり、こうしたタイプが13世紀末段階で出現していた可能性は少なく、元寇とは関係がない遺物である可能性が高い。

(地図1)は鷹島海底遺跡発見の陶瓷器の産地をプロットしたものであるが、東路軍と関係すると思われる華北の製品はごく少量で、大部分は江南軍に関わると思われる中国南部の製品で占められている。こうした比率は、江南軍10万人、3,500艘、東路軍4万2千人、900艘という兵数

5 北京大学考古系、河北省文物研究所、邯鄲地区文物保護所『観台磁州窯址』文物出版社1997年図版五〇－2。

6 磁県文化館「河北磁県南開河村元代木船発掘簡報」『考古』1978年6期, pp. 388～389。

7 張威主編『綏中三道崗元代沈船』科学出版社, 2001年, p. 123。

8 菏沢市博物館にて筆者実見。王守功、張启龍、李罘「菏沢古沈船出土元代青花瓷」『文物天地』2011年第1期。

9 (韓国)文化広報部·文化財管理局『新安海底遺物総合編』1988年。

や船数の差を反映しているとともに、江南軍はほぼ壊滅状態であったのに比べて東路軍は約7割の兵が帰国しているといった被害の大小も影響していると思われる。

なお、鷹島海底遺跡発見の陶瓷器は、部隊や軍船で使用された可能性が高い資料であり、当時の中国陶瓷の一般的な流通状況を示すものではない。これまでに発見された宋・元時代の貿易船と思われる沈没船から引揚げられた中国陶瓷の組成は、龍泉窯青瓷、福建陶瓷、景徳鎮陶瓷などの商品として積まれていたと思われる瓷器類が多数を占めており、鷹島海底遺跡のように陶製の壺や甕が大部分を占めるものはない。液体容器が多いという点が軍船での陶瓷器組成の特徴を示しているとすることができよう。

図 17. 象嵌青瓷碗　韓国　鷹島海底遺跡

地図 1. 鷹島海底遺跡発見の陶瓷器の産地

二. 新安沈船引揚げの陶瓷器

新安沈船は、韓国西南端の全羅南道新安郡沿海において1976年に発見され、同年から1984年にかけて11次にわたる水中調査が実施された。全長約28m、幅約9mの木造帆船の船体と、陶磁器2万余点、金属製品7百余点、銅銭約28t、銀錠、木製品、漆器、石製品(茶臼、硯など)、ガラス製品、香料、木材(紫檀)など多彩な遺物が引き揚げられた。

発見された「至治三年(1323)」銘の木簡、「筥崎」(博多の筥崎八幡宮)銘の木簡、「東福寺」銘の木簡、「慶元路」銘の青銅錘などから、この船は1323年に日本の博多に向けて慶元(寧波)を出航した、京都の東福寺と関係の深い貿易船であったと考えられている。また、瀬戸窯陶器、日本将棋、日本の下駄、日本刀の部品などから乗組員や乗客に日本人が少なくなかったことが明らかである。

引揚げられた陶瓷器は、2万余点の中国陶瓷のほか、高麗青瓷７点、日本陶瓷4点がある。中国陶瓷の半数強は浙江省の龍泉窯青瓷、3分の１は江西省の景徳鎮窯瓷器で占められ、その他に、福建省の白瓷、青瓷、黒釉瓷、褐釉壺、華北地域の磁州窯系陶瓷、江西省の吉州窯瓷器と贛州七里鎮窯陶瓷、広東省の石湾窯褐釉四耳壺、河北省の定窯白瓷、江蘇省南部または浙江省北部の褐釉四耳壺、浙江省の金華鉄店窯、浙江省杭州の老虎洞窯青瓷など中国各地の産地の製品がある。新安沈船は中国の寧波を出港し、博多に向かった貿易船であったと考えられているが、なぜこの船に中国の広い地域にわたるさまざまな産地の製品が積み込まれたのか?

本節では、こうした問題を解明するために出港地の寧波とその付近の杭州の遺跡、目的地の博多を中心とする日本各地の遺跡、東南アジア各地の遺跡、イランを中心とした西アジアの遺跡などで出土した元時代の中国陶瓷の産地組成や器種組成を比較検討し、新安沈船に積み込まれて日本に運ばれる予定であった陶瓷器の特性を考察する。[10]

1. 新安沈船発見陶瓷の産地と数量

新安沈船から引揚げられた陶瓷器の分類や数量を知ることができる資料は、1981年から85年にかけて出版された『新安海底遺物資料編』Ⅰ～Ⅲと、[11] 1988年に出版された報告書『新安海底遺物　総合篇』[12]である。『総合篇』の表1(368～370頁)で示された分類された陶瓷器の数量の合計数(1983年までの引揚げ数)は18,832点であるが、表1の下の追記によると、1984年に引き揚げられた陶瓷器が2,018点あり、それを加えると合計20,850点の陶瓷器が引揚げられたことになる。しかし、84年の引揚げ遺物の分類と内訳は示されていないため、産地や機種別の数量が分析できるデータは『総合篇』の表1の総計18,832点のみであり、この数値を基に分析を進めた。

これらの報告書の陶瓷器分類や産地の特定は、30年以上も前の中国陶瓷の研究成果を基にしたもので、これに最新の研究成果を加えて陶瓷器の産地分類を再度実施して産地ごとの数量を示したのが(表1)である。[13]なお、これまでの報告書の中で詳細な数量を確認できないところは「約」で示している。

この新たな産地分類では、新安沈船の陶瓷器の中で最も数が多いのは龍泉窯青瓷で10,627点、56%を占める。次は景徳鎮窯瓷器約4,100点:約21%、福建産陶瓷約1,650点:8.8%、浙江省の金華鉄店窯の陶瓷器1,144点:6.1%、宜興窯または浙江省北部の陶器壺類967点:5.1%、

10　本節の内容は、森達也「新安沈船発見中国陶瓷の組成研究－中国、日本、東南アジア、西アジア出土元代陶瓷との比較を通じて－」『美術研究』(韓国)国立中央博物館, 2016年, pp. 110-142。を基に加筆と一部省略を加えたものである。

11　文化広報部・文化財管理局『新安海底遺物資料編Ⅰ』1981年。文化広報部・文化財管理局『新安海底遺物資料編Ⅱ』1984年。文化広報部・文化財管理局『新安海底遺物資料編Ⅲ』1985年。

12　文化広報部・文化財管理局『新安海底遺物　総合編』1988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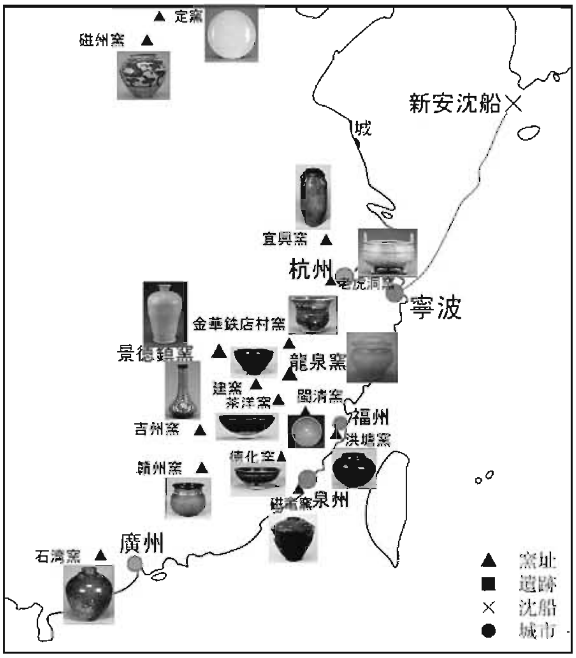
13　本稿では陶瓷産地の再分類の詳細については割愛した。

江西省贛州七里鎮窯陶瓷82点：0.44％、磁州窯系陶瓷70点：0.37％、広東省石湾窯の褐釉四耳壺22点：0.12％、浙江省杭州・老虎洞窯の倣官窯青瓷18点：0.1％、江西省吉州窯陶瓷11点：0.06％、高麗青瓷7点：0.04％、日本陶器4点：0.02％、河北省の定窯白瓷2点：0.01％、産地不明約120点：0.64％となる。

	産地	数量	比率(%) (x÷18,832×100)
1	龍泉窯	10,627	56
2	景徳鎮窯	約4,100	21
3	福建	約1,650	8.8
4	金華・鉄店窯	1,144	6.1
5	宜興窯 (または浙江北部)	967	5.1
6	江西・贛州窯	82	0.44
7	磁州窯系	70	0.37
8	広東・石湾窯	22	0.12
9	杭州・老虎洞窯	18	0.1
10	吉州窯	11	0.06
11	高麗青瓷	7	0.04
12	日本	4	0.02
13	定窯	2	0.01
14	不明	約120	0.64
合計		18,832 (新安『総合篇』表)の数値)	

表 1. 新安沈船発見陶瓷の産地と数量

こうした陶磁産地を地図上に示したのが(地図2)である。その分布範囲は、北は河北省から南は広東省までの広域に亙り、当時の中国全土の代表的な陶磁産地の製品のほとんどが新安沈船に積み込まれていた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のである。



地図 2. 新安沈船発見陶瓷の産地

2. 新安沈船発見陶瓷の年代

新安沈船で発見された陶瓷器の大部分は、沈没年代の至治三年(1323)より少し前に生産されたものと考えられる。しかし、その中には建盞のように元時代には既に生産されていない陶瓷器も含まれており、明らかに古い時代の陶瓷器も含まれている。

建窯(水吉窯)で生産された建盞(表2－33)は、窯址の発掘調査の結果から南宋末期には生産が終わっていたことが明らかにされている。新安沈船で発見された建盞の大部分には内底部に茶を点てる際についたと思われる擦痕が認められ、口縁に金属製の覆輪をはめたものもある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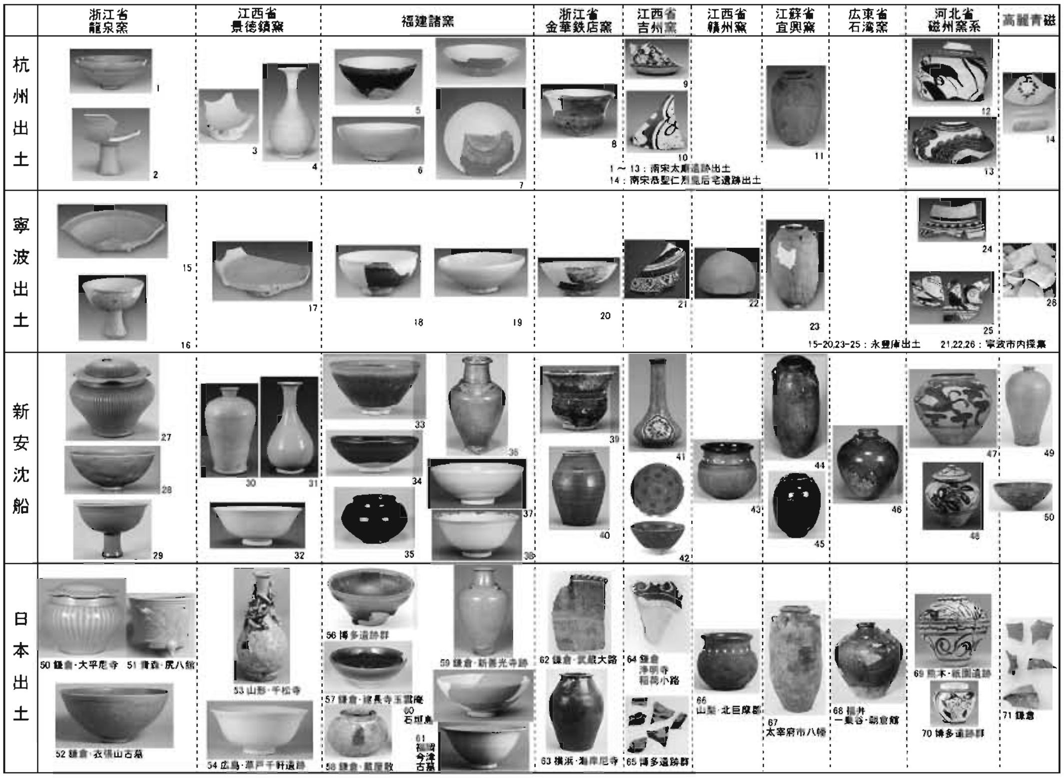


表 2 元代中国陶瓷の産地組成比較(杭州、寧波、新安沈船、日本)

とから、古物であることが明らかである。新安沈船の年代より半世紀以上前に生産された建盞が42点(『新安海底遺物(総合篇)』の表1、分類から集計した数値[14]も発見されていることから、これらはたまたま新安船に積み込まれたものではなく、意図的に古物を集めて日本向けの船に積み込んだものと考えられる。

新安沈船で発見された2点の定窯白瓷も同様で、金時代に生産された古物である。[15]

また、大量に発見された龍泉窯青瓷の中にも、明らかに古物と思われるものがある。

『新安海底遺物(総合篇)』で示された10,627点の龍泉窯青瓷のうち、南宋様式(Ⅰ－2－①類)とされるものが37点(0.35%)、元様式の優良質及び良質(Ⅰ－3－①類)とされるものが117点(1.1%)、大部分を占めるのは元様式の一般質(Ⅰ－3－②類)とされるもので10469点(98.5%)を数える。

この南宋様式の37点が伝世品であるか同時代のものかが発見当初から問題にされていたわ

14　1983年までの引揚げ資料の総計。1984年調査の引揚げ資料を加えると60点を超えると言われている。

15　1984年の調査でも数点の定窯白瓷が引揚げられており、その中には元代の製品もあるが、正式な資料提示がされていないためここでは取り上げなかった。

けであるが、1998年に亀井明徳氏はこれをアンティックと考える必要はなく、新しい様式が作られはじめてもしばらくの間は古い様式のものが一定量残る減少の現われであるとしている。[16]また、同じ1998年に出川哲朗氏は「砧青瓷」タイプは新安積み荷の中のわずか0､2%であり、「日本で人気のあった13世紀の砧青瓷が「古美術」として運ばれた」とまったく逆の意見を述べており[17]、意見の一致は見ていない。

なお、新安の報告書の中には使用痕があると解説されている鎬蓮弁文盤があるが[18]、蓮弁の幅が広く高台の作りも非常に丁寧で、南宋時代の製品と考えられる。また、2点の大形双鯱耳瓶のうち1点の鯱の尾の部分に傷があるが、実見したところでは古い傷のように思える。明確な根拠はないがこれも伝世品の可能性がある。

建盞や定窯白瓷のように明らかに古物の一群があり、また龍泉窯青瓷の「南宋様式」とされる一群の中にも少なくとも1、2点は使用痕の残る古物が含まれていることから、亀井氏のいうように龍泉窯青瓷すべてが同時代のものとすることはできない。

報告で「南宋様式」とされ写真が発表されているものには、双鯱耳瓶(大)2点、双鯱耳瓶(小)1点、双鳳耳瓶(小)2点、筍瓶1点、下膨瓶1点、5管瓶2点、袴腰香炉11点、双耳三足香炉1点、査斗1点、鎬蓮弁文盤1点、鎬蓮弁文端反り碗1点、束口碗3点、斗笠碗1点、碗蓋1点などがある。元様式とされるものの多くが同形のものが複数あるのと比べると、南宋様式とされるものは袴腰香炉を除くと各器種の点数は1点か2点で、様相が異なる。

このうち双鯱耳瓶(大)、鎬蓮弁文盤、鎬蓮弁文端反り碗、査斗、斗笠碗は形態的には南宋後期の四川・遂寧窖蔵[19]や四川・東渓園芸場墓[20]の出土品と近似しており、13世紀前半段階まで遡り得るが、他のものについては、遡っても13世紀後半の南宋末から元初期の段階までであろう。[21]

日本では、南宋時代龍泉窯の粉青色青瓷を「砧青瓷」と呼んで特に珍重したが、新安沈船で南宋様式と分類された37点の青瓷は、いずれもこの「砧青瓷」のタイプである。このすべてが南宋時代の産品とは限らないが、建盞と同じように日本人の嗜好にあわせて古物が集められた可能性が高い。

そのほか、景徳鎮窯製品にも青白磁枕など南宋時代の製品である可能性が指摘されているものがある。吉州窯の梅花天目碗(表2－42)も南宋の製品である。また、高麗青瓷も全てが同時代

16　亀井明徳「倭好賞翫の青瓷　試論」『専修大学人文科学年報』第28号，1998年，　p.80。

17　出川哲朗「遂寧窖蔵出土の龍泉窯青磁と新安沖沈船及び日本伝世品との比較」『封印された南宋陶磁展　図録』朝日新聞社，1998年，　pp.122-126。

18　韓国文化広報部・文化財管理局『新安海底遺物』総合編，1988年，p.422　図11。

19　成都文物考古研究所､遂寧市博物館『遂寧金魚村南宋窖蔵』文物出版社,2012年。

20　四川省文物管理委員会「四川省簡陽県東渓園芸場元墓」『文物』1987年第2期。

21　森達也「宋､元代竜泉窯青磁の編年的研究」『東洋陶磁』29東洋陶磁学会，2000年。

のものではなく、多くは生産年代が13世紀以前に遡るものである。

以上のように新安沈船で発見された陶瓷器の中には、少量ではあるが、生産年代が南宋時代まで遡る古物が含まれている。こうした古物は、日本人の嗜好を意識して、意図的に集められたものである可能性が高いと思われる。

3. 新安沈船発見陶瓷と杭州、寧波、日本出土の元代中国陶瓷との比較

近年、広州市内や寧波市内の遺跡の発掘調査報告で数多くの出土陶瓷器が報告され、新安沈船発見の陶瓷器と比較することができる良好な資料が増えてきた(表2:2段目、3段目)。

特に重要なのは、南宋太廟遺跡の元時代と明時代の文化層の出土遺物で[22]、龍泉窯青瓷、景徳鎮窯製品、福建陶瓷のほかに磁州窯系陶瓷、江西省・吉州窯製品、宜興窯醤釉四耳壺、浙江省・金華鉄店村窯倣鈞瓷、定窯白瓷などが出土しており、その内容は新安沈船で発見された陶瓷器の生産地と一致する点が多い。

南宋太廟遺跡の報告書では出土層位ごとの陶瓷器の数量が示されている(同報告書:附表一・二、p120)。元時代に相当する第3層からは612点の陶瓷器片が出土しており、最も量が多いのは龍泉窯青瓷で412点(67%)、次いで多いのが景徳鎮窯及び生産地不明の青白瓷で131点(21%)である(生産地不明の青白瓷には福建製品が含まれている)。福建陶瓷は数値化されていないが、生産地不明の青白瓷の多くや黒釉瓷器の一部が福建製品であり、また産地不明の青瓷の多くは浙江省・金華鉄店村窯倣鈞瓷で、この二つの窯の製品の量が景徳鎮窯に次いで多い。それ以外の磁州窯系陶瓷、宜興窯醤釉四耳壺、定窯白瓷の出土数はごく少量である。このように、龍泉窯青瓷が半数以上を占め、景徳鎮窯陶瓷がそれに次ぎ、福建陶瓷と鉄店窯の製品がさらにその次に位置づけられる状況は前述した新安沈船の陶瓷器組成とよく似ている(表2:1段目)。

南宋朝の首都であった杭州は、元時代にも中国南部最大の都市として繁栄し、華南の政治・経済の中心であった。南宋太廟遺跡の元・明代文化層出土遺物の様相から、元時代に全国各地の陶磁器が杭州に運ばれて消費されていたことがわかり、各地の製品が杭州に集まる流通システムが確立していたと考えられる。

新安船の出港地である寧波市内でも、正式な考古発掘による資料ではないが、杭州出土陶瓷と同じような産地の製品が出土している。[23]ここでは杭州の南宋太廟遺跡では出土していない贛州窯製品も発見されている。また、近年報告書が刊行された寧波・永豊庫(元時代の倉庫)でも、龍泉窯青瓷、景徳鎮窯瓷器、福建陶瓷、金華鉄店村窯倣鈞瓷、磁州窯系陶瓷、定窯白瓷など

---

22 杭州市文物考古所『南宋太廟遺址』文物出版社, 2007年.彩版38, 50, 51, 52, 54, 57, 115-120, 125, 140, 141ほか。ただし、報告では大部分の福建陶瓷が「未定窯口(窯不明)」と表示されている。

23 朱勇偉　陳鋼『寧波古陶瓷拾遺』寧波出版社, 2007年。寧波市文物考古研究所『永豊庫　元代倉儲遺址発掘報告』科学出版社,2013年。

が出土しており、杭州や新安沈船と近似した陶瓷器組成が確認できる(表2:2段目)。

寧波と杭州は運河で結ばれており、杭州で使用された全国各地の陶瓷器が、運河を通じて寧波に運ばれて流通し、その一部が日本向けの船に積み込まれたと考えてよいであろう。海路を通じて杭州にもたらされた陶瓷器は寧波を経て運ばれた可能性も高い。なお、新安沈船の陶瓷器は、大部分が龍泉窯青瓷と景徳鎮製品で占められており、他の産地の製品はこの二つの窯に比べるとかなり少量である。龍泉窯青瓷と景徳鎮製品は輸出向けの商品として大量に寧波に運ばれていたと考えられるが、福建陶瓷をはじめとする他の窯の製品は、輸出向けの商品として杭州や寧波に運ばれたのではなく、国内消費のために杭州や寧波で流通したものの一部が日本向けの輸出にまわされた可能性も考えられる。

新安沈船と同時代の日本国内の遺跡で出土する中国陶瓷は、龍泉窯青瓷が最も多く、次いで福建陶瓷と景徳鎮窯瓷器とが一定量を占める。博多や京都、鎌倉など当時の大都市では、磁州窯系陶瓷、吉州窯製品、贛州窯製品、宜興窯醤釉四耳壺、浙江・金華鉄店村窯倣鈞瓷、広東・石湾窯醤釉四耳壺など新安沈船で発見された各産地の陶瓷器が少量ではあるが出土しており、新安沈船の陶瓷器組成と共通性が高い。こうしたことから、新安船に積み込まれていた陶瓷器の組み合わせが(表2:3段目)、当時日本に輸入された中国陶瓷の標準的な組成(表2:4段目)を示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のである。[24]

4. 新安沈船発見陶瓷と東南アジア、西アジア出土元代中国陶瓷との比較

筆者は2007年にペルシア湾のキーシュ島(Kish　基什島)(図18)とマフルバーン遺跡(Mafruban)で中国陶瓷の調査を行なったが、新安沈船とほぼ同時期の元代陶瓷についてはどちらの遺跡でも龍泉窯青瓷が過半を占め、次に量が多いのは福建の白瓷、青瓷であった。景徳鎮の白瓷や青花瓷器は福建陶瓷よりも少なく、広東・石湾窯の褐釉壺も少量確認できた。[25] 2014年、2016年に再びイラン調査を実施し、旧ホルムズ遺跡群(図19)を調査したがその際にもほぼ同様の組成が確認できた。

東南アジア・西アジアなどで発見される元代の中国陶瓷は龍泉、福建、景徳鎮、広東の製品にほぼ限定されており、まれに磁州窯系陶瓷が出土する。量的には龍泉が過半を占め、次いで福建陶瓷、さらに景徳鎮、広東の製品がそれに次ぎ、磁州窯系陶瓷は微量である。

こうした陶瓷組成を新安沈船と比較すると、龍泉窯が過半を占める点は共通しているが、福

24 近年、江蘇省太倉遺跡の調査が進み、元時代から明時代初期の貿易港として注目されている。太倉遺跡の出土陶瓷器は、新安沈船の陶瓷器と近似した組成を示すため、新安船は太倉を出港した可能性も指摘され始めている。しかし、太倉遺跡では新安船に見られるような南宋時代の茶器や瓷器の出土は確認されておらず、筆者は現時点では太倉出港の可能性は低いと考えている。この問題については、太倉遺跡の報告書の出版を待って再度論じたい。

25 森達也「伊朗波斯湾北岸幾個海港遺址発現的中国瓷器」『中国古陶瓷研究』第14輯紫禁城出版社, 2008年, pp. 414－4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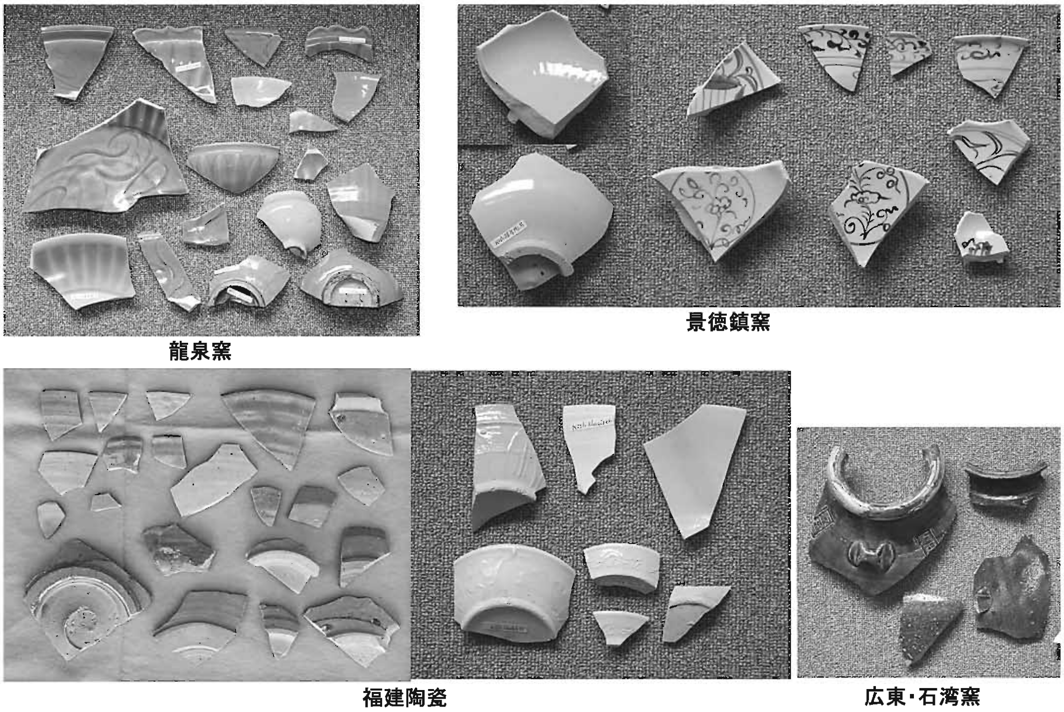


図 18. イラン・キーシュ島ハリーレ遺跡発見中国陶瓷

図 19. イラン・旧ホルムズ港湾都市遺跡発見陶瓷器

建瓷器と景徳鎮瓷器の割合が逆転して、福建陶瓷の占める割合が高くなっている。これは、東南アジアや西アジアへの陶瓷器輸出が主に福建・泉州を拠点として行なわれたため、泉州に近い福建省内で輸出目的に生産された陶瓷器が大量に船積みされたためと考えられる。

東南アジア・西アジア発見の元代中国陶瓷は龍泉、福建、景徳鎮および少量の広東製品という組成を示し、他の窯の製品はまれに微量の磁州窯系陶瓷が伴うことがある程度である。これは、泉州からの陶瓷輸出は、貿易港・泉州に輸出のために大量に集積された龍泉窯、福建、景徳鎮窯の製品にほぼ限定されていたためと考えられる。

一方、華南第一の都市・杭州に近い寧波では、輸出用に大量集積されていた龍泉窯と景徳鎮窯瓷器だけでなく、巨大都市・杭州に国内流通によって集まった中国各地の陶瓷器を、古物も含めて入手することができ、そうした国内市場で流通した陶瓷器を日本向けの船に積み込ことが可能であったため、新安沈船のような多彩な陶瓷組成が形成されたと考えられるのである。

5. 新安沈船引揚げ陶瓷の特性

以上のように、新安沈船の陶瓷組成は、当時の杭州や寧波での陶瓷流通の状況を色濃く反映していることが明らかであり、さらに同時代の日本出土の中国陶瓷の組成とも共通性が高い。

日本との交流の窓口が杭州に近い寧波に置かれていたことによって、泉州を窓口とした東南アジアや西アジアに比べて多彩な中国陶瓷器が日本に運ばれたわけであるが、その原因は、寧波が大都市・杭州に近かったという地理的要因だけでなく、日本人が中国へ強い憧憬意識を持っていたという日本側の要因も大きく働いていたと思われる。

12世紀から14世紀中頃にかけて日本からは多くの留学僧や商人が中国に渡航した。[26] 留学僧は単に仏教を学ぶだけでなく、多彩な中国文化を学び日本に伝え、商人たちは中国のさまざまな器物を日本に運んだ。その結果、当時の日本人は中国とその文化に強い憧れを抱き、中国から輸入したな器物を「唐物」と呼んで珍重したのである。

新安沈船からは陶瓷器だけでなく、儒教礼器を中心としたさまざまな金属器や漆器なども発見されており、当時の日本人は陶瓷器だけでなく、中国のさまざまな器物に興味を持ち、受容していたことがわかる。新安沈船では書画の木製の軸が発見されているが、この時代には中国の書画や書籍なども盛んに輸入され、日本には数多くの伝世品が残されている。

中国への憧憬意識を基に、日本から寧波に渡航した商人は、寧波または杭州で手に入るあらゆる種類の陶瓷器を買い付けて日本に運ぼうとし、その結果、当時の寧波や杭州で流通していた陶瓷器の組成を色濃く反映した組成の陶瓷器群が新安船に積み込まれたのである。

また、当時の日本人は単に中国の器物を好んだために盛んに輸入しようとしたのでなく、その器物の背景にある中国文化をも併せて中国から移入しようとしていた。例えば、茶碗を輸入

26　榎本渉『東アジア海域と日中交流ー九～一四世紀』吉川弘文館、2007年、ほか。

する背景には茶文化の受容があり、儒教礼器輸入の背景には儒教の受容があったのである。ただ単に器物を輸入するだけでなく、その器物どのように使用するのかといった、文化的背景までをも併せて日本に輸入しようとしていたのである。

同時代の西アジアの中国陶瓷の受容は、こうした日本の受容とは異なり、その器物の背景にある中国文化は興味の対象ではなく、美しくかつ堅牢で完成度の高い器物しての興味を基とした輸入であった。つまり中国でどのように使われていたかは問題ではなく、彼らがどのように使えるかという観点で輸入されたのである。そのため、中国や日本で茶道具として珍重された建盞は、西アジアにはほとんど輸出された痕跡がなく、彼らにとっては輸入する必要のない器物として扱われていたと考えられる。

このように、基本的には日本人の中国文化への憧憬意識と寧波の地理的要因が新安沈船の多彩な陶瓷組成を成立させたと考えることができるわけである。一方、建盞や定窯白瓷、龍泉窯の砧青瓷など新安沈船で発見された古物の陶瓷器からは、日本人の中国文化に対する独特の受容のあり方をも知ることができる。

中国では既に廃れ始めていた一時代前の茶文化や茶道具が日本では引き続き流行していて、そうした古い茶器を意識的に買い集めた行為や、日本人が特にあこがれた宋時代の中国陶瓷を代表する龍泉窯の砧青瓷や定窯白瓷などの古物を求める行為の中から、当時の日本人は同時代の中国文化へ憧れると同時に、自分たちが親しんできた一時代前の中国文化に対する憧れを強く抱き、複層的に中国文化および器物を受容したことが新安沈船の陶瓷器組成から知ることができる。

このように新安沈船で発見された陶瓷器は、当時の日中交流の精神的な背景までをも知ることができる稀有な研究資料と位置付けることができるのである。

三. 中国陶瓷史上のモンゴル·インパクト

次に、中国・元時代に中国陶瓷の様式や流通にどのような大きな変化があったかについて見ることとしよう。まず、陶瓷器の器形、装飾、組成の変化、次いでその流通の変化について概観する。

1. 陶瓷器の器形、装飾、組成の変化

まず、モンゴルが中国侵入する前の段階の中国陶瓷の様相を確認しておきたい。(図20)は1240年前後にモンゴル軍が中国南部の四川省に攻め込んだ際に形成された可能性が高いとされる四川省遂寧金魚村窖蔵から出土した陶瓷器である。[27]この窖蔵からは985点の陶瓷器が出土

27 庄文彬「四川遂寧金魚村南宋窖蔵」『文物』1994年第9期。朝日新聞社編『封印された南宋陶磁展』図録，1998年。成都文物考古研究所、遂寧市博物館『遂寧金魚村南宋窖蔵』文物出版社，2012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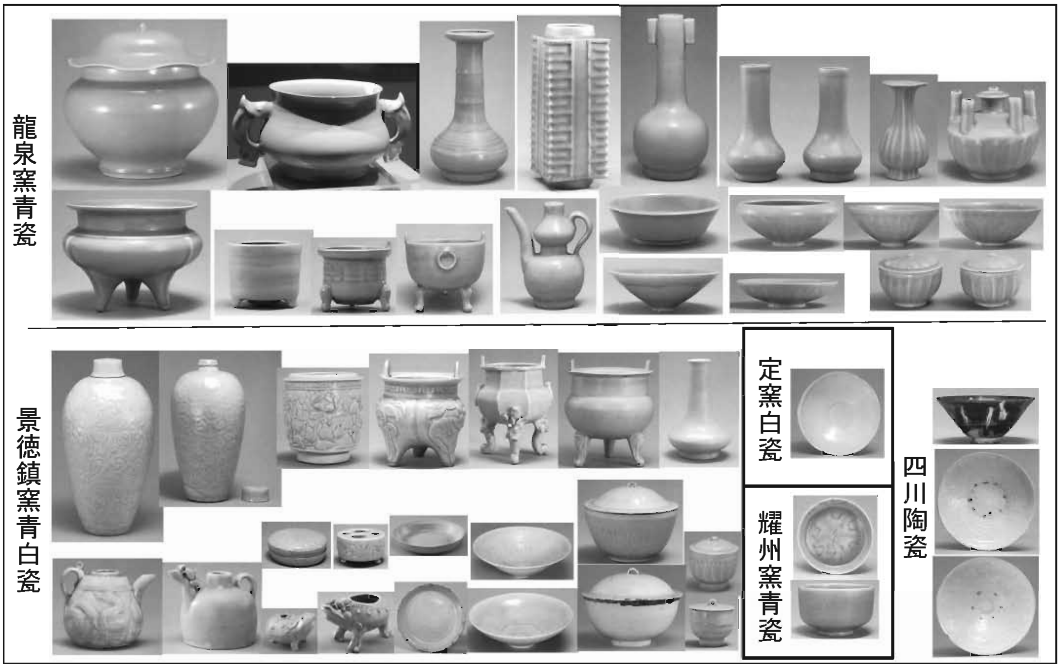


図 20. 四川・遂寧窖蔵出土陶瓷器

し、その内355点が龍泉窯青瓷、604点が景徳鎮窯青白瓷、耀州窯青瓷2点、定窯白瓷8点、四川陶瓷16点という組成である。

この、段階の陶瓷器は、龍泉窯青瓷は蓮弁紋以外にはほとんど紋様がないが、景徳鎮青白瓷、白瓷は劃花紋や貼花紋など豊富な紋様が施されている。高さ30cm程が最も大きい部類で、基本的に大形の製品は少ない。

次の13世紀後半になると変化が始まる。(図21)は鎌倉・今小路西遺跡の高級武士の屋敷の火災層からまとまって出土した陶瓷器で、[28] 13世紀後半から末頃の様相を示している。龍泉窯青瓷は貼花紋などの装飾が豊富になり、大形盤などの大形器種が出現している。景徳鎮窯の製品はまだ大きな変化は認められない。

次の段階の14世紀前半になると変化はさらに顕著になる。この段階の代表的な資料は新安沈船引揚げの陶瓷器である(図22)。[29] 龍泉窯は60cmを超えるような花瓶など大形器種が出現し、瓶や壺、盤、鉢など大形製品が目立つようになる。装飾は貼花紋、劃花紋、刻花紋、鉄斑紋などが多用され、元時代の特徴とも言える馬上杯(図20)龍泉窯青瓷の下段右から2つ目と3つ目)が出現する。

28 鎌倉市教育委員会『今小路西遺跡(御成前小学校内)発掘調査報告書』鎌倉市教育委員会,1990年。

29 文化広報部・文化財管理局『新安海底遺物資料編Ⅰ』1981年。文化広報部・文化財管理局『新安海底遺物資料編Ⅱ』1984年。文化広報部・文化財管理局『新安海底遺物資料編III』1985年。文化広報部・文化財管理局『新安海底遺物総合編』1988年。文化財庁・国立海洋遺物展示館『新安船』2006年。

図 21. 鎌倉 · 今小路西遺跡出土中国陶磁

図 22. 韓国 · 新安沈船引揚中国陶磁

景徳鎮窯の製品は、釉裏紅、鉄斑紋、鉄絵など新たな装飾技法が生み出される。新安では発見されていないが、この時期にコバルト顔料を用いて絵付けをする青花瓷器が誕生しているが、生産が本格化するのは次の14世紀中頃以降である。

次の14世紀中頃の例として、江西・高安窖蔵(図23)[30]と河北・保定窖蔵出土陶瓷(図24)[31]を挙げる。この段階の龍泉窯青瓷は前段階とそれほど大きな変化はないが、前段階に誕生した景徳鎮窯の青花瓷器はこの段階に生産が本格化し、壺、瓶、梅瓶、鉢、盤などの大形器種が盛んに作られた。

こうした元時代に起こった器形の大形化、装飾の多用、色彩装飾の誕生、青花の誕生などは、新たな支配者であるモンゴル人と、彼らとともに中国に入ってきた色目人(中央アジア、西アジア、ヨーロッパ人)の嗜好にあわせるために起こった変化である。特に、景徳鎮窯の青花瓷器や龍泉窯青瓷の大形の盤や鉢が元時代中期頃に出現し、急速に流行する背景には、食物をこうした容器に盛る草原の民の食習慣が影響していると考えられている。

図 23. 江西・高安窖蔵出土陶瓷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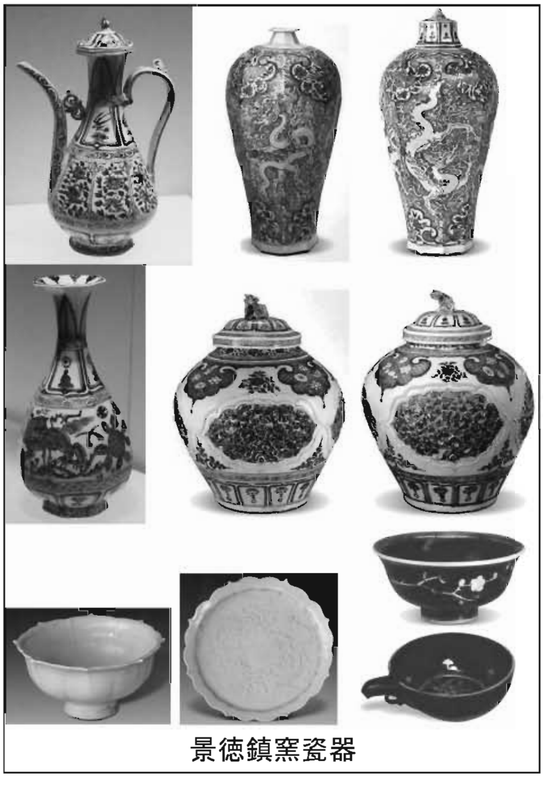


図 24. 河北・保定窖蔵出土陶瓷器

30　劉裕黒、熊琳「江西高安県発現青花、釉裏紅等瓷器窖蔵」『文物』1982年第2期。劉金成『高安元代窖蔵瓷器』朝華出版社，2006年。

31　河北省文物研究所「河北定興元代窖蔵文物」『文物』1986年第1期。

2. 流通の変化

次に流通の変化について触れておきたい。

モンゴルが中国全土を支配する前の南宋時代に、すでに海上交通路による中国陶瓷の輸出は盛んにおこなわれており、日本、東南アジア、南アジア、西アジア、東アフリカ、地中海地域に龍泉窯青瓷、福建陶瓷、景徳鎮陶瓷、広東陶瓷などが輸出されていた。

筆者は近年ペルシア湾北岸の都市遺跡の調査を進めているが、ここでの調査によって、南宋時代から元時代の急激な中国陶瓷貿易量の増大化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た。[32]

ホルムズ王国の港湾都市遺跡では、13世紀末から14世紀初頭の中国陶瓷が膨大な量が確認でき、この時期に中国陶瓷の貿易量が激増したことが明らかとなった。ここでは、龍泉窯青瓷が最も多く、次いで福建陶瓷、少量の景徳鎮瓷器と広東陶瓷が確認された(図19)。

14世紀初頭にホルムズ王国は現在のホルムズ島に拠点を移したとされ、この港湾都市遺跡はその際に放棄された可能性が考えられるが、中国陶瓷の年代からもそれを裏付けることができる。

キーシュは13・14世紀にホルムズ王国と抗争を続け14世紀20年代にホルムズに敗れ、以後衰退した。ハリーレ遺跡はキーシュの中心的な都市遺跡で、ここからは13世紀から14世紀中頃の遺物が豊富に確認されている(図18)。13世紀末から14世紀前半の中国陶瓷の量が最も多い。龍泉窯青瓷が最も多く、次いで福建陶瓷、少量の景徳鎮瓷器と広東陶瓷というホルムズ王国の港湾都市遺跡とほぼ同じ組成が確認されたが、旧ホルムズよりやや新しい時期の中国陶瓷が多く、景徳鎮の青花瓷器も確認されている。

その他、インドネシアのトゥバン遺跡[33]やタイのスコータイ遺跡[34]などでも、同じような龍泉、福建、景徳鎮という組成が確認されている(図25、図26)。なお、東南アジアや西アジアではこれらの陶瓷器のほかにごく少量ではあるが磁州窯系陶瓷が共伴することもある。

次に内蒙古など中国北部の内陸の遺跡で出土する陶瓷器について見てみよう。内蒙古・集寧路遺跡[35]と内蒙古・燕家梁遺跡[36]は元時代の交通路の駅に関わる都市遺跡であるが、どちらからも景徳鎮瓷器、龍泉窯青瓷などの中国南方の陶瓷とともに華北の磁州窯系や鈞窯系の陶瓷器が大量に出土している(図27、図28)。なお、これらの遺跡で出土する磁州窯系や鈞窯系の陶瓷器は山西地域の製品が少なくない。

モンゴルのカラコルム遺跡やカラホト遺跡など草原の道の遺跡でもほぼ同様の組成が確認されている。中国北方の内陸部からモンゴル地域(所謂草原の道)ではこのように華北陶瓷と江

---

32 森達也「伊朗波斯湾北岸幾個海港遺址発現的中国陶瓷」『中国古陶瓷研究』第14輯紫禁城出版社, 2008年。

33 出光美術館『陶磁の東西交流』出光美術館, 1990年。

34 タイ国立スコータイ博物館にて筆者実見

35 陳永志『内蒙古集寧路古城遺址出土瓷器』文物出版社, 2004年。

36 内蒙古自治区文物考古研究所、包頭市文物管理処『包頭燕家梁遺址発掘報告』科学出版社, 2010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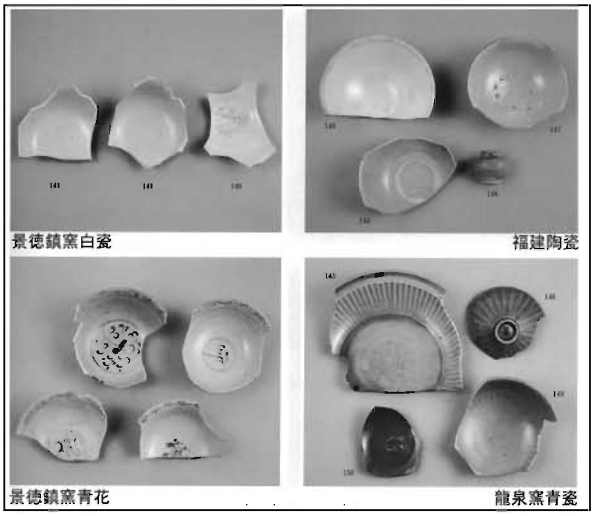


図 25. インドネシア・トゥバン遺跡発見中国陶瓷

図 26. タイ・スコータイ遺跡出土中国陶瓷

図 27. 内蒙古・集寧路遺跡出土陶瓷器

図 28. 内蒙古・燕家梁遺跡出土陶瓷器

南陶瓷とが共伴する組成が確認されている。[37]

元時代の日本向けの陶瓷器の輸出は、他の地域とやや様相が異なる。日本向けの貿易船である新安沈船の陶瓷器の組成を分析すると、約2万点の中国陶瓷の約半分は龍泉窯青瓷、3分の1は景徳鎮瓷器で占められ、他に福建陶瓷、浙江陶瓷、江西陶瓷、広東陶瓷などの華南の陶瓷器のほか、磁州窯系陶瓷や定窯白瓷など華北の陶瓷も含まれ中国各地の陶瓷器が含まれる。こうした状況は出港地の寧波や寧波に近い巨大都市、杭州で消費された陶瓷器の組成と近いことがわかる(表2)。さらに一時代前の茶道具なども含まれていた。元時代に日本に運ばれた陶瓷器の組

37 弓場紀知『青花の道ー中国陶磁が語る東西交流』NHKブックス，2008年。

成は当時の江南地域の陶瓷器消費状況を反映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38] しかし、量的には日本での14世紀の中国陶瓷の出土量は13世紀よりも急激に増加することはなく、この段階に世界の他地域に運ばれた中国陶瓷が激増した状況とは異なる。これは元寇以降の日元間の微妙な交流関係が反映していると思われる。日本の貿易船は元寇以降も寧波に赴いたが、元は日本を敵性国家として警戒し日本商人への管理も厳格であり、また14世紀前半に日本商人が寧波で暴動をおこすことなどがあったために[39]貿易量は安定しなかったと思われる。

元時代に入った13世紀末頃から東南アジア、西アジア、東アフリカなどでは中国陶瓷の出土量が激増し、その組成は龍泉青瓷を主体に福建陶瓷がそれに次ぎ、景徳鎮瓷器、広東陶瓷が少量、稀に磁州窯系陶瓷というものであった。同じ頃から中国北部からモンゴル一帯の内陸部での中国陶瓷の流通も活性化し、華北の磁州窯系陶と鈞窯系陶瓷を中心に華南の龍泉青瓷、景徳鎮瓷器なども運ばれた。日本は他の地域異なり、14世紀になると中国陶瓷輸入量は減るが、龍泉窯青瓷、景徳鎮瓷器を中心に中国各地の様々な産地の陶瓷器が輸入された。

こうした陶瓷器の流通状況の変化から、当時の人間の交流が変化した状況を知ることができるのである

四. おわりに

モンゴルが世界を支配した時代は、世界的な規模で人とモノの動きが活性化され、ユーラシア大陸を中心とした世界中で社会や文化が大きく変化した。この時代に中国陶瓷はモンゴル人を主とした新しい支配者のもとで器形や器種、装飾技法が画期的に変化し、中国から西方に向けての輸出製品としてそれ以前にも増して重要な位置を占めるようになった。

本論文では、陶瓷器という「モノ」を研究材料として元寇遺跡と元時代の陶瓷器生産の変化、流通の変化について述べた。こうした「モノ」詳細に分析し、研究資料化することによって、人間の活動や交流の変化だけでなく、感性の変化、文化の変化などまでをも知ることができるのである。

38　註1文献に同じ。

39　榎本渉『東アジア海域と日中交流ー九～一四世紀ー』吉川弘文館，2007年。

참고문헌

[논문]

磁県文化館, 「河北磁県南開河村元代木船発掘簡報」, 『考古』, 1978年 第6期.

劉裕黒·熊琳, 「江西高安県発現青花、釉裏紅等瓷器窖蔵」, 『文物』, 1982年 第2期.

河北省文物研究所, 「河北定興元代窖蔵文物」, 『文物』, 1986年 第1期.

四川省文物管理委員会, 「四川省簡陽県東渓園芸場元墓」, 『文物』, 1987年 第2期.

庄文彬, 「四川遂寧金魚村南宋窖蔵」, 『文物』, 1994年 第9期.

亀井明徳, 「倭好賞翫の青瓷試論」, 『専修大学人文科学年報』, 1998年 第28号.

出川哲朗, 「遂寧窖蔵出土の龍泉窯青磁と新安沖沈船及び日本伝世品との比較」, 『封印された南宋陶磁展図録』, 朝日新聞社, 1998.

森達也, 「宋、元代竜泉窯青磁の編年的研究」, 『東洋陶磁』29, 東洋陶磁学会, 2000.

______, 「褐釉長胴四耳壺の生産地と年代について」, 『鷹島海底遺跡Ⅴ』, 長崎県鷹島町教育委員会, 2001.

______, 「伊朗波斯湾北岸幾個海港遺址発現的中国瓷器」, 『中国古陶瓷研究』第14輯, 紫禁城出版社, 2008.

______, 「新安沈船発見中国陶瓷の組成研究ー中国、日本、東アジア、西アジア出土元代陶瓷との比較を通じてー」, 『美術資料』90, 国立中央博物館, 2016.

王守功·張启龍·李罘, 「菏沢古沈船出土元代青花瓷」, 『文物天地』, 2011年 第1期.

[보고서]

문화공보부 · 문화재관리국 편, 『新安海底遺物(資料篇Ⅰ)』, 1981.

______________________, 『新安海底遺物(資料篇Ⅱ)』, 1984.

______________________, 『新安海底遺物(資料篇Ⅲ)』, 1985.

______________________, 『新安海底遺物(綜合篇)』, 1988.

鎌倉市教育委員会, 『今小路西遺跡(御成前小学校内)発掘調査報告書』, 鎌倉市教育委員会, 1990.

北京大学考古系·河北省文物研究所·邯鄲地区文物保護所, 『観台磁州窯址』, 文物出版社, 1997.

문화재청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新安船』, 2006.

杭州市文物考古所, 『南宋太廟遺址』, 文物出版社, 2007.

内蒙古自治区文物考古研究所·包頭市文物管理処, 『包頭燕家梁遺址発掘報告』, 科学出版社, 2010.

長崎県松浦市教育委員会, 『松浦市鷹島海底遺跡総集編』, 長崎県松浦市教育委員会, 2011.

成都文物考古研究所·遂寧市博物館, 『遂寧金魚村南宋窖蔵』, 文物出版社, 2012.

寧波市文物考古研究所, 『永豊庫元代倉儲遺址発掘報告』, 科学出版社, 2013.

[도록 · 단행본]
出光美術館, 『陶磁の東西交流』, 出光美術館, 1990.
朝日新聞社 編, 『封印された南宋陶磁展』, 1998.
張威 編, 『綏中三道崗元代沈船』, 科学出版社, 2001.
陳永志, 『内蒙古集寧路古城遺址出土瓷器』, 文物出版社, 2004.
劉金成, 『高安元代窖蔵瓷器』, 朝華出版社, 2006.
朱勇偉·陳鋼, 『寧波古陶瓷拾遺』, 寧波出版社, 2007.
榎本渉, 『東アジア海域と日中交流－九～一四世紀』, 吉川弘文館, 2007.
弓場紀知, 『青花の道－中国陶磁が語る東西交流』, NHKブックス, 2008.
成都文物考古研究所·遂寧市博物館, 『遂寧金魚村南宋窖蔵』, 文物出版社, 2012.

국문초록

원대의 도자기 유통
– 도자사에서 몽골의 영향 –

모리 다쓰야

원대(元代)는 중국 도자사상의 대변혁기이자 방대한 양의 도자기가 중국에서 세계 각지로 운반된 시기이다. 본고에서는 인류가 만들어낸 도자기라는 가장 보존성이 높은 기물의 하나를 자료로 삼아, 다카시마[鷹島] 해저유적과 신안선에서 발견된 중국 도자의 분석과 함께 그 전후 시기의 침몰선이나 도시유적에서 출토된 도자의 조성과 기종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몽골시대 도자 기술의 발전, 사람과 물질의 이동 및 교류와 가치관, 미의식의 변화에 대해 고찰하였다. 더불어 중국 도자의 생산과 유통을 크게 변화시켰던 도자사에서의 몽골 임팩트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본 논문은 도자기라는 '물질'을 연구재료로 삼아 원구유적과 원대 도자기 생산의 변화, 유통의 변화에 대해 서술한 것이다. 이와 같이 '물질'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연구 자료화함에 따라, 인간의 활동이나 교류의 변화, 감성의 변화, 문화의 변화 등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신안해저문화재, 다카시마(鷹島) 해저유적, 원대, 도자기

Abstract

Distribution of Yuan Ceramics: The Mongol Impact on the History of Ceramics

Mori Tatsuya

During the Yuan Dynasty, a revolutionary era in the history of Chinese ceramics, massive volumes of ceramic wares were transported from China to other parts of the world. Using ceramics – one of the materials with the greatest preservability – as the subject of my study, this paper analyzes Chinese ceramics discovered at the Takashima underwater site and from the Sinan shipwreck and performs a comparative study with the composition and types of ceramics excavated from other contemporaneous sunken ships and the ruins of cities. In doing so, it explores the development of ceramic technology, the migrations and exchanges in people and goods, and the shifts in values and aesthetic preferences that took place during the period of Mongol rule. Moreover, it examines the Mongol influence that profoundly changed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Chinese ceramics.

This paper discusses the ruins left by the Mongols who invaded Japan and the changes in the production and circulation of ceramics during the Yuan Dynasty by utilizing the “material” of ceramics as a research topic. The detailed analysis and data archiving of “material” will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shifts in human activities and exchanges, preferences, and cultures.

Keywords : Maritime Cultural Heritage from the Sinan Shipwreck, Artifacts Discovered from the Takashima(鷹島) Underwater Site, Yuan Dynasty, Ceramics

서구의 신안선 연구 현황과 전망

윤희나*

Ⅰ. 머리말

Ⅱ. 서구의 신안선 연구 현황

Ⅲ.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

*독립학자

서구의 신안선 연구 현황과 전망

윤희나
독립학자

Ⅰ. 머리말

이 글은 신안선 발견 이후부터 현재(2020년 8월)까지 서구권에서 진행된 신안선 연구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과 과제에 대해 모색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서구권에서 이루어진 연구와 국내를 비롯한 동아시아권의 연구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사용된 언어, 출판된 장소 및 연구자의 국적 등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현실에서 서구 학계가 무엇인지 엄격하게 선을 긋는 것은 쉽지 않다. 서구 학자가 한국어로 국내에서 출판할 수도 있고, 국내 학자가 외국어로 서구권에서 출판할 수도 있다. 또한 국내에서 태어나 서구권에서 교육받고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학술 활동이 국제화된 오늘날 모든 연구의 정체성을 일일이 따지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학술 활동의 근거지가 서구(유럽, 아메리카, 오세아니아)이고 영어로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개별적인 연구들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비판을 하기보다는 서구의 신안선 연구를 시기별로 나누어 전반적인 흐름을 개관하고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며, 이에 따른 향후 전망과 과제를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II. 서구의 신안선 연구 현황

1. 신안선 발견 후 ~ 1980년대

1976년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에서 대량의 유물이 발견되면서 신안선은 세계 학계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받았다. 서구권에서 신안선을 다룬 첫 연구로는 영국 빅토리아 앤 앨버트 박물관

(Victoria and Albert Museum) 동아시아미술부장 존 에어즈의 「한반도 서남부 신안에서 원대 선박의 발견: 첫 번째 보고서」를 들 수 있다.[1] 이 논문은 1977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신안해저문물" 특별전 연계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한 후 이듬해 발표한 것으로,[2] 제목이 말해 주듯이 신안선의 발견과 인양된 주요 유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의 속성을 가진 연구이다. 이 글에서 에어즈는 국제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성과를 간단히 요약하고 3차에 걸친 발굴에서 출토된 각종 유물을 소개하였다.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자기에 주목하면서 중국 도자사 연구에서 신안해저유물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도자기는 신안선에서 발견된 유물 가운데 서구 학자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유물일 것이다. 1977년 "신안해저문물"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했던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Metropolitan Museum of Art) 중국도자 담당 큐레이터 수잔 발렌스타인은 신안도자기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 청자를 분석하였다.[3] 1978년까지 발굴된 3400여점의 용천요(龍泉窯) 청자 중 기형 및 장식적으로 특이하거나 특별한 유물을 중심으로 남송과 원대 용천요 청자의 특징을 탐구하면서, 원대 도자사 연구에 결정적인 자료가 되는 신안도자기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칼라 자이니는 무로마치 막부(室町幕府)의 중국미술품 수집을 연구해온 미술사학자로, 무로마치 시대 초기 일본에 유입되고 수집된 중국미술품과 신안선에 적재된 유물의 유사성에 주목하였다.[4] 14~15세기 문헌과 시각 자료에서 보이는 기물들을 신안선 출토 도자기, 금속기, 칠기 등과 비교·분석하였다. 신안선 화물이 14세기 대륙에서 유입된 기물들의 구체적인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기존 문헌 사료 중심의 무로마치 시대 중국미술품 수장과 감식, 사용에 대한 연구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하였다.

신안선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은 침몰선 유물이 발굴·인양되는 과정 동안 계속되었다. 일본에서 활동 중이던 미국 학자 메리 안 로저스가 1983년 발표한 논문은 같은 해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신안해저유물 관련 국제학술대회에서 소개된 논문과 토론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한 것이다.[5] 신안선에서 발굴된 유물은 이러한 학술대회와 같은 국제 협력과 교류를 통해서 보다 심층적이고 폭넓게 이해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

1 John Ayres, "The Discovery of a Yüan Ship at Sinan, South-west Korea: a First Report," *Oriental Art* 24:1(1978), pp. 79~85.

2 John Ayers, 「남송과 원대의 용천요청자의 편년에 대하여(On the Dating of Lung-ch' uan Celadon Wares of the Southern Sung and Yüan Periods)」, 『신안해저문물 국제학술대회 주제발표』(국립중앙박물관, 1977), pp. 45~52; 109~116.

3 Susanne G. Valenstein, "Some Chinese Celadons Reclaimed from the Sea," *Oriental Art* 25:1(1979), pp. 88~102.

4 Carla M. Zainie, "The Sinan Shipwreck and Early Muromachi Art Collections," *Oriental Art* 25:1(1979), pp. 103~114.

5 Mary Ann Rogers, "Cultural Relics Found off the Sinan Coast," *Orientations* 14:12(1983), pp. 32~40.

1986년 김원동[6]은 「한국 신안 원대 침몰선에서 발견된 중국 도자기 – 청자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미국 캔자스 대학교(University of Kansas)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7] 신안선 발굴조사가 마무리된 후 서구권에서 처음으로 나온 학술 연구로 서구 학계에서 자주 인용된 논문이다. 신안선 출항 일정을 상세히 연구한 김원동은 신안선이 1323년 6월 중국 저장성(浙江省) 닝보(寧波)에서 출항하여 일본 하카타로 향하던 중 같은 달 한국의 신안 앞바다에서 침몰한 것으로 보았다. 요지 출토편, 중국과 일본 유적지에서 발굴된 유물 및 전세품과의 비교를 통해 신안선에 선적된 중국 도자기의 생산지와 생산시기를 고찰하여, 청자를 비롯한 도자기 대부분이 14세기 1분기에 내수용과 수출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분석하였다.

서구 학계에서 신안선 선박 자체가 독립적인 연구대상으로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된 데에는 수중고고학자 도널드 키스의 공이 크다. 미국 텍사스 A&M 대학교(Texas A&M University) 해양고고학연구소(Institute of Nautical Archaeology, INA) 소속의 연구원으로 직접 신안 해저 탐사에 나섰던 키스는 1979년 National Geographic에 신안선 발굴과 인양된 유물을 소개하는 글을 실었다.[8] 이듬해에는 신안선 수중 발굴조사 과정과 방법에 대해 서술하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선체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다.[9] 그에 따르면 16세기 유럽과의 직접 교역이 이루어지기 전 동양의 선박 건조와 항해 기술 관련 문헌자료는 그 수량이나 내용이 매우 제한적이다. 1974년 중국 푸젠성(福建省) 취안저우만(泉州灣)에서 발견된 13세기 송대해선(宋代海船)과 함께 신안선은 중세 중국의 원양항해선박 건조 기술을 보여주는 확실한 고고학적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 이후 키스는 신안선과 이미 인양 완료된 취안저우만 송대해선을 중심으로 중세 중국의 조선(操船) 기술을 재조명하였다.[10]

호주 수중고고학자 제러미 그린은 신안선의 선체 구조를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1983년 발표된 논문은 1980년 김재근이 집필한 『신안해저문화재발굴조사보고서 – 침몰선체에 대한 학술조사연구』를 요약 · 검토한 것이다.[11] 1979년 실시된 신안선 인양을 위한 기초 조사를 통해 선박이 중국

---

6 동아시아 출신 연구자의 이름표기 시 본문에는 성–이름 순서로 적었으며, 주석과 참고문헌에는 연구서와 논문에 적힌 영문 표기를 그대로 반영하였다.

7 Wondong Kim, “Chinese Ceramics from the Wreck of a Yuan Ship in Sinan, Korea –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Celadon Ware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Kansas, 1986.

8 Donald H. Keith, "A Fourteenth–century Cargo Makes Port at Last," *National Geographic* 156(1979), pp. 203~243. 도널드 키스는 1977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신안해저문물” 국제학술대회에 발표자로도 참가하였다. Donald Keith, 「고대 선박의 복원(Reconstruction of Ancient ship)」,『신안해저문물 국제학술대회 주제발표』(국립중앙박물관, 1977), pp. 75~77; 141~144.

9 Donald H. Keith, "A Fourteenth–Century Shipwreck at Sinan–gun," *Archaeology* 33:2(1980), pp. 33~43.

10 Donald H. Keith and Christian J. Buys, "New light on Medieval Chinese seagoing ship constructi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Nautical Archaeology and Underwater Exploration* 10:2(1981), pp. 119~132.

11 Jeremy Green, "The Shinan excavation, Korea: an interim report on the hull structur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Nautical Archaeology and Underwater Exploration* 12:4(1983), pp. 293~301. 제러미 그린은 서울대 김재근 교수의 연구팀 일원으로서 신안선 선체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남부지방에서 만들어졌으며, 용골이 있는 V자 첨저형(尖底形)으로 격창구조(隔艙構造)를 갖춘 취안저우만 송대해선과 선체의 구조적 특징이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1987년에는 신안선이 해체・인양된 후 밝혀진 선체 구조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면서, 신안선은 취안저우만 송대해선과 동일한 계통의 선박이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덧붙여 선체 원형 복원을 위해 제작된 1/5 축소 모형이 제기하는 의문과 문제점 및 한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12]

2. 1990 ~ 2000년대

신안선 선체와 유물에 대한 발굴조사와 인양이 완료되고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서구의 신안선 연구는 부진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1988년 『신안해저유물』종합편 출간 이후 국내에서 주춤해진 신안선 연구와 흐름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보존과학자 페르 호프만이 국내 학자들과 공동 발표한 논문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13] 호프만은 신안선 제작에 사용된 수종과 목재의 상태를 소개하고, 신안선 선체 인양 후 보존처리를 위해 독일 해양박물관(Deutsches Schiffahrtsmuseum)과 목포해양유물보존처리소(현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선체편에 대한 이학적 성질 분석을 진행한 결과 PEG(Polythylene Gloycol) 함침처리법(含浸處理法)이 치수안정화(値數安定化)에 가장 적합함을 밝혔다.

한편, 이 시기에는 1970년대 이래 아시아 해역에서 신안선을 비롯한 다수의 침몰선이 발견되면서 축적된 고고학적 자료를 기반으로 아시아 해양고고학에 대한 기초적이며 종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제러미 그린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발굴된 침몰선을 정리하고 각 지역에서 발달한 전통 선박의 구조와 특징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였다.[14] 아시아 전통 선박이 지역을 넘어 세계 선박사 연구에서 조명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이다. 이 연구들에서 신안선은 취안저우만 송대해선과 더불어 중국 및 아시아 조선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보여주는 자료로 다루어졌다.[15]

2000년대는 중근세 시대 중국과 주변 국가의 해상교류와 상호작용을 집중적으로다룬 연구들이 출판되었는데, 독일 학자 앙겔라 쇼텐함머가 편집한 동아시아 경제와 사회문화 연구 – 동아시아 해양사(East Asian Economic and Socio-cultural Studies – East Asian Maritime History)

---

12 Jeremy Green, "Two early shipwreck sites in Korea," *Bulletin of the Australian Institute for Maritime Archaeology* 11:2(1987), pp. 50~51; Jeremy Green and Zae Geun Kim, "The Shinan and Wando Sites, Korea: further informati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Nautical Archaeology and Underwater Exploration* 18:1(1989), pp. 33~41. 1987년 글과 내용은 같으나 도판자료가 추가된 것으로 앞선 논문 대신 주로 인용되고 있다.

13 Per Hoffmann, Kwang-nam Choi and Yong-han Kim, "The 14th-century Shinan Ship-Progress in conservati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Nautical Archaeology* 20:1(1991), pp. 59~64.

14 Jeremy Green, "Maritime archaeology in Southeast and East Asia," *Antiquity* 64:243(1990), pp. 347~63.

15 J. Richard Steffy, *Wooden Ship Building and the Interpretation of Shipwrecks*, College Station: Texas A&M University Press, 1994; Seán McGrail, *Boats of the world: from the Stone Age to Medieval Tim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프랑스 역사학자 페르낭 브로델(Fernand Braudel)의 유럽 지중해의 개념을 아시아적 맥락에 적용시켜, '동아시아 지중해(East Asian Mediterranean)'를 매개로 이루어진 문화교류 양상과 무역활동에 대한 다각적인 고찰을 시도하였다. 신안선을 독립적인 주제로 탐구한 연구는 없지만 바바라 세욕이 고고학적 관점에서 무로마치 시대 동아시아 해상무역을 살펴보고자 도자기를 중심으로 신안선 화물을 다루었다.[16]

3. 2010년대 ~ 현재(2020년 8월)

2010년대에는 1990년대 이후 서구 학계에서 침체되었던 신안선 연구가 다시 활기를 띄게 되었다. 2008년부터 호주 플린더스 대학교(Flinders University) 해양고고학 프로그램(Maritime Archaeology Program, MAP)이 진행한 Shipwreck ASIA (www.shipwreckasia.org) 프로젝트가 일례이다.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해역에서 발견된 침몰선과 선박 잔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아시아 해양문화유산 연구에 관한 국제적인 협력·교류를 촉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0년에는 Shipwreck ASIA 프로젝트 주제별 연구의 일환으로 동아시아 선박 구조, 해양 기반시설, 전통 선박 제작 기술, 선체 재료 등을 다룬 논문으로 구성된 책을 출판하였다.[17] 신안선에 관해서는 이철한, 오사와 마사미, 기무라 준이 침몰선 선체 외판에 박힌 금속 못을 정밀 분석하여 중세 동아시아 원양해선 건조에 사용된 못의 특징과 제조방법을 밝혔다.[18]

일본 출신으로 플린더스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기무라 준은 2010년대 이후 동아시아 전통 조선 기술에 대해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연구해온 학자이다. 단행본 『동아시아 선박 건조의 고고학』은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을 토대로 저술한 것으로 동아시아 전통 선박의 구조와 건조 기술을 총체적으로 살피고 있다.[19] 기무라는 동아시아 해역을 황해, 동중국해, 남중국해로 구분하여 세 영역에서 발굴된 침몰선(11~15세기)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적인 관점에서 각 영역의 조선 전통을 탐구하였다. 취안저우만 송대해선, 다카시마(鷹島) 해저유적 원대 군함 잔해와 더불어 신안선을 동중국해 조선 전통으로 분류하고, 상세한 비교·분석을 통해 송원대 규격화된 동아시아 원양해선의 구조 및 제작 방식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황해, 남중국해

16 Barbara Seyock, "Archaeological Complex from Muromachi Period Japan as a Key to the Perception of International Maritime Trade in East Asia," in *The East Asian 'Mediterranean': Maritime Crossroads of Culture, Commerce and Human Migration,* ed. Angela Schottenhammer (Wiesbaden: Harassowitz Verlag, 2008), pp. 179~202.

17 Jun Kimura, ed., *Shipwreck ASIA: Thematic Studies in East Asian Maritime Archaeology*, Adelaide: Maritime Archaeology Program, 2010.

18 Lee Chul Han, Masami Osawa and Jun Kimura, "Iron nails recovered from the plank of the Shinan shipwreck," in *ibid.*, pp. 50~55.

19 Jun Kimura, *Archaeology of East Asian Shipbuilding,* Gainesville: University Press of Florida, 2016; Jun Kimura, "Principles in East Asian Shipbuilding Traditions," PhD dissertation, Flinders University, 2011.

조선 전통과의 관계 및 기술의 상호작용을 논의하여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동아시아 선박 건조 전통을 복합적으로 그려내었다. 2019년에 출판된 논문은 동아시아 해역의 세 영역 간 이루어진 기술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동아시아 전통 조선 기술을 지역의 경계를 넘는 통합적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20]

랜달 사사키는 중세 동아시아 전통 선박과 조선 기술을 집중적으로 탐구한 일본계 수중고고학자로 원대 선박 연구에 있어 중요한 실증자료가 되는 신안선에 주목해왔다. 『해양고고학 옥스퍼드 핸드북』에 실린 논문은 중국이 해상 팽창하는 송원대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에서 발굴된 주요 침몰선의 선체 구조를 분석하면서 중국, 한국, 일본에서 각각 발전한 조선 전통과 동아시아 지역 내 이루어진 기술 교류에 대해 서술하였다.[21] 2015년 출판된 단행본에서는 13세기 몽골 제국이 일본 정벌을 위해 만든 전함을 다루었다. 1281년 2차 일본 원정 때 주전장(主戰場)이었던 다카시마 해역에서 발견된 대규모 원나라 선단 잔해를 분석한 연구로, 신안선 및 동아시아에서 발굴된 중세 선박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몽골 전함의 유형과 건조 지역을 밝히고자 하였다.[22]

한편, 2010년대는 서구 학계에서 도자기를 필두로 하는 신안선 화물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연구가 시작된 시기이다. 발표된 논문의 수는 적지만 신안선에서 출토된 도자기 중 특정 형태의 유물에 집중해 심도 있게 탐구하였다. 먼저 중국계 학자 리바오핑은 20여 점의 글자가 새겨진 흑갈유 네 귀 항아리(黑褐釉四耳壺)에 주목하여 아시아 도자기 무역과 일본의 차 문화 맥락에서 유물을 분석하였다.[23] 신안선에서 확인된 이러한 형태의 도자기는 그 자체가 무역 상품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일본의 다도에서 높이 평가한 차 도구였던 것으로 보았다. 2014년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 산하 아시아미술관(Freer Gallery of Art and Arthur M. Sackler Gallery, Smithsonian Institution)에서 열린 "치구사와 차도(Chigusa and the Art of Tea)" 전시 도록에 수록된 글은 앞선 연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24] 이 논문에서 리바오핑은 신안선에서 발견된 글자가 있는 흑갈유 항아리 대부분이 푸젠성(福建省)의 자조요(磁竈窯)에서 생산되었으

---

20 Jun Kimura, "Cross-Regional and -Chronological Perspectives on East Asian Seafaring and Shipbuilding," in *Early Global Interconnectivity across the Indian Ocean World,* Volume II, ed. Angela Schottenhammer (Cham, Switzerland: Palgrave Macmillan, 2019), pp. 203~226.

21 Randall J. Sasaki, "A Survey of East Asian Shipbuilding Traditions during the Era of Chinese Maritime Expansion," in *The Oxford Handbook of Maritime Archaeology,* eds. Alexis Catsambis, Ben Ford and Donny L. Hamilt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p. 535~560.

22 Randall James Sasaki, *The Origin of the Lost Fleet of the Mongol Empire,* College Station: Texas A&M University Press, 2015. 이 책은 같은 제목으로 2008년에 발표한 저자의 텍사스 A&M 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단행본으로 출판한 것이다.

23 Li Baoping, "Inscribed Chinese Stoneware Storage Jars from the 14th Century Sinan Wreck in Korea: the Context of Asian Ceramic Trade and Japanese tea Culture," in *NMK 2012 Museum Network Fellowship Research Papers,* ed. National Museum of Korea (Seoul: National Museum of Korea, 2013), pp. 87~104.

24 Li Baoping and Li Jianan, "Chinese Storage Jars in China and Beyond," in *Chigusa and the Art of Tea,* eds. Louise Allison Cort and Andres Mark Watsky (Washington D.C.: Freer Gallery of Art and Arthur M. Sackler Gallery, Smithsonian Institution, 2014), pp. 73~86.

며 일본에서 차쯔보(茶壷)라고 부르는 차 항아리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 항아리에 대한 정확한 기원과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제작된 항아리를 포함한 신안선 전체 도자기와의 체계적인 비교·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윤희나는 신안선에서 발견된 네 점의 용천요 청자 인물상을 미술사와 종교문화사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25] 원대 저장성 지방에서 신앙의 대상으로 유행한 중국화된 관음보살상과 도교의 선인상임을 밝히고, 가정 신앙생활용으로 주로 제작되었던 소형의 도자 종교 조각상이 신안선이라는 동아시아 무역의 맥락에 나타난 배경과 의의를 탐구하였다. 이로써 그동안 그 중요성과 희귀성에 비하여 연구가 미진하였던 신안선 출토 청자 인물상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이후 윤희나는 2015년 런던 대학교(University of London) 박사학위논문에서 송원명 시대의 용천요 청자 종교 조각상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시도하였다.[26] 용천요를 중심으로 중국의 도자 종교 조각에 대한 새로운 역사·사회문화적 관점과 해석을 적용한 연구이다. 원대 용천요 청자 종교 조각의 비약적인 발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신안선 출토 인물상을 다루었으며, 당시 강남지방을 중심으로 민간에서 성행했던 종교와 신앙의 일면을 보여주는 자료이자 14세기 초 중국과 일본 양국의 활발했던 종교와 문화 교류의 구체적인 증거라고 보았다.[27]

2019~2020년 네덜란드 레이우아르던(Leeuwarden) 프린세스호프 국립도자박물관(Keramiekmuseum Princessehof)에서 개최한 "바닷속에 가라앉은 보물들(Gezonken Schatten)"은 유럽에서 처음으로 열린 신안해저유물 국외전시이다. 9세기부터 19세에 이르는 시기 동안 침몰한 일곱 척의 선박에서 발견된 도자기 및 각종 유물을 한자리에 소개하는 국제적인 규모의 전시로서, 백여 점 이상이 출품된 신안선 유물은 그중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한다. 해상 실크로드(Maritime Silk Road)에서 서로 다른 배경의 일곱 침몰선이 갖는 역사·고고학적 의미와 중요성을 세계사의 거시적인 흐름에서 조명하였다. 원대 원양해선인 신안선을 14세기 동아시아 해상교역과 문화교류의 단면을 드러내는 자료를 넘어, 유럽인이 세계 해상패권을 장악하기 전 중국의 해상 팽창과 아시아인의 주도로 번성했던 국제 교역의 실체를 가늠할 수 있는 단서로 보았다. 특별전과 함께 출판된 도록의 설명과 글은 모두 네덜란드어와 영어로 병기되었다.[28] 신안선 관련 논문은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 김영미가 집필하였으며 침몰선에서 발견된 주요 유물을 간략하

---

25 Heena Youn, "Longquan Figures from the Sinan Wreck: Iconography, Functions and Meaning," in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Maritime Silk Road: On the Export of Porcelains and their Cultural Influence,* ed. Zhejiang Provincial Museum (Hangzhou: Zhejiang Provincial Museum, 2013), pp. 105~119.

26 Heena Youn, "Objects of Popular Devotion: Longquan Ceramics Religious Figures during the Song-Yuan-Ming Perio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London, 2015.

27 *Ibid.*, Chapter III.

28 Karin Gaillard and Eline van den Berg, *Gezonken schatten = Sunken treasures,* Zwolle: Waanders Uitgevers, 2019.

게 소개하고 있다.[29] 네덜란드 국립도자박물관 전시는 신안선과 출토 유물에 대한 서구권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세계 해양사라는 큰 틀에서 신안선이 갖는 위치와 의의를 고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III.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

지금까지 서구 학계에서 진행된 신안선 연구의 흐름과 동향을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신안선 발견 후 1980년대까지의 연구는 발굴조사의 내용과 성과를 정리하여 분석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1977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 "신안해저문물"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했던 서구 학자들이 주축이 되었다. 반면에 발굴과 인양이 마무리 된 이후 1990~2000년대에는 출판된 연구의 수가 적어 신안선 연구의 공백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주춤해진 국내 신안선 연구의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신안선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2010년대 무렵으로 서구 학계에서 활동하는 동아시아 출신 학자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연구자의 수는 많지 않지만 새로운 관점과 해석을 제시하여 신안선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였다. 앞으로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젊은 연구자들의 국제적인 연구 활동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연구들은 도자기와 선체에 집중되어 있다. 우선 인양된 유물 중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는 도자기는 서구 학자들의 주요 관심 대상이 되었다. 신안선에서 출토된 중국 도자기가 원대 도자사의 편년을 잡는 절대적인 자료가 될 뿐 아니라, 중세 동아시아 문화사, 교류사 연구에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대상이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발굴된 도자기 2만여 점 가운데 60% 이상을 차지하는 용천요 청자는 압도적인 수량과 다양한 기형으로 가장 인기 있는 연구 주제로 부상하였다.

한편, 신안선 선체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동아시아 바다에서 발견된 최초의 중국 원양항해선박으로서 신안선은 발견 직후부터 선박사 연구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20여 년에 걸친 보존처리와 복원을 통해 침몰선의 정확한 구조 및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은 2010년대 이후 신안선 선박 연구를 부흥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최근의 연구들은 개별 국가 단위를 넘어 초국가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신안선을 탐구하는 양상을 보인다.

1970년대 이래 크고 작은 규모의 침몰선이 아시아 해역에서 잇따라 발굴되었지만 신안선만큼 서구권의 관심과 연구가 지속되고 있는 예는 드물다. 정부 주도 아래 체계적으로 발굴 된데다 대량의 유물과 함께 선체까지 인양되어 공공기관에 보존·전시되고 있는 '진짜 보물선'이라는 점이 연구자들을 끌어 모으는 요인일 것이다. 비록 국립박물관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지만 선체와 유물이 모두 발굴·인양된 사례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그만큼 신안선이라는 고고학적 자료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는 높을 수밖에 없으며, 그 중요성은 동아시아

29 Young-mi Kim, "Sinan," in *ibid.*, pp. 42~48.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네덜란드 국립도자박물관에서에서 열린 "바닷속에 가라앉은 보물들" 전시가 보여 주듯이 세계사를 해양을 통한 교류의 역사로 이해하고, 기존의 유럽중심주의 프레임을 벗어나 전 지구적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데에 신안선은 흥미롭고 중요한 연구대상일 것이다.

서구권에서 신안선 연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물과 자료에 대한 접근성과 가시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네덜란드 국립도자박물관의 특별전은 신안선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신안선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주제와 관점에서 신안해저유물을 다룰 수 있는 국외전시가 있다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의 연구 성과를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네덜란드 박물관 전시 도록처럼 2개 국어로 병기하거나 따로 영문판을 출간하여 언어적 제약 없이 연구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서 신안선 관련 자료와 국내외 연구 성과를 한데 모아 국 · 영문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할 수 있는 신안선 연구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서구 학계와의 연구 교류를 활성화하고 무엇보다 지속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 동아시아 학계와의 교류에 비해 서구 학자들과의 교류는 국제 세미나를 통한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세미나에 참여했던 학자들의 신안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도 미미한 실정이다. 연구 성과가 우수하거나 신안선 연구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학자들을 선정하여 후속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서구권에서 활동하는 학자와 특정 주제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로써 신안선에 대한 서구 학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 다양하고 폭넓은 연구 시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투고일 2020. 11. 27. | 심사개시일 2020. 12. 1. | 게재 확정일 2020. 12. 11.

참고문헌

Ayres, John. 「남송과 원대의 용천요청자의 편년에 대하여(On the Dating of Lung-ch'uan Celadon Wares of the Southern Sung and Yüan Periods)」. 『신안해저문물 국제학술대회 주제발표』. 국립중앙박물관. 1977.

__________. *"The Discovery of a Yuan Ship at Sinan, South-west Korea: a First Report."* *Oriental Art* 24, no. 1, 1978.

Gaillard, Karin, and Eline van den Berg. *Gezonken schatten = Sunken treasures.* Zwolle: Waanders Uigevers, 2019.

Green, Jeremy. *"The Shinan excavation, Korea: an interim report on the hul structur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Nautical Archaeology and Underwater Exploration* 12, no. 4, 1983.

____________. "Two early shipwreck sites in Korea." *Bulletin of the Australian Institute for Maritime Archaeology* 11, no. 2, 1987.

____________. "Maritime archaeology in Southeast and East Asia." *Antiquity* 64, no. 243, 1990.

Green, Jeremy, and Zae Geun Kim. *"The Shinan and Wando Sites, Korea: further informati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Nautical Archaeology and Underwater Exploration* 18, no. 1, 1989.

Hoffmann, Per, Kwang-nam Choi and Yong-han Kim. *"14th-century Shinan Ship – Progress in conservati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Nautical Archaeology* 20, no. 1, 1991.

Keith, Donald H. 「고대 선박의 복원(Reconstruction of Ancient ship)」.『신안해저문물 국제학술대회 주제발표』. 국립중앙박물관. 1977.

____________. *"A Fourteenth-century Cargo Makes Port at Last."* *National Geographic*. no. 156, 1979.

____________. *"A Fourteenth-Century Shipwreck at Sinan-gun."* *Archaeology* 33, no. 2, 1980.

Keith, Donald H. and Christian J. Buys. *"New light on Medieval Chinese seagoing ship constructi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Nautical Archaeology and Underwater Exploration* 10, no. 2, 1981.

Kim, Young-mi. "Sinan." In *Gezonken schatten = Sunken treasures.* Edited by Karin Gaillard and Eline van den Berg. Zwolle: Waanders Uitgevers, 2019.

Kim, Wondong. "Chinese Ceramics from the Wreck of a Yuan Ship in Sinan, Korea –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Celadon Ware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Kansas, 1986.

Kimura, Jun ed. *Shipwreck ASIA: Thematic Studies in East Asian Maritime Archaeology*. Adelaide: Maritime Archaeology Program, 2010.

Kimura, Jun. "Principles in East Asian Shipbuilding Traditions." PhD dissertation, Flinders University, 2011.

__________. *Archaeology of East Asian Shipbuilding.* Gainesville: University Press of Florida, 2016.

__________. "Cross-Regional and -Chronological Perspectives on East Asian Seafaring and Shipbuilding." In *Early Global Interconnectivity across the Indian Ocean world,* Volume II. Edited by Angel Schottenhammer. Cham, Switzerland: Palgrave Macmillan, 2019.

Li, Baoping. "Inscribed Chinese Stoneware Storage Jars from the 14th Century Sinan Wreck in Korea: the Context of Asian Ceramic Trade and Japanese tea Culture." In *NMK 2012 Museum Network fellowship Research Papers.* Edited by Naitonal Museum of Korea. Seoul: National Museum of Korea, 2013.

Li, Baoping, and Li Jianan. "Chinese Storage Jars in China and Beyond." In *Chigusa and the Art of Tea*. Edited by Louise Allison Cort and Andres Mark Walsky. Washington D.C.: Freer Gallery of Art and Arthur M. Sackler Gallery, Smithsonian Institution, 2014.

McGrail, Seán. *Boats of the world: from the Stone Age to Medieval Tim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Rogers, Mary Ann. *"Cultural Relics Found off the Sinan Coast." Orientations* 14, no. 12, 1983.

Sasaki, Randall James. "A Survey of East Asian Shipbuilding Traditions during the Era of Chinese Maritime Expansion." In *The Oxford handbook of Maritime Archaeology*. Edited by Alexis Catsambis, Ben Ford and Donny L. Hamilt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__________________. *The Origin of the Lost Fleet of the Mongol Empire. College* Station: Texas A&M University Press, 2015.

Seyock, Barbara. "Archaeological Complex from Muromachi Period Japan as a Key to the Perception of International Maritime Trade in East Asia." In *The East Asian 'Mediterranean': Maritime Crossroads of Culture, Commerce and Human Migration*. Edited by Angela Schottenhammer, Wiesbaden: Harassowitz Verlag, 2008.

Steffy, J. Richard. *Wooden Ship Building and the Interpretation of Shipwrecks. College Station:* Texas A&M University Press, 1994.

Valenstein, Susanne G. *"Some Chinese Celadons Reclaimed from the Sea."* Oriental Art 25, no. 1, 1979.

Youn, Heena. "Longquan Figures from the Sinan Wreck: Iconography, Functions and Meaning." In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Maritime Silk Road: On the Export of Porcelains and their Cultural Influence*. Edited by Zhejiang Provincial Museum. Hangzhou: Zhejiang Provincial Museum, 2013.

__________. "Objects of Popular Devotion: Longquan Ceramics Religious Figures during the Song-Yuan-Ming Perio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London, 2015.

Zainie, Carla M. "The Sinan Shipwreck and Early Muromachi Art Collections." *Oriental Art* 25, no. 1, 1979.

국문초록

서구의 신안선 연구 현황과 전망

윤희나

이 글의 목적은 신안선에 대한 서구 학계의 연구 현황을 정리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서구권에서 신안선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77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신안해저문물" 국제학술대회 이후부터이며, 학술대회에 참여했던 학자들을 주축으로 신안선과 발굴된 주요 유물을 소개하고 논의하는 보고서적 성격의 연구들이 1980년대까지 주류를 이루었다. 1990~2000년대는 서구권에서 신안선 연구가 부진한 시기로 당시 주춤해진 국내의 신안선 연구 흐름을 반영한다. 신안선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10년대 이후에는 서구 학계에서 활동하는 동아시아 출신 학자들의 활약이 돋보인다. 젊은 세대의 연구자들은 기존의 연구보다 포괄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여 신안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모하였다.

선체와 유물이 모두 체계적으로 발굴 · 인양된 중세 동아시아 무역선으로서 신안선이 갖는 역사적 · 학술적 가치는 서구 학계의 높은 관심을 끈 요인이다. 특히 신안해저유물 가운데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는 도자기는 서구 학자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아왔다. 그중 압도적인 수량과 다양한 기형으로 주목을 끈 용천요 청자는 중국 도자사 연구뿐만 아니라 중세 동아시아 문화사 및 교류사 연구에 새로운 관점과 풍부한 해석을 제공하였다. 한편, 신안선 선체 연구도 서구권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선박사 연구자들은 중세 중국 원양항해선박 구조와 조선 기술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자료로서의 신안선에 주목하였다. 2010년부터는 개별 국가의 틀을 뛰어넘어 동아시아 지역 차원의 거시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신안선을 연구하는 경향이 커졌는데, 최근에는 세계사적 맥락에서 신안선을 다루는 연구도 시작되었다.

향후 신안선 연구가 국제적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물과 자료에 대한 접근성과 가시성 향상에 매진해야 한다. 국내의 연구 성과를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확산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출판물을 2개 국어로 병기하거나 영문판 출간을 적극 장려해야 할 것이다. 신안선 관련 자료와 국내외 연구 성과를 한데 모은 국 · 영문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신안선 연구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도 국제적 관심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서구 학계와의 연구 교류를 활성화하고 무엇보다 지속화해야 한다. 우수 연구자들이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제를 선정하여 국제 공동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신안선에 대한 서구 학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함과 동시에 더욱 다양하고 폭넓은 연구 시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신안선, 신안해저유물, 수중고고학, 중세 동아시아, 침몰선

Abstract

Current State and Outlook of Research on the Sinan Shipwreck in the West

Heena You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previous studies by Western academia on the Sinan ship and to present the direction and tasks for future research. The first study began after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held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ultural Relics Found off the Sinan Coast in 1977, and up to the 1980s, studies were led by scholars who were present at the conference and mainly focused on introducing and discussing the wrecked ship and major relics excavated from it. In the 1990s and 2000s, the progress of the research slowed down in the West, reflecting its faltering pace in Korea. Since the 2010s, there was a renewed focus on research on the Sinan shipwreck, in which East Asian scholars in the West played a significant role. Younger generations of scholars have adopted a more comprehensive approach to promote a new understanding of the Sinan shipwreck.

The medieval East Asian merchant ship, whose sunken hull and cargo were systemically excavated and salvaged, has received great attention from Western scholars for its historic and academic value. Above all, they have focused on the Chinese ceramics that account for the majority of all artifacts discovered from the Sinan seabed. In particular, occupying the largest proportion among such artifacts and showing various unique shapes, Longquan celadon presented new perspectives and interpretations to researchers on the cultural history of medieval East Asia,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exchanges at the time as well as the history of Chinese ceramics. Meanwhile, the shipwreck itself has also been actively studied in the West. Maritime historians focused on the hull as a source of archaeological data for the structure of Chinese oceangoing vessels and the shipbuilding technology at the time. Since 2010, scholars have taken a more macroscopic and integrated perspective to view the history of East Asia beyond individual countries, and more recently, they have made further attempts to look at the shipwreck and the excavated relics in the context of global history.

In order for the research into the Sinan wreck to make continuous progress, the relics and relevant data need to be made more accessible and visible. I suggest that domestic study outcomes be shared and disseminated internationally in order to increase their availability, and to this end, their publications should include English translations or be published as English editions. Another way to raise international attention on the research is to create a website in both Korean and English to build a

platform to compile and publish all relevant data and research findings obtained in Korea and abroad. Also, Korean researchers should be encouraged to interact actively with Western academia. Efforts such as providing support for competent scholars to continue their studies and promoting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on specific topics are expected to encourage the active participation of Western scholars and help broaden the horizons of Korean researchers.

Keywords : Sinan shipwreck, Sinan undersea relics, underwater archaeology, medieval East Asia, sunken ship

건요 "공어" · "진잔" 명흑유완(建窯 "供御" · "進琖" 銘黑釉碗)과 그 지평(地平)을 넘어

—건요(建窯) 조사기(調査記) (3)

이희관*

Ⅰ. 머리말—제3차 조사를 위한 변(辨)

Ⅱ. 수미람유지(水尾嵐遺址)의 보충 조사

Ⅲ. 노화평유지(蘆花坪遺址) 출토 "공어" 명흑유완("供御" 銘黑釉碗)과 그 성격 문제

Ⅳ. 우피륜요지(牛皮崙窯址) 제3구역의 조사

Ⅴ. 대로후문산청화백자요지(大路後門山靑花白瓷窯址)의 신발견(新發見)

Ⅵ. 맺음말

*독립학자

건요 "공어"·"진잔"명흑유완(建窯"供御"·"進琖"銘黑釉碗)과 그 지평(地平)을 넘어

– 건요(建窯) 조사기(調査記) (3)

이희관
독립학자

Ⅰ. 머리말–제3차 조사를 위한 변(辨)

건요는 흑유자기를 생산한 중국 남방지역의 대표적인 민간요장 가운데 하나이다. 이 요장에서 송대에 공어용(供御用)의 흑유완도 제작하였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공어"·"진잔"명흑유완("供御"·"進琖"銘黑釉碗)이 그 증거이다.

필자는 "공어"·"진잔"명흑유완을 중심으로 한 건요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건요요지와 그 주변의 유지(遺址)를 조사한 바가 있다.[1] 그 결과, "공어"·"진잔"명흑유완이 건요요지보다는 그 요지 서편의 지중촌(池中村) 서남단에 위치한 수미람(水尾嵐)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며 그곳 즉 수미람유지(水尾嵐遺址)에 "공어"·"진잔"명흑유완의 자편퇴적이 형성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노화평요지(蘆花坪窯址)에 인접한 평지(논)에 위치한 노화평유지(蘆花坪遺址)에서도 80여 점의 "공어"명흑유완이 출토되었다는 점 등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건요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조사를 수행하다 보면, 흔히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아쉬움이 남는 점들이 있게 마련이다. 필자가 행한 두 차례 조사의 경우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점에서 그러하였다.

첫째, 수미람유지에서 수습한 "공어"·"진잔"명흑유완과 관련된 것이다. 필자는 두 차례의 조사를 통하여 수미람유지에서 총 17점의 건요흑유완 저부편을 수습하였다.[2]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

---

1 李喜寬(池世梨 譯), 「建窯と「供御」·「進琖」銘黑釉碗–建窯調査記(1)–」, 『中近世陶磁器の考古學』 9(東京: 雄山閣, 2018); 이희관, 「건요(建窯)와 "공어"·"진잔"명흑유완("供御"·"進琖"銘黑釉碗) 그리고 수미람유지(水尾嵐遺址)–건요(建窯) 조사기(調査記) (2)」, 『아시아 陶磁文化 硏究』 2(국립광주박물관, 2019b).

2 李喜寬(池世梨 譯), 앞의 논문(2018), pp. 70~74; 이희관, 앞의 논문(2019b), pp. 87~89.

운데 "공어"나 "진잔"명의 존재 여부 자체를 파악하기 힘든 4점을 제외한 13점이 모두 "공어"명 흑유완으로 판단되는 것들이다. 이곳에 "공어"·"진잔"명흑유완의 자편퇴적이 형성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은 주로 이들 수습품의 분석을 통하여 얻은 것이다.[3] 이것들은 모두 수미람유지의 지표면에서 수습한 것이다. 그 지표면의 아래에는 더 많은 "공어"·"진잔"명흑유완편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17점의 건요흑유완 저부편이 과연 그 수량이나 다양성 등의 측면에서 그러한 수미람유지의 성격에 대한 실로 대담한 결론을 충분히 뒷받침해줄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을 완전히 지울 수가 없었다.

둘째, 노화평유지와 관련된 것이다. 이 유지에서 2016년에 80여 점의 "공어"명흑유완이 출토되었다는 소식은 제1차 조사에서 접하였다. 필자는 이 유지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출토된 지점을 조사하고, 아울러 그 출토품 가운데 몇 점을 관찰하였으며, 제2차 조사에서는 이 유지를 다시 재조사하여 소량의 흑유완편을 수습하였다.[4] 하지만 제1·2차 조사의 초점은 수미람유지의 "공어"·"진잔"명흑유완에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유지와 관련된 조사에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 유지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건요에서의 공어용 흑유완의 생산과 조달체계 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관건의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된 것은 그 후의 일이다. 하지만 이곳에서 출토된 "공어"명흑유완 가운데 필자가 직접 조사한 표본은 그것들의 조형적 특징과 이 유지의 성격을 파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들의 출토상황조차 상세하게 알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다.

셋째, 우피륜요지(牛皮崙窯址)와 관련된 것이다. 건요요지는 후정촌(後井村)과 지중촌 일대의 낮은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화평요지·암미산요지(庵尾山窯址)·우피륜요지·대로후문산요지(大路後門山窯址)·영장건요지(營長墘窯址)·원두갱요지(源頭坑窯址) 등이 알려져 있다. 필자는 두 차례에 걸쳐 이 대부분의 요지를 비교적 자세히 조사하였는데, 유독 우피륜요지의 일부 구역만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사하지 못하였다. 우피륜요지 제3구역이 그것이다.[5] 이 구역의 요지는 복건박물원문물고고연구소 등이 2014년에 건요요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하였다.[6] 말하자면 가장 최근에 발견된 건요요지인 셈이다. 이곳에서는 우피륜요지 제1·2구역과 마찬가지로 흑유자기와 청자를 생산하였다는 점 등이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그 요업의 실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그다지 많지 않다.

이러한 몇 가지 문제의식 아래 필자는 2019년 12월 2일~6일에 건요요지와 그 주변 유지에 대한 세 번째 조사를 행하였다. 이 글은 그 조사에 대한 보고이다. 이 보고가 "공어"·"진잔"명흑유

---

3 이희관, 「建窯의 "供御"·"進琖"銘黑釉碗에 대한 기초적 검토」, 『야외고고학』 36(韓國文化遺産協會, 2019a), pp. 32~33.

4 李喜寬(池世梨 譯), 앞의 논문(2018), p. 83; 이희관, 앞의 논문(2019a), pp. 22~33.

5 우피륜요지 제3구역은 우피륜2호요지로 칭하기도 한다. 危長福, 「福建建陽市建窯遺址2014年調査簡報」, 『陶瓷考古通訊』 1(北京大學中國考古學研究中心 等, 2015), p. 35.

6 危長福, 앞의 논문(2015), pp. 40~41.

완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아울러 건요 전반에 대한 이해를 위한 조그만 토대라도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Ⅱ. 수미람유지(水尾嵐遺址)의 보충 조사

수미람유지는 옛 건양자창(建陽瓷廠)의 담장 내부에 해당하는 제4구역과 제3구역의 일부 공터, 제1 · 2구역과 제3 · 4구역을 가르는 마을도로, 그리고 제1구역과 제2구역 사이에 있는 농막(農幕)을 제외하면, 모두 밭으로 이루어져 있다(도1).[7] 밭의 경우 파종을 하거나 농작물을 심기 전에 갈기 마련인데, 수미람유지의 경우 이 과정에서 지표면 아래에 있던 자기의 파편들이 종종 지표면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 필자가 2018년 4월에 이미 이 유지를 자세히 조사하고 흑유완편을 수습하였지만(제1차 조사), 그로부터 1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 2019년 2~3월에 이 유지를 다시 조사하였을 때에도(제2차 조사) 적지 않은 흑유완편들을 수습할 수 있었던 것은 주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필자는 앞선 두 차례에 걸친 수미람유지에 대한 조사에서 모두 13점의 "공어"명흑유완편들을 수습하였는데, 그 수습한 지점이 모두 밭이다. 제3차 조사는 제4구역을 제외한 제1 · 2 · 3구역에서 행하였다.

도 1. 수미람유지 조사구역 분포도(Google Earth Pro에서 다운로드)

---

7 수미람유지의 각 구역의 위치와 범위에 대해서는 이희관, 앞의 논문(2019b), p. 85; 앞의 논문(2019a), p. 20의 〈그림15〉 참조.

제2구역의 경우는 제2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잡초가 무성하고 군데군데 구덩이가 파인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도2). 잡초가 우거진 곳은 지표면이 거의 드러나 있지 않았기 때문에 흑유완편을 발견하기가 힘들었다. 구덩이 주위는 지표면이 드러나 있지만, "공어"나 "진잔"명이 있는 저부편은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고, 군데군데 눈에 뜨이는 흑유완의 동체편이나 구부편들도 거의 대부분이 매우 작은 것들뿐이었다. 다만 다엽말유완(茶葉末釉碗)의 구부편(口部片)을 한 점 수습하였는데(도3), 구연의 바로 아래에서 속구가 이루어진 점 등으로 미루어 "공어"나 "진잔"명흑유완의 잔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8] 이 잔편의 경우, 유(釉)와 태토의 경계에 백색의 중간반응층(中間反應層)이 형성되어 있는데(도4), 이는 건요의 다엽말유완에서 흔히 관찰되는 현상이다.[9]

도 2. 수미람유지 제2구역

도 3. 다엽말유완편, 수미람유지 제2구역 수습

도 4. 다엽말유완편의 단면

제3구역에 있는 밭의 경우는, 배추를 심었거나 추수 이후에 지표면이 노출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도5). 지표면이 많이 드러나 있어서 조사하기가 좋은 환경이었지만, "공어"·"진잔"명이 있는 흑유완편은 전혀 수습하지 못하였다. 이 구역의 밭둑 부근에서 흑유완의 구부나 동체의 작은 파편들이 드문드문 눈에 뜨일 뿐이었다. 아마도 이 구역에는 "공어"·"진잔"명흑유완의 폐기가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도 5. 수미람유지 제3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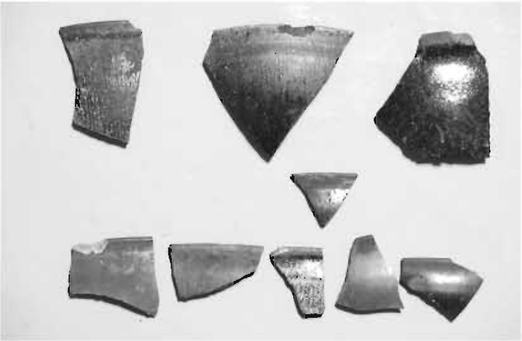
제1구역의 경우, 경작을 하지 않는 곳은 잡초에 덮여 있고, 밭에는 배추가 자라고 있거나 파종을 한 상태였다(도6). 이번 수미람유지에 대한 조사에서 "공어"·"진잔"명흑유완과 관련된 실물자료는 그 대부분이 이 구역에서 수습되었다. 이곳에서는 모두 10점의 흑유완이나 다엽말유완의 구부편을 수습하였는데, 그 가운데 9점은 구연 바로 아래에서 속구가 이루어진 속구완(束口碗)의

8 "공어"·"진잔"명흑유완의 구부의 조형적 특징에 대해서는 이희관, 앞의 논문(2019a), pp. 24~29 참조.

9 이희관, 앞의 논문(2019b), pp. 90~91 참조.

잔편이다. 이러한 형태의 구부를 가진 속구완은 "공어"·"진잔"명흑유완에서 흔히 보이는 기형이다(도7). 그러므로 이것들은 "공어"·"진잔"명흑유완의 잔편일 가능성이 높다.

도 6. 수미람유지 제1구역



도 7. 흑유속구완의 구부편, 수미람유지 제1구역 수습

제1구역에서는 총 6점의 건요흑유완의 저부편을 수습하였는데, 모두 조그만 잔편이다(SL①~⑥, 도8). 이 가운데 SL①은 명문의 일부 획이 떨어져 나갔지만, 그것이 음각(陰刻)의 "공어"명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이에 반해 SL②~④의 경우는 본래 명문이 있었지만, 극히 일부분만 남아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곳에서 출토되는 흑유완의 명문, 즉 "공어"나 "진잔"의 자체와 비교하여 보면, 이것들도 모두 "공어"명의 일부라는 점을 알아차리는 데에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다. SL⑤의 경우는 문제가 그다지 간단치 않다. 굽 안바닥에 명문의 흔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 이 흑유완을 구울 때 저부에 받친 점병 부스러기가 군데군데 지저분하게 붙어 있어 판독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확대경 등을 사용하여 자세히 살펴본 결과, 적어도 윗부분의 글자가 "공(供)"에 가깝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SL⑤도 "공어"명흑유완의 잔편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도 8. 흑유완의 저부편(SL①~⑥), 수미람유지 제1구역 수습

SL⑥은 저부의 절반 정도나 남아 있는데, 굽 안바닥에 명문의 흔적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이것은 "공어"나 "진잔"명흑유완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필자는 앞선 두 차례의 조사에서 모두 17점의 흑유완 저부편을 수습하였는데, 그 가운데 13점은 "공어"명흑유완의 그것으로 판단되고 그 나머지 4점은 본래 "공어"나 "진잔"명이 있었는지의 여부 자체를 분명히 알 수 없는 것들이었다.[10]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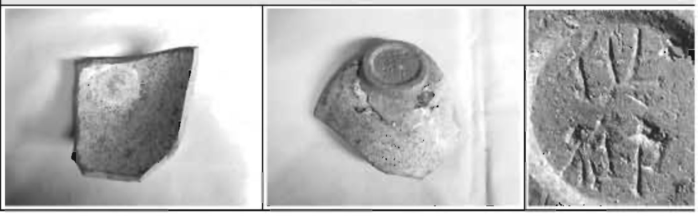
10 李喜寬(池世梨 譯), 앞의 논문(2018), pp. 70~74; 이희관, 앞의 논문(2019b), pp. 87~91 참조.

러한 관점에서 보면, SL⑥은 필자가 수미람유지에서 수습한 흑유완편 가운데 "공어"나 "진잔"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실한 첫 번째 실례가 되는 셈이다.

필자는 제1·2차 조사의 결과를 주요 토대로 하여, 건요에서 특정한 시기에 제작한 공어용의 흑유완에는 기본적으로 "공어"나 "진잔"자를 새기거나 찍었고, 그것들은 수미람에서 최종 선품하여 합격품은 진공(進供)하고 낙선품은 바로 폐기한 탓에 그곳에 "공어"·"진잔"명흑유완의 자편퇴적이 형성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11] 경우에 따라서는 "공어"나 "진잔"명이 없는 SL⑥이 수미람유지에서 발견된 것이 이러한 필자의 주장에 방해가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송대에도 이곳에 사람들이 거주하였을 것으로 판단됨으로[12] 그들이 사용하고 폐기한 건요흑유완이 그곳에 형성된 "공어"·"진잔"명흑유완의 자편퇴적에 혼입되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복건로전운사(福建路轉運使)의 휘하에 있던 건주(建州)나 구녕현(甌寧縣)의 관리들이 이곳에서 공어용 흑유완의 선품을 담당하였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면,[13] 그들이 사용하고 버린 흑유완의 잔편일지도 모르겠다. 요컨대, 수미람에 "공어"·"진잔"명흑유완의 자편퇴적이 있었을 것이라는 필자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한편, 이번 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중촌의 방국강(方國强) 선생이 수미람유지에서 수습한 "공어"·"진잔"명흑유완을 적지 않게 소장하고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접하였다. 방국강 선생에 대해서는 제2차 조사 결과를 보고한 글에서 잠시 언급한 바가 있다.[14] 그는 수미람유지 제2구역의 밭의 소유자로서 그 밭을 경작하고 있으므로 그 이야기는 신뢰할만하다고 판단된다. 그뿐만 아니라 제2차 조사를 행할 때, 그가 자신의 밭에서 건요흑유완편을 수습하는 모습을 필자가 직접 목격하기도 하였다. 그의 소장품을 모두 조사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이번 조사에서 필자가 직접 관찰한 것은 그 가운데 고작 3점에 그쳤다. 여기에 그 내역을 간단히 언급해 두고자 한다(표1).

표 1. 방국강(方國强) 선생 소장 "공어"·"진잔"명흑유완[전(傳) 수미람유지 수습]

표본번호	명문	규격(㎝)	도판
FG①	공어 (供御)	저경: 4.1	

11 이희관, 앞의 논문(2019a), pp. 32~33 참조.

12 송대에는 이곳이 선착장에 부속된 장소로서, 공어용 흑유완의 최종 선품장이 있던 곳으로 추정된다. 李喜寬(池世梨譯), 앞의 논문(2018), p. 74; 이희관, 앞의 논문(2019a), pp. 32~33 참조.

13 이희관, 앞의 논문(2019a), pp. 33~34 참조.

14 이희관, 앞의 논문(2019b), p. 88 참조.

표본번호	명문	규격(㎝)	도판		
FG②	공어 (供御)	저경: 4.4			
FG③	진잔 (進琖)	저경: 4.3			

도 9. "공어"명흑유완, 남평시건양구박물관

3점은 모두 비교적 작은 저부편들로, 두 점(FG①·②)에는 "공어"명이, 한 점(FG③)에는 "진잔"명이 있다. FG①이 상대적으로 큰 잔편에 속하지만 구부가 전혀 남아 있지 않아 전체적인 기형을 복원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남아 있는 모습이나 크기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모두 높이가 6㎝ 전후이고 구경이 12㎝ 전후이며 구연 바로 아래에서 밖으로 약간 말리거나 그곳에 束口가 이루어진, "공어"나 "진잔"명흑유완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기형의 것들이라고 추정된다(도9).[15]

3점의 자료는 모두 비교적 작은 잔편이지만, 명문은 온전하게 남아 있다. FG①과 FG②의 "공어"는 모두 해서체(楷書體)에 가까우며, 음각기법으로 단정하게 써 넣었다. "공어"명흑유완의 경우 거의 대부분 이러한 기법으로 명문을 표시하였다. 자체(字體)가 비슷한 것으로 미루어 동일한 도공이 새겼는지도 모르겠다. FG③의 "진잔"명 역시 해서체에 가까운데, 인장으로 찍었다는 점이 FG①과 FG②의 "공어"명과 다르다. 이제까지 알려진 "진잔"명흑유완도 거의 모두 이러한 방식으로 명문을 표시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FG③의 경우, 종서(縱書)의 "진잔"명 바로 아래에 마치 "一"자나 "二"자와 흡사하게 표시한 것이 눈에 뜨인다는 점이다. 이것을 찍은 것인지, 아니면 새긴 것인지는 단정하기 힘들지만, 후자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된다. 건요흑유완에서는 그 저부에 다양한 숫자가 표기된 예들이 발견되었지만,[16] "공어"나 "진잔"명흑유완의 경우는 FG③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표기된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갑자기 알 수 없지만, 차후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15 "공어"·"진잔"명흑유완의 조형적 특징에 대해서는 이희관, 앞의 논문(2019a), pp. 24~29 참조.

16 福建省博物館 等, 「福建建陽蘆花坪窯址發掘簡報」, 『中國古代窯址調査發掘報告集』(北京: 文物出版社, 1984), pp. 138~141.

Ⅲ. 노화평유지(蘆花坪遺址) 출토 "공어"명흑유완("供御"銘黑釉碗)과 그 성격 문제

노화평유지는 노화평요지(제2구역)의 남쪽 가장자리에 인접해 있는, 후정촌과 지중촌을 잇는 소로(小路)로부터 남쪽으로 50m가량 떨어진 평지(논)에 위치하고 있다(도10). 이 논은 후정촌에 사는 범유생(范柳生) 선생의 소유로 계속 경작해왔으나, 이곳에서 "공어"명흑유완이 출토된 뒤로는 경작을 하지 않고 방치되어 잡초가 우거져 있다(도11). 이 유지를 처음 소개할 때 언급한 바와 같이, 이곳의 "공어"명흑유완은 정식 발굴을 통하여 출토된 것이 아니며, 촌민들이 이곳의 논에서 수습한 것을 회수한 것이다.

도 10. 노화평유지의 위치

이 유지에서의 출토상황을 잘 알고 있는 촌민의 말에 따르면, 문제의 "공어"명흑유완은 논의 지표면으로부터 약 1m가량 아래에서 출토되었는데, 이곳에서는 오직 "공어"명흑유완만 발견되었을 뿐, 그 밖의 "진잔"명흑유완이나 그러한 명문이 없는 흑유완이나 요도구 등은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문제의 "공어"명흑유완 가운데 완정품은 대나무로 만든 장방형의 광주리에 포개어진 채로 비교적 두꺼운 포장지 같은 것으로 덮여 있었고, 잔편들은 그 주위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도 11. 노화평유지 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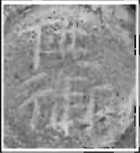
이 유지에서 출토된 "공어"명흑유완의 수량에 관해서는 공식적인 통계가 나와 있지 않다. 제1차 조사 과정에서 필자가 얻은 정보에 의하면 이곳에서 출토된 "공어"명흑유완이 80여 점에 달하

고 그 가운데 완정품이거나 그것에 가까운 것이 28점이라고 하였지만, 제3차 조사에서 얻은 또 다른 정보에 의하면 전체 출토량은 100점이 넘고 그 가운데 완정품이거나 그것에 가까운 것이 28점이고 나머지 80여 점은 잔편이라고 하였다. 어느 쪽이 정확한 것인지 필자로서는 현재 단정할 길이 없지만, 아무튼 총 수량이 100점을 전후한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이것들이 정식 발굴을 통하여 수습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면, 그러한 혼란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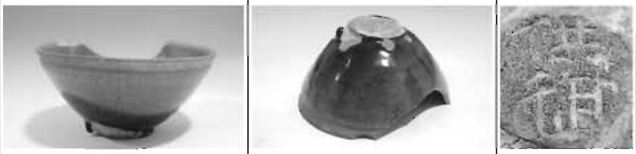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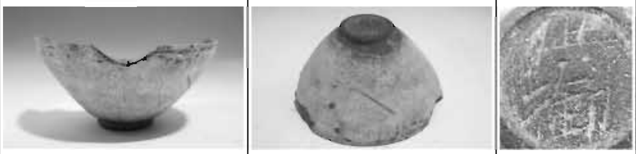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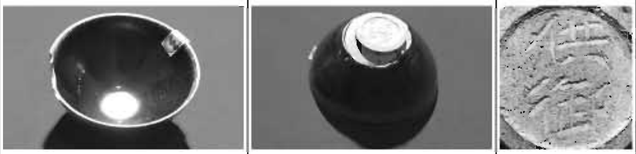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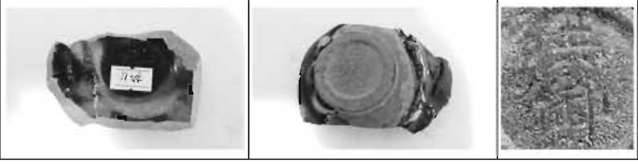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필자는 제1차 조사 과정에서 이 유지에서 출토된 "공어"명흑유완 가운데 몇 점을 관찰한 바가 있다. 그 대상은 총 5점으로, 그 가운데 두 점은 완정품이거나 완정품에 가깝고, 나머지 3점은 모두 잔편이다. 이때 조사한 내용은 별고에서 간단히 언급해 둔 바가 있다.[17] 하지만 이 조사는 표본의 수량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지극히 제한적이고 초보적인 단계를 넘어섰다고 보기 힘들다.

제3차 조사에서는 이 유지에서 출토된 "공어"명흑유완 가운데 대표적인 표본 14점을 선별하여 조사하였다. 완정품이거나 완정품에 가까운 것이 11점이고, 잔품이 3점이다. 이 가운데에는 제1차 조사에서 접했던 3점의 표본–완정품 1점, 잔편 2점–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노화평유지에서 출토된 "공어"명흑유완 가운데 필자가 두 차례에 걸쳐 직접 조사한 것은 모두 16점이다. 그 내역을 제시하면 〈표2〉와 같다.

표 2. 노화평유지 출토 "공어"명흑유완

표본번호	규격(㎝)	도판			비고
LH①	고: 5.8 구경: 12.9 저경: 4.1				제3차 조사
LH②	고: 6.2 구경: 12.4 저경: 4.2				제3차 조사
LH③	고: 6.3 구경: 12.7 저경: 4.3				제3차 조사
LH④	고: 5.8 구경: 12.3 저경: 4.3				제3차 조사

17 이희관, 앞의 논문(2019a), p. 23.

표본번호	규격(㎝)	도판	비고
LH⑤	고: 5.9 구경: 12.2 저경: 4.2		제3차 조사
LH⑥	고: 6.0 구경: 12.3 저경: 4.2		제1 · 3차 조사
LH⑦	고: 6.1 구경: 12.6 저경: 4.2		제3차 조사
LH⑧	고: 6.3 구경: 12.5 저경: 4.0		제3차 조사
LH⑨	고: 6.3 구경: 12.8 저경: 4.1		제3차 조사
LH⑩	고: 6.4 구경: 13.0 저경: 4.2		제3차 조사
LH⑪	고: 6.0 구경: 12.1 저경: 4.1		제1차 조사
LH⑫	고: 6.0 저경: 4.2		제3차 조사
LH⑬	저경: 3.8		제1 · 3차 조사

표본번호	규격(㎝)	도판			비고
LH⑭	저경: 4.1				제3차 조사
LH⑮	저경: 4.0				제1 · 3차 조사
LH⑯	저경: 3.8				제1차 조사

16점의 표본 가운데 완정품은 LH③과 LH⑥의 2점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크고 작은 흠이 있는데, 각각의 흠이 생긴 원인과 시기가 한결같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LH④의 경우, 얼핏 보면 완정품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굽의 두 군데가 박락되어 있다(도12). 이 흠은 소성 과정에서 점병에 부착된 문제의 기물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 분명하다. 흠이 생긴 부분에 유약이 두껍게 뭉쳐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흘러내린 유약이 냉각되어 굽과 점병(墊餠)을 부착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LH⑨는 굽의 대부분이 박락되었는데(도13), 이 경우도 마찬가지 원인으로 생긴 흠으로 여겨진다. 건요요지에서는 이러한 연유로 굽에 흠이 생긴 흑유완이나 박락된 굽 조각이 부착되어 있는 점병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도14).

도12. "공어"명흑유완(LH④)의 저부

도13. "공어"명흑유완(LH⑨)의 저부

도 14. 흑유완의 굽 조각이 부착된 점병(墊餠), 노화평요지 수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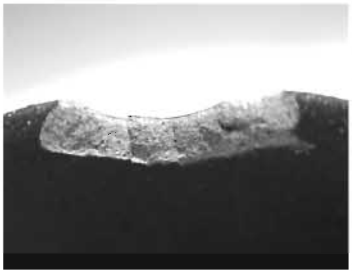
LH②의 경우는 두 가지 흠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구부의 일부분이 파손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구연부의 일부 유가 박락된 것이다(도15). 전자는 기물을 소성한 후 가마에서 꺼낸 이후에 생긴 것으로 판단되지만, 후자는 그렇게 보기 힘들다. 후자의 경우는 소성 과정에서 구연이 위에 놓은 갑발에 접착된 기물을 떼어내면서 생긴 흠이 분명하다. 이러한 흠도 건요의 흑유완에서 흔히 발견되는 것 가운데 하나이다.

LH⑧과 LH⑩은 다른 흑유완들과 다르게 백색에 가까운 유색을 지니고 있다. 소성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유약의 용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터인데, 이러한 것도 흠으로 간주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기물을 다시 가마에 넣고 적당한 온도까지 가열하면 흑유의 유색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표본은 구부도 부분적으로 깨져 있다. 가마에서 꺼내 이곳으로 옮긴 후에 그러한 흠 때문에 깨뜨려 폐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LH① · ⑤ · ⑦ · ⑪은 구부가 부분적으로 깨져 있지만, 그 밖에는 별다른 흠이 눈에 뜨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완정품에 가깝다. 깨진 단면의 오염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2016년 수습할 때 파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도16). 수습하기 전에는 앞서 언급한 LH③이나 LH⑥처럼 완정품이었을 공산이 크다는 이야기이다.

그 밖에 LH⑫~LH⑯은 모두 작은 잔편들이다. 이것들이 2016년에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파손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깨진 단면이 부분적으로 마모되거나 오염이 비교적 심하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도17). LH⑧이나 LH⑩의 경우처럼, 가마에서 꺼내 이곳으로 옮긴 후에 여러 가지 흠 때문에 인위적으로 깨뜨려 버렸을 가능성이 높다.

도 15. "공어"명흑유완(LH②)의 유(釉)가 박락된 구연부


도 16. "공어"명흑유완(LH⑦)의 파손된 구부

도 17. "공어"명흑유완(LH⑤)의 깨진 단면

이제까지 알려진 "공어"명흑유완은 크기의 측면에서 볼 때 크게 두 부류가 있다.[18] 한 부류는 높이가 7~8㎝, 구경이 20㎝ 전후, 저경이 5~7㎝가량인 대형의 완이고, 또 한 부류는 높이가 6㎝ 전후, 구경이 12~13㎝, 저경이 4㎝ 전후인 일반적이 크기의 것들이다. 전자는 비교적 드물고, 그 대부분은 후자에 속한다. LH①~LH⑯은 모두 후자에 속한다. 노화평유지의 출토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 따르면, 이 유지에서 대형의 "공어"명흑유완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후자에 속하는 것들만 출토되었다고 한다.

한편, 16점의 표본 가운데 구연이 온전히 또는 일부라도 남아 있어서 전체적인 기형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모두 12점이다(LH①~LH⑫). 이것들은 평평한 내저면의 넓이나 복부(腹部)의 휘어짐의 정도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한 기형을 지니고 있다. 특히 이것들은 모두 전형적인 건요의 흑유완과는 다르게 구연이 살짝 외반(外反)되었거나 구연 바로 아래에서 미미하게 속구(束口)가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구연부의 형태가 "공어"나 "진잔"명흑유완의 일반적인 특징

18 "진잔"명흑유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라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가 있다.[19] LH⑬~LH⑯도 남아 있는 저부나 복부의 형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것들과 같은 기형의 것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6점의 표본의 "공어"명은 모두 음각기법으로 표시하였다.[20] 그런데 이 기물들이 공어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명문의 글씨체가 그다지 정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전문적으로 명문을 새기는 사람을 두지 않고 해당 기물을 성형한 도공이 직접 명문을 새겼기 때문일 것이다.[21]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일부 명문의 글씨체가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이다. 한 부류는 LH② · ④ · ⑥ · ⑨이고, 또 한 부류는 LH⑤ · ⑦ · ⑧ · ⑪ · ⑮이다. 기물을 성형한 도공이 명문을 새겨 넣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볼 경우, 두 부류의 기물들은 각각 한 도공이 성형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16점의 표본의 유색은 크게 흑색 · 녹색(LH② · ⑨) · 백색(LH⑧ · ⑩) 계통으로 나눌 수 있다. 흑색 계통은 건요흑유완의 가장 일반적인 유색이다. 16점의 표본 가운데 이러한 유색을 띤 것은 모두 12점이다(LH①, LH③~⑦, LH⑪~⑯). 발현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토호문(兎毫紋)이 있다. LH②와 LH⑨도 흑유완의 한 부류이지만, 흔히 다엽말유 · 차록유(茶綠釉) · 녹유(綠釉) · 장녹유(醬綠釉) 등으로 불린다.[22] 두 표본의 경우 기물의 부위에 따라 유색이 달라, 유층이 얇은 구부에 가까운 곳은 다엽말색(茶葉末色)을 띠고, 유층이 상대적으로 두꺼운 저부에 가까운 곳은 흑색을 띠는데, 이러한 현상은 건요 다엽말유완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LH⑧ · ⑩의 유색이 백색에 가까운 것이 소성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유약의 용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라는 점은 이미 앞서 설명한 바가 있다.

이제까지 노화평유지에서 수습한 "공어"명흑유완의 출토상황과 현상(現狀)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마에서 소성한 "공어"명흑유완은 이곳으로 옮겨진 후, 일부는 대나무 광주리에 완정품이나 그것에 가까운 상태로 포개어 담긴 채로, 그보다 훨씬 많은 수량은 폐기되어 잔편으로 발견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곳에서 발견된 잔편들은 노화평유지의 성격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곳에서 "공어"명흑유완의 선품(選品)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그것이다. 노화평유지의 지리적 위치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문제의 "공어"명흑유완은 인접한 노화평요의 가마에서 소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노화평유지에서 발견된 "공어"명흑유완의 잔편들은 그 가마에서 소성되어 이곳으로 옮겨진 후 선품 과정에서 낙선되어 폐기된 것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19 이희관, 앞의 논문(2019a), pp. 24~29 참조.

20 이제까지 필자가 실견한 "공어"명은 모두 이러한 기법으로 쓰여 있었다. 단 응진웅(應陳雄)의 연구에 따르면, 비록 소수에 불과하지만 인화기법으로 표시한 "공어"명도 있다고 한다. 應陳雄, 『解讀中國建窯』(杭州: 西泠印社出版社, 2016), p. 42 참조.

21 宋伯胤, 「「建窯」調查記」, 『文物參考資料』 3(文化部社會文化事業管理局, 1955); 『宋伯胤文集』 陶瓷卷(北京: 文物出版社, 2009), p. 294.

22 應陳雄, 앞의 책(2016), pp. 91~92; 葉文程 · 林忠淦, 『建窯』(南昌: 江西美術出版社, 2016), p. 20; 謝道華 編著, 『建窯建盞』(福州: 福建省地圖出版社, 2015), p. 72 및 p. 122; 王永平 主編, 『玄之妙–福建宋元黑釉瓷』(福州: 福建美術出版社, 2016), p. 23.

이러한 논리로 본다면, 대나무 광주리에 완정품이나 그것에 가까운 상태로 포개어 담겨 있던 “공어”명흑유완은 이곳에서의 선품 과정을 통과한 합격품으로 파악하는 것이 온당해 보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렇게 단정해버리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 이것들 가운데에 앞서 언급한 LH②나 LH④처럼 소성 과정에서 흠이 생긴 잔차품(殘次品)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 점을 중시하면, 오히려 이것들은 이곳으로 옮겨진 후 아직 선품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들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렇게 단정하는 것도 성급한 일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이곳에서의 선품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잔차품들이 이곳에서의 선품에 이어지는 또 다른 선품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다고 보면, 그것들이 이 부류에 섞여 있는 것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필자의 조사와 연구에 따르면,[23] 건요에서 제작된 “공어”나 “진잔”명흑유완의 최종 선품장(選品場)은 건요요장으로부터 1~2㎞ 이상 떨어져 있는 오늘날의 지중촌 수미람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건요의 여러 요장에서 제작되어 일정한 선품 과정을 통과한 “공어”나 “진잔”명흑유완은 이곳에 집적된 후, 복건로전운사의 책임 아래 건주나 구녕현의 관리들의 최종 선품을 거쳐 합격품들은 바로 인접한 남포계의 선착장에서 선적되어 송의 궁정에 조달되고, 낙선품들은 그곳에 폐기되어 퇴적을 형성하였다고 판단된다. 오늘날에도 수미람에서 발견되는 “공어”나 “진잔”명흑유완편들은 그렇게 형성된 자편퇴적의 편린들인 셈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필자가 수미람유지에서 발견한 “공어”명흑유완편 가운데에는 소성 과정에서 생긴 흠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소성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유약의 용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유색이 백색에 가까운 것들도 여기에 속한다(도 18). 이러한 실례들은 본래 흠이 있는 것들 가운데 요장에서의 선품 과정을 통과하여 최종 선품장에 도달한 것들도 있었음을 알려준다. 물론 이것들은 그러한 흠 때문에 이곳에서의 선품에서 낙선되어 폐기되었을 것이다.

도 18a. “공어”명흑유완편, 수미람유지 수습

도 18b. 도18a의 저부

23 이희관, 앞의 논문(2019a), pp. 32~34 참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화평유지에서 출토된 "공어"명흑유완 가운데 대나무 광주리에 담긴 채로 완정품이나 그것에 가까운 상태로 발견된 것들이 이곳에서의 선품 과정을 통과한 것들인지, 아니면 아직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들인지는 단정하기 힘들다. 하지만 어느 쪽이라고 하더라도, 노화평요에서 소성한 "공어"명흑유완이 이곳에서 그러한 선품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공어"명흑유완은 또 다른 건요요장인 대로후문산요나 우피륜요에서도 소성되었다. 이들 요장의 주위에도 각각 노화평유지와 같은 "공어"명흑유완의 선품장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요컨대, 여러 건요요장에서 소성된 "공어"명흑유완은 각 요장별로 일정한 선품 과정을 거쳐 낙선품은 그 자리에 폐기하고 합격품은 수미람으로 옮긴 후, 그곳에서 다시 최종 선품을 하여 그 과정을 통과한 합격품에 한하여 송의 궁정에 진공하였으리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Ⅳ. 우피륜요지(牛皮崙窯址) 제3구역의 조사

우피륜요지 제3구역은 행정구역상 후정촌에 속해 있으며, 이 구역으로부터 서쪽으로 300~400m가량 떨어진 곳에는 우피륜요지 제1·2구역이, 동쪽으로 100여m가량 떨어진 곳에는 원두갱요지가 있다(도19). 이 구역은 우피륜산의 동쪽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는데, 우피륜요지의 세 구역 가운데 면적이 가장 작다(도20).[24]

도 19. 우피륜요지 제3구역 주변의 요지(Google Earth Pro에서 다운로드)

24 복건박물원에서 작성한 복건건양건요유지보호규획(福建建陽建窯遺址保護規劃)에 따르면, 우피륜요지 제1·2·3구역의 면적은 각각 1.39·3.77·0.31헥타아르이다. 즉, 제3구역의 면적은 제1구역의 22%, 제2구역의 8% 정도에 불과하다.

이 구역도 다른 건요요지처럼 도굴로 인하여 군데군데 구덩이가 파여 있다(도21). 하지만 상대적으로 훼손이 덜 심한 편이다. 아마도 최근에 발견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요지는 2014년에 있었던 건요요지 조사 과정에서 처음 확인되었다. 이때 용요의 소성실 후반부의 벽체도 발견되었는데,[25] 현재도 그대로 남아 있다(도22). 하지만 용요의 전체 길이나 구조 등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다. 차후 전면 발굴을 통하여 그 실상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도 20. 우피륜요지 제3구역 원경

도 21. 우피륜요지 제3구역의 도굴된 흔적

도 22. 우피륜요지 제3구역에서 발견된 용요의 벽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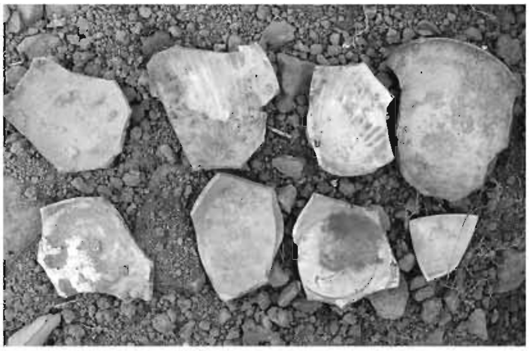
2014년의 조사 보고에는 이 요지에서 청자와 흑유자기를 수습한 것으로 되어 있다.[26] 그런데 이번에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자와 흑유자기 외에 청백자도 적지 않게 눈에 띄었다(도23). 2014년의 조사에서는 청자와 청백자를 통틀어 청자로 칭한 것으로 보인다.[27] 청백자 가운데 소성 환경 등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유의 발색이 불량한 기물의 경우는 청자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양자는 유와 태토의 질과 색 등의 측면에서 확연히 구분되므로(도24), 서로 분류하여 파악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

우피륜요지 제3구역에서 발견되는 청자는 그 수량이 적지 않은데, 구부에서 속구가 이루어지고 구연이 안으로 말린, 이른바 순구완(脣口碗)과(도25) 운두가 낮은 염구완(斂口碗)이(도26) 주류를 이루고 있다. 순구완의 경우, 굽이 옥환저(玉環底)에 가깝고, 굽 주위에는 시유가 되어 있지 않다. 태토가 비교적 거칠고 유약도 그다지 정제되지 않은 편이다. 굽의 접지면에는 내화토빛음을

25 危長福, 앞의 논문(2015), p. 40.

26 危長福, 앞의 논문(2015), pp. 40~41.

27 예컨대, 2014년도 조사보고에서는 대로후문산요지에서 채집한 대로후문산채(大路後門山採): 35 표본이나 우피륜요지에서 채집한 牛皮崙採: 9와 牛皮崙採: 29 표본과 같은 기물을 청자로 분류하였으나[危長福, 앞의 논문(2015), pp. 37~39],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러한 표본은 태토(胎土)나 유(釉)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청백자에 속한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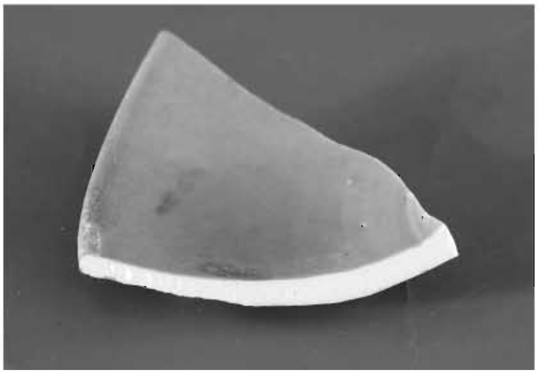


도 23a. 우피륜요지 제3구역 수습 청자와 청백자

도 23b. 도23a의 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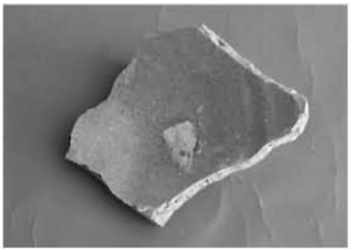
받친 흔적이 남아 있다. 그리고 내저면의 주위에 남아 있는 내화토빚음으로 미루어 포개구이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구역에서 발견되는 청자순구완의 경우, 거의 예외 없이 이러한 장소기법(裝燒技法)으로 제작하였다(도27).

이 구역에서 발견되는 청자염구완은 보통 높이가 4~5㎝, 구경이 10~13㎝, 저경이 5㎝ 가량이며, 구연이 발(鉢)처럼 내만(內彎)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기형은 건요 초기의 흑



도 24. 청자처럼 보이는 청백자. 우피륜요지 제3구역 수습

도 25a. 청자순구완, 우피륜요지 제3구역 수습



도 25b. 도25a의 내면

도 25c. 도25a의 외면

도 26. 청자염구완, 우피륜요지 제3구역 수습

도 27. 포개구이를 한 청자순구완, 우피륜요지 제3구역 수습

유완에서도 흔히 보인다. 그 밖에 굽 주위에 시유를 하지 않은 점이라든지 태토 및 유가 그다지 정제되지 않은 점은 앞서 언급한 청자순구완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다만 양자가 크게 다른 점은 장소기법의 측면이다. 이곳에서 발견되는 청자염구완은, 청자순구완과 달리 거의 예외 없이 갑발에 넣어서 소성하였다. 품질이 거의 비슷한 양자를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장소기법으로 제작한 원인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양자의 기형이나 제작시기와 관련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다 아는 바와 같이, 건요는 대표적인 흑유완의 생산요장이지만, 우피륜요지 제3구역에서 발견되는 흑유완의 수량은 그다지 많지 않다. 우피륜요지 제1·2구역이나 노화평요지 및 대로후문산요지 등 주요 건요요지에서 발견되는 자편(瓷片)의 대부분이 흑유완이라는 점에서 보면, 이러한 현상은 확실히 이색적이라고 할 수 있다. 흑유완의 기형도 단순한 편이다.

우피륜요지 제3구역에서 발견되는 흑유완의 태반은 염구완이다. 건요의 염구완은 기형에 따라 크게 세 부류로 구분된다. 첫 번째 부류는 높이가 4㎝ 전후, 구경이 10~13㎝, 저경이 4~5㎝가량이며 구연이 급하게 내만된 것이 특징이고(도28, Ⅰ식), 두 번째 부류는 첫 번째 부류와 기형과 규격은 비슷하지만 구연이 완만하게 내만되었으며(도29, Ⅱ식), 세 번째 부류는 두 번째 부류와 전체적인 기형의 측면에서 유사하지만 그것보다 높이가 높고 구경이 작은 형태의 것들이다(도30, Ⅲ식). 건요요지에서 Ⅰ식과 Ⅱ식의 염구완은 청자에서도 확인되는데, 후자의 경우가 저경이 약간 큰 편이다. Ⅰ식과 Ⅱ식의 흑유염구완과 청자염구완이 기형적으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염구완들의 경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체적으로 저경이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 등에서 보면,[28] 전자는 후자의 기형을 계승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Ⅲ식 염구완은 청자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Ⅲ식의 흑유염구완의 경우는 건요흑유완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운두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보면,[29] Ⅱ식 흑유완에서 파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도 28. 흑유염구완, 암미산요지(Y8) 출토(「唐物天目−福建省建窯出土天目と日本傳世の天目−」, p. 45)

도 29. 흑유염구완, 암미산요지(Y8) 출토(「唐物天目−福建省建窯出土天目と日本傳世の天目−」, p.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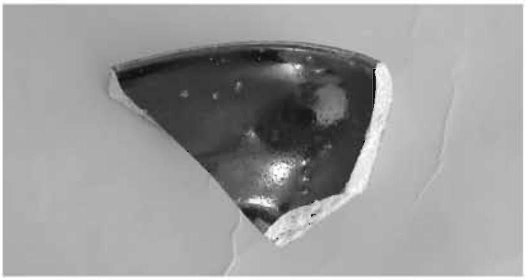
도 30. 흑유염구완, 영장건요지 출토(「唐物天目−福建省建窯出土天目と日本傳世の天目−」, p. 76)

이번 조사에서 이 구역에서는 Ⅰ·Ⅱ·Ⅲ식의 흑유염구완 표본을 모두 수습하였다(도31, 도32, 도33). Ⅲ식 흑유염구완의 경우는 전형적인 건요흑유완의 유색을 띠고 토호문도 분명하게 발

28 이희관, 앞의 논문(2019b), p. 9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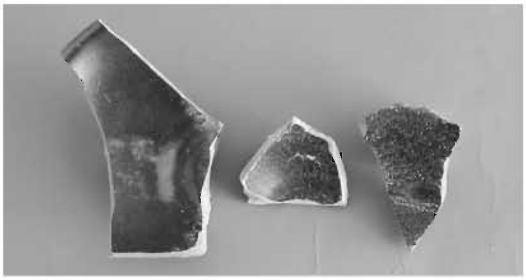
29 건요흑유완의 기형적 변천 과정에 대해서는 곧 별도의 논문에서 자세히 검토할 예정이다.

현된 반면, Ⅰ·Ⅱ식의 흑유염구완의 경우는 유색이 장유(醬釉)와 흑유의 중간에 가깝고 토호문이 거의 발현되지 않은 점이 눈에 뜨인다. 건요완이 대체로 청자→장유→흑유의 이행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거나, 초기의 건요 흑유완에는 토호문이 제대로 발현된 경우가 드물다는 점에서 볼 때,[30] 이러한 현상도 앞서 언급한 바 있는 Ⅰ·Ⅱ식 흑유염구완과 Ⅲ식 흑유염구완 사이에 유행시기에 있어서 격차가 있었을 것이라는 필자의 생각을 뒷받침해준다고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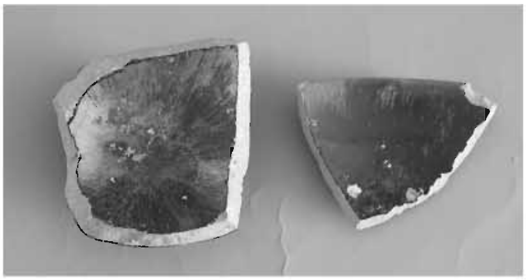
도 31a. 흑유염구완(I 식), 우피륜요지 제3구역 수습

도 31b. 도31a의 외면



도 32a. 흑유염구완(II식), 우피륜요지 제3구역 수습

도 32b. 도32a의 저부



도 33a. 흑유염구완(III식), 우피륜요지 제3구역 수습

도 33b. 도33a의 외면

한편, 이 구역에서 흥미로운 흑유완의 저부편을 한 점 수습하였다(도34). 저부에는 점병이 부착되어 있는데, 직경 3.3㎝의 철자형(凸字形)의 굽 자국이 남아 있다. 이러한 굽 자국이 생긴 것은 그러한 크기의 저경을 가진 흑유완을 소성할 때 받친 점병이 부착된 갑발에 다시 물렁한 점병을 놓고 문제의 흑유완을 소성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점병이 부착된 갑발을 재활용한 것은 건요

30 이희관, 앞의 논문(2019b), pp. 99~100 참조.

에서 일반적인 일이었다.[31] 문제의 흑유완은 구연부가 전혀 남아 있지 않아서 기형을 정확하게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잔존한 기형이나, 저경의 크기, 굽 주위 도삭면(刀削面)의 존재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건요의 대표적인 기종 가운데 하나인 속구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 구역에서는 속구완이 매우 드물게 발견되는 편이다. 그 밖에 별구완(撇口碗)의 구부편도 한 점을 수습하였는데(도35), 이 기종도 마찬가지로 드문 편이다.

도 34. 흑유완 저부편, 우피륜요지 제3구역 수습

도 35a. 흑유별구완 구부편, 우피륜요지 제3구역 수습

도 35b. 도35a의 측면

이 구역에서 "공어"·"진잔"명흑유완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2014년도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 구역에서는 본래 "공어"·"진잔"명흑유완을 소성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러한 흑유완을 공어하던 시기에는 이곳에서 요업을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는 잘 알 수 없다. 이후의 발굴과 연구를 기다린다.

이 구역에서 청백자가 적지 않게 눈에 띈다는 점은 앞서 언급한 바가 있다(도36). 우피륜요지 제1·2구역을 포함한 그 밖의 건요요지보다 상대적으로 더 흔히 발견되는 편이다. 태토는 앞서 언급한 청자나 흑유보다 훨씬 치밀하고 백색이나 회백색을 띠고 있다(도37). 하지만 유색의 경우 전형적인 청백색을 띤 것은 비교적 드물며, 대부분은 옅은 회색을 띠고 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구자에 따라서는 이러한 부류를 청자로 파악하기도 한다.

도 36. 청백자완편, 우피륜요지 제3구역 수습

도 37. 우피륜요지 제3구역 청백자의 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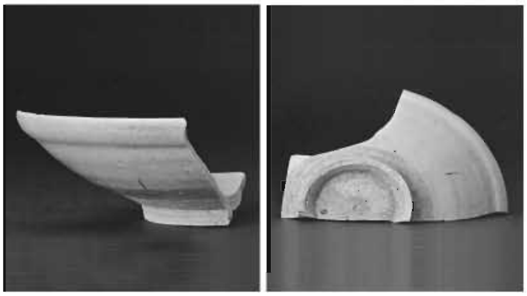
이 구역에서 발견되는 청백자는 그 대부분이 완이다. 이들 완에는 다수의 순구완이 포함되어 있는데(도38), 구연의 형태가 이 구역에서 발견되는 구연이 안으로 말린 청자순구완과는 차이가 있다. 구연의 형태만 놓고 보면, 오히려 만당·오대시기의 형요나 정요의 백자순구완에 가까운 편이

31 이희관, 앞의 논문(2019a), p. 12.

다(도39). 이러한 형태의 청백자나 청자순구완이 관산강요지(官山崗窯址)나 완요롱요지(碗窯壠窯址)를 비롯한 무이산(武夷山)의 여러 요지 등에서도 발견되는 것으로 미루어(도40),[32] 민북지역(閩北地域)에서 특정한 시기에 이러한 기형의 순구완이 유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피륜요지 제3구역에서 발견되는 청백자접시 가운데에도 이러한 순구형의 구연을 가진 것들이 있다(도41).

도 38. 청자순구완, 우피륜요지 제3구역 수습

도 39. 백자순구완(「中國陶磁」 5 白磁, 圖25)



도 40. 청백자순구완, 관산강요지 수습(「武夷山古窯址」, p. 98)

도 41. 청백자순구접시, 우피륜요지 제3구역 수습

이번에 이 구역에서 수습한 청백자 가운데에는 굽이 높은 완이 한 점이 포함되어 있다(도42). 구부는 전혀 남아 있지 않지만, 저부는 거의 완전하다. 저경은 6.1㎝이고, 굽 높이는 1.7㎝이다. 내면에는 내저면에 원각이 있을 뿐 문양은 없으며, 외면에는 각획절선문(刻劃折扇紋)이 있다. 경덕진의 호전요(湖田窯)에서는 이러한 기형과 문양의 청백자완이 대략 북송 중엽~북송 말기에 유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도43).[33]

한편, 이 구역에서 발견되는 청백자완이나 접시 가운데에는 기물의 외벽에 이른바 도도흔(跳刀痕)이 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도44). 도도흔은 성형할 때 성형도(成形刀)를 이용하여 외벽을 깎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흠이다. 주로 성형도의 날이 예리하지 않거나 기벽이 너무 딱딱한 경우에

32 中國國家博物館水下考古研究中心 等 編, 「武夷山古窯址」(北京: 科學出版社, 2015), pp. 97~102 및 pp. 108~111.

33 경덕진 호전요지 발굴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기형의 완을 돈식완(墩式碗)으로 분류하였는데, B형 Ⅲ식의 돈식완이 우피륜요지 제3구역에서 수습한 문제의 청백자완과 기형이나 문양이 가장 유사하다. 보고자는 이러한 유형의 돈식완이 1023~1127년 경에 유행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江西省文物考古研究所 等 編, 「景德鎭湖田窯址: 1988~1999年考古發掘報告」 上(北京: 文物出版社, 2007), pp. 70~73 및 pp. 451~455 참조.

종종 생긴다고 한다. 하지만 남평(南平)의 광택요지(光澤窯址)(송대)나 무이산 오도교요지(五渡橋窯址)(남송~원대) 등에서도 기벽에 도도흔이 있는 청백자가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보면(도45),[34] 이러한 도도흔이 이 지역의 특정 시기 청백자에 보이는 일반적인 현상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도 42. 청백자각획화절선문완편(青白瓷刻劃花折扇紋碗片), 우피륜요지 제3구역 수습

도 43. 청백자각획화절선문완(青白瓷刻劃花折扇紋碗), 호전요지(湖田窯址) 출토(「景德鎮湖田窯址: 1988~1999年考古發掘報告」 下, 彩版11-5)

도 44. 청백자 외벽의 도도흔(跳刀痕), 우피륜요지 제3구역 수습

도 45. 광택요지(光澤窯址) 수습 청백자 외벽의 도도흔(跳刀痕)(「中國古代窯址標本」 福建 (上), p. 220)

일반적으로 건요에 있어서 청백자는 대략 남송 말기에 흑유자기의 생산이 쇠퇴하면서 그것을 대신하여 생산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35] 이러한 이해는 무엇보다도 영장건요지의 용요 Y7에서는 전적으로 흑유완이 출토되고 그 요로를 파괴하고 건립한 Y6에서는 청백자만 출토되었다는 1992년의 발굴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36] 발굴보고자는 이 요장에서 청백자를 생산한 시기를 남송 말기~원대 초기로 파악한다. 생산시기의 문제를 잠시 돌려놓고 보면, 이러한 이해가 적어도 영장건요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면 우피륜요지 제3구역의 청백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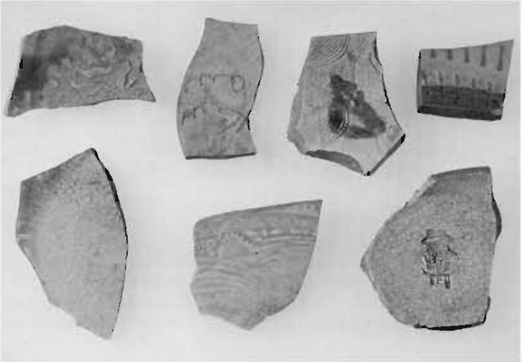
34 馮小琦 主編, 『中國古代窯址標本』 福建(上)(北京: 故宮出版社, 2016), pp. 210~220; 中國國家博物館水下考古研究中心 等 編, 앞의 책(2015), pp. 137~144쪽 및 p. 178.

35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等(栗建安 執筆), 「福建建陽縣水吉建窯遺址1991-1992年度發掘簡報」, 『考古』 2(科學出版社, 1995), p. 154; 謝道華, 『中國古陶瓷標本-福建建窯』(廣州: 嶺南美術出版社, 2003), p. 24 참조.

36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等(栗建安 執筆), 앞의 논문(1995), pp. 150~154 참조.

의 경우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일까? 다시 말하면, 이 구역에서의 청백자의 생산도 흑유자기 생산의 쇠퇴와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는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우피륜요지 제3구역과 영장건요지의 청백자의 양상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영장건요지의 발굴보고에 따르면,[37] 이 요지에서 출토된 청백자는 태토가 얇고 백색을 띠며 치밀하다. 그리고 유색은 청백색 · 청회색 · 청황색 등으로 다양하다. 기종으로는 완 · 접시 · 세(洗) · 향로 · 단지 · 호 · 병 등이 있다. 문양기법으로는 인화기법와 각획화기법이 채용되었으며, 전자의 소재로는 연 · 국화 · 해바라기 · 비봉(飛鳳) · 수금(水禽) 등이, 후자의 소재로는 구름 · 비문(篦紋) · 연 · 국판 등이 사용되었다(도46).[38] 그리고 완이나 접시 그리고 세의



도 46a. 청백자편, 영장건요지 출토(「唐物天目–福建省建窯出土天目と日本傳世の天目–」, p.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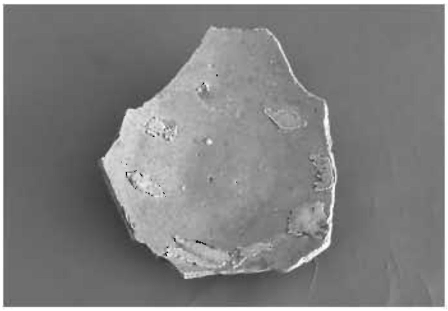
도 46b. 도46a의 외면(「唐物天目–福建省建窯出土天目と日本傳世の天目–」, p. 102)

경우는 망구(芒口)가 이루어진 것들이 많은데, 이것들은 조합식지권(組合式支圈)을 사용하여 소성하였다(도47). 그밖에 완의 내저면의 유약을 원형으로 깎아낸 삽권(澀圈)이 있는 것들도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그것은 포개구이를 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다[삽권투소(澀圈套燒)]. 이러한 기법은 내저면의 유약을 깎아내지 않은 채로 내화토빚음[니점(泥點)]을 받쳐서 포개구이를 할 경우에[니점투소(泥點套燒)] 내저면에 그 흔적이 남거나(도48) 기물과 기물이 접착되어 쉽게 분리되지 않는 단점(도49)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안해낸 것이다.

도 47. 조합식지권편, 영장건요지 수습

37 中國社會科學院考古硏究所 等(栗建安 執筆), 앞의 논문(1995), p. 153.

38 사도화(謝道華)에 따르면, 대로후문산요지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청백자가 출토되었다고 한다. 謝道華, 앞의 책(2003), p. 23 참조.



도 48. 청자완. 내저면에 내화토빚음을 받친 흔적이 있다.

도 49. 청자접시와 청자완, 노화평요지 수습. 내화토빚음을 받쳐서 포개구이를 하였으나 기물과 기물이 접착되어 폐기되었다.

그런데 우피륜요지 제3구역의 청백자의 양상은 영장건요지의 경우와는 크게 다르다. 우선 이 구역의 청백자 가운데에는 문양이 있는 것이 매우 드물다. 그 대부분이 무문이다. 특히 인화기법의 문양이 있는 것은 아예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망구의 기물도 눈에 띄지 않는다. 이는 이 구역의 청백자가 모두 앙소(仰燒)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구역에서 조합식지권을 포함한 지권(支圈)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를 더욱 뒷받침해준다. 게다가 삽권이 있는 청백자도 찾을 수가 없다.

중국의 주요 요장에서 인화기법이 무문이나 각획화기법보다 늦은 시기에 유행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다 아는 일이다. 그리고 복소법이 앙소법보다 늦은 시기에 출현하였다는 점 또한 그러하다. 삽권투소(澀圈套燒)의 경우, 북방지역의 요주요에서는 12세기 중엽경에 이미 채용되었음이 확인되었지만,[39] 남방지역은 이보다 늦어서 경덕진 호전요의 경우는 원대에 접어든 이후에 유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40]

이러한 점들을 중시하면 우피륜요지 제3구역의 청백자가 영장건요지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제작되었으리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믿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구역에서 수습한 각획절선문완(刻劃折扇紋碗)과 같은 기형과 문양의 청백자완이 호전요에서 북송 중엽~북송 말기에 유행하였다는 점 등에서 볼 때, 이 구역에서 늦어도 북송시기의 어느 시점에는 청백자를 제작하기 시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더 나아가 건요의 흑유완이 북송 중기 이전의 어느 때에 제작하기 시작하여 대략 남송 말기에 소멸하였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41] 이 구역에서는 영장건요지의 경우와는 달리 청백자가 한동안 흑유자기와 함께 소성되었을 공산이 지극히 크다. 하지만 이 구역에서 청백자와 흑유자기가 함께 생산된 기간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 양자는 한 요로에서 함께 소성되었는지, 아니면 따로 소

39 劉濤, 『宋遼金紀年瓷器』(北京: 文物出版社, 2004), p.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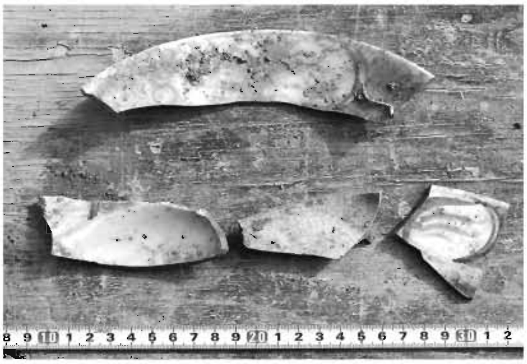
40 江西省文物考古研究所 等 編, 앞의 책(2007), p. 460.

41 건요 흑유완의 개시 및 소멸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북송중기 이전의 어느 때에 제작하기 시작하여 대략 남송말기에 소멸하였을 것이라는 견해가 가장 유력하다.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等(栗建安 執筆), 앞의 논문(1995), p. 154; 劉濤, 앞의 책(2004), pp. 122~124; 葉文程 · 林忠淦, 앞의 책(2016), pp. 42~54 참조.

성되었는지 등의 문제들은 이번의 조사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일이다. 이 구역이 정식 발굴되고 아울러 퇴적층의 양상이 파악되어 이러한 점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를 기대한다.

Ⅴ. 대로후문산청화백자요지(大路後門山青花白瓷窯址)의 신발견(新發見)

제3차 조사의 마지막 날인 12월 6일 오후의 일정은 본래 대로후문산요지의 남쪽 구역을 조사함으로서 이번 조사를 매듭짓는 것이었다. 이 구역은 1989~1990년에 발굴한 용요 Y1 · Y3과 그 주변에 해당한다. 그런데 Y1 · Y3을 조사한 후 그 남쪽면을 조사하기 위하여 후정촌과 남산촌(南山村)을 잇는 도로를 따라서 남산촌 쪽으로 100여m쯤 가다가 대로후문산요지의 범위를 막 벗어난 지점의 도로 주변에서 매우 흥미로운 자편들을 발견하였다. 건요요지에서는 본 적이 없는 청화백자편들이었다(도50).[42]



도 50a. 대로후문산 도로변에서 발견한 청화백자편들

도 50b. 도50a의 외면

이 청화백자편들은 요업폐기물퇴적이 아닌, 길가의 지표면에서 드문드문 발견되었다(도51). 그래서 처음 발견했을 때에는 이것들이 요업폐기물이 아닌, 일반생활폐기물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조사에 동행한 남평시건양구박물관(南平市建陽區博物館)의 오홍빈(吳洪斌) 선생도 그렇게 생각하였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 동서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는 단애면과 그 주위의 폐기물을 보고 필자의 추정에 문제가 있음을 알아차렸다(도52).

이 단애면 남서쪽에는 그다지 넓지 않은 평지가 있는데, 그곳에는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골조공사를 하는 중이었다(도53). 문제의 단애면은 이 건물의 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최근에 깎아낸

42 한편, 엽문정(葉文程)은 한 연구에서 영장건요지 부근의 요지에서 청화백자편들을 발견하였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葉文程, 「"建窯"初探」, 『中國古代窯址調查發掘報告集』(北京: 文物出版社, 1984), pp. 148~149]. 필자가 청화백자편을 발견한 지점은 영장건요지로부터 불과 100여 m 떨어진 곳이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면, 엽문정과 필자가 발견한 청화백자편들이 동일한 것들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다만, 그는 이 청화백자편들에 관하여 더 이상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것이다. 그런데 단애면을 깎아내면서 형성된 흙더미에 도로 주변에서 발견한 것과 같은 청화백자 편뿐만 아니라 갑발과 점병 등 요도구의 잔편들도 함께 섞여 있는 것이 아닌가(도54)? 문제의 단애면에서는 그러한 청화백자편과 요도구 등으로 이루어진 퇴적층이 발견되었다(도55). 노출된 퇴

도 51. 청화백자편들이 발견된 지점(Google Earth Pro에서 다운로드)

도 52. 청화백자편들이 발견된 도로변의 단애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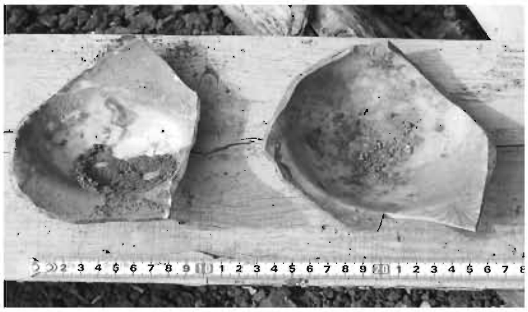
도 53. 단애면 남서쪽의 건축 현장

도 54. 단애면 주위의 흙더미

도 55. 단애면에 노출된 퇴적층

적층은 지표면으로부터 약 70~80㎝가량 아래에 형성되어 있으며, 두께는 30~40㎝ 정도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갑발과 점병이 흑유완의 소성에 사용한 그것들과는 형태 크기 등이 크게 다르다는 점이었다. 이는 문제의 요도구들이 흑유완이 아닌 다른 종류의 자기를 소성할 때 사용한 것임을 의미한다. 문제의 흙더미에 흑유완편들이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 이를 더욱 뒷받침해준다. 그것은 이것들과 함께 섞여 있는 청화백자일 수밖에 없다. 이곳에서는 청화백자를 제외한 자기편은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곳에 청화백자를 소성한 요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곳에서 발견되는 청화백자는 흥미롭게도 그 상당수가 복부의 중간부분이 좁아들고 구경과 저경이 각각 16~17㎝와 7㎝가량이며 운두가 낮은 속요완(束腰碗)이다(도56). 태토는 백색을 띠고 매우 치밀하다. 청화문양도 대동소이하여, 내저면에는 배추포기와 같은 문양을, 전 부분에는 세 곳에 등간격으로 타원창(橢圓窓)을 두고 그 안에 초문을 배치하였으며 타원창 밖의 여백면은 장식문양으로 채웠다. 외저면에는 청화로 원을 둘렀으며 그 안에는 판독하기 힘든 청화명문이 있다. 도공의 이름이나 상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굽 주위와 구연 바로 아래의 외면에는 간략한 초문이나 화문을 시문하였다. 굽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점소(墊燒)하였다. 내저면에 포개구이를 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갑발에 한 점씩 넣어 소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도 56a. 청화백자속요완편, 대로후문산청화백자요지 수습

도 56b. 도56a의 저부

요도구로는 갑발과 점병을 수습하였다. 갑발은 월요요지에서 흔히 발견되는 것과 같은 M형으로, 구경은 25~30㎝ 정도이다(도57). 건요에서 흑유완을 소성할 때 사용한 누두형갑발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점병은 직경이 7~8㎝이며, 두께가 매우 얇다(도58). 가장자리에는 요자형(凹字形)의 얕은 굽자국이 나 있다.

도 57. M형갑발편, 대로후문산청화백자요지 수습

도 58. 점병, 대로후문산청화백자요지 수습

이 요지에서 수습된 청화백자는 명청시기의 그것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현재 퇴적층의 일부만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제작시기는 발굴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인 요지의 범위나 자기의 구체적인 양상 그리고 요로의 형태 등도 마찬가지이다. 차후 이 요지가 발굴되어 그러한 점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Ⅵ. 맺음말

이번 조사는 앞선 두 차례에 걸친 건요요지와 그 주변 유지들에 대한 조사에서 미진했던 몇 가지 점들을 보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행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미람유지에서 5건의 "공어"명흑유완 저부편을 수습하고 아울러 그곳에서 수습한 것으로 전하는 2건의 "공어"명흑유완과 1건의 "진잔"명흑유완의 저부편을 조사하여, 이곳이 공어용 흑유완의 선품장이었음을 더욱 분명히 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노화평유지와 그곳에서 출토된 "공어"명흑유완 표본의 검토를 통하여 노화평요에서 소성한 "공어"명흑유완을 이곳으로 옮긴 후 일정한 선품 과정을 거쳐 최종 선품장인 수미람으로 옮겼을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셋째, 앞선 두 차례의 조사에서 빠뜨린 우피륜요지 제3구역을 조사하여 이곳에서는 영장건요의 경우와는 달리 한동안 흑유완과 청백자를 함께 소성하였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넷째, 대로후문산요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화백자요지를 신발견하는 望外의 소득이 있었다.

제2차 건요 조사기를 작성하면서 "공어"·"진잔"명흑유완에 맞추었던 건요 연구의 시야를 건요 전반으로 확대해 나가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한 바가 있다. "건요"공어"·"진잔"명흑유완과 그 지평을 넘어"를 제3차 건요 조사기의 제목으로 내걸은 것도 사실은 그러한 바람 때문이었다. 하지만 보고문을 작성하고 보니 아직도 주된 관심이 "공어"·"진잔"명흑유완에 쏠려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게 되었다. 건요 전반에 대한 필자의 식견이 짧은 것이 그 주요 원인이리라. 다음 조사가 이러한 희망이 더욱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게 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할 뿐이다.

〈치사(致謝)〉

이번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남평시건양구박물관의 나관군(羅冠群) 관장과 오홍빈(吳洪斌) 선생, 건요요지 보호의 임무를 맡고 있는 구가의(邱家義) 선생, 지중촌의 방국강(方國强) 선생, 건양구(建陽區) 주건평송대건요장품관(周建平宋代建窯藏品館)의 주건평(周建平) 선생, 박고헌(博古軒)의 전정유(田庭有) 선생의 큰 도움을 받았다. 특히 오홍빈 선생과 구가의 선생은 조사 기간 내내 필자와 동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요 및 "공어"·"진잔"명흑유완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주었다. 이분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린다.

투고일 2020. 9. 4. | 심사개시일 2020. 10. 31. | 게재 확정일 2020. 11. 27.

참고문헌

〈국문〉

이희관, 「建窯의 "供御"·"進琖"銘黑釉碗에 대한 기초적 검토」, 『야외고고학』 36, 韓國文化遺産協會, 2019a.

이희관, 「건요(建窯)와 "공어"·"진잔"명흑유완("供御"·"進琖"銘黑釉碗) 그리고 수미람유지(水尾嵐遺址)-건요(建窯) 조사기(調査記) (2)」, 『아시아 陶磁文化 硏究』 2, 국립광주박물관, 2019b.

〈중문〉

江西省文物考古研究所 等 編, 『景德鎭湖田窯址: 1988~1999年考古發掘報告』 上, 北京: 文物出版社, 2007.

福建省博物館 等, 「福建建陽蘆花坪窯址發掘簡報」, 『中國古代窯址調査發掘報告集』, 北京: 文物出版社, 1984.

謝道華, 『中國古陶瓷標本-福建建窯』, 廣州: 嶺南美術出版社, 2003.

謝道華 編著, 『建窯建盞』, 福州: 福建省地圖出版社, 2015.

宋伯胤, 「建窯」調査記」, 『文物參考資料』 3, 文化部社會文化事業管理局, 1955; 『宋伯胤文集』 陶瓷卷, 北京: 文物出版社, 2009.

葉文程, 「"建窯"初探」, 『中國古代窯址調査發掘報告集』, 北京: 文物出版社, 1984.

葉文程·林忠淦, 『建窯』, 南昌: 江西美術出版社, 2016.

王永平 主編, 『玄之妙-福建宋元黑釉瓷』, 福州: 福建美術出版社, 2016.

劉濤, 『宋遼金紀年瓷器』, 北京: 文物出版社, 2004.

危長福, 「福建建陽市建窯遺址2014年調査簡報」, 『陶瓷考古通訊』1, 北京大學中國考古學研究中心 等, 2015.

中國國家博物館水下考古研究中心 等 編, 『武夷山古窯址』, 北京: 科學出版社, 2015.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等(栗建安 執筆), 「福建建陽縣水吉建窯遺址1991-1992年度發掘簡報」, 『考古』 2, 科學出版社, 1995.

應陳雄, 『解讀中國建窯』, 杭州: 西泠印社出版社, 2016.

馮小琦 主編, 『中國古代窯址標本』 福建(上), 北京: 故宮出版社, 2016.

〈일문〉

茶道資料館 編, 『唐物天目-福建省建窯出土天目と日本傳世の天目-』, 京都: 茶道資料館, 1994.

蓑豊, 『中國陶磁』 5 白磁, 東京: 平凡社, 1998.

李喜寬(池世梨 譯), 「建窯と「供御」·「進琖」銘黑釉碗-建窯調査記(1)-」, 『中近世陶磁器の考古學』 9, 東京: 雄山閣, 2018.

국문초록

건요"공어"·"진잔"명흑유완(建窯"供御"·"進琖"銘黑釉碗)과 그 지평(地平)을 넘어

– 건요(建窯) 조사기(調査記) (3)

이희관

이번 조사는 앞선 두 차례에 걸친 건요요지(建窯窯址)와 그 주변 유지(遺址)들에 대한 조사에서 미진했던 몇 가지 점들을 보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행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미람유지(水尾嵐遺址)에서 5건의 "공어"명흑유완 저부편(底部片)을 수습하고 아울러 그곳에서 수습한 것으로 전하는 2건의 "공어"명흑유완과 1건의 "진잔"명흑유완의 저부편을 조사하여, 이곳이 공어용 흑유완의 선품장(選品場)이었음을 더욱 분명히 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노화평유지(蘆花坪遺址)와 그곳에서 출토된 "공어"명흑유완 표본의 검토를 통하여 노화평요(蘆花坪窯)에서 소성한 "공어"명흑유완을 이곳으로 옮긴 후 일정한 선품 과정을 거쳐 최종 선품장인 수미람으로 옮겼을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셋째, 앞선 두 차례의 조사에서 빠뜨린 우피륜요지(牛皮崙窯址) 제3구역을 조사하여 이곳에서는 영장건요(營長墘窯)의 경우와는 달리 한동안 흑유완과 청백자를 함께 소성하였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넷째, 대로후문산요지(大路後門山窯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명청시기의 청화백자요지를 신발견하는 망외(望外)의 소득이 있었다.

주제어 : 건요(建窯), "공어"·"진잔"명흑유완("供御"·"進琖"銘黑釉碗), 수미람유지(水尾嵐遺址), 노화평유지(蘆花坪遺址), 우피륜요지(牛皮崙窯址) 제3구역, 대로후문산청화백자요지(大路後門山青花白瓷窯址)

Abstract

The black glazed bowl marked with "*Gongyu* (供御)" or "*Jinzhan* (進琖)" of Jian ware and beyond its horizon

– Third research report on Jian kiln (建窯)

Lee Heegwan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pplement some items that were passed over in the previous two researches on the Jian kiln site (建窯窯址) and its surrounding area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 collected five pieces of the lower part of black glazed bowls (銘黑釉碗) marked with "*Gongyu* (供御)" from the *Shuiweilan* site (水尾嵐遺址), and also examined two pieces of the lower part of black glazed bowl marked with "*Gongyu*" and one piece of a black glazed bowl marked with "*Jinzhan* (進琖)" that were reported to be collected from the site, which made it clearer that the site was a place to sort out the black glazed bowls for presenting to the palace. Second, I reviewed the samples of the black glazed bowls marked with "*Gongyu*" collected from the *Luhuaping* site (蘆花坪遺址), and it was found that they were fired in the *Luhuaping* kiln(蘆花坪窯) and were moved to the Luhuaping site to sort out, and that they were transferred to *Shuiweilan*(水尾嵐) for the final selection. Third, I researched the third area of the *Niupilun* kiln site (牛皮崙窯址) that was not surveyed in the previous two researches, and it was concluded that, unlike the *Yingchangqian* kiln(營長墘窯), the black glazed bowls and the *Qingbai* porcelains (青白瓷) were fired together for a while in the *Niupilun* kiln. Fourth, I discovered a kiln site for the blue and white porcelains in the Ming and Qing dynasties (明淸時期) in the process of surveying the *Daluhoumenshan* kiln site (大路後門山窯址).

Keywords : Jian kiln, the black glazed bowl marked with "*Gongyu* (供御)" or "*Jinzhan* (進琖)", *Shuiweilan* site(水尾嵐遺址), *Luhuaping* site (蘆花坪遺址), the third area of the *Niupilun* kiln site (牛皮崙窯址), *Daluhoumenshan* kiln site for the blue and white porcelain(大路後門山青花白瓷窯址)

크락자기(Kraak ware) 재고찰 – 중국 내 소비시장을 중심으로 –

류자오후이*

Ⅰ. 머리말

Ⅱ. 강서성 묘장 출토 크락자기

Ⅲ. 내수(內銷)의 새 단서 : 국내 유적 출토 크락자기

Ⅳ. 전세품 중 특수 작품 : 관요 관지의 크락자기

Ⅴ. 국내 소비시장에 대한 재고찰

Ⅵ. 그 외의 논쟁점: 개광 형식의 유래와 그 과도기

*푸단대학교 교수

크락자기(Kraak ware) 재고찰
– 중국 내 소비시장을 중심으로 –

류자오후이
푸단대학교 교수

Ⅰ. 머리말

세계화의 기틀을 닦은 대항해시대, 크락자기는 동서양 교역에서 중요한 상품으로 떠오르며 물질문화 교류에서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중국의 대표적인 수출자기로서 긴 기간 동안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주로 문양 장식, 침몰선의 발견, 해외 출토 및 소장의 역사, 교역로, 동서양 도자 교류 등에 집중되었고, 중국 내수 시장과 관련된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다.

1980년대, 중국의 도자 연구자들은 강서성(江西省) 묘장에서 만력(萬曆, 1573–1620)시기 제작된 특수한 유형의 수출자기가 출토된 사실에 주목하였다. 출토된 청화대반(青花大盤) 내측면에는 8개의 개광(開光)이 균일하게 시문되었다.[1] 그 중 한 점은 강서성 남성현(南城縣)의 명(明) 익선왕 (益宣王) 주익인(朱翊鈏, 1537–1603) 묘에서 출토된 자기 반(盤)으로 첫 발표에서는 이것이 수출자기인지 분명하지 않았다.[2] 당시 이러한 자기가 서양에서 말하는 '크락자기' 인지 명확하지 않았지만, 현지 문물 연구소 조사원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1990년대, 강서성 문물 조사원들은 묘장에서 출토되거나 수집된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했으며[3], 이로부터 도자사학계에서도 중국 국내 묘장에서 출토된 크락자기를 주목하고 연

---

* 필자는 이 논문 주제를 'Food, Medicine, Material Culture: Methods and Sources for the Study of History workshop' (푸단대학교 중화문명국제연구중심, 2017년 6월 23일)과 국제학술대회 '명청 중국과 세계 예술' (중앙미술학원, 2019년 11월 2~3일)에서 발표한 바 있으며, 본고는 이를 바탕으로 수정한 것이다.

1 薛翘 · 劉勁峯, 「江西出土的明萬曆外銷青花瓷盤」, 『江西曆史文物』(1985年 第1期), pp. 93~98.

2 江西省文物工作隊, 「江西南城明益宣王朱翊鈏夫婦合葬墓」, 『文物』(1982年 第2期), pp. 16~24.

3 吳志紅, 「明外銷青花瓷盤介紹」, 『江西曆史文物』(1986年2期), pp. 126~127.
姚澄清 · 孫敬民 · 姚連紅, 「試談廣昌紀年墓出土的青花瓷盤」, 『江西文物』(1990年 第2期), pp. 86~89.
孫敬民, 「江西廣昌發現明代崇禎紀年墓」, 『江西文物』(1990年 第4期), p. 52, pp. 69~70.
江西廣昌縣博物館, 「明代布政使吳念虛夫婦合葬墓清理簡報」, 『文物』(1993年 第2期), pp. 77~82.
姚澄清 · 姚連紅, 「江西明萬曆外銷瓷盤的發現」, 『南方文物』(1996年第4期), pp. 83~84.
姚澄清 · 姚連紅, 「江西研究克拉克瓷的新進展–三談江西紀年墓出土的"芙蓉手"」, 『景德鎮陶瓷』(1999 年 第九卷 第三期), pp. 62~67.

구하였다.[4] 그런데 이러한 자기들은 대부분 결함이 많았기 때문에 수출자기의 잔류품으로 국내에서 처리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때까지 학계에서는 크락자기가 기본적으로 수출 만을 목적으로 전문적으로 생산된 자기라고 여겨졌다.

중국에서 크락자기가 경덕진 관음각(觀音閣)[5], 낙마교(落馬橋), 주산(珠山) 어요장(御窯場)[6] 등 가마터에서 발견된 것을 제외하고 묘장에서만 출토되는가? 이러한 유형의 자기가 중국 내수시장에 있었는가? 만약 있었다면 그 소비 대상은 누구이고, 계층은 어떠했는가? 이러한 자기가 중국 국내에서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가? 본고는 가장 최근의 고고학적 발굴 성과를 비롯해 그동안 다뤄지지 않았던 도자 자료를 바탕으로 크락자기의 내수 시장 문제를 재조명하겠다.[7]

Ⅱ. 강서성 묘장 출토 크락자기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크락자기는 강서성 남부에 위치한 남성(南城), 광창(廣昌), 및 회창(會昌) 등지의 묘장에서 출토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학계의 주목을 받은바 있는데, 가장 전면적으로 분석한 것은 리바오핑(李寶平) 박사의 논고이다.[8] 이 밖에 최근 출간된 도록 『명대 경덕진 민요 기년 청화자 (明代景德鎮民窯紀年青花瓷)』에 강서성 기년묘장 출토 크락자기가 수록되어 있는데 가장 포괄적인 도상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9]

강서성 묘장에서 출토된 크락자기 중 연대가 가장 이른 것은 만력원년(萬曆元年, 1572)의 묘장이고 가장 늦은 것은 남명(南明)의 홍광원년(弘光元年, 1645)의 묘장이다. 묘주는 번왕(藩王)과 포정사(布政使)등 지방에서 높은 직위를 가진 신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평민이다. 출토된 크락 자기는 품질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명 익선왕 주익인의 묘와 명대 포정사 오염허(吳念虛) 부부 합장묘에서 출토된 청화백자 반은 품질이 좋은 편인데, 기타 묘장에서 출토된 청화백자 반은 기본적으로 소성 시에 갈라지거나 기형이 뒤틀린 흔적 등 결손이 뚜렷하다. 익선왕 묘에서 출토된 크락자기 반은 전

---

4 馮先銘 · 馮小琦, 「荷蘭東印度公司與中國明淸瓷器」, 『江西文物』(1990年 第2期), pp. 101~104, p. 117.
Baoping Li(李寶平) , 「Discoveries and interpretation of Ming dynasty export porcelain from tombs in China」, 『逐波泛海-十六至十七世紀中國陶瓷外銷與物質文明擴散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香港城市大學中國文化中心, 2012), pp. 205~215.

5 北京大學考古文博學院 · 江西省文物考古研究所 · 景德鎮市陶瓷考古研究所, 「江西景德鎮觀音閣明代窯址發掘簡報」, 『文物』(2009年 第12期).

6 北京大学考古文博学院 · 江西省文物考古研究所 · 景德镇市陶瓷考古研究所, 「江西景德镇明清御窑遗址发掘简报」, 『文物』(2007 年 第 5期), pp. 4~47.

7 필자는 일전에 중국 내수시장에 대해 간단히 언급한 바 있다. 劉朝暉, 「克拉克瓷器新論:以出土新資料爲中心」, 『典藏古美術』(2018年 11期), pp. 92~101. 북경고궁박물원의 項坤鵬 副연구원 역시 이러한 유형의 자기가 국내에 분포하며 소비된 정황에 주목하였다. 項坤鵬,「關於故宮南大庫的思考——歷史意涵˙建置及克拉克瓷相關問題探討」, 『南方文物』(2018年 第2期), pp. 231~236.

8 Baoping Li(李寶平) , 앞의 책(2012).

9 江西省博物館編 · 彭明瀚著, 『明代景德鎮民窯紀年青花瓷』(北京:文物出版社, 2018).

반적으로 정교하게 제작된 반면에, 구연부에 재시유의 흔적이 보인다(도1, 도2). 그러므로 연구자들은 강서성 묘장에서 출토된 이 크락자기가 수출자기의 잔류품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묘장에서 출토된 크락자기의 기형을 살펴보면 반류가 가장 많다. 명청시기 강서성 지역의 묘장에서는 도자 접시를 묘주의 머리 근처에 매장하는 습속이 있었으며, 이러한 접시를 '수반(壽盤)' 이라 부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잔류품이 경덕진에서 수출 항구로 보내졌다가 선별되어 탈락된 후, 저렴한 가격으로 현지인에게 넘겨진 것이 다시 '수반(壽盤)' 의 형식으로 묘장에 매장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도 1. 청화화조개광반(青花花鳥開光盤)
만력 31년(1603년), 익선왕 주익인묘 출토, 강서성박물관 소장.
江西省博物館編 · 彭明瀚著「明代景德鎮民窯紀年青花瓷」(下)
(北京: 文物出版社, 2018), 圖53.

도 2. 청화화조개광반(青花花鳥開光盤)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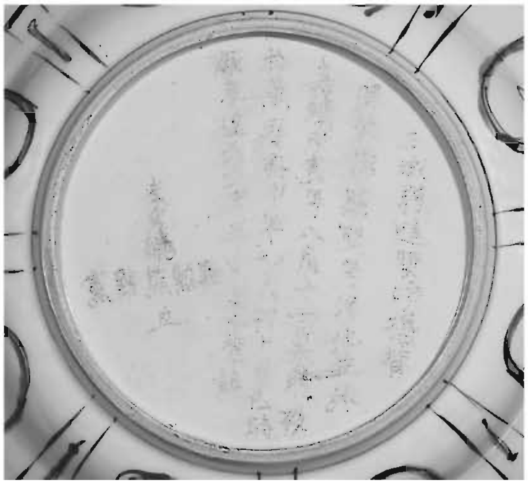
주목해야 할 것은 명대 포정사 오염허 부부 합장묘에서 출토된 두 점의 청화백자 반이다. 그 중 한 점은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기형상의 변형이나 태토 갈라짐이 전혀 보이지 않고 구연부에만 작은 결손이 보인다(도3). 이 묘장은 도굴된 후 다시 발굴되었기 때문에 이 결손 부분 역시 도굴 시에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와 같은 추정에 오류가 없다면, 이 반은 부장(副葬) 시에는 어떠한 흠집도 없었던 것이다. 동반 출토된 다른 청화백자 반은 비록 파손이 심한편이지만 기형 자체에는 변형이 전혀 없으며 태토 갈라짐도 보이지 않는다. 이 반 역시 도굴 시 훼손된 것으로 본래는 흠집이 없었을 것이다. 이

도 3. 청화잡보문개광반(青花雜寶紋開光盤)
천계 원년(1621년), 명대 포정사 오염허 부부합장묘 출토, 강서성박물관 소장. 江西省博物館編 · 彭明瀚著「明代景德鎮民窯紀年青花瓷」(下) (北京: 文物出版社, 2018), p. 361, 圖61.

를 통해 강서성 묘장에서 사용된 자기 모두가 잔류품이 아니며, 품질이 우수한 자기도 있었을 것이다. 익선왕묘에 부장된 자기 반은 재시유 과정을 거치기는 했지만 작은 흠집만 있으며 전반적인 자기의 품질은 높은 편이다. 기존의 학자들이 강서성 묘장에서 사용된 크락자기가 모두 수출자기의 잔류품으로 처리된 것이라고 내린 판단이 재고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만약 우수한 품질의 크락자기가 중국에서 상례 때 사용되었다고 한다면 크락자기가 수출 전용 자기라는 관점을 전면적으로 다시 고찰할 필요가 있다.

강서성 묘장에서 출토된 크락자기는 매장용 수반 이외에 묘지로도 사용되었다. 자기 위에 글자를 새겨 넣어 제작한 묘지는 명청시기 강서성 지역의 묘장에서는 흔히 보이는 현상이다. 다수의 학자들이 홍콩 중문대학교 문물관에 소장된 〈청화화조개광반(青花花鳥開光盤)〉을 주목한 바 있는데, 이는 크락자기가 묘지로 사용된 특수한 예인 동시에 현재까지 알려진 유일한 예이다(도4). 자기 저부에 새겨진 묘지문(墓誌文)은 '石城縣進賢坊塘背陳公諱期聖, 號泮池, 生於嘉靖甲寅年八月十一日未時, 歿於萬曆庚申年七月初十日巳時, 厥妻溫氏, 生男五, 女蓮秀姑. 孝男繼點·勳·熊·默·黨立' 으로, 이 자기 반이 강서성 석성현(石城縣) 묘장에서 출토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도5). 석성현은 강서성의 남부에 위치해 광창현(廣昌縣)과 가깝다. 묘주 진기성(陳期聖)은 만력경신년(萬曆庚申年, 1620)에 사망하였다. 또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기물의 품질 또한 상대적으로 정교하여 우수한 품질의 크락자기가 강서성 묘장에서 사용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증명한다.

도 4. 청화화조개광반(青花花鳥開光盤)
홍콩 중문대학교 문물관 소장. 홍콩 중문대학교 문물관 제공



도 5. 청화화조개광반(青花花鳥開光盤) (저부)

Ⅲ. 내수(內銷)의 새 단서 : 국내 유적 출토 크락자기

이미 알려진 묘장 출토품 외에 근래에 요녕성 신보현(新賓縣) 혁도아랍성(赫圖阿拉城)유적, 북경 고궁 남대고(南大庫) 의 자기 폐기갱, 태원 진왕부(晉王府), 명청 광동 승선포정사사서(承宣布

政使司署) 등 유적에서 크락자기가 발견되었다. 또한 유적의 성격을 살펴보면, 관청부터 후금(後金) 정권의 도성에서부터 번왕부(藩王府), 자금성 황궁 등 비교적 높은 계층과 관련된 유적에까지 나타남으로, 크락자기는 당시 통치계층에게 일상용품으로 공급되어 소비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들 유적에서 출토된 크락자기는 절대 대다수가 반류이지만, 최근 '완(碗)'의 출토도 보고되어, 내수용 크락자기 기형의 다양성까지 살펴볼 수 있다.

1. 요녕성 신빈현(新賓縣) 혁도아랍성(赫圖阿拉城)유적 출토 자기

1998년 요녕성 문물고고연구소가 위치해 있는 요녕성 신빈현(新賓縣)의 혁도아랍성(赫圖阿拉城) 유적에서는 성내에 위치한 건물지 2곳의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10] 당시 출토된 명대 만기(晩期) 자기 중에는 3점의 전형적인 크락자기의 특징을 가진 파편들(도6, 7, 8)이 보고되었는데, 각 사슴 한 쌍과 화조문이 그려진 만력(萬曆)시기의 반이다.[11]

요녕성 신빈현(新賓縣)의 혁도아랍성(赫圖阿拉城) 유적은 누루하치(努爾哈赤) 후금 정권의 첫 번째 도성으로서, 1601년 축조를 시작하여 1603년에 완성되었다. 1619년에 누루하치가 다시 계번성(界藩城)에 도성을 짓고 그곳을 도읍으로 정해 이동하면서 혁도아랍성은 누루하치 정권의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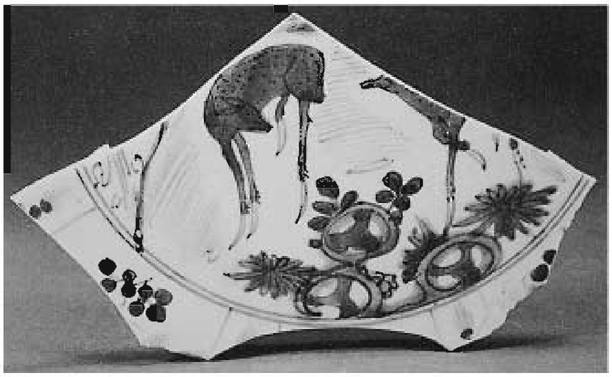
도 6. 청화개광화조반편(靑花開光花鳥盤片)
요녕 신빈현 혁도아랍성지 출토

도 7. 청화개광산수반편(靑花開光山水盤片)
요녕 신빈현 혁도아랍성지 출토

10 梁振晶 · 楊榮昌 · 沈永宝, 「新賓赫圖阿拉城內建筑遺址发掘簡报」, 『辽宁考古文集』(沈阳:辽宁民族出版社, 2003), pp. 151~152.

11 「新宾赫图阿拉城内建筑遗址发掘简报」에서 출토 유물 중 청화화조절복대반(青花花鳥折腹大盤), 즉 '大盤'으로 본 접시와 '방녹당청요춘반(芳綠堂青花春盤)'을 언급하고 사진을 첨부하였는데 셰에밍량(謝明良) 교수는 가장 이른 시기에 이 자료를 소개하면서 이 자기를 크락자기로 지칭했다. 謝明良, 「遼寧發現的十七世紀日本肥前青花瓷」, 『陶瓷手記』(臺北:石頭出版股份公司, 2008). 왕하(王霞) 여사는 혁도아랍성 출토 명대 자기에 대해 상세한 소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王霞, 「關於赫圖阿拉城址出土明代瓷器的思考」, 『南方文物』(2011年 第2期).

혁도아랍성 성내에 건물지 두 곳이 발견되었는데 문헌자료와 함께 고찰해 볼 때 이는 각각 '준호대(尊號臺)'와 '부마부(駙馬府)'였을 것으로 보인다. '준호대'는 누르하치가 후금의 황제를 자칭한 장소인 한궁대아문(汗宮大衙門)으로, 아랍혁도성내에서도 가장 중요한 유적이다.[12] '부마부' 유적은 성내에서 '준호대' 유적을 제외하고는 유일한 고층건축물로 규모도 상당하다. 이 건물지 두 곳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발굴자들은 이 두 곳의 건축 연대가 명대 만기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이 시기는 후금 건국 바로 이전 혹은 건국 직후를 의미한다.[13]



도 8. 청화녹문개광반잔편(青花鹿纹开光盘残片), 요녕 신빈현 혁도아랍성지 출토. 自王魁,「關於赫圖阿拉城址出土明代瓷器的思考」,「南方文物」(2011年 第2期), 圖7, 圖11, 圖9.

혁도아랍성에서 출토된 자기들은 명대 초기와 명대 중기, 명대 말기의 세 시기로 구분되며, 명대 만기의 자기들은 가정(嘉靖)과 만력(萬曆)의 두 시기로 다시 세분할 수 있다. 그 중 '대명만력년제(大明萬曆年製)' 관지의 관요 생산 자기와 크락자기, 민요 청화백자 자기 등이 있다.

2. 북경 고궁 남대고 자기 폐기갱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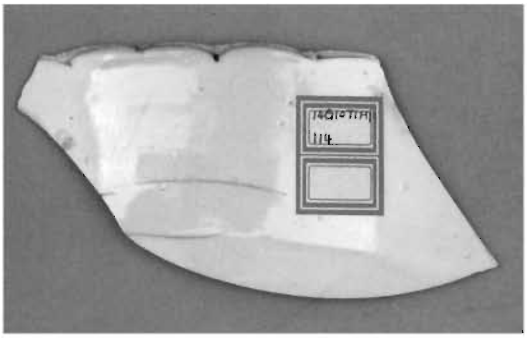
2014년 8월 고궁박물원(故宮博物院)의 남대고(南大庫) 지역 서단 소방관 수도시설에서 1 곳의 자기 폐기갱이 발견되었다. 출토된 자기 파편의 수량은 모두 몇 만 점에 달하며 그 연대는 명 홍무(洪武)시기부터 청대 광서(光緖)시기까지를 망라한다. 명대 만기 시기로 분류된 자기 크락자기 대접 파편1점이 출토된 사실이 주목할 만 하다(도9, 도10). '파편의 길이는 13cm이며 구연부가 크게 벌어지고 구연부 끝 부분에 유약을 두텁게 시유했으며 사선으로 직립하여 복부로 연결된다. 외벽의 구연부 끝에는 단선으로 청화 장식을 하였으며 복부에도 간략한 획선으로 도안하였다. 내벽에는 연판문(蓮瓣文) 장식으로 창을 내고 창 안에는 화초, 벌 등의 도안을 시문하였다. 전반적으로 윤곽선을 그리고 색을 채워 넣었으며 청화의 발색은 짙고 옅은 것을 혼합하여 사용했다. 개광의 배치, 화훼의 화법, 청화의 발색 등의 특징을 볼 때, 만력시기 크락자기의 특징들과 부합하며 같은 유형의 자기 파편이 동일한 구역의 기타 지점에서도 출토되었다.[14]

---

12 梁振晶,「赫圖阿拉城"尊號臺"遺址建築格局及相關問題討論」,『故宮博物院院刊』(2002年 第5期), p. 54.

13 梁振晶 · 杨荣昌 · 沈永宝, 앞의 책(2003), pp. 151~152.

14 故宮博物院考古研究所,「故宮南大庫瓷片埋藏坑發掘簡報」,「故宮博物院院刊」(2016年 第4期), p. 14. 북경고궁박물원은 '明清御窯瓷器—故宮博物院與景德鎮陶瓷考古新成果展(2016)' 특별전시에서 두 편의 크락자기 파편을 전시하였다.



도 9. 청화개광반잔편(青花開光盤殘片)　　도 10. 청화개광반잔편(青花開光盤殘片) (후면)
북경고궁남대고자기매장갱 출토, 북경고궁박물원 소장. 필자촬영('明清御窯瓷器—故宮博物院與景德鎮陶瓷考古新成果展(2016)')
동일 자편 수록 도록(故宮博物院考古研究所,「故宮南大庫瓷片埋藏坑發掘簡報」,「故宮博物院院刊」(2016年 第4期).

「關於故宮南大庫的思考–歷史意涵, 建置及克拉克瓷相關問題探討」논문은 남대고에서 발견된 크락자기의 발굴 당시 정황을 상세히 연구하였다. 특히 출토 상황에 대한 추가 정보로서 '해당 지역에서 두 점의 크락자기가 더 수집되었다', '한 점은 구연부에 두 개의 개광의 흔적이 보이며 화법이 화과문과 유사하다. 큰 두 개의 개광 사이로 작은 개광이 위치해 있다. 내저면에 시문된 송문의 흔적이 일부 남아있다. 다른 한점은 접시의 파편으로 기벽 부분이다. 내외에 개광이 보이고 내벽의 두 곳에 원점이 있으며 세 개의 긴 기둥이 두 원점 사이에 시문되어 있다(도11).' [15] 한편, 이 논문은 남대고에서 출토된 크락자기 세 점의 연대를 모두 만력 만기로 판단하였다.

도 11. 청화개광반잔편(青花開光盤殘片)
북경고궁남대고 구역 수집, 북경고궁박물원 소장.
필자촬영('明清御窯瓷器—故宮博物院與景德鎮陶瓷考古新成果展(2016)')

이 논문은 '남대고 구역이 청궁자기고(淸宮瓷器庫) 창고가 소재한 지점이었다'는 점, 또한 '상술한 3점의 크락자기가 청궁자기고에 소장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청대 궁정에서 소용된 자기' [16]라는 점을 이미 고증하였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로 만력 만기의 크락자기가 청대궁정에서 출현한 것인가? 이 연구에 따르면, "명 만력 말기 혹은 그 이후, 어요(御窯)가 생산을 점차 멈추던 시기에 민간 요장에서 궁정용 자기를 일부 감당해 내기 시작한다. 당시 궁정에서는 진상 자기의 양식을 이전과 같이 엄격하게 통제 하기 어려웠다. 경덕진 대부분의 요장, 특히 주산의 어요장의 가마를 이용해 소성하는 민간 가마에서는 크락자기를 포함하여 일반 민요 가마의 상품을 궁으로 진상하였다." "청대 궁정자기가 유입된 경로는 경덕진 요장에서 소성되어 진상된 것과 신하들이 직접 진상

15　項坤鵬·趙瑾,「關於故宮南大庫的思考–歷史意涵' 建置及克拉克瓷相關問題探討」,『南方文物』(2018年 第2期), p. 233.

16　項坤鵬·趙瑾, 앞의 책(2018), p. 233.

한 것, 그리고 명궁의 전세자기 등이다. 이러한 각도에서 살펴볼 때, 상술한 크락자기 상품은 명궁으로 유입되었다가 청이 명으로부터 입수하여 청궁자기의 일부가 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17] 이 논고의 추론이 합당하다고 하더라도 새로이 발견된 자료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우리는 또다른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 이와 관련해 분석하겠다.

이 외에 주목해야 할 점은 고궁박물원이 소장하고 있는 청궁전세유물 (유물번호 '故瓷' 자기)중에도 크락자기 수 점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18] 고궁에서 출판한 도록에도 1점의 청궁전세유물인 〈청화개광이수화과문대반(青花開光異獸花果紋大盤)〉이 수록되어 있다(도12, 도13). 이 접시의 기고는 9.5cm이고 구경은 50cm, 저경은 32cm이다. '접시 중앙에는 비단무늬의 바탕에 방형 마름모꼴의 개광이 8개 있으며 개광 안에 측백나무와 기이한 짐승을 시문하였다. 내벽에 연판문 형태의 개광을 8개 내고, 개광 안에 화과문을 그려 넣었다. 외벽에 있는 개광 8개에는 영지문(靈芝紋)을 장식했다. 접지면 안쪽은 노태된 상태로 유약을 시유하지 않았다.'[19] 또한 고궁 연구원은 청궁전세유물 중 〈청화개광화과문반(青花開光花果紋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이 반은 반구형 화형의 구연부, 얕은 복부, 짧은 굽을 가졌고, 반의 내저면에는 산석, 소나무, 사슴, 학을 각 1마리씩 시문하였다. 내벽에 있는 8개의 개광 안에는 화과문을, 외벽의 개광에는 변형된 영지문을 그려 넣었다. 고궁 당안(檔案)에 이 반의 연대는 만력시기로 기록되어 있다."[20] 이러한 청궁전세유물은 크락자기가 청궁에서도 사용되었음과 동시에 특수한 사례가 아니었음을 알려준다.

도 12. 청화개광이수화과문대반(青花開光異獸花果紋大盤) 도 13. 청화개광이수화과문대반(青花開光異獸花果紋大盤) (저부)
청궁전세유물 북경고궁박물원 소장. 故宮博物院編,「故宮陶瓷館」下冊(北京:紫禁城出版社, 2008年), 圖273.

17 項坤鵬 · 趙瑾, 앞의 책(2018), p. 233.

18 북경고궁박물원의 왕광야오(王光堯) 연구원은 청궁전세유물 중 여러 점의 크락자기가 있다는 점을 언지해 주어 필자가 고궁 출판 도록 중 도판자료를 찾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특별히 감사의 뜻을 전한다.

19 故宮博物院編, 『故宮陶瓷館』下冊(北京:紫禁城出版社, 2008年), 圖27.

20 項坤鵬 · 趙瑾, 앞의 책(2018), p. 233.

3. 명청 광동 승선포정사사서 출토

명청시기 광동(廣東)의 승선포정사사서(承宣布政使司署)는 광저우(廣州) 남월왕묘(南越王宮) 유적 일대에 위치해 있다. 남월왕묘 유적 발굴 시에 청화개광쌍노문반(青花開光雙鹿紋盤) 등 크락자기가 발견되었다(도14).[21] 이러한 사슴 한 쌍이 그려진 접시는 '만력호(萬曆號)' 침몰선에서 출수된 예(도15)가 많으며 연대는 만력 말기이다.

도 14. 청화개광쌍녹문반(青花開光雙鹿紋盤)
명청 광동 승선포정사사서 출토.
광주 남월왕궁박물관 소장.
필자촬영

도 15. 청화개광쌍녹문반(青花開光雙鹿紋盤)
'萬曆號' 침몰선 출수.
Sten Sjostrand & Sharipah Lok, Lok Syed Idrus, *The Wanli shipwreck and its ceramics cargo*, Maylaysia: Department of Museums Malaysia, (2007), p.208.

4. 태원 진왕부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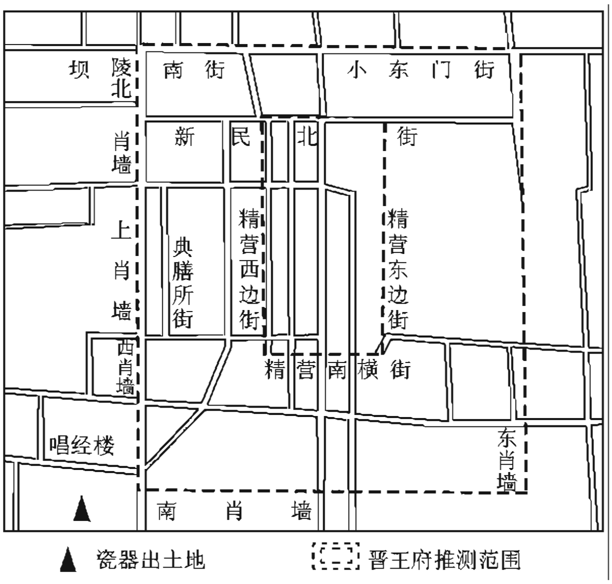
2012년 8월 산서성 태원시(太原市) 식품가(食品街) 개조 건축 공지에서 원명청(元明清)자기 편들이 대량으로 출토되었다. 이곳은 명대 진왕부(晋王府)의 유적으로 외성에서 서남쪽으로 약 15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다(도16). 채집된 자기 중 '진부궁용(晋府宮用)', '전선소조(典膳所造)', '내선소조(內膳所造)' 등의 관지를 가진 자기들이 다량 출토되었으며, 모두 명대 진왕부와 관련 있는 것들이다. 왕부에서 사용된 9점의 자기 중 〈청화팔개광녹문배(青花八開光鹿紋杯)〉 1점이 발견되었다(도17). 이 화형배는 지금까지 발견된 반을 제외하고 중국 국내에서 출토된 두 번째 크락자기의 기종이다.[22]

---

21 필자는 2008년 여름 광저우시 고고학연구소에서 남월왕궁 유적에서 출토된 명청 자기를 고찰하는 과정에서 크락자기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당시에는 유적의 성격이 명청 광동의 선의포정사 유적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나 2017년 여름 남월왕궁박물관을 참관하던 중 임시 전시실에서 출토된 크락자기 접시와 명청 광동 선의포정사 유적에 대한 설명을 보게 되었다. 그러므로 명청 광동 선의포정사 유적에서 출토된 크락자기는 전시되어 있는 이 한 점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 두고자 한다.

22 曹俊, 「太原食品街出土明代晋府瓷器及相關問題探討」, 『考古與文物』(2019年 第4期), p. 121, 125.

이 화형배는 구경 9.3cm, 저경 4.5cm, 높이 5.0cm로 외벽에 있는 8개의 개광에 사슴문이 시문되었다. 개광 안에 사슴 문양이 시문된 잔은 크락자기의 대표적인 기종으로서 샌디에고(San Diego) 침몰선에서 출수된 수량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 화형배가 수출자기인 일반적인 녹문배 잔과 다른 점은 '내저면에 정면을 바라보는 용문이 시문되어 있고, 갈기가 양쪽으로 갈라졌으며 가는 몸에 오조(五爪)이다. 운문이 용문 주변에 둘러싸고 있으며 문양이 바람에 날리는 리본 같다.'[23]는 점이다. 용문은 다른 번왕(藩王)들이 사용한 자기에 시문



도 16. 자기 출토지와 진왕부 유적 위치 관계도.
曹俊, 「太原食品街出土明代晋府瓷器及相关问题探讨」, 「考古與文物」(2019年 第4期), 圖1

도 17. 청화팔개광녹문배(青花八開光鹿紋杯)
태원 진왕부 출토. 曹俊, 「太原食品街出土明代晋府瓷器及相关问题探讨」, 「考古與文物」(2019年 第4期), 圖2

23 曹俊, 앞의 책 (2019), p. 121, 125.

된 장식과 유사하다. 외벽에 청화로 원권문(圓圈紋)을 두 번 두르고 해서체의 '진부궁용(晉府宮用)' 관지가 쓰여 있다. 이를 통해 진왕부(晉王府)에서 경덕진에 주문 제작한 자기임을 알 수 있다. 기벽에는 수리해 못을 박은 흔적이 보이는데, 이는 일상용기로서 사용되었음을 알려주는 명확한 표지다. 이 또한 진왕부 출토 자기와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표면에 대개 못으로 수리한 흔적인 국정흔(鋦釘痕)이 남아 있다. 이를 통해 왕부에서 이 자기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파손 후에도 수리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다.

5. 강서 명대 회왕부 유적

도 18. 청화크락자대반 잔편(青花克拉克瓷大盤殘片)
江西省文物考古研究院,「明代淮王府遺址出土瓷器」(江西省文物考古研究院, 北京:科學出版社, 2020), p. 153.

명대 회왕부(淮王府) 유적은 강서성 파양현(鄱陽縣) 파양진(鄱陽鎮) 요주부(饒州府) 문묘(文廟)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2012년 7월부터 2013년 1월까지 강서성 문물고고연구소가 이 유적에 대한 고고탐사와 발굴을 진행하였고, 정식 발굴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이루어졌다. 발굴 유적 내에서는 청화 크락자기 대반 잔편(大盤)이 다수 출토되었다(도18).[24]

Ⅳ. 전세품 중 특수 작품 : 관요 관지의 크락자기

이미 발표된 자료 중 일본 고베시립박물관(神戸市立博物館) 소장품은 매우 특수한 사례이다(도 19, 도 20, 도 21).[25] 이 도자들은 청화발색이 매우 선명하며 마우라 리날디(Maura Rinaldi)가 분

24 江西省文物考古研究院,『明代淮王府遺址出土瓷器』(江西省文物考古研究院, 北京:科學出版社, 2020.10.)

25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의 코바야시 히토시(小林仁) 선생과 고베시립박물관의 나카야마 소타(中山創太) 선생의 도움으로 필자는 2017년 이 실물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류한 크락자기의 분류 중 제 Ⅷ식의 반이다.[26] 반 중심부에 마름모꼴 개광을 그려 넣었고 그 안에는 기러기와 금조(禽鳥), 산수, 화훼를 시문하였다. 접시의 구연부를 따라서 원형 개광 10개가 둘러져 있으며 내면에 화훼와 칠보가 번갈아 등장한다. 이 기물의 가장 큰 특징은 저부에 청화로 두 선의 원권문을 두르고 '대명만력년제(大明萬曆年製)' 관지를 새긴 점으로, 이러한 관지는 전형적인 만력 관요의 자기의 관지이다. 이 자기의 관지를 대만고궁박물원 소장품 중 '고자(故瓷)'로 시작하는 유물번호를 가진 청궁전세유물과 비교하여도, 굉장히 유사한 양식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도22). 이 기물의 저부 관지에 주목한 일본 학자 역시 이 관지의 서체가 관요자기와 같다고 보았으나 그럼에도 이 자기를 민요 생산품으로 판단했다.[27]

도 19. '대명만력년제' 관 청화수금문개광반('大明萬曆年製' 款青花水禽紋開光盤)
일본 고베시립박물관 소장. 일본 고베시립박물관 제공.

도 20. '대명만력년제' 관 청화수금문반('大明萬曆年製' 款青花水禽紋盤) (저부)

도 21. '대명만력년제' 관 청화수금문반('大明萬曆年製' 款青花水禽紋盤) 관지
일본 고베시립박물관 소장. 일본 고베시립박물관 제공.

도 22. 만력청화시녀사예완(萬曆青花仕女四藝碗) (故瓷3953)
대만고궁박물원 소장

26 Maura Rinaldi, Kraak Porcelain- A Moment in the History of Trade, London: Bamboo Publishing Ltd, (1989).

27 西田宏子・出川哲朗, 『明末清初の民窯』(東京:平凡社, 1997), 彩圖15.

그렇다면, 이 자기를 관요 생산품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 이 자기의 접지면에 모래가 붙어있으며, 굽 바닥에는 기공과 함께 칼로 굽 안쪽을 깎은 흔적, 즉 도도흔(跳刀痕)도 남아있다. 이는 만력 민요 자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작 기법으로서 관요 자기의 품질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기공은 전형적인 만력 관요 자기에서도 보이는 것으로 경덕진도자관 소장의 〈만력청화용봉문개합(萬曆青花龍鳳紋蓋盒)〉의 굽에서도 선명한 기공이 관찰된다(도23, 도24). 그러므로 기공의 유무가 민요 자기의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도 23. 만력청화용봉문개합(萬曆青花龍鳳紋蓋盒)
경덕진도자관 소장. 源,「江西藏瓷全集」明代(下)(北京: 朝华出版社, 2008), p.216.

도 24. 만력청화용봉문개합(萬曆青花龍鳳紋蓋盒) (저부)

주목해야 할 점은 2004년 경덕진 어요창 주산 남록(南麓) 유적 중 명대 중후기 가마를 발굴할 당시에 대량의 크락자기 잔편이 출토되었다는 사실이다. 출토된 기종은 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대표적으로 〈청화개광화훼문반(青花開光花卉紋盤)〉이 있으며, 그 기형은 고궁 출토품과 일치한다(도25, 도26).[28] 지금까지의 관점은 이러한 발굴품을 민요 자기 생산품으로 여겼으며, 만력 후기 관요의 생

도 25. 청화개광화훼문반(青花開光花卉紋盤)
경덕진어요창 출토. 江建新,「景德鎮考古發現的克拉克瓷」,
鄭培凱主編「陶瓷下西洋:早期中葡貿易中的外銷瓷」
(香港:香港城市大學中國文化中心, 2010), p. 41, 圖4.

도 26. 청화개광화훼문반(青花開光花卉紋盤) (저부)

28 江建新,「景德鎮考古發現的克拉克瓷」, 鄭培凱主編,「陶瓷下西洋:早期中葡貿易中的外銷瓷」(香港:香港城市大學中國文化中心, 2010), pp. 37~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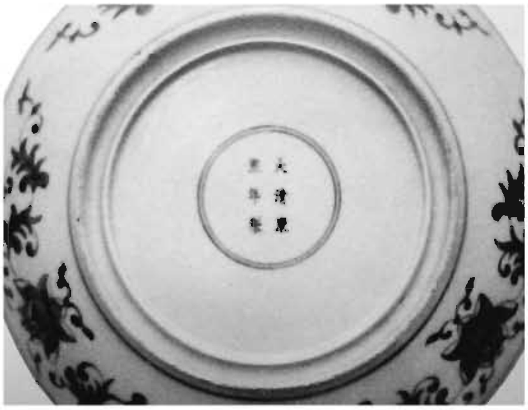
산이 멈춘 후 민요 가마가 어요창의 가마에서 소성을 진행했거나, 혹은 민요 가마의 요업 폐기품을 어요창 폐기갱에 가져와 버린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만력 관요 관지를 가진 이 크락자기들을 고궁 남대고 출토품과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어요창 출토 크락자기의 성격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는 의문이 끊임없이 든다. 과연 관요 자기 생산품일 가능성이 전혀 존재하지는 않는 것인가?

고베시립박물관 학예원 나카야마 소타(中山創太)가 소개하는 유물소장내력에 따르면, 이는 박물관에서 구입한 후 소장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일본 학자 미스기 타카토시(三杉隆敏)는 그의 저서에서 '일본에서 소장 역사가 가장 이른 부용수(芙蓉手, 필자 주: 크락자기) 청화자기는 사카노 키요(阪野清夫) 선생의 소장품부터로, '대명만력년제(大明萬曆年製)' 명문이 새겨져 있는 자기였다. 그러나 그는 일찍이 자신의 개인 소장품을 모두 고베시립박물관에 기증하였다' 고 전한다.[29] 미스기 타카토시의 설명이 틀리지 않았다면 이 자기는 사카노 키요의 개인 소장품이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사카노 키요가 이 소장품을 어떠한 내력으로 소장하게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만약 이 자기가 관요 생산 자기라면 또 어떠한 내력을 거쳐 해외인 일본으로 유입되었는지 역시 풀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런데 이것이 민요 생산 크락자기라면 어떻게 관요 관지가 출현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만력 시기 경덕진 관요에서 시행했던 '관탑민소(官搭民燒)' 제도 하에, 관요와 민요 사이의 교류가 있었으며, 이 때문에 민요 도공이 관요의 관지를 의도적으로 모방하여 새긴 것일까? 혹은 이 자기가 번왕이 주문 제작한 번왕부 소용 자기이기 때문에 관요 관지를 쓴 것인가? 앞서 살펴본 진왕부 출토 '진왕궁용' 관지의 크락자기 완이나 강서 익선왕묘 출토 크락자기 모두 번왕 주문 제작 자기이기에 관요 관지를 남겼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고베시립박물관의 이 만력 관요 관지의 크락자기가 관요 생산 자기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면 강희 관요 생산 자기로 판정된 싱가포르 소장 '대청강희년제(大清康熙年製)' 관지의 크락자기를 살펴 볼 수 있다(도27, 도28).[30]

도 27. 강희청화화조문개광반(康熙青花花鳥紋開光盤)
Tiepolo (David Mun), Singapore



도 28. 강희청화화조문개광반(康熙青花花鳥紋開光盤) (저부) '대청강희년제(大清康熙年製)' 관지
Maura Rinaldi, Kraak Porcelain- A Moment in the History of Trade, London: Bamboo Publishing Ltd. (1989), pl.294, p.232.

29 三杉隆敏,「陶瓷:連接文明的泥土」(北京: 北京燕山出版社有限公司, 2020), p. 121.

30 Maura Rinaldi, 앞의 책(1989), p. 232.

이 〈청화화조문반(青花花鳥紋盤)〉은 개인 소장품으로 마우라 리날디의 제 Ⅶ식 반으로 분류가 가능한 전형적인 크락자기이다. 접시 내부에 8개로 나뉘어진 마름모형 개광에 화조문과 산석(山石)이 시문되어 있고, 접시의 측벽에는 8개의 큰 개광과 작은 개광이 차례로 배치되어 있으며 큰 개광에는 팔보문과 화훼문이 시문되어 있다. 접시 내벽 문양은 만력시기 생산품을 거의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도29). 그러나 기물 외벽의 문양은 이전의 크락자기와 다르게 3개의 연화 절지문양으로 나뉘어져 있다. 전형적인 강희 시기의 '이층대(二層臺)' 굽 안에 두 개의 원권문이 둘러져 있고, 그 안에 '대청강희년제(大清康熙年製)' 관요 관지가 있다. 이는 강희 관요가 크락자기를 모방한 독특한 예로서, 필자는 아래 결론 부분에서 본고에서 언급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이 자기에 대해 좀 더 상세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도 29. 만력청화화조문개광반(萬曆青花花鳥紋開光盤), '만력호' 침몰선 출수.
Sten Sjostrand & Sharipah Lok, Lok Syed Idrus, The Wanli shipwreck and its ceramics cargo, Maylaysia: Department of Museums Malaysia, (2007), p.200.

Ⅴ. 국내 소비시장에 대한 재고찰

지금까지 중국 국내 묘장 및 유적 출토 자료는 물론, 전세품 중 특수한 작품을 포함해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로 수출상품으로 제작된 크락자기가 실제 명대 만력에서 청대 강희년간에 이르기까지 중국 국내에서 유통 및 소비되었고 이는 단순히 수출용 자기의 낙선품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다가 잔편으로 남은 것만은 아니라는 명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비록 중국 국내에서 소비된 이러한 상품의 비율이 국외로 수출된 자기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지만, 일정 수량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중국 내에 현존하는 크락자기는 발굴 성과 이외에도 일정 수량의 크락자기를 민간에서 개별적으로 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고궁박물원 차이메이편(蔡玫芬) 연구원에 따르면 '경바오창(耿寶昌) 선생이 젊은 시절 유리창에서 층층이 쌓여있는 크락자기 완과 반을 보았다고 여러 번 언급했다' 며 경바오창 선생이 이러한 접시들의 성격을 본래 중국 국내 시장으로 공급하던 것으로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했다.[31] 경바오창 선생은 북경고궁박물원의 원로 연구원으로 중국 고도자 감정의 권위자이다. 또 1922년 출생하여 1949년까지 북경 유리창의 골동가게에서도 종사했던 이력이 있기에 그가 실제 보고 판단했다는 사실은 상당히 믿을 만한 정보이다.

31 이는 차이메이편(蔡玫芬)연구원이 2020년 7월 11일 필자의 이메일에 준 답신이다. 지면을 빌어 감사를 표한다.

그 외에도 1992년 중국고도자연구회(中國古陶瓷研究會) 연례발표회에서 북경의 후옌시(胡雁溪) 선생이 발표한 논문「介紹幾件紋飾別緻的明末淸初外銷瓷盤」에서 '광창에서 출토된 10 여 점의 수출자기 접시 자료가 발표된 이래로, 크락자기의 내수문제가 국내외 학자들의 주목을 끌었으며, 필자가 본 바로는 근 2년 간 강서성에서 출토된 이러한 청화자기 반이 수백 여 점에 달하므로, 이는 광창 출토 청화자기가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고 언급하였다.[32] 후옌시 선생은 해당 연도에 민간에서 적지 않은 크락자기를 수집했으며 32점에 달하는 크락자기 접시를 『明代民窯靑花瓷大觀』도록으로 엮어 출간하였는데 품질이 우수하고 결손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33]

이러한 내수시장의 소비 대상을 살펴보면, 실제 사용 계층은 평민과 문인, 포정사와 같은 지방고관에서 번왕, 궁정에까지 이른다.[34] 사용 목적을 살펴보면, 이 기물들은 일상 생활용기로 쓰였고, 상례에 사용되었으며, 묘지나 수반(壽盤)으로 분묘에 부장되거나 제기로도 사용 되었다(도 30).[35]

주목해야 할 점은 출토 유구의 성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알려진 크락자기 출토 유적들은 관사(포정사사서)나 번왕부, 후금(後金)의 도성, 명청(明淸)의 자금성 등 비교적 높은 신분이었다는 점이다. 또한 자기의 품질 자체도 비교적 우수해서 이러한 자기가 중국 국내 상층 향유층에게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당연히 명말청초(明末淸初) 사용자들이 당대의 신(新) 품종인 크락자기를 어떻게 보았는지 확신할 수 없으며, 여러 개의 개광을 낸 크락자기를 특수한 유형으로 구분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표명할 증거가 없다.

도 30. 청화녹문개광자반(靑花鹿紋開光瓷盤)
개인소장. 陳立立, 「克拉克瓷盤與葬俗, 『民俗研究』(2004 年 第 4 期), p. 98, 圖 6.

다만 이러한 소비 현상 중에서 가장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은 자금성에서 출토된 크락자기와 청궁전세유물 크락자기, 관요 관지를 가진 특수한 자기들이다.

자금성에서 출토된 크락자기와 청궁전세유물 크락자기의 출토지와 소장지가 모두 궁정이기는 하지만, 황제와 황후 등이 사용한 어용자기인지 궁중의 기타 하급 계층에게 사용되

---

32 姚澄淸 · 姚連紅, 「江西研究克拉克瓷的新進展—三談江西紀年墓出土的芙蓉手」, 『景德鎭陶錄』(1999年 第二期), p. 36. 재인용

33 胡雁溪, 『明代民窯靑花瓷大觀』(北京:團結出版社, 1993 年).

34 강서성 광창(廣昌)출토 크락자기는 명대 숭정(崇禎) 4년묘에서 출토되었으며 묘주는 만력을유년(萬曆乙卯)에 과거를 보아 증5품(贈五品) 유림랑(儒林郎)을 지냈다. 참고: 孫敬民, 「江西廣昌發現明代崇禎紀年墓」, 『南方文物』(1990), p. 69.

35 개인소장 사슴 문양의 크락자기 접시 중 저부에 '인화세서제기(仁和世徐祭器)' 명이 있다. 참고: 陳立立, 「克拉克瓷盤與葬俗, 『民俗研究』(2004 年 第 4 期), p. 98.

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후세에 진상품으로서 궁중에 유입된 것인지(어요 생산 자기가 아닐 가능성) 등의 가능성이 있어, 궁중에 남아있던 크락자기의 성격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고궁 남대고(南大庫) 발굴보고서에서는 '본 고궁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명대 만기 크락자기 양식을 가진 잔편들이 대량의 창고 내 어요 자기와 동반 출토되었다'[36]고 밝히고 있다. 만약 이러한 설명에 오류가 없다면 동반 출토물이라는 점을 근거로 필자는 남대고에서 출토된 이 두 편의 크락자기가 관요 생산 자기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일전에 발표된 청궁전세유적 출토 크락 반은 저부에 시유가 되지 않았으며 관요 관지도 없어 관요 생산 자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 외에 자금성 출토와 청궁전세유적 크락자기가 관요 생산 자기인지에 대한 문제는 경덕진 어요창 유적 출토 크락자기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와 관련되어 있다. 기존 크락자기에 대한 인식은 민요 생산 자기라는 기초에 있었으므로 어요창 요지 출토 크락자기의 판별에 대해서 민요의 요업 폐기물을 이곳에 폐기한 것으로 여기거나 명대 만력 이후 시기, 관요가 소성을 멈춘 후에 주산 어요창의 가마가 민요 공방지로 변모하여 관요의 제작 공방을 다시 사용하여 생산했을 것으로 여겨왔다. 필자는 두 번째 추측에 대해서는 특히나 찬동하지 않는 입장인데, 이는 명말 경덕진 어요창이 민요로 개조되었다는 문헌 기록을 찾을 수 없을 뿐더러 개조가 가능한지도 의문이기 때문이다. 만약 남대고에서 출토된 이 두 편의 크락자기가 관요이고, 고베시립박물관의 만력 관요 관지 접시 역시 관요 생산 자기일 경우, 이들은 어요창에서 생산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경덕진 어요창 유적에서 출토된 크락자기의 성격 또한 전면적으로 재검토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청궁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자기들을 입수한 것일까? 이미 위에서 소개한 학자는 청대궁정에서 명조(明朝)에서 사용하던 자기가 전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명대 궁정에서 이 자기들을 실제 사용했다면, 고베시립박물관의 만력 관요 관지 접시를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자기들이 바로 명 궁정에서 소성한 관요 생산 자기가 아닐까? 다시 말해, 크락자기 중 관요 생산 자기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아직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확언을 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앞에서 언급한 단서들은 이런 추측을 멈출 수 없게 한다. 명 왕실로부터 자기들을 이어받았다는 경로를 제외하고도, 누르하치가 세운 제 1 도성 혁도아랍성에서 출토된 크락자기를 주목할 수 있는데, 이는 고궁 남대로 출토 자기와 기형도 유사하다. 그렇다면 청 궁중 크락자기의 또 다른 유입 경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즉 청궁의 가장 이른 시기 크락자기가 후금 정권을 위해 외부에서 직접 청궁으로 유입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후금 정권이 세워진 직후인 초기의 만청(滿淸)은 이미 크락자기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희년간에 경덕진 어요창으로 하여금 방제를 주문하고 '대청강희년제(大淸康熙年製)' 관지의 관요 자기를 생산한 것이다. 혁도아랍성의 크락자기는 후금 정권에서 또 어떻게 획득한 것인가?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은 물론 상품으로서 유통하여 획득한 방식이지만, 이미 학자들은 혁도아랍성 유적에서 만명(晩明) 시기의 자기 중 '대명만력년제(大明萬曆年製)' 관지의 〈청화해마영락문 (靑花海馬纓絡紋) 항아리〉와 〈정덕청화운문개광회문 (正德靑

36 故宫博物院考古研究所, 「故宫南大库瓷片埋藏坑发掘简报」, 『故宫博物院院刊』(2016年 04期), p. 24.

花雲紋開光迴文) 병〉 등의 어요 자기들이 명조에서 보낸 상례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후금 정권 건립 직후 누르하치와 명조가 전통적인 번속(藩屬) 관계를 지속하면서 공물이 오고가고 명조의 상례품이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이다.[37] 그렇다면 동반 출토된 크락자기는 명조의 상례품일 가능성이 없는가? 진왕부와 익왕부 등 크락자기를 사용했던 번왕부의 자기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품질로 보이는 이유 역시 상례품이었을 가능성 때문은 아닌가? 만약 이러한 추측이 맞다면 크락자기는 내수용의 큰 틀에서 상례품으로서의 기능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Ⅵ. 그 외의 논쟁점: 개광 형식의 유래와 그 과도기

크락자기 연구에서 학자들은 크락자기의 전형성을 드러내는 개광 장식에 주목해 오면서 개광 양식이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한 토론을 이어왔다. 이러한 양식의 변화와 변이 과정이 과연 중국 본토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문화적인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중국과 외래의 도자 장식 전통이 융합되어 나타난 결과인지가 쟁점이 되어왔다.

지금까지도 꾸준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많은 학자들의 의견은 전형적인 크락자기 양식이 이슬람 도기의 영향에서 비롯되었다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기물을 자세하게 관찰해 볼 때 우리는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크락자기의 개광 양식 형성에 대한 토론에 도움을 준다. 먼저 아래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네덜란드 그로닝거(Groninger) 박물관 소장 〈청화화조문반(青花花鳥紋盤)〉은 굉장히 특수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도31, 도32). 접시의 내외벽은 화조문이 둘러져 장식되어 각 도안을 연결하

도 31. 청화화조문반(青花花鳥紋盤)
네덜란드 그로닝거박물관 소장. 필자촬영.

도 32. 청화화조문반(青花花鳥紋盤) (저부)
네덜란드 그로닝거박물관 소장. Maura Rinaldi, Kraak Porcelain- A Moment in the History of Trade, London: Bamboo Publishing Ltd, (1989), p.86, pl.66.

37 王霞, 「關於赫圖阿拉城址出土明代瓷器的思考」, 『南方文物』(2011年 第2期), p. 146~147.

며, 직선을 통해 10개의 개광이 나누어져 있다. 이러한 형식은 마우라 리날디의 제 Ⅳ식 반에 속한다. 이 기물에서 우리는 제 Ⅱ식 반(반 내벽 구연부에 개광 없이 문양을 장식하는 형식)이 점차 제 Ⅳ식(반의 내저면에 중심문양을 그려 넣고 내벽 구연부를 따라서 단선 혹은 윤곽선으로 개광을 연속하여 나누어 그린 형식)으로 변하는 과도기의 형태라는 점을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다.

게다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접시가 유일한 사례가 아니라는 점이다. 완 형태의 기물들 중에서 톱카피 사라이(Topkapi Saray) 박물관 소장 〈청화녹문대완(青花鹿紋大碗)〉은 자기의 외벽에 본래 하나로 연결된 호석녹문도(湖石鹿紋圖)를 시문했는데 그 중간을 직선으로 구획하여 개광을 이루게 되었다(도33). 그 외에도 포르투칼 리스본(Lisbon) 개인 소장품 중 〈청화산수화조대완(青花山水花鳥大碗)〉도 내벽에 화조문이 그려진8개의 개광을 가지고 있지만, 인접한 두 개의 개광 도안은 실제 하나의 연결된 도안이었으며 이는 분격을 이루는 직선에 의해서 두 개의 개광으로 분리되었다(도34).

도 33. 청화녹문대완(青花鹿紋大碗)
톱카피 사라이박물관 소장.
Krahl et al, *Chinese Ceramics In the Topkapi Saray Museum Istanbul II*, London: Philip Wilson Publishers, (2001). p.748, pl.1374.

도 34. 청화산수화조대완(青花山水花鳥大碗)
Casa-Museu Dr.Anastacio Goncalves, Lisbon Maura Rinaldi, *Kraak Porcelain- A Moment In the History of Trade*, London: Bamboo Publishing Ltd, (1989). p.159, pl.195.

군지(軍持) 물병은 그 기형이 비교적 독특한 크락자기 중 하나인데 이 역시 비슷한 상황을 보여준다. 레이디 레버(Lady Lever) 아트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산수인물도장류군지(山水人物圖長流軍持)〉 1점은 본래 하나의 도안인 산수인물도가 직선에 의해 여러 개의 분격으로 개광을 형성하고 있다(도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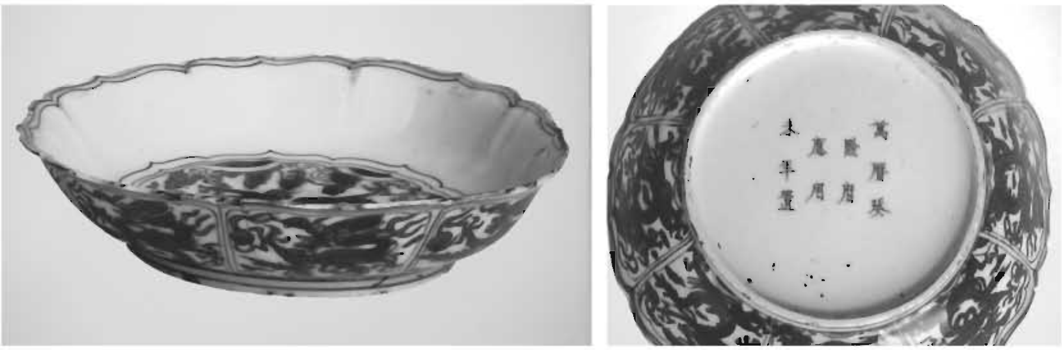
도 35. 산수인물문군지(山水人物紋軍持)
Lady Lever Art Gallery 소장. Maura Rinaldi, Kraak Porcelain- A Moment in the History of Trade, London: Bamboo Publishing Ltd, (1989), p.178, pl.226.

이러한 사례들에서 우리는 크락자기 중 적어도 1종의 전체 도안이 직선에 의해서 나뉜 개광으로 변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고대 자기의 장식에는 개광으로 면을 분할하는 전통 외에도, 문양이 연결된 개광장식도 존재했다. 가령 송대 요주요(耀州窯) 자기에서 보이는 연결된 개광 장식

과 원(元) 청화에서 전형적인 종속문양으로 자리잡은 연판문형 개광 장식들이 있다. 명대 경덕진 자기 중에서도 16세기 중엽의 〈홍록채자완(紅綠彩瓷碗)〉은 두 개의 직선을 이용해 문양을 분할하고 개광으로 구획한 도안을 볼 수 있다(도36). 그 외에도 2점의 만력 기년작인 금왕부(黔王府)에서 사용된 자기에서 기물의 내저면에 개광 장식을 확인할 수 있다. '만력계미년직 금부응용(萬曆癸未年置 黔府應用)' 관지의 〈청화용문반(青花龍紋盤)〉 1점은 외벽에 개광이 연결되어 있으며 내벽에 용문이 시문되어 크락자기의 양식적 특징을 잘 가지고 있다(도37).

도 36. 오채화훼문완(五彩花卉紋碗)
16세기, 길림부여 출토. 王國忠,「扶余出土明代紅綠彩瓷器」(吉林: 吉林美術出版社, 2003), 圖83.



도 37. 청화개광용문반(青花開光龍紋盤), 만력계미년(萬曆癸未年, 1583)
요녕성 요양박물관 소장. 邢愛文主編,「遼陽博物館館藏精品圖集」(遼寧: 遼寧大學出版社, 2009), p. 64.

또 다른 한 점인 '만력정해년조 금부응용(萬曆丁亥年造 黔府應用)' 관지의 〈청화화훼문개관(青花花卉紋蓋罐)〉은 기형의 복부에 3층의 화문을 각기 시문하고 연결된 개광을 조성하였다(도38).[38] 이 두 점의 금왕부 주문 제작 자기를 진왕부와 익선왕묘 출토 크락자기들과 함께 고찰할 때, 명대 번왕 주문 자기가 이러한 연결된 개광 양식을 사용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8 귀주성박물관(貴州省博物館)에 소장된 개광이 연결된 형식의 크락자기에 대해 언지해 준 거옌(葛彦)선생께 감사를 표한다.

도 38. 청화화훼문개관(青花花卉紋蓋罐), 만력정해년(萬曆丁亥年, 1587)
귀주성박물관 소장. 唐黔, 「古窯遺珍 芳華絕代—貴州省博物館藏黔府'青花'蓋罐」, 『文物天地』(2015年 第5期), pp. 44-45.

이러한 연결된 개광 양식은 크락자기 제 Ⅳ식 반의 양식적 특징과 비교적 유사하다. 그러므로 크락자기의 전형적인 개광 양식은 중국 자기의 전통적인 개광 양식의 기초에서 태동되어 기타 요소들이 첨가되어 각기 다른 조합과 개조를 거쳐 마우라 리날디가 정리하고 귀납한 크락자기의 다양한 양식으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하겠다.[39] 이러한 변화의 과정 중에서 경덕진 요장은 국외 시장의 수요를 고려하여 이슬람 도기의 도상 설계 방식을 참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번역: 성고운(푸단대학교)

투고일 2020. 9. 28. | 심사개시일 2020. 10. 31. | 게재 확정일 2020. 11. 30.

39 Maura Rinaldi, 앞의 책(1989), p. 71.

克拉克瓷器的再探讨——以中国国内消费市场为中心

刘朝晖
复旦大学 教授

一. 前言

在开启早期全球化的大航海时代，克拉克瓷器(Kraak ware)成为东西方贸易中的重要商品，在物质文化交流中引发了世界性的影响。长期以来，克拉克瓷器作为典型的外销瓷，研究者对其的研究和讨论都集中在风格特征、沉船发现、海外出土与收藏、贸易线路、东西方陶瓷交流等议题上，而较少考虑这类器物是否具有国内消费的问题。

20世纪80年代，中国的陶瓷研究者注意到江西墓葬中出土的万历时期(1573-1620)特殊类型的外销瓷器，这些青花大盘的内壁盘沿均有八莲瓣形开光，并进行了探讨[1]。其中一件江西南城县明益宣王朱翊鈏(1537-1603)墓出土的瓷盘，此前就有公布，但最初的报告中并不清楚这是外销瓷[2]。当时讨论时并不清楚这类瓷器在西方被称为"克拉克瓷器"，但这一研究开启了当地文物工作者对此类器物的重视。90年代，江西文物工作者陆续发表当地墓葬出土和征集的这类资料[3]，从而引发了陶瓷研究界对国内墓葬出土的克拉克瓷器的关注和讨论[4]。这些器物大多有瑕疵，因此被看成

* 笔者曾就此题，先后在Food, Medicine, Material Culture: Methods and Sources for the Study of History工作坊(复旦大学中华文明国际研究中心，2017年6月23日)和 "明清中国与世界艺术" 国际研讨会(中央美术学院，2019年11月2、3日)发表学术报告，本文系在此基础上完成。

1 薛翘、刘劲峰:《江西出土的明万历外销青花瓷盘》,《江西历史文物》1985年第1期。

2 江西省文物工作队:《江西南城明益宣王朱翊鈏夫妇合葬墓》,《文物》1982年第2期。

3 吴志红:《明外销青花瓷盘介绍》,《江西历史文物》1986年2期。
姚澄清、孙敬民、姚连红:《试谈广昌纪年墓出土的青花瓷盘》,《江西文物》1990年第2期
孙敬民:《江西广昌发现明代崇祯纪年墓》,《江西文物》1990年第4期
江西广昌县博物馆:《明代布政使吴念虚夫妇合葬墓清理简报》,《文物》1993年第2期
姚澄清、姚连红:《江西明万历外销瓷盘的发现》,《南方文物》1996年第4期;
姚澄清、姚连红:《江西研究克拉克瓷的新进展——三谈江西纪年墓出土的"芙蓉手"》,《景德镇陶瓷》第九卷第三期(总第84、85期),1999年。

4 冯先铭、冯小琦:《荷兰东印度公司与中国明清瓷器》,《江西文物》1990年第2期。
Baoping Li(李宝平):Discoveries and interpretation of Ming dynasty export porcelain from tombs in China,《逐波泛海 — 十六至十七世纪中国陶瓷外销与物质文明扩散国际学术研讨会论文集》,香港城市大学中国文化中心,2012年。

是作为外销瓷的残次品而被处理留存在国内。学界基本上还是认为克拉克瓷是专供外销而生产。

在中国国内，除了景德镇观音阁[5]、落马桥、珠山御窑场[6]等窑址考古发现外，克拉克瓷器是否仅在墓葬出土？这类瓷器在中国是否有内销市场？若有，它的消费对象是谁，其消费阶层如何？这些瓷器在国内的使用功能又是什么？本文试图利用最新的考古发现和被忽略的器物资料，重新审视和探讨克拉克瓷器的国内消问题[7]。

二. 江西墓葬出土的克拉克瓷器

正如前面所述，克拉克瓷器在江西南部的南城、广昌、会昌等地墓葬中有出土。这一现象已引发学术界的关注和讨论，目前最为全面的分析当属李宝平博士的专门研究[8]。另外，最近出版的研究图录《明代景德镇民窑纪年青花瓷》，收录有所有江西纪年墓葬中出土的克拉克瓷，提供了迄今为止最为全面的图像资料和相关信息[9]。

江西出土克拉克瓷的墓葬，年代最早为万历元年(1572)，最晚在南明弘光元年(1645)。这些墓主的身份，有藩王，有布政使这样的地方大员，但大部分是平民。出土的克拉克瓷器，质量也有差异。益宣王朱翊鈏墓和明代布政使吴念虚夫妇合葬墓中出土的青花盘质量较高，其他墓葬中出土的瓷盘基本上都有窑裂、烧制变形等明显缺陷。益宣王墓中出土的克拉克瓷盘(图1)，虽

图 1. 青花花鸟开光盘
万历三十一年(1603年)益宣王朱翊鈏墓出土. 江西省博物館藏。
取自江西省博物館編、彭明瀚著《明代景德鎮民窯紀年青花瓷》(》(下),
北京:文物出版社,2018,圖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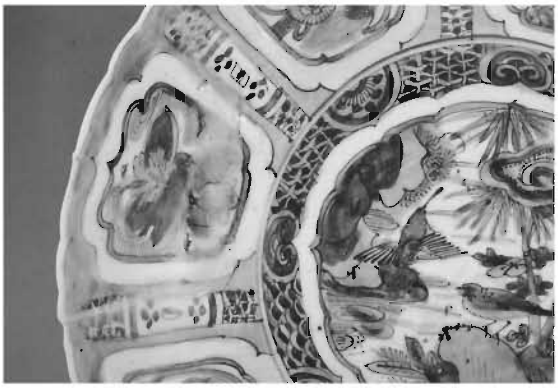


图 2. 青花花鸟开光盘 局部

5 北京大学考古文博学院、江西省文物考古研究所、景德镇市陶瓷考古研究所:《江西景德镇观音阁明代窑址发掘简报》,《文物》2009年第12期。

6 北京大学考古文博学院、江西省文物考古研究所、景德镇市陶瓷考古研究所:《江西景德镇明清御窑遗址发掘简报》,《文物》2007第5期。

7 笔者曾在《克拉克瓷器新论:以出土新资料为中心》(《典藏　古美术》2018年11期)中简单论及内销市场。故宫博物院项坤鹏副研究员在《关于故宫南大库的思考——历史意涵、建置及克拉克瓷相关问题探讨》(《南方文物》2018年第2期)一文中,也关注到这类瓷器在国内的流布和消费情况。

8 Baoping Li(李宝平):Discoveries and interpretation of Ming dynasty export porcelain from tombs in China

9 江西省博物馆编,彭明瀚著:《明代景德镇民窑纪年青花瓷》,北京:文物出版社,2018年。

然总体精细，但口沿可见重新补釉的痕迹（图2），所以研究者推断江西墓葬出土的克拉克瓷器都是外销的残次品。从器形来看，出土的克拉克瓷器均为盘类。明清时期江西地区墓葬中，可见瓷盘枕于死者头部的葬俗，这种盘子被称为寿盘。有学者推测这些残次品是从景德镇运往外销港口的沿途，被拣选处理，廉价卖给当地人用作墓葬的寿盘。

图 3. 青花杂宝纹开光盘
天启元年(1621年)明代布政使吴念虚夫妇合葬墓中出土. 江西省博物館藏。取自江西省博物館編、彭明瀚著《明代景德鎮民窯紀年青花瓷》(下)，北京：文物出版社，2018，頁361，圖61。

值得注意的是，明代布政使吴念虚夫妇合葬墓中出土的两件青花盘，其中一件保存较为完好（图3），器物本身没有任何变形，也不见窑裂，仅口沿残缺一小块。因该墓是被盗掘后才清理，所以这个缺口极有可能是在盗掘时受损的。若此推测无误，那这件盘子在随葬时应该是没有任何瑕疵。同出的另一件青花盘，虽然残破较多，但器物本身也没有任何变形，不见窑裂。估计同样是因盗掘时受损，本身也应该没有瑕疵。由此可见，在江西墓葬中所使用的并非都是残次品，而应该有正品。益宣王墓中随葬的瓷盘，虽然有重新补釉，但仅为小瑕疵，总体质量依然很高。之前学者推断江西墓葬使用的克拉克瓷都是处理后的外销残次品，值得商榷。如果说有正品的克拉克瓷用于国内丧葬，那么克拉克瓷专供外销的观点，就需要重新反思。

在江西墓葬所出土的克拉克瓷盘，除了作为寿盘，还兼作墓志。在瓷盘上刻字当作墓志，也是明清时期江西地区墓葬中的常见现象。许多学者都关注到香港中文大学文物馆收藏的青花花鸟纹盘（图4），即是克拉克瓷盘做墓志的特殊例子，也是目前所知的唯一一例。其底部锥刺墓志：“石城县进贤坊塘背陈公讳期圣，号泮池，生于嘉靖甲寅年八月十一日未时，殁于万历庚申年七月初十日巳时，厥妻温氏，生男五，女莲秀姑。孝男继点、勳、熊、默、党立”（图5），可知这件瓷

图 4. 青花花鸟开光盘
香港中文大学文物馆藏. 港中文大學文物館提供

图 5. 青花花鸟开光盘 底部
香港中文大学文物馆藏. 香港中文大學文物館提供

盘出自江西石城县的墓葬。石城县也位于江西南部，靠近广昌县。墓主人陈期圣于万历庚申年(1620)去世。同样值得注意的是，这件器物品相完好，质量上乘，也再次证明正品的克拉克瓷在江西墓葬中是有使用的。

三. 内销的新线索：国内遗址出土

除以往所知墓葬出土外，近年来克拉克瓷器先后发现在辽宁新宾县赫图阿拉城址、北京故宫南大库瓷器埋藏坑、太原晋王府、明清广东承宣布政使司署等遗址有出土，遗址性质从官署、后金政权都城到藩王府、明清紫禁城皇宫，等级较高，表明这类瓷器作为日用品，供当时统治阶层消费使用。这些遗址出土的克拉克瓷器绝大多数为盘，最新的发现中出现了碗，让我们认识到国内使用的克拉克瓷器类型的多样性。

1、辽宁新宾县赫图阿拉城址出土

1998年，辽宁省文物考古研究所在辽宁新宾县赫图阿拉城城内两处建筑遗址进行考古发掘时，出土有明代瓷器[10]。其中明代晚期瓷器中，至少有三件典型的克拉克瓷器残片(图6、7、8)，均为盘类，分别绘双鹿纹盘、花鸟纹等[11]，年代为万历时期。

图 6. 青花开光盘残片
辽宁新宾县赫图阿拉城址出土

图 7. 青花开光盘残片
辽宁新宾县赫图阿拉城址出土

10 李振品、杨荣昌、沈永宝：《新宾赫图阿拉城内建筑遗址发掘简报》，《辽宁考古文集》，沈阳：辽宁民族出版社，2003年

11 《新宾赫图阿拉城内建筑遗址发掘简报》中提到出土遗物中有"荷塘花鸟折腹大盘"(注：应为大盘)、"双鹿踏青图春盘"，并发表了图片。谢明良教授最先敏锐地发现了这个资料，并在《滲湖发现的十七世纪日本肥前青花瓷》(《故宫文物月刊》303期，2008)一文中指出这是克拉克瓷，介绍了这一发现。王霞女士对赫图阿拉城址出土明代瓷器进行了详细介绍，并进行深入探讨(王霞：《关于赫图阿拉城址出土明代瓷器的思考》，《南方文物》2011年第2期)。

辽宁新宾县赫图阿拉城，是努尔哈赤后金政权的第一个都城。赫图阿拉城1601年开始建造，1603年完成。1619年努尔哈赤建界藩城并以此为都，赫图阿拉不再成为努尔哈赤政权中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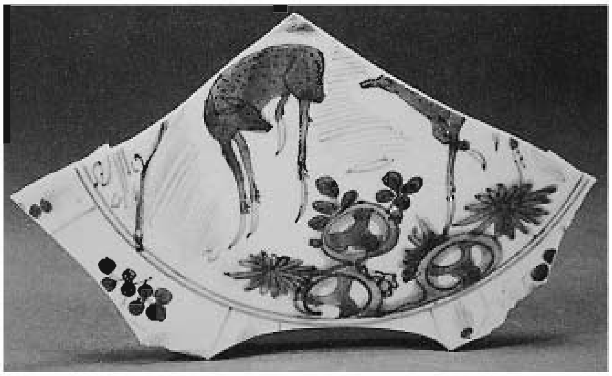


图 8. 青花鹿纹开光盘残片 辽宁新宾县赫图阿拉城址出土
依次取自王霞《關於赫圖阿拉城址出土明代瓷器的思考》，《南方文物》2011 年第2期，圖7，圖11和圖9。

赫图阿拉城城内发掘的两处建筑遗址，结合文献考证，分别为“尊号台”、“驸马府”遗址。“尊号台”是努尔哈赤上尊号的衙门——汗宫大衙门，是城内外最重要的遗址[12]。“驸马府”遗址是城内除“尊号台”遗址外唯一的高台建筑，规格也非比寻常。这两处遗址规格高，发掘者考证其建筑年代在明代晚期，即后金建国之前或建国之初[13]。

赫图阿拉城出土的瓷器，发掘报告分为明代早期、明代中期、明代晚期三大部分。明代晚期的瓷器包括嘉靖和万历两个部分，既有带“大明万历年制”款的官窑瓷器，也有克拉克瓷器和民窑青花。

2、北京故宫南大库瓷器埋藏坑出土

2014年8月，故宫博物院在南大库区域西段消防管道沟内发现了一处瓷器残片堆积，清理出瓷器残片总计有约数万片，年代涵盖明洪武时期至清光绪时期。在明代晚期的青花标本中，值得注意的是出土有一件克拉克大盘残片（图9、10）。“残长13厘米。敞口圆唇，斜直腹。外壁口沿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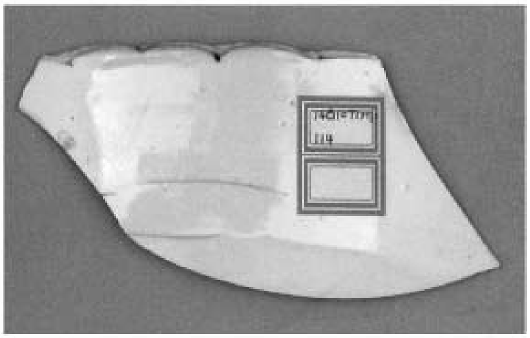


图 9. 青花开光盘残片
北京故宫南大库瓷器埋藏坑出土

图 10. 青花开光盘残片之背面
北京故宫南大库瓷器埋藏坑出土

北京故宫博物院藏。圖9為筆者在北京故宫“明清御窯瓷器——故宫博物院與景德鎮陶瓷考古新成果展”展廳拍攝。圖10取自故宫博物院考古研究所，《故宫南大庫瓷片埋藏坑發掘簡報》，《故宫博物院院刊》2016 年第 4 期，頁22圖54。

12 梁振晶：《赫图阿拉城“尊号台”遗址建筑格局及相关问题讨论》，《故宫博物院院刊》2002年第5期。

13 同10

单线，腹壁绘简单线划图案，内壁绘大莲瓣开光，内绘花草、蜜蜂图样，均为双勾填色，青花晕染用色深、浅搭配。从开光布局、花卉画法、青花发色等特点来看，该盘符合万历时期克拉克瓷器的特点。同样风格的瓷器残片在同一区域其他发掘地点还有出土”[14]。

图 11. 青花开光盘残片 北京故宫南大库区域采集
北京故宫博物院藏。筆者在北京故宫“明清御窯瓷器——故宫博物院與景德鎮陶瓷考古新成果展”展廳拍攝。

《关于故宫南大库的思考——历史意涵、建置及克拉克瓷相关问题探讨》一文对南大库发现克拉克瓷器的相关情况作了详细讨论。对于出土信息有所补充，称“在该区域还采集到两件克拉克瓷残片”，“一件口沿可见两处大开光，似勾绘花果纹，之间夹绘小开光，内腹残留部分松树纹。另一件似为盘腹残片，内外可见开光，其中内壁绘两处圆点，中间夹三条长方柱”[15]（图11）。该文推断南大库出土的这三件克拉克瓷的年代都为万历晚期。

学者已考证，“南大库区域曾是清宫瓷器库库址（之一）所在”。“上述三件克拉克瓷曾经贮藏于清宫瓷库之中，并为清代宫廷所用”[16]。对于为何万历晚期的克拉克瓷，会出现在清代宫廷之中呢？该文提出一个推断：“明万历末期及其以后，在御窑场逐渐停烧之际，民间窑场承担起宫廷用瓷的责任。当时宫廷对所进瓷器样式无法像之前那样严格控制，景德镇诸窑场，尤其是在利用珠山御窑场窑炉进行烧造的民窑，将包括克拉克瓷在内的一众民窑产品输送入宫”。“清代宫廷瓷器来源方式主要包括景德镇窑场烧进、臣属贡进以及继承明代宫廷遗产等。从这个角度来说，上述克拉克瓷产品很有可能是先应需进入明代宫廷，在清克明之后又被接收，从而成为清代宫廷器用的一部分”[17]。这一推论有其合理之处，不过若综合所有新发现的资料，我们还能发现别的可能性，相关讨论将在后文予以解释。

另外，值得关注的是，故宫博物院收藏的清宫旧藏瓷器（故字号瓷器）中，也有数件克拉克瓷器[18]。在故宫出版的图录中就收录一件清宫旧藏的青花开光异兽花果纹大盘（图12、13）。该盘高9.5、口径50、足径32厘米。“盘心锦地八方菱形开光内会柏树、异兽。内壁画八个莲瓣形开光，

14 故宫博物院考古研究所：《故宫南大库瓷片埋藏坑发掘简报》，《故宫博物院院刊》2016年第4期。
故宫博物院在“明清御窑瓷器——故宫博物院与景德镇陶瓷考古新成果展”（2016年）中展出了两块克拉克瓷片。

15 项坤鹏、赵瑾：《关于故宫南大库的思考——历史意涵、建置及克拉克瓷相关问题探讨》，《南方文物》2018年第2期。

16 同上。

17 同上。

18 故宫博物院王光尧研究员曾告知，故宫的清宫旧藏中有好几件克拉克瓷，并且有出版。这一信息促使笔者在故宫出版图录中找到图片资料。特此致谢！

开光内绘花果纹。外壁八组开光内绘灵芝纹。圈足内素胎无釉。”[19] 另外，故宫研究人员还提到一件清宫旧藏的青花开光花果纹盘，“该盘葵形侈口，浅腹，矮圈足，盘心绘山石、松树及一鹿一鸟，内壁绘开光八组，开光内绘花果纹，外壁开光内绘变形灵芝纹。关于该盘的年代，故宫档案记载为万历时期”[20]。这些清宫旧藏，都表明克拉克瓷器曾经在清宫中有使用，而且并非个例。

图 12. 青花开光异兽花果纹大盘
清宫旧藏 北京故宫博物院藏
取自故宫博物院编,《故宮陶瓷館》下冊,北京:紫禁城出版社,2008,頁350,圖二七三

图 13. 青花开光异兽花果纹大盘底部
清宫旧藏 北京故宫博物院藏

3、明清广东承宣布政使司署出土

明清广东承宣布政使司署，位于广州南越王宫署遗址一带。在南越王宫署遗址发掘中，发现有青花开光双鹿纹盘等克拉克瓷器[21]（图14）。这类双鹿纹盘在“万历号”沉船中出水很多（图15），年代应在万历末期。

图 14. 青花开光双鹿纹盘
明清广东承宣布政使司署出土
廣州南越王宮博物館藏
筆者在该馆展廳拍攝

图 15. 青花开光双鹿纹盘. “万历号”沉船出水
取自Sten Sjostrand & Sharipah Lok Lok Syed Idrus,The Wanli shipwreck and its ceramics cargo,Department of Museums,Malaysia,p208.

19 故宫博物院编:《故宫陶瓷馆》下册，图二七三，北京:紫禁城出版社，2008年。

20 项坤鹏、赵瑾:《关于故宫南大库的思考——历史意涵、建置及克拉克瓷相关问题探讨》。

21 笔者2008年夏在广州市考古所对南越王宫署遗址出土明清瓷器的考察中，发现有克拉克瓷。当时尚未意识到该遗址还是明清广东承宣布政使司署所在地。2017年夏在南越王宫博物馆考察时，在临展厅看到出土克拉克瓷盘和明清广东承宣布政使司署的说明。因此，明清广东承宣布政使司署遗址出土的克拉克瓷，肯定不止展出的这一件。

4、太原晋王府出土

2012年8月，山西省太原市食品街改造建设工地出土一批元明清瓷器残片。该地位于明晋王府遗址外城西南约150余米(图16)，采集的瓷器中有一批带有“晋府宫用”、“典膳所造”、“内膳所造”等款识，与明代晋王府相关。在这9件王府用瓷中，发现一件克拉克瓷器，为青花八开光鹿纹杯(图17)。这也是目前为止除盘以外，国内出土克拉克瓷的第二种器型[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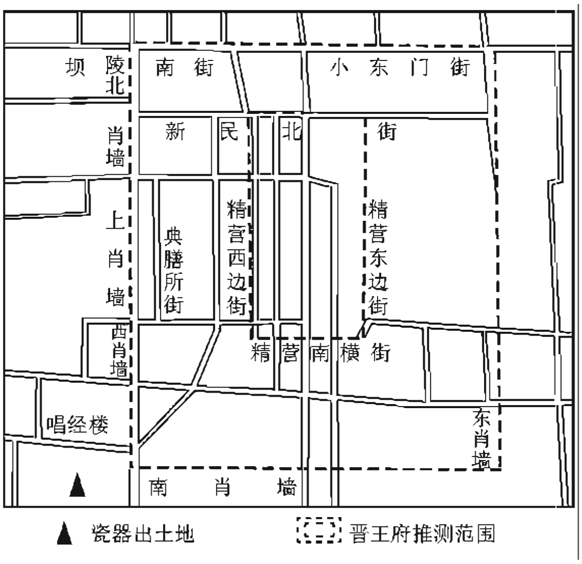


图 16. 瓷器出土地及与晋王府遗址位置关系图
取自曹俊:《太原食品街出土明代晉府瓷器及相關問題探討》,《考古與文物》2019年第 4 期, 圖一。

该花口杯，口径9.3、足径4.5、高5.0厘米。外壁作八开光装饰，开光内绘有鹿纹。开光鹿纹杯为克拉克瓷的典型器

图 17. 青花八开光鹿纹杯. 太原晋王府出土
取自曹俊:《太原食品街出土明代晉府瓷器及相關問題探討》, 圖二。

22 曹俊:《太原食品街出土明代晋府瓷器及相关问题探讨》,《考古与文物》2019年第4期。

型，在圣地亚哥号(San Diego)沉船 出水瓷器中就有不少。这件器物和外销的鹿纹杯不同的是，“内底绘正面龙纹，发束两侧分开，细身，五爪。龙纹周身分布云纹，呈飘带状”[23]。龙纹与其他藩王用瓷上的龙纹比较相似。外底青花双圈，书写“晋府宫用”楷书款，可以得知这是晋王府专门在景德镇订制的。器身曾做过修补，可见锔钉痕，明显是使用过的日用器。这也是这批出土的晋王府瓷器的共同特征，表面皆有锔钉孔痕，说明这些瓷器在王府中是反复使用，即便破损仍会修复利用。

5、江西明代淮王府遗址出土

明代淮王府遗址位于江西省鄱阳县鄱阳镇饶州府文庙周边地区，2012年7月至2013年1月，江西省文物考古研究所对遗址进行了考古勘探与试掘，2013年10月至2014年7月又进行正式发掘。在遗址中出土了数件青花克拉克瓷大盘残片(图18)[24]。

图 18. 青花克拉克瓷大盘残片
取自江西省文物考古研究院编著:《明代淮王府遗址出土瓷器》，页153。

四、传世品中的特别作品:带官窑款的克拉克瓷器

在已发表的资料中，日本神户市立博物馆所藏的“大明万历年制”款水禽纹

克拉克盘是一件非常特殊的作品(图19、20、21)[25]。这件瓷器青花发色鲜艳，属于Maura Rinaldi对克拉克瓷分类中的Ⅷ式盘[26]。盘心菱形开光内绘禽鸟、芦雁、山水、花卉，盘沿十个圆

23 同上

24 江西省文物考古研究院编著:《明代淮王府遗址出土瓷器》，科学出版社，2020年10月。

25 感谢大阪市立东洋陶瓷美术馆小林仁先生和神户市立博物馆中山创太先生的帮助，本人有机会于2017年对实物进行了调查。

26 Maura Rinaldi, Kraak Porcalain- A Moment in the History of Trade, London: Bamboo Publishing Ltd,1989

形开光，里面交替绘画杂宝、花卉。器物最为特别的是底部青花双圈“大明万历年制”款，为典型的万历官窑款。如果用台北故宫博物院故瓷编号(清宫旧藏)的万历官窑瓷器的年款(图22)进行对比，可以看到风格非常接近。之前日本学者也注意到这件瓷器的底款，认为铭文书体和官窑相同，但判断这件器物为民窑制品[27]。

图 19. “大明万历年制”款青花水禽纹
开光盘. 日本神户市立博物馆藏

图 20. “大明万历年制”款青花水禽纹
盘底部. 日本神户市立博物馆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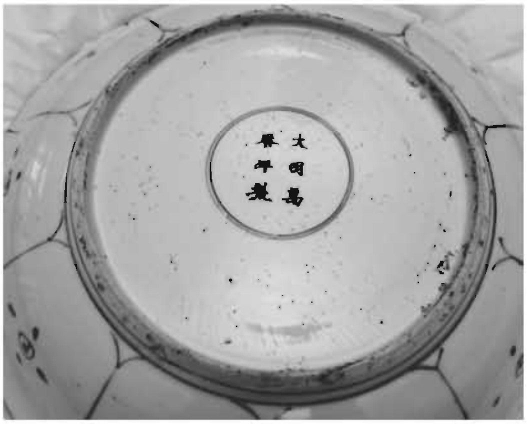


图 21. “大明万历年制”款青花水禽纹
开光盘底款. 开光盘底款

图 22. 万历青花仕女四艺碗
故瓷3953. 台北故宫博物院藏

那么，是否可以认为这件瓷器是官窑作品？从器物本身来看，这件瓷器圈足粘砂，底部有不少缩釉点，并有跳刀痕，这是万历民窑通行的制作工艺，似乎又达不到官窑瓷器的品质。不过，就缩釉点而言，典型的万历官窑瓷器上也可见到。如景德镇陶瓷馆藏的万历青花龙凤纹盖盒(图23、24)，底部就有清晰的缩釉点。因此，缩釉点似乎不能成为判定为民窑的标准。

27 西田宏子、出川哲朗:《明末清初の民窑》，彩图15器物解说，东京:平凡社，1997年。

图 23. 万历青花龙凤纹盖盒
景德镇陶瓷馆藏, 取自《江西藏瓷全集 明代(下)》页216

图 24. 万历青花龙凤纹盖盒底部
景德镇陶瓷馆藏, 取自《江西藏瓷全集 明代(下)》页216

值得关注的是，2004年景德镇御窑厂珠山南麓明中后期窑炉发掘时，曾出土一批克拉克瓷残片，品种主要为盘类[28]，代表性器物有青花开光花卉纹盘(图25、26)，器型与故宫出土的一致。以往的观点会把这批产品的性质看成是民窑，认为这是万历后期官窑停烧之后，民窑在御窑厂原址进行烧造的，或是民窑的窑业垃圾在此倾倒堆积所致。但联系到故宫南大库的考古出土，以及这件带万历官窑款的克拉克瓷器，不禁让我们重新思考御窑厂出土克拉克瓷的性质，是否有官窑生产的可能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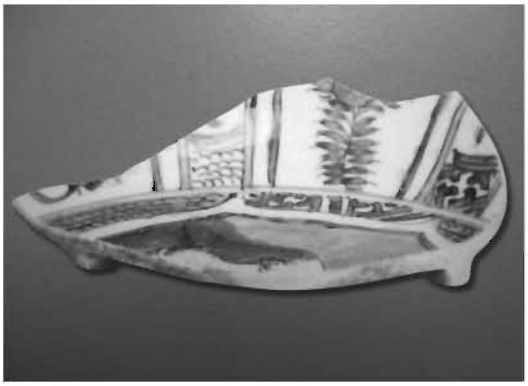


图 25. 青花开光花卉纹盘
景德镇御窑厂出土
景德鎮陶瓷考古所藏。取自江建新,《景德鎮考古發現的克拉克瓷》,
載鄭培凱主編《陶瓷下西洋:早期中葡貿易中的外銷瓷》,
香港:香港城市大學中國文化中心, 2010 年, 頁41, 圖4。

图 26. 青花开光花卉纹盘底部
景德镇御窑厂出土

28 江建新:《景德镇考古发现的克拉克瓷》，郑培凯主编《陶瓷下西洋:早期中葡贸易中的外销瓷》，页37-38，香港:香港城市大学中国文化中心，2010年。

这件瓷器的来源，据神户市立博物馆学艺员中山创太先生介绍，是该馆购藏的。日本学者三杉隆敏在其著作中有提及:“日本最早收藏芙蓉手青花(笔者注：即克拉克瓷)的是坂野清夫先生，收藏了刻有‘大明万历年制’的瓷器。不过，坂野先生已把自己的私人藏品都捐赠给了神户市立博物馆”[29]。如果该说无误，那这件瓷器应该就是坂野先生的旧藏。不过我们不清楚坂野先生这件旧藏，又是来自哪里？如果这件瓷器是官窑，它又是如何流入海外，这也是个谜题。

但若只是民窑，那为什么这件克拉克瓷器上会出现官窑款？是因为万历时期景德镇官窑瓷器实行“官搭民烧”，官民窑业之间存在流通，因而有民窑工匠看到官窑写款而刻意模仿？还是因为这件作品是藩王订制的藩府用瓷，所以写官窑款？鉴于晋王府出土“晋府宫用”款克拉克瓷碗，江西益宣王墓也出土克拉克瓷盘，似乎存在这种藩王订制而落官款的可能性。

图 27.康熙青花花鸟纹开光盘
Tiepolo(David Mun), Singapore

图 28. 康熙青花花鸟纹开光盘底部
“大清康熙年制”款, Tiepolo(David Mun), Singapore

取自Maura Rinaldi, Kraak Porcalain- A Moment in the History of Trade, London: Bamboo Publishing Ltd,1989,PL294, p232.

如果说神户市立博物馆这件万历官窑款的克拉克瓷器，仍尚难断定是否为官窑之作，那么另一件收藏于新加坡的“大清康熙年制”款克拉克瓷器(图27、28)[30]，基本可以断定为康熙官窑。

这件青花花鸟纹盘为私人收藏，其形制属于Maura Rinaldi对克拉克瓷分类中的Ⅶ式盘，非常典型的克拉克瓷器。盘内心八瓣菱形开光中绘花鸟山石，盘壁一圈为八个大开光依次间隔小开光，大开光内绘杂宝、花卉。

图 29. 万历青花花鸟纹开光盘 “万历号”沉船出水
取自Sten Sjostrand & Sharipah Lok Lok Syed Idrus, The Wanli shipwreck and its ceramics cargo, Department of Museums, Malaysia, Serial No.2334, p200

29 三杉隆敏:《陶瓷:连接文明的泥土》，北京燕山出版社有限公司，2020年，页121。

30 Maura Rinaldi,Kraak Porcalain- A Moment in the History of Trade,PL294, p232.

盘内壁的纹饰，几乎是万历时期此类克拉克瓷盘(图29)的翻版。器物外壁纹饰，与之前的克拉克瓷器不同，为三个缠枝西番莲纹。圈足为康熙时期典型的二层台，里面青花双圈“大清康熙年制”官窑款。这应该是康熙官窑对克拉克瓷器的仿制，非常独特。笔者将在下面的结语部分，结合本文中的其他材料，对这件器物再做进一步讨论。

五、国内消费市场的新思考

通过上述国内墓葬和遗址出土资料、传世的特别作品的梳理分析，我们可以明确得出结论，克拉克瓷器这类主要作为外销的产品，从明代万历到清代康熙年间，在中国国内是有流通和消费的，并不是只有残次品落选后留存在国内使用。虽然从数量来看，这类产品在国内的消费远远不及国外，但应该还是有一定的数量。目前我们收集到的国内留存的克拉克瓷器，还仅是正式考古发现的部分，民间散落的其实还有一定数量。承台北故宫博物院蔡玫芬研究员告知，“以前耿(宝昌)先生曾经多次提到，说他年轻时在琉璃厂就看过一叠叠的克拉克瓷大盘大碗， 他也相信这类大盘原也供应国内市场”[31]。耿宝昌先生是北京故宫博物院资深研究员，中国古陶瓷鉴定的权威。他1922年出生，1949年之前在北京琉璃厂古玩店从业，其亲眼所见，应该是可靠的。另外早在1992年中国古陶瓷研究会景德镇年会上，北京胡雁溪先生在提交的论文《介绍几件纹饰别致的明末清初外销瓷盘》中就提到：“广昌出土的十余件外销瓷盘发表以来，克拉克的内销问题已引起海内外学者的关注，仅笔者所见，近二年江西出土这类青花瓷盘就有数百件之多，可见广昌出土的青花瓷绝非偶然”[32]。他本人当年就从民间收集了不少克拉克瓷，发表在其编著的图录《明代民窑青花瓷大观》中，里面典型的克拉克瓷盘达32件，其中大部分是品相完好、没有缺陷的[33]。

图 30. 青花鹿纹开光瓷盘
私人收藏. 取自陳立立:《克拉克瓷盤與葬俗》,《民俗研究》2004 年第4期, 頁98, 图6。

从国内市场的消费对象来看，这类瓷器的使用者既有平民，文人[34]，也有布政使这样的地方高级官员，还有藩王，甚至用于宫廷。

31 蔡玫芬研究员2020年7月11日给笔者的邮件。在此也感谢蔡玫芬老师的赐教！

32 转引自姚澄清、姚连红:《江西研究克拉克瓷的新进展——三谈江西纪年墓出土的“芙蓉手”》，页66。

33 胡雁溪:《明代民窑青花瓷大观》，北京:团结出版社，1993年。

34 江西广昌出土有克拉克瓷盘的明代崇祯四年墓，墓主唐可敬即为明万历乙卯科举人，赠五品儒林郎。参见:孙敬民《江西广昌发现明代崇祯纪年墓》，页69。

从使用功能来考察，这类器物既有日用，又用于丧葬，在墓葬中作为寿盘、墓志而随葬，也被当作祭器(图30)[35]。

值得关注的是，从出土遗址性质看，目前所知出土克拉克瓷器的遗址，等级均较高，为官署(布政使司署)、藩王府、后金都城、明清紫禁城，而且瓷器品质较高，显示这类瓷器被国内上层阶层所接受。当然，我们不清楚明末清初的这些使用者如何来看待这类新品种，也没有证据表明当时人们是否会把这类具有多层次开光装饰的瓷器作为一个特殊类型。

在这些消费现象中，最值得关注的是紫禁城出土和清宫旧藏的克拉克瓷，以及带官窑款的特殊作品。

紫禁城出土和清宫旧藏的克拉克瓷，虽然出土地和收藏地是在宫廷，但使用者是否一定是帝王后妃(作为御用瓷器)，是否存在宫中其他人(低等级)使用的可能性，或者是后世作为进贡品流入宫中(这就会存在非御窑制品的可能性)，使得宫廷中留存的这批克拉克瓷的性质，会比较复杂。故宫南大库简报中称"本次在故宫内发掘出土的明代晚期克拉克风格瓷器残片，与大量原库房内御窑瓷器同出"[36]。如果这个说法无误的话，根据这些伴出物，笔者还是会倾向南大库出土的这两片克拉克瓷有官窑的可能性。已发表的清宫旧藏克拉克盘，底部无釉，也无官窑款。这意味着这件瓷器很可能不是官窑产品。

而紫禁城出土和清宫旧藏的克拉克瓷，是否为官窑产品这一问题，又牵涉到如何看待景德镇御窑厂遗址出土克拉克瓷器的性质。之前因为对克拉克瓷的认识都是基于民窑产品，所以对御窑厂遗址出土克拉克瓷器的判断，或是认为这是作为民窑窑业垃圾倾倒废弃到这里，或是认为明代万历以后官窑停烧，珠山御窑厂旧址成为民窑作坊之地，民窑利用原先的官窑作坊来生产。笔者不太赞同后一种推测，因为没看到明末景德镇御窑厂改做民窑的史料纪录，不清楚是否有这样的可能。若南大库出土的这两片克拉克瓷为官窑，神户市立博物馆的万历官窑款盘如果也是官窑，那应该就在御窑厂生产。如果这样的话，景德镇御窑厂遗址出土克拉克瓷器的性质就需要重新思考。

另外究竟清宫是如何获得这类器物的？之前已提到有学者认为清代宫廷可能从明朝接收这些克拉克瓷。若明代宫廷已使用这些瓷器，那联想到神户市立博物馆的万历官窑款盘，这件瓷器是否可能真的是为明廷烧制的官窑作品？也就是说，克拉克瓷器中是否有官窑作品？我们目前还没有足够的证据来确认，但这些蛛丝马迹又不得不让人去猜想。除了从前朝接收这一可能的途径外，如果我们注意到努尔哈赤建立的第一个都城——赫图阿拉城有出土克拉克瓷，而且和故宫南大库出土的器型相近，那么清宫中的克拉克瓷器很可能有另外一条流入的途径——清宫中最早的克拉克瓷，为后金政权从关外直接带入。正因为在建立后金政权初期，满清即已使用克拉克瓷，所以才会在康熙年间让景德镇御窑厂仿制，烧造"大清康熙年制"款的官窑作品。

35 私人收藏的一件鹿纹盘中，底部有"仁和世徐祭器"款。见陈立立:《克拉克瓷盘与葬俗》,《民俗研究》2004年 第 4 期,页98°

36 故宫博物院考古研究所:《故宫南大库瓷片埋藏坑发掘简报》,页24。

赫图阿拉城的克拉克瓷，后金政权又是如何获得？当然最大的可能性是通过商品流通的方式获得。不过，已有学者指出赫图阿拉城遗址出土的晚明瓷器中，有"大明万历年制"款青花海马缨络纹缸、正德青花云纹开光回文出戟瓶等御窑瓷器，并认为这些御窑瓷器应该是明朝的赏赐品。因为在后金政权建立之前，努尔哈赤和明朝一直保持传统的藩属关系，通过通贡受封而能获得朝廷的赏赐[37]。那么，同出的克拉克瓷是否有可能也是明朝赏赐的礼物？晋王府、益王府等藩府都使用克拉克瓷器，似乎显示出这类瓷器的价值较高，因此存在作为赠礼的可能性。若这个推测无误，那克拉克瓷在国内的使用又多一个功用——作为赏赐的礼物。

六. 余论：开光形式的由来与过渡

在克拉克瓷器研究中，学者们都会关注典型克拉克瓷器的开光装饰，争论这一装饰风格是如何演变而来：究竟是中国本土风格的演化与变异，还是受到外来文化因素的影响，抑或是中外陶瓷装饰传统的一种混杂与融合？

目前学界对此尚有争议，不过很多学者倾向于典型克拉克瓷器的开光装饰风格是受到伊斯兰陶器的影响。

仔细观察器物，我们可以发现一个有趣的现象，有助于讨论克拉克开光装饰的形成。我们先看几个例子：

荷兰Groninger博物馆所藏的青花花鸟纹盘(图31，32)，是个极其特殊的例子。盘的内外壁均饰一圈花鸟纹，为连续的图案，然后再用直线分成十个开光。它被Maura Rinaldi归入Ⅳ式盘。从

图 31. 青花花鸟纹盘
荷兰Groninger博物馆藏，笔者拍摄
取自Maura Rinaldi, Kraak Porcalain- A Moment in the History of Trade, p86, pl.66

图 32. 青花花鸟纹盘底部
荷兰Groninger博物馆藏

37 王霞：《关于赫图阿拉城址出土明代瓷器的思考》，页146-147。

这件器物，我们可以很明显地看到，所谓的Ⅱ式盘(盘内壁边沿一圈纹饰，但没有开光)向Ⅳ式盘(盘中心绘主题纹饰，内壁边沿一般是用单线或双线进行分隔组成连续开光)演变的过渡形态。

而且值得注意的是，这并非孤例。在碗类器物上，Topkapi Saray博物馆藏青花鹿纹大碗(图33)，外壁的湖石鹿纹图原本是相连的，但被简单的竖线分隔成开光图形。另外葡萄牙Lisbon私人收藏的一件青花山水花鸟大碗(图34)，内壁8个花鸟开光，相邻的两个开光图形实际上为一个整体，只是被竖线分隔成两个开光。

图 33. 青花鹿纹大碗
Topkapi Saray博物馆藏
取自*Chinese Ceramics in the Topkapi Saray Museum, Istanbul II* P748,图1374

图 34. 青花山水花鸟大碗
Casa-Museu Dr.Anastacio Goncalves,Lisbon
取自Maura Rinaldi, *Kraak Porcalain-A Moment in the History of Trade.* p159,pl.195

在军持这类造型比较独特的克拉克瓷器中，也有类似的情况。在Lady Lever美术馆中有一件山水人物图长流军持(图35)，外壁的山水人物图原为一整体，被人为地用竖线分隔成开光形状。

从这些事例中，我们可以看到克拉克瓷中，至少有一种是将原为整体的纹饰用竖线分隔后形成开光装饰。

中国古代瓷器装饰有用开光进行分割的传统，而且也有连续的开光装饰。如宋代耀州窑瓷器上即可见到连续开光，元青花上也有连续的莲瓣形开光，作为典型的边饰纹样。明代景德镇瓷器中，16世纪早中期的红绿彩瓷碗(图36)也能看到以双竖线进行分割的连续开光图案。另外，在两件带万历纪年的黔王府用瓷上，我们也发现器身连续开光的装饰。一件为“万历癸未年置 黔府应用”款青花龙纹盘(图37)，外壁为连续开光，内饰龙纹，很具克拉克瓷器装饰风格。另一件“万历丁亥年造 黔府应用”款青花花卉纹盖罐(图38)，罐身三层花纹，也都是由连续开光组

图 35. 山水人物纹军持
Lady Lever Art Gallery
取自Maura Rinaldi,Kraak Porcalain - A Moment in the History of Trade,p178,pl.226

成[38]。由这两件黔王府订制的用瓷，并联系到前文已提及的晋王府、益宣王墓出土的克拉克瓷器，我们可以看到明代藩王订制瓷器对这种连续开光纹饰的采用。

图 36. 五彩花卉纹碗 16世纪
吉林扶余出土. 取自王跃忠《扶余出土明代红绿彩瓷器》图83，吉林美术出版社，2003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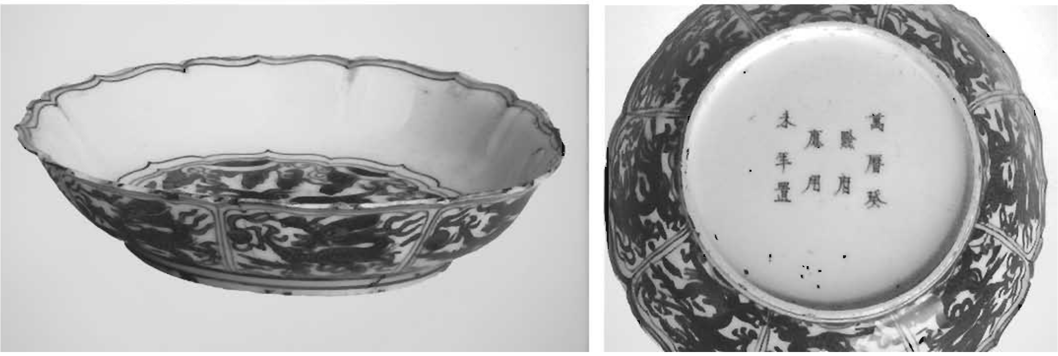


图 37. 青花开光龙纹盘　万历癸未年(1583)
辽宁省辽阳博物馆藏. 采自《辽阳博物馆馆藏精品图集》，辽宁大学出版社，页64，2009年

图 38. 青花花卉纹盖罐　万历丁亥年(1587)
贵州省博物馆藏. 采自《古窑遗珍 芳华绝代——贵州省博物馆藏黔府“青花”盖罐》，《文物天地》2015年第5期，页44、45.

38 感谢葛彦先生提示贵州省博物馆收藏有这件具有连续开光特征的瓷器。

这些连续开光纹饰，与克拉克瓷器Ⅳ式盘的装饰风格比较相似。因此，克拉克瓷器典型的开光装饰，很可能是以中国瓷器传统的开光装饰为基础，再添加其他元素，进行不同的组合与改造，形成Maura Rinaldi所整理归纳的克拉克瓷器的不同样式[39]。在这一变化过程中，景德镇窑场应该有考虑国外市场的需求，并参照、借鉴伊斯兰陶器的构图设计。

39 Maura Rinaldi, *Kraak Porcalain:A Moment in the History of Trade*, London: Bamboo Publishing Ltd, p71,1989

참고문헌

1. 저서

[중문]

江西省博物館編·彭明瀚著, 『明代景德鎮民窯紀年青花瓷』, 北京: 文物出版社, 2018.

江西省文物考古研究院, 『明代淮王府遺址出土瓷器』, 江西省文物考古研究院, 北京: 科學出版社,2020.

故宮博物院編, 『故宮陶瓷館』下冊, 北京: 紫禁城出版社, 2008.

王躍忠, 『扶余出土明代紅綠彩瓷器』, 吉林: 吉林美術出版社, 2003.

邢愛文主編, 『遼陽博物館館藏精品圖集』, 遼寧: 遼寧大學出版社, 2009.

[일문]

西田宏子·出川哲朗, 『明末清初の民窯』, 東京: 平凡社,1997.

[영문]

Maura Rinaldi, *Kraak Porcelain- A Moment in the History of Trade*, London: Bamboo Publishing Ltd, 1989.

Sten Sjostrand & Sharipah Lok, Lok Syed Idrus, The Wanli shipwreck and its ceramics cargo, Maylaysia: Department of Museums Malaysia, 2007.

2. 논문

江建新, 「景德鎮考古發現的克拉克瓷」, 鄭培凱主編 『陶瓷下西洋:早期中葡貿易中的外銷瓷』, 香港: 香港城市大學中國文化中心,2010.

江西廣昌縣博物館, 「明代布政使吳念虛夫婦合葬墓清理簡報」, 『文物』, 1993年 第2期.

江西省文物工作隊, 「江西南城明益宣王朱翊鈏夫婦合葬墓」, 『文物』, 1982年 第2期.

故宮博物院考古研究所, 「故宫南大库瓷片埋藏坑发掘简报」, 『故宮博物院院刊』, 2016年 04期.

唐鹽, 「古窯遺珍 芳華絕代-貴州省博物館藏黔府‘青花’蓋罐」, 『文物天地』, 2015年 第5期.

Baoping Li(李寶平),「Discoveries and interpretation of Ming dynasty export porcelain from tombs in China」, 『逐波泛海-十六至十七世紀中國陶瓷外銷與物質文明擴散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香港: 香港城市大學中國文化中心,2012.

北京大学考古文博学院·江西省文物考古研究所·景德镇市陶瓷考古研究所, 「江西景德镇明清御窑遗址发掘简报」, 『文物』, 2007 年 第 5期.

____________________, 「江西景德鎮觀音閣明代窯址發掘簡報」, 『文物』, 2009年 第12期.

樑振晶, 「赫圖阿拉城“尊號臺”遺址建築格局及相關問題討論」, 『故宮博物院院刊』, 2002年 第5期.

梁振晶·杨荣昌·沈永宝, 「新宾赫图阿拉城内建筑遗址发掘简报」, 『辽宁考古文集』, 沈阳:辽宁民族出版社,2003.

吳志紅, 「明外銷青花瓷盤介紹」, 『江西曆史文物』, 1986年 2期.

王霞, 「關於赫圖阿拉城址出土明代瓷器的思考」, 『南方文物』, 2011年 第2期.
姚澄清·孫敬民·姚連紅, 「試談廣昌紀年墓出土的青花瓷盤」, 『江西文物』, 1990年 第2期.
姚澄清·姚連紅, 「江西明萬曆外銷瓷盤的發現」, 『南方文物』, 1996年 第4期.
______________, 「江西研究克拉克瓷的新進展-三談江西紀年墓出土的“芙蓉手”」, 『景德鎮陶瓷』, 1999年 第九卷 第三期.
劉朝暉, 「克拉克瓷器新論:以出土新資料爲中心」, 『典藏 古美術』, 2018年 11期.
謝明良, 「澎湖發現的十七世紀日本肥前青花瓷」, 『故宮文物月刊』, 2008 年 303期.
薛翹·劉勁峯, 「江西出土的明萬曆外銷青花瓷盤」, 『江西曆史文物』, 1985年 第1期.
孫敬民, 「江西廣昌發現明代崇禎紀年墓」, 『江西文物』, 1990年 第4期.
曹俊, 「太原食品街出土明代晉府瓷器及相關問題探討」, 『考古與文物』, 2019年 第4期.
铁源主編, 『江西藏瓷全集』明代(下), 北京: 朝华出版社, 2008.
馮先銘·馮小琦, 「荷蘭東印度公司與中國明清瓷器」, 『江西文物』, 1990年 第2期.
項坤鵬·趙瑾, 「關於故宮南大庫的思考-歷史意涵、建置及克拉克瓷相關問題探討」, 「南方文物」, 2018年 第2期.

크락자기(Kraak ware) 재고찰
– 중국 내 소비시장을 중심으로 –

류자오후이

이초기 형태의 글로벌화를 개창한 대항해시대, 크락자기(Kraak ware)는 동서 무역의 가장 주요한 상품으로서, 물질문화 교류에 세계적인 영향력을 과시했다. 오랜 기간 동안 크락자기는 가장 대표적인 수출자기로서 인식되었고, 이런 수출자기의 중국 국내 소비라는 문제는 연구자들에 의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 1980년대 이래로, 중국의 도자 연구자들이 강서성(江西省) 묘장에서 출토된 크락자기에 대해 점차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물에 남은 흠집 때문에, 수출자기의 잔류품으로 처리되었던 것이 국내에 남겨졌다고 여겼다. 학계는 대체적으로 여전히 크락자기가 수출 전용자기로 만들어져 생산된 것이라고 믿어 왔다. 중국 국내에서 경덕진(景德鎭) 관음각(觀音閣)과 낙마교(落馬橋), 주산(珠山)의 어요창(御窯場) 등 요장에 대한 고고 발굴성과를 제외하면 크락자기가 발견된 곳은 과연 묘장뿐인가? 내수시장이 존재하지는 않았는가? 만약 존재했다면, 그 소비대상은 누구이고, 소비계층은 어떠했는가? 중국 국내에서는 어떠한 역할로 소비되었는가? 본고는 가장 최신의 고고 발굴 자료를 이용함은 물론,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자료들을 다시 살펴봄으로써, 크락자기의 국내 소비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했다.

먼저, 본고는 강서성 묘장 출토 크락자기를 대상으로 재차 점검을 시도한 결과, 출토된 크락자기 모두가 잔류품은 아니었으며 실제 우수한 품질의 자기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명대(明代) 포정사(布政使) 오염허(吳念虛) 부부 합장묘(合葬墓)에서 출토된 청화크락자기반(靑花克拉克瓷盤)과 같은 경우, 특별한 흠집이 없었다. 홍콩중문대학교 문물관 소장 청화화조문크락자기반(靑花花鳥紋克拉克瓷盤) 역시 품질에 결손이 없었으며 저부에는 묘지문(墓誌文)을 새겼다. 이러한 예들은 우수한 품질의 크락자기가 강서성 묘장에서 사용되었음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크락자기가 수출 전용자기라는 관점은 재고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두번째로, 본고는 가장 최신의 고고 발굴 성과인 요녕성(遼寧省) 신빈현(新賓縣)의 혁도아랍성지(赫圖阿拉城址)와 북경 고궁 남대고(南大庫) 자기 매장갱, 산서성(山西省) 태원(太原)의 진왕부(晉王府), 강서성 파양현(鄱陽縣)의 회왕부(淮王府), 명청(明淸) 광동(廣東) 승선부정사사서(承宣布政使司署) 등의 유적에서 출토된 크락자기 자료들을 정리했고, 출토 기형들의 절대 다수가 반(盤)이며 완(碗)도 일부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유적들은 명대 관아와 번왕부(藩王府), 자금성 황궁 등 유적 자체의 등급이 비교적 높아, 크락자기가 일상품으로서 명대의 상류 계층에 의해 소

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본고는 전세품 중 일부 관요 관지를 가진 크락자기에 주목했다. 일본 고베 시립박물관 소장 수금문크락자기반(水禽紋克拉克瓷盤)은 저부에 '대명만력년제(大明萬曆年製)' 관요 관지가 있는 특수한 자기이다. 또한 싱가폴에 소장되어 있는 청화화조문크락자반(青花花鳥紋克拉克瓷盤)에도 강희 관요 생산 자기로 판단되는 '대청강희년제(大淸康熙年製)' 관지가 쓰여진 자기가 있다. 그 외에도 북경 고궁박물관에 청궁전세유물 중에서도 크락자기가 보인다.

이상의 분석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먼저 명대 만력시기부터 청대 강희연간 사이에, 크락자기는 중국 국내에서 유통되고 소비되었다. 국내의 소비 대상은 평민과 문인, 지방 고관과 번왕에 이른다. 특히 자금성 출토 크락자기와 청궁전세유물 크락자기 및 관요 관지를 가진 특수한 자기들이 주목된다. 이러한 상황은 크락자기가 궁정에서도 실제 사용되었으며 관요자기일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크락자기는 중국 국내에서 일용기로서, 상례 장소에서, 상례품으로서까지 다양한 역할로 소비되었다.

주제어 : 크락자기, 내수소비, 묘장, 유적, 관요 관지

Abstract

A Further Discussion of Kraak Ware: Focusing on the Domestic Market in China

Zhaohui Liu

As a significant commodity traded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during the period of early modern globalization, Kraak ware had a worldwide influence through the exchange of material culture. Long studied as a classic type of export porcelains, the question of whether Kraak ware might have been consumed in the domestic market has long been neglected. Since the 1980s, Chinese researchers have paid increasing attention to the Kraak ware unearthed in tombs in Jiangxi Province. These mostly flawed porcelains were considered damaged goods, left in China for their poor quality. While Kraak ware was still believed to be specifically produced for export, it remains unclear whether these porcelains once circulated within China. In addition to kiln sites such as Guanyinge(觀音閣) and Luomaqiao(落馬橋) and the imperial kiln site at the Zhu Mountain, was any Kraak ware discovered in relics other than tombs? Was there a domestic market? If so, who were its consumer class? What were the functions of these porcelains? Through investigation of the latest archaeological findings and previously overlooked materials, this article reexamines and further discusses the consumption of Kraak ware in the Chinese domestic market from the Wanli period (1573-1620 CE) of the Ming dynasty through to the Kangxi period of the Qing dynasty (1662-1722 CE).

First, this article reexamines Kraak ware unearthed in tombs in Jiangxi Province. Apart from defective products, we find what were indeed porcelains of very fine quality. For instance, the tomb of Wu Nianxu (吳念虛) and his wife contained a refined Kraak porcelain dish. Wu held a high official position as provincial administration commissioner (*buzhengshi* 布政使). Another example is a porcelain dish with Kraak-type underglaze decoration of flowers and birds in the collection at the Art Museum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The tomb inscription was carved on its base. Considering these refined porcelains found in the tombs, the assumption that Kraak ware were only produced for export deserves a second thought.

Next, this article investigates Kraak ware from the most up-to-date archaeological findings at Hetu'ala City in Xinbin County in Liaoning Province, the Southern Storehouse (*nandaku* 南大庫) of the Forbidden City, Jin Princedom (*jinwangfu* 晉王府) in Taiyuan City in Shanxi Province, Huai Princedom (*huaiwangfu* 淮王府) in Boyang County in Jiangxi Province, and the Office of Provincial

Administration Commission (*chengxuan buzhengshi si shu* 承宣布政使司署) during the Ming and Qing dynasties in Guangdong Province. Most Kraak ware were dishes, and there were some bowls. This indicates that the porcelains were used to serve the upper class as they were unearthed in the administrative institution, the princedoms and the royal palace.

Furthermore, the article pays close attention to Kraak ware with imperial reign marks. These marks were a symbol of products made in the imperial kilns. A Kraak plate decorated with two waterfowls among reeds and lotus flowers along a shoreline can be seen in the collection of Kobe City Museum. It was such a rare piece as its imperial reign mark on the base that reads "made in the Wanli period of the Ming dynasty" (*daming wanli nian zhi* 大明萬歷年制). Another Kraak porcelain decorated with flowers and birds collected in Singapore bears a mark that reads "made in the Kangxi period of the Qing dynasty" (*daqing kangxi nian zhi*大清康熙年制). It can basically be determined that it was a product made in the imperial kiln in the Kangxi period. Besides, Kraak porcelains previously collected in the Qing imperial court can be found in the collection of the Palace Museum.

In conclusion, our analysis infers that there was a circulation of Kraak ware as a commodity in the Chinese domestic market from the Wanli period of the Ming dynasty through to the Kangxi period of the Qing dynasty. Such porcelains were consumed by civilians, scholar elites, high local officials, and Ming princes and their dependents. Special regard must also be paid to Kraak porcelains unearthed in the Forbidden City and found in the former collection of the Qing imperial court, along with those with imperial reign marks. Such findings indicate that Kraak ware might have been used in the imperial court, with the possibility even holding that they were products from the imperial kilns. In terms of use and function, Kraak ware could be accommodated for daily use, funerals and, possibly, bestowed as royal gifts.

Keywords : Kraak Ware, Domestic Market, tomb, archaeological site, imperial reign marks

| 자료소개 |

「청량산방시회축(淸凉山房詩會軸)」의 사료적 가치와 유불(儒佛) 교유

박동춘*

Ⅰ. 들어가며

Ⅱ. 「청량산방시회축」의 구성과 체재

Ⅲ. 경화사족과 초의선사의 유불 교유

Ⅳ. 나가며

*사)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소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겸임교수

「청량산방시회축(淸凉山房詩會軸)」의 사료적 가치와 유불(儒佛) 교유

박동춘
사)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소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겸임교수

Ⅰ. 들어가며

조선 후기 초의선사(草衣禪師 1786~1866, 이후 초의로 약칭)와 교유했던 경화사족들은 초의가 만든 차를[1] 통해 우리 차의 우수성을 인식했으며, 음다(飮茶)가 자신들의 수신(修身)에 도움을 주는 정신음료라고 생각했다. 1830년경부터 초의와 교유했던 해거도인 홍현주(海居道人 洪顯周, 1793~1865, 해거로 약칭)[2]도 초의를 통해 차에 대한 인식이 더욱더 깊어졌던 인물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그는 조선 후기 뛰어난 문장가로, 서화(書畵)뿐 아니라 다사(茶事)에도 밝았다. 그가 1837년에 초의에게 차 만드는 정황(製茶之候)을 하문(下問)하여 지은 것이 바로 「동다송」이라는 점은 그의 차에 관한 관심을 짐작하게 한다.

그런데 해거는 이미 초의와 교유하기 이전부터 차를 즐겼던 인물이다. 정조의 부마로, 영명위에 봉해졌던 그는 권문세가의 자제로 모친 영수합 서씨(1753~1823)가 차를 즐긴 여류 시인이었고 그의 형제들도 차를 애호했기 때문이다.[3] 따라서 그는 초의를 만나기 전부터 차를 즐겼지만, 그의 차에 대한 인식은 초의의 「동다송(東茶頌)」을 통해 더욱더 깊어졌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에 소개할 「청량산방시회축(淸凉山房詩會軸)」은 1831년 봄 해거가 두 번째 상경한 초의를 위해 연 시회에 참석한 인사들이 지은 시를 기록해 둔 시축(詩軸)이다. 이 자료는 초의와 경화사족(京華士族)의 교유 초기를 밝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울러 초의의 명성

---

1 조선후기 초의와 교유했던 사대부들은 초의가 만든 차를 극찬했으며 이를 초의차(草衣茶)라 불렀다

2 홍현주(洪顯周)는 정조의 둘째 딸 숙선옹주와 결혼, 영명위에 봉해진 인물로, 해거는 그의 호이다. 당대의 문장가로 이름을 떨쳤다.

3 홍현주의 모친 영수합서씨(1753~1823)은 차를 즐긴 시인으로 수 십 편의 다시(茶詩)를 남겼다. 그러므로 홍현주는 비교적 어린 시절부터 차를 즐겼으며 그의 형제들도 차를 애호했다.

이 경향으로 퍼질 수 있었던 것도 이 시회를 참석한 이후이며 이로부터 초의의 교유 인맥이 경화세족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청량산방시회축(淸凉山房詩會軸)」은 초의가 경화거족들과의 교유 확대 시기뿐 아니라 초의의 명성이 세상에 알려진 동기를 밝힐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이 자료가 지닌 자료의 중요성과 가치를 짐작하게 한다.

그렇다면 이 시회를 주관한 해거가 시회의 주빈으로 초의를 초청한 배경은 무엇일까. 이는 해거가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 1786~1856)나 유산 정학연(酉山 丁學淵, 1783~1659)[4]을 통해 초의의 수행력과 차와 시에 밝은 승려라는 점을 익히 들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실제 해거가 초의를 처음 만난 시기는 1830년 겨울이다. 당시 초의는 경향(京鄕)의 명사(名士)에게 스승 완호의 탑명(塔銘)을 받기 위해 상경했고, 이듬해인 1831년 봄 해거의 별서 청량산방에서 열린 시회에 참석하여 수편의 시를 남겼다. 이 시회는 초의의 문재(文才)가 세상에 회자되는 계기를 마련했던 유불의 교유 현장이다.

특히 이 시회에 참석한 유산(酉山)은 해거에게 초의를 소개한 인물로 추정된다. 물론 해거와 교유했던 추사는 집안 사정으로 청량산방시회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해거에게 초의를 적극적으로 소개한 인물로 짐작된다.

당시 초의의 상경 연유는 그가 추사에게 온 편지를 모아 장황(粧潢)한 『주상운타(注箱雲朶)』 후기에서 스승 완호(玩虎, 1758~1826)의 탑명(塔銘)을 받기 위해 상경했으며 1831년 해거의 청량산방에 머물게 된 연유를 밝힌 바가 있다. 초의가 『주상운타(注箱雲朶)』 후기에서 밝힌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1830년 상경 초기 초의는 추사 댁에 머물며 완호의 탑명을 받으려 했다. 그런데 추사의 부친 김노경(金魯敬, 1766~1837)이 추자도로 유배되는 등 집안의 어려움으로 인해 추사 댁에 머물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그는 추사와 유산의 도움으로 해거를 소개받아 완호의 비명을 청했고, 이듬해 봄 청량산방 시회에 초대를 받았다는 것이다. 바로 「청량산방시회축」은 1831년 봄 해거의 청량산방에서 열린 시회에 참석했던 해거와 초의 등 6~7인의 인사들이 지은 시를 두루마리 형태로 묶은 시축(詩軸)이다. 그런데 청량산방시회는 1831년 정월 20일에서 다음 날까지 이어진 시회였다. 이 시회에 참석한 인물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개 해거와 관련이 있는 사대부들로 초의의 명성을 익히 들었던 인사라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므로 이 시축은 조선 후기 유불(儒佛) 교유의 시회 현장을 기록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831년 정월에 열린 청량산방 시회는 초의가 경화세족(京華世族)과의 교유를 확대한 분기점으로 초의의 이름이 세상에 거명될 수 있었던 단초를 제공한 아회였다는 점에서 초의와 경화사족과의 유불 교유를 밝힐 실마리를 제공하는 자료이다. 그뿐 아니라 시축은 최종 정고본이나 간행 문집과 다르게 초고 형태의 한시가 수록된 자료이다. 시회에 참석한 인사들이 시어(詩語)를 수정, 보완하거나 조탁(彫琢)한 자취가 남아 있으며 시회에 참석한 인사들의 친필, 혹은 시축을 기록한 특정 인물의 친필 서체 등, 다양한 정보

---

4 유산은 다산의 장남으로, 정학연이다. 문관으로, 직장(直長) 벼슬을 지냈으며, 추사, 홍현주, 이만용 등과 교유했고 다수의 대흥사 승려들과도 깊이 교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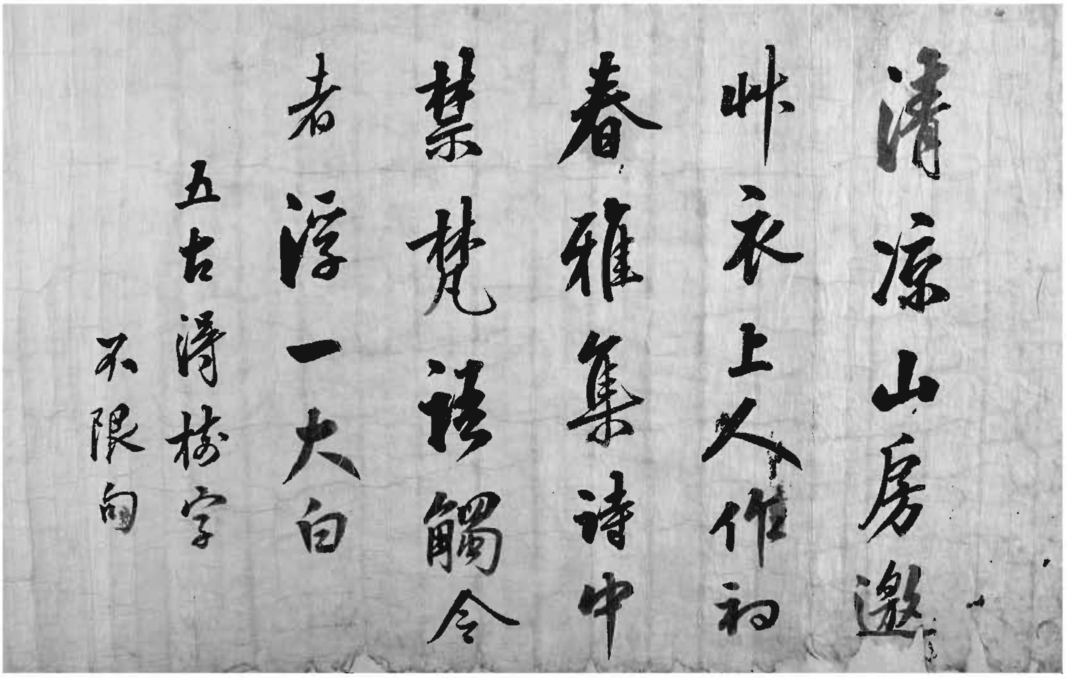
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도 시축의 사료적인 의미와 가치를 짐작하게 한다. 바로 「청량산방시회축」은 이런 시축의 특징을 잘 드러낸 자료이므로 사료로서의 의미와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고는 「청량산방시회축」의 체재, 구성 및 참석한 인사들과 초의의 교유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 후기 초의와 관련된 유불 교유가 어느 정도 노정될 것이라 사료된다. 실제 초의가 차 문화를 중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초의차의 완성도 중요한 동인(動因)이지만, 경화사족과의 교유를 확대하면서 차의 애호층을 넓혔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 관점을 노정하기 위해 초의의 『일지암시고』, 『초의문집』, 「동다송」 이외에도 초의와 관련된 간찰 등 여타의 자료도 참고하였다.

Ⅱ. 「청량산방시회축」의 구성과 체재

「청량산방시회축」은 한지를 이어 붙인 두루마리 형태의 시축으로, 가로 731.5cm, 세로 27.5cm로 구성되었다. 이 시축의 모두(冒頭)에 시회의 규칙 및 시회를 열게 된 사유를 밝혀두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도1).

청량산방에서 초의스님을 맞아 초춘아회(初春雅會)를 연다. 시를 쓸 때 범어(梵語)를 쓰지 말아야 한다. 이 규칙을 어기는 사람은 태백 술 한 잔을 마셔야 하는 벌칙을 둔다. 오언 고시 중에 수자



도 1. 홍현주 외, 「청량산방시회축」, 1면(유산 정학연 친필), 묵서지본, 박동춘 소장

(樹字)를 운(韻)으로 삼고, 구(句)는 제한하지 않는다.[5]

윗글에 따르면, 청량산방의 초춘아집(初春雅集)은 초의를 위해 열린 시회였고, 시의 형식은 오언 고체시(古體詩)로 지어야 하며 불교 문자인 범(梵)어 사용을 금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청량산방 시회는 두 차례정도 열렸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첫 번 시회는 해거를 비롯하여 유산, 동번 이만용(東樊 李晩用, 1792~1863)[6], 경당 윤정진(絅堂 尹正鎭, 1792~?)[7], 약인 홍성모(葯人 洪成謨, 생몰년 미상)[8], 초의까지 6명이 참석하였다. 다음 날인 정월 21일에 초의의 상경 소식을 들은 저원 홍의인(樗園 洪義人, 생몰년미상)[9]이 참석함으로써 시회의 참석인원은 7명으로 늘었다. 그런데 정월 21일 두 번째 열린 시회에는 경당의 제안으로 "청간석상등라월(請看石上藤蘿月)"이란 구(句)를 운(韻)으로 삼아 각체(各體)로 시를 지었다.[10] 이 시축에는 두 번째 시회에서 지은 시의 체재는 밝혀 두지는 않았다. 당시 두 번째 시회에서 지은 시의 체재는 초의의 『일지암시고(一枝庵詩稿)』에 확인되는데, 대개 7언 고체시나 7언 절구, 5언 고체시, 4언 고체시, 7언 율시, 5언 율시, 5언 절구로 지었다.[11] 그러므로 이 시축에 수록된 시는 첫 시회에 참석한 6명이 각각 오언 고체시로 지은 6수와 두 번째 시회에 참석한 7명이 각체로 지은 시 7수 등, 총 13수의 시가 수록된 셈이다. 그리고 초의의 『일지암시고』에는 이 시회가 언제 열렸는지를 기록해 두었는데, 그 내용은 이렇다.

술자(1828)에 선사의 탑이 완성되어 경인(1830) 겨울, 해거도인을 찾아뵙고 비명을 구했다. 해거와 여러 현인들, 내가 청량산방에 모여 봄밤에 아회를 열었으니 곧 신묘(1831)년 정월 20일이다. 먼저 수자를 뽑아 각각 오언 고시 1수씩을 지었다.[12]

앞의 인용문에 의하면 초의가 해거를 찾아간 시기는 1830년 겨울로, 완호의 탑명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해거를 만난 것은 1830년 겨울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뿐 아니라 청

5 홍현주 외, 「청량산방시회축」, 1면, "淸凉山房邀艸衣上人 作初春雅集 詩中禁梵語 觸令者浮一大白 五古得樹字 不限句"

6 이만용의 자는 여성(汝成), 동번은 그의 호다. 조선 후기 4대가로 꼽힐 정도로 시문에 능했다.

7 경당은 윤정진(尹正鎭 1792~?)의 호이다. 자는 치중(稚中)이다. 순조 16년(1816) 별시 병과에 급제했고 추사와 깊이 교유했다.

8 약산은 홍성모(洪成謨)의 호다. 자는 명여(明汝)라는 사실만 알려졌다. 그의 생몰연대는 미상이다. 홍현주의 친척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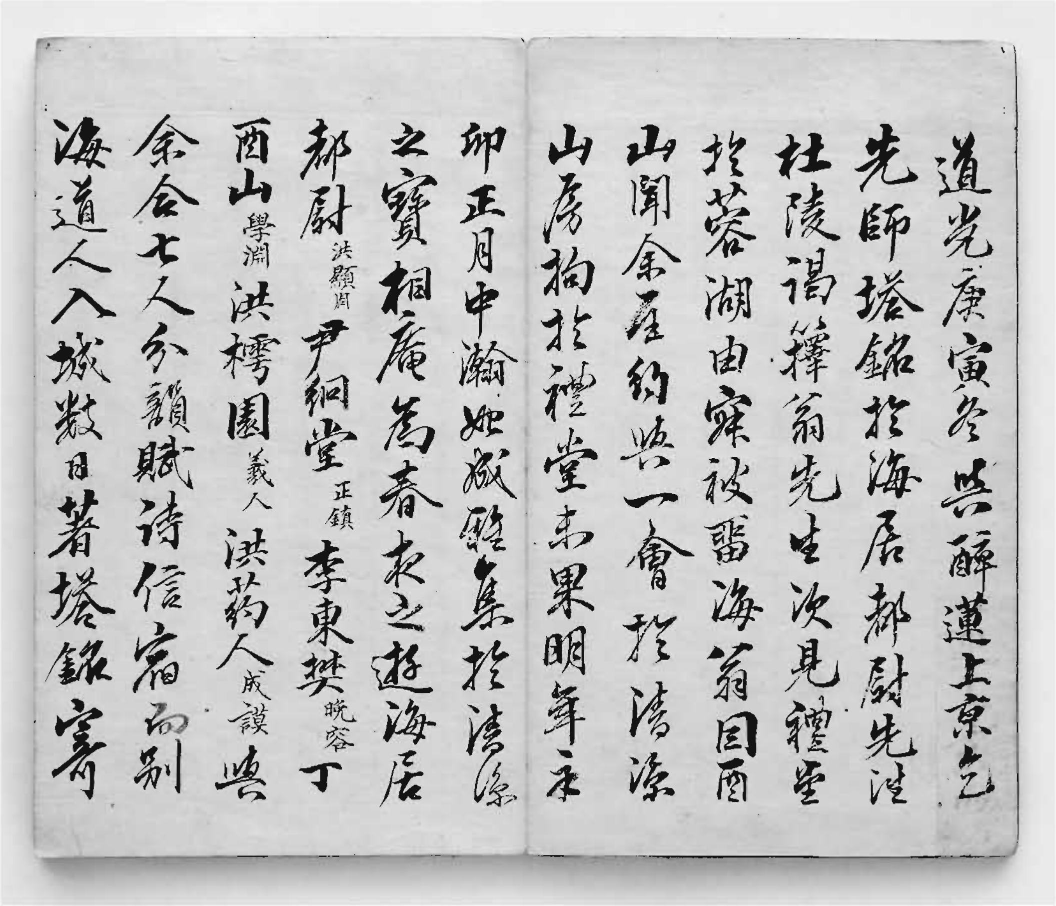
9 저원은 홍희인의 호이다. 홍성모의 부친으로, 홍희인, 홍성모 부자는 장학연과 창수한 시가 여러 편 남아 있다. 김영진, 「酉山 丁學淵의 생애와 저작에 대한 一考」, 『다산학』12호(다산학술문화재단, 2008) 참조.

10 홍현주 외, 앞의 시축, 8면 "題罷五古 山門鐘動 樗園忽至 聞師名也 遂滌硯更作 絅堂偶誦請看石上藤蘿月之句 海居卽命以分韻 賦各體 會中人 酉山 東樊 葯山與艸衣師 合而爲七"

11 초의, 『일지암시고』필사본, 87~90면, 청량산방에서 열린 두 번째 시회에서 각체로 지은 시는 경당은 7언 고체시로 지었고, 유산은 7언 절구로, 홍성모는 4언 고체시로, 해거는 4언 고체시로, 저원은 7언 율시로, 동번은 5언 율시로, 초의는 5언 절구로 시를 지었다는 것을 밝혀 두었다.

12 초의, 앞의 책, 83면, "戊子先師塔成 庚寅冬謁海居道人乞銘 海居與諸賢 會余于淸凉山房 爲春夜之遊也 卽辛卯正月之中澣也 先拈樹字各賦 五言古詩一首"

량산방 시회는 정묘(1841) 정월 중한(中澣: 20일)에 열렸고, 이는 초의를 위한 시회였다는 점도 드러난다. 한편 초의가 1830년 겨울 두 번째 상경할 때의 상황을 『주상운타』후기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도2) .


道光庚寅冬與醉蓮上京乞
先師塔銘於海居都尉先從
杜陵謁籜翁先生次見禮堂
於蓉湖由[illegible]被留海翁因酉
山聞余在約與一會於淸涼
山房拘於禮堂未果明年辛
卯正月中瀚[illegible]雅集於淸涼
之寶相庵爲春夜之遊海居
都尉洪顯周 尹桐堂正鎭 李東樊晩塎 丁
酉山學淵 洪樗園羲人 洪葯人成謨 與
余合七人分韻賦詩信宿而別
海道人入城數日著塔銘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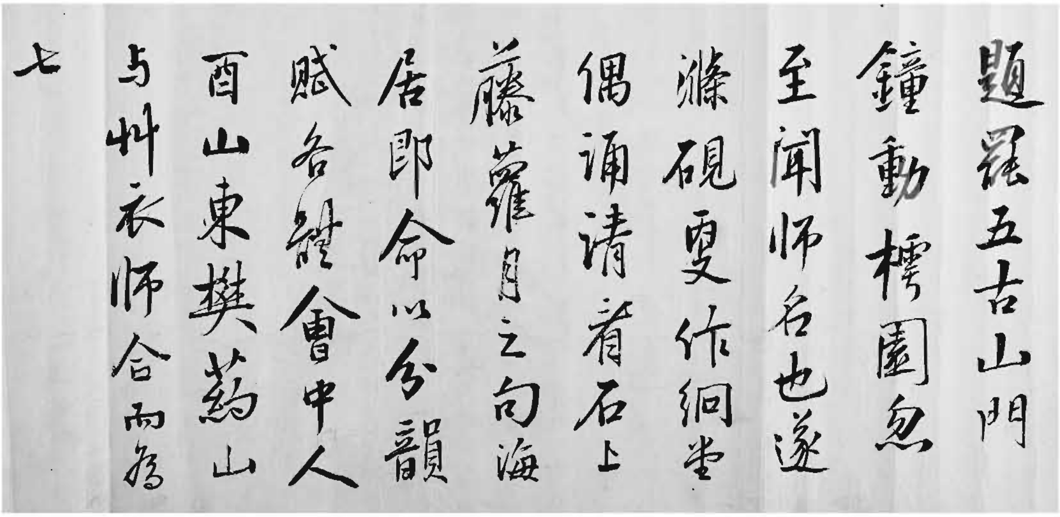
도 2. 초의 선사 친필, 「주상운타」후발, 개인소장

1830(경인)년 겨울에 취련(醉蓮)과 함께 상경하여 홍현주에게 탑명을 구하려 하였다. 먼저 능내리의 정약용 선생을 찾아뵙고 그다음에는 용호로 김정희를 찾아갔으나 김노경이 탄핵받은 일로 인해 홍현주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다. 정학연이 내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청량산방에서 만나기를 약속했지만, 김정희의 일로 인해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 다음 해 1831(신묘)년 정월 중순에 비로소 청량산방의 보상암(寶相庵)에서 아름다운 모임이 이루어졌는데, 봄밤의 놀이에는 홍현주, 윤경당, 이만용, 정학연, 홍저원, 홍성모와 나를 합하여 모두 일곱 사람이 모였다. 운을 나누어 시를 지으니 (이것은) 정말 좋은 인연이다. 홍현주는 도성에 들어간 후, 수일 만에 탑명을 지어 두릉으로 보냈다. 신위가 홍현주의 명으로 서문을 쓰게 되었다. 그해 겨울과 봄 사이 나

는 용호에 머문 날이 많았고, 취련은 추위를 무릅쓰고 양쪽을 왕래하는 일이 잦았다.[13]

윗글에 따르면, 1830년 겨울 초의는 취련과 함께 상경하여 해거를 찾아가 탑명을 청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초의가 상경한 후 제일 먼저 스승인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을 찾았고, 이어 추사를 찾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초의는 상경 초기 추사 댁에 머물고자 했지만, 김노경(金魯敬, 1766~1837)의 탄핵으로 해거의 집에 머물러야 했던 당시의 정황을 밝혔다. 그런데 초의의 상경 연유였던 완호의 탑명은 해거의 도움으로 순조롭게 해결되었다. 바로 해거가 초의의 부탁대로 완호의 탑명을 지어 보냈고 신위에게 명하여 완호 탑명에 서문을 쓰기로 했기 때문이다. 당시 초의와 함께 상경하여 신위와 초의 사이를 오가며 심부름을 도맡았던 취련은 완호의 제자로 추정된다.

그리고 청량산방 초춘아집의 첫 번째 시회에는 해거를 비롯하여 6명이 참석했지만 초의의 『일지암시고』에는 해거의 시와 초의 자신이 쓴 시만을 수록해 둔 사실도 드러난다. 한편 「청량산방시회축」에는 정월 21일에 열린 시회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 두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도3) .



도 3. 홍현주 외, 「청량산방시회축」, 8면(초의 선사 친필), 묵서지본, 박동춘 소장

13 초의, 『注箱雲朶』 후발, "道光庚寅冬 與醉蓮上京 乞先師塔銘於海居都尉 先往杜陵 謁籜翁先生 次見禮堂於蓉湖 由寂被留 海翁因酉山聞余至約與一會於淸凉山房 拘於禮堂 未果 明年辛卯正月中澣 始成雅集於淸凉之寶相庵 爲春夜之遊 海居都尉 尹絅堂 李東樊 丁酉山 洪樗園 洪葯人 與余合七人 分韻賦詩信宿 而別海道人 入城數日 著塔銘寄送杜陵 序則 承敎受之於紫霞申公 於其冬春之間 予則多住於蓉湖 蓮則冒寒往來於兩地者多矣" 『주상운타』는 초의에게 보낸 김정희의 편지를 모은 간찰첩이다. 초의가 장정하여 "주상운타"라는 표제를 붙였는데, 후기에 초의가 이 서첩을 묶은 연유를 밝혔으며, 동치 원년(同治元年, 1862) 8월에 장정하였다. 박동춘, 『초의선사의 차문화연구』(일지사, 2010), pp. 36~37 참조.

5언 고체시를 파하고 나니 산문(山門)의 종소리가 들렸다. 저원이 초의 명성을 듣고 갑자기 왔기에 마침내 벼루를 씻어 다시 시를 지었다. 경당이 우연히 "請看石上藤蘿月"의 구를 읊기에 해거가 운을 나눠 각체로 시를 짓도록 했다. 시회에 참석한 사람은 유산, 동번, 약산과 초의스님 등 모두 7명이 되었다.[14]

앞의 인용문을 살펴보면, 1831년 정월 20일에 열린 시회가 다음 날까지 이어졌는데, 이는 저원이 초의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기 때문이다. 당시 초의의 명성은 이미 경화세족에게 어느 정도 회자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따라서 「청량산방시회축」은 1831년 정월 20일에서 다음 날 21일 까지 이어진 시회에 참석한 인사들이 지은 시를 수록한 시축이며, 당시 시회에 참석한 인물은 해거와 관련이 있는 경화사족들로, 초의를 위한 시회였다는 점이다. 이 시축에 수록된 시는 총 13 수이다. 첫 번째 시회의 참석인원은 6명이었고, 다음날 열린 두 번째 시회에는 7명이 참석했다.[15] 첫 번째 시회에서 지은 시의 체재는 5언 고체시였고 운은 수자(樹字)였으며 불교 문자인 범어는 사용을 금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회의 운(韻)은 경당의 제안으로 "청간석상등라월(請看石上藤蘿月)"으로 정해졌고, 7인이 각자 부여 받은 운, 즉 청~월을 운으로 삼아 각체로 시를 지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시축에는 시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시를 정정한 흔적이 보인다는 점에서 초고(草藁) 형태의 특징을 보여준다. 특히 이 시축에는 첫 번째 시회에서 유산이 자신의 시를 정정 퇴고한 흔적이 보이며 동번 또한 퇴고의 흔적이 보인다. 그리고 약산은 자신의 호를 약원(葯園)에서 약산(葯山)으로 정정했던 것도 드러난다. 초의는 첫 번째 시회에서 자신이 지은 시를 본인의 글씨로 남겼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어 두 번째 시회의 서문은 초의의 글씨로 여겨지며, 정월 20일에 열린 시회의 기록자는 유산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정월 21일에 열린 두 번째 시회에서는 참석 인사들이 자신의 시를 자신의 글씨로 기록해 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추후의 연구가 필요하다.

Ⅲ. 경화사족과 초의선사의 유불 교유

조선 후기 초의는 대흥사 승려로, 1809년 강진의 다산초당으로 다산을 찾아가 학연을 맺는다. 초의는 다산의 문하를 출입하면서 다산으로부터 시학과 주역, 역사관, 학문 방법 등 배웠는데, 이는 그를 다산의 전등계 제자로 분류하는 연유이다. 초의는 다산초당을 드나들던 1809년 다산의 장남 유산을 만나 망년지교(忘年之交)를 맺어 평생을 교유하였고 유산은 초의를 경화사족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했던 후원자이다. 이러한 사실은 초의가 1815년 겨울, 학림암에서 추사를 만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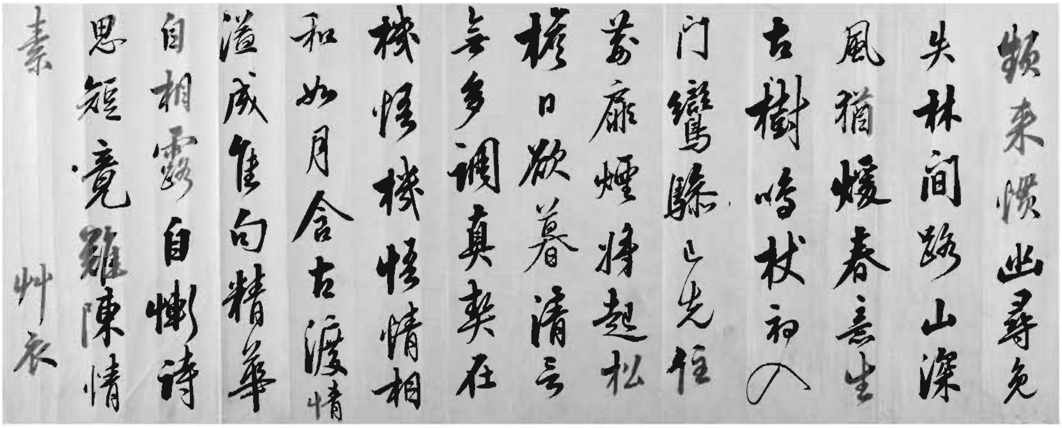
---

14 주석 9와 동일함.

15 청량산방 시회에 참석한 인물은 홍현주, 정학연, 초의, 이만용, 윤정진, 홍성모, 홍희진이다. 첫 번째 시회에는 홍현주, 정학연, 초의, 이만용, 윤정진, 홍성모 등 6명이 참석했고 두 번째 모임에는 홍희인이 합석하여 7명이 되었다.

된 것도 유산을 통해서였고,[16] 1830년 겨울, 해거에게 초의를 소개한 인물도 유산이었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더구나 1831년 정월 20일, 다음날인 정월 21일까지 이어진 청량산방 시회는 해거 홍현주를 비롯하여 유산 정학연, 동번 이만용, 경당 윤정진, 약산 홍성모, 저원 홍희인 등이 초의를 위해 모인 경화사족의 시 모임이다. 초의와 막연했던 추사는 이 시회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초의와 경화사족의 교유를 연결해 준 인물이다. 그러므로 「청량산방시회축」은 초의와 경화사족들과의 교유 초기를 밝힐 자료로,조선 후기 유불 교유의 현장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사료적인 가치가 큰 자료인 것이다.

초의는 1831년 청량산방 시회의 첫 번째 모임에서 지은 시에서 "자주와 익숙한 길이니(頻來慣幽尋)/ 숲 사이 길 잃을 일 없네(免失林間路)"[17]라 하였다(도4). 이는 초의가 해거의 청량산방을 얼마나 자주 들락거렸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이어 그는 "맑은 말씀, 흔한 곡조가 아니며(淸言無多調)/ 참다운 모임, 기미를 깨우게 하네(眞契在機悟)"라 하여 이 시회의 격조와 의미를 규정하였고, 이 시회에 모인 인사들의 격조를 상보(相補)의 미덕을 발휘한 교유라고 여겼던 것이다. 아울러 초의는 청량산방의 정취를 "산이 깊어도 바람은 오히려 따스하니(山深風猶暖)/ 봄기운, 고목에도 피어나네(春意生古樹)"라고 하였다. 이는 청량산방이 오래된 고목이 즐비했던 유처(幽處)이며 깊은 산중임을 암시한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해거는 초의의 방문을 환영하면서 "좋은 만남은 정해진 인연이 있으니(良覿有定緣)/ 늦고 빠름은 분수 밖에 달렸네(緩促分外付)"[18]라고 노래했다(도5). 그의 의중(意中)은 초의를 만나야 하는 인연은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늦거나 빠르거나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무엇보다 초의와 이들의 교유에 매개물은 시와 차였다. 이런 사실은 유산의 시에서도 드러난다(도6).



도 4. 홍현주 외, 「청량산방시회축」, 7면(초의 선사 친필), 묵서지본, 박동춘 소장

16 박동춘, 앞의 책(2010), p.32.

17 홍현주 외, 앞의 시축 7면, 초의의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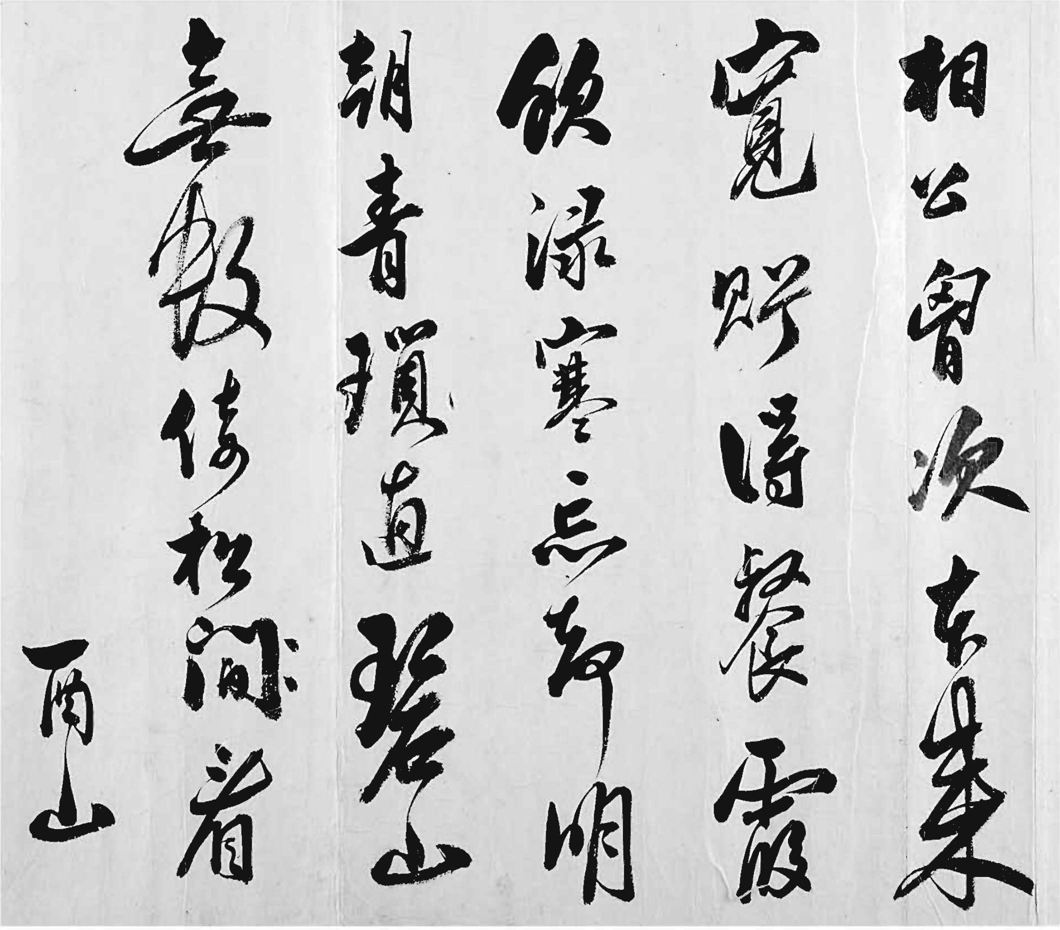
18 홍현주 외, 앞의 시축 2면, 해거의 시.

도 5. 홍현주 외, 「청량산방시회축」, 2면(유산 정학연 친필), 묵서지본, 박동춘 소장

상공(홍현주)의 마음은 원래 넓으시니(相公胸次本來寬)
봄 안개 가득 품은 차를 드셨던 게지(貯得餐霞飮滌寒)
좋은 세상 만나서도 청운의 꿈 잊어버리고(忘却明朝靑瑣直)
푸른 산, 무수한 소나무에 기대어 보네(碧山無數倚松看)[19]

위 인용문에서 유산은 해거의 마음은 원래 넓은데도 봄의 정기 가득 품은 차를 마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하였다. 원래 차는 군자의 품성을 지녔고, 차를 오래 마시면 사람이 힘이 생기고 마음이 즐겁다[20]고 하였다. 맑고 활활한 차는 심신을 정화하여 근심과 번뇌를 사라지게 한다. 초의는 성현이 차를 사랑한 것은 차의 성품이 군자와 같아서 삿됨이 없기 때문이라 하였다.[21] 청운의 꿈을 잊고 묵은 소나무에 기대어 망산(望山)하는 은일(隱逸)한 선비는 바로 해거를 지칭한 것이다. 해거의 탈속한 삶은 유산의 시를 통해 드러났다. 더구나 다산의 장남이었던 유산은 차의 애호가였다. 1809년 다산초당에서 초의를 만난 후 초의의 막후 후원자로써 평생 초의와 교유했다. 이들의 만남은 집안 대대로 이어졌으며, 초의의 제자들도 유산가(酉山家)와 차를 통한 교유를 이어 나간 흔적이 보인다.

19 홍현주 외. 앞의 시축 10면, 유산의 시.
20 초의, 「동다송」 필사본, "荼茗久服 人有力悅志"
21 초의, 「봉화산천도인사차지작」, 『일지암시고』, 204면, "古來聖賢俱愛荼 荼如君子性無邪"



도 6. 홍현주 외, 「청량산방시회축」, 10면(유산 정학연 친필), 묵서지본, 박동춘 소장

특히 초의는 이 시회를 통해 해거와 그의 형제뿐 아니라 후손들로 교유의 폭이 넓어졌으며 1837년 해거가 초의에게 다도를 하문하여 초의가 「동다송」을 지었으니 이는 1831년 시회의 인연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선 후기 유불교유의 현장을 기록한 이 시축은 결과적으로 해거의 차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준 인연사를 엮는 현장 기록인 셈이다. 초의는 이 시회에 참석한 저원과 약산 부자, 동번 등에게도 차를 보내기도 하고 시를 지어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교유했을 것이라 짐작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추후로 미룬다.

Ⅳ. 나가며

1831년 정월 20일과 21일 양일간에 걸쳐 해거의 별서 청량산방에서 열린 시회는 해거가 초의를 위해 연 시 모임이다. 이 시회에 참석한 6~7명의 인사들은 대부분 해거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

이 모여 시를 지으며 초봄의 정취를 노래했다. 바로 「청량산방시회축」은 이들이 지은 시를 기록한 두루마리 형태의 시축이다. 당시 이 시회는 시회를 주관한 해거와 초의, 유산, 경당, 동번, 저원과 약산 부자가 참석했는데, 대부분 해거와 유산과 친밀하게 교유했던 경화사족들의 모임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두 차례 창수(唱酬)한 시는 모두 13수이다. 그런데 이 시축에는 중간 중간에 시어의 조탁과 정정의 흔적이 보인다. 첫 번째 시회의 필사자(筆寫者)는 유산으로 추정되며 두 번째 시회의 참석자들은 각체로 시를 지으면서 자신이 지은 시는 자신이 기록한 경우가 눈에 띈다. 기록자에 대한 추후의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청량산방시회축」의 제작은 초의의 상경에서 기인된 것이다. 1830년 겨울 초의는 스승 완호의 탑명을 받기 위해 상경한다. 이는 그의 두 번째 상경인 셈인데, 그의 상경 이유는 추사 댁에 머물며 한양의 명망이 있는 사대부에게 완호의 탑명을 받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순조롭지 않았는데, 이는 추사의 부친이 추자도로 유배를 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초의는 유산의 소개로 해거를 만나 환대를 받았고, 1831년 초봄 청량산방 시회에 초대된 것이다. 이미 유산은 해거뿐 아니라 동번, 저원과 약산 부자와 두릉 시회를 열어 서로 창수하는 사이였기에 초의가 참석한 시회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으리라 짐작된다. 한편 유산이외에도 해거에게 초의를 소개한 또 다른 인물은 추사로 짐작된다. 추사는 이미 1815년 겨울 학림암에서 초의를 만나 막역한 우정을 나누웠기 때문에 추사와 관련이 있는 인사들 사이에서 그의 수행력이나 문재(文才), 차에 밝은 승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실제 깊이 교유한 인사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1831년에 제작된 「청량산방시회축」은 초의가 경화사족과 교유가 확산될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한 시회라는 점에서 조선 후기 초의를 중심으로 확산된 유불교유의 연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자료인 셈이다. 한편 해거는 초의와 교유하기 이전부터 차를 즐긴 인물이지만, 그가 1837년경 초의에게 차에 대해 하문하였다. 바로 초의의 「동다송」은 해거의 요청에 의해 저술된 것이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해거는 권문세가로, 그의 형제들도 차를 즐겼지만, 초의의 「동다송」을 통해 차에 관한 이해가 깊어졌을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므로 해거의 차에 대한 인식은 초의에게 영향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조선 후기 초의와 교유했던 인사들은 초의가 만든 초의차를 통해 우리 차의 우수성을 깊이 이해했다. 이런 관점에서 「청량산방시회축」은 초의가 경화사족들과의 교유 초기의 정황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뿐 아니라 초의는 청량산방 시회를 통해 세상에 그의 이름이 알려졌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시회는 초의가 경화사족들과의 교유를 확대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시회였으며, 이를 통해 차의 애호층을 넓힐 수 있었던 셈이다. 바로 초의가 차 문화를 중흥할 수 있었던 동력은 청량산방 시회를 통해 차를 애호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이 자료를 통해 확인한 셈이다.

투고일 2020. 11. 11. | 심사개시일 2020. 11. 22. | 게재 확정일 2020. 12. 12.

참고문헌

「淸凉山房詩會軸」

『一枝庵詩稿』

『注箱雲朶』

김영진, 「酉山 丁學淵의 생애와 저작에 대한 一考」, 『다산학』12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08

박동춘, 『초의선사의 차문화연구』, 일지사, 2010

_____, 『추사와 초의』, 이른아침, 2014

_____, 『초의스님전상서』, 이른아침, 2019

「청량산방시회축(淸凉山房詩會軸)」의 사료적 가치와 유불(儒佛) 교유

박동춘

「청량산방시회축(淸凉山房詩會軸)」은 1831년 정월 20일, 다음날인 21일에 열린 청량산방시회에 참석한 6~7명의 사대부들이 지은 시를 기록한 시축이다. 당시 해거는 초의를 위해 시회를 열었고, 이 시회에는 유산, 동번, 경당, 저원과 약산 부자 등이 참석했다. 대부분 해거와 교유했던 인사들이 모인 시회라는 특징을 보인다. 이 시축은 한지 두루마리 형태로 구성되었고, 크기는 가로 731.5cm, 세로 27.5cm의 장축이다. 시축을 기록한 사람은 유산 정학연과 초의로 짐작되지만, 정월 21일의 시회에는 시를 지은 사람이 글씨도 쓴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시회는 초의가 경화사족들과 교유를 확대하기 시작할 무렵에 열린 시회였는데, 초의는 이 시회를 통해 경향에 자신의 필명을 드러낸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해거는 초의를 통해 차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는데, 이는 1837년 해거가 초의에게 다도를 하문하였기 때문에 초의가 「동다송」을 저술했던 것이다. 이를 통해 해거는 차의 이로움을 더욱 깊이 천착했던 것이니 해거의 차에 대한 인식은 초의에게 영향받은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청량산방시회축」은 초의와 경화사족의 교유 확대 초기의 상황을 밝힐 수 있는 자료로서 초의와 경화사족의 유불 교유사 연구에 꼭 필요한 자료이다. 아울러 조선 후기 초의가 차 문화를 중흥할 토대인 음다층의 확산도 이 시회를 통해 인적(人的) 네트워크(network)를 구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청량산방시회축」의 자료적 가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주제어 : 홍현주, 초의선사, 청량산방시회, 시축

Abstract

The historic value and meaning of *Cheongryang Sanbang Sichuk*

Park Dongchoon

Cheongryang Sanbang Sihoechuk is a scroll containing poems composed by six or seven aristocrats who took part in a session of a poetry club held on January 20th and 21st, 1831. Men such as *Yusan, Dongbeon, Gyeongdang, Jeowon* and his son attended the session held by *Haegeo* for the monk *Choeui*, to whom most of them were rather close. The scroll is made of *hanji*(traditional Korean paper) and measures 731.5 cm in width and 27.5 cm in length. It is presumed that the poems were handwritten by *Jeong Hagyeon* (pen-name: *Yusan*) and *Choeu*i on January 20th, but the poems were handwritten by someone who wrote them while attending at the poetry club on January 21st.

The poetry club held this session at a time when *Choeui* was starting to broaden his association with the *Gyeonghwa* Circle, so it was an ideal occasion to make *Cheui's* name better known to people in the capital and the provinces. As it happened, Haegeo acquired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tea ceremony through Choeui. In 1837, *Choeui* composed *Dongdasong*, a poem extolling the virtues of tea, after *Haegeo* asked him a question about the tea ceremony. The poem apparently helped Haegeo to acquire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merits of tea drinking and tea etiquette.

The aforementioned scroll is regarded as a material concerning the early period of *Choeui's* deepening association with the members of the *Gyeonghwa* Circle. In other words, it is an important material for research on the history of the association between *Choeui* and the *Gyeonghwa* Circle. In addition, tea lovers laid the basis for *Choeui's* efforts to invigorate the tea culture in the late *Joseon* Period, and they could increase their number thanks to the establishment of a tea drinkers' network through this session. It is in this context that the scroll is considered to be very valuable.

Keywords : *Hong Hyeonju*(洪顯周), *Choeui*(草衣), *Cheongryang Sanbang Sihoechuk*(淸凉山房詩會軸), Scroll of Poems(詩軸)

아시아 陶磁文化 研究 발간규정

2018. 1. 26.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광주박물관의 정기학술간행물인 『아시아 도자문화 연구』(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분야)

학술지의 분야는 한국 및 아시아 도자 관련 내용으로 한다. 다만, 이 규정 제5조에 규정된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유관 분야를 포함할 수 있다.

제3조 (발행일자 및 횟수)

매년 12월 6일 연 1회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관장, 학예연구실장 및 3인 이상의 학예연구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장이 맡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학술지 발간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편집위원의 선정과 위촉에 관한 사항
3. 학술지 발간과 관련한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운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조 (편집위원회)

① 편집위원회는 학예연구실장, 담당 학예연구관 이외 외부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예연구실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외부 편집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부 편집위원은 한국 및 아시아 도자 관련 분야에서 학문적 업적이 있는 인사를 원칙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③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투고 원고에 대한 심사 회부의 여부에 관한 건
2.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건
3. 투고 원고의 게재 여부 심사 및 결정

④ 편집위원회의 소집은 편집위원장 명의로 한다.

⑤ 편집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 (심사)

① 모든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정한다.

② 심사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절차는 별도의 원고심사규정을 따른다.

제7조 (연구윤리)

① 투고자는 자신이 공표한 연구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 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 성과에 한해 투고
2. 다른 연구자의 연구 성과 및 아이디어에 대한 명확한 출처 표시

② 편집위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투고 원고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취급
2. 심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밀 준수
3. 연구윤리상 문제 발생 시 편집위원회에 통보

제2장 원고 투고

제8조 (작성 방식 및 투고 기한)

① 투고자는 제1호 서식의 '투고신청서' 및 이 규정 제12조에 따라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원고를 함께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제목, 필자, 본문, 각주, 참고문헌, 국문초록, 영문초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영문초록은 게재가 확정된 경우에 제출할 수 있다.

③ 투고자는 학술지 발행 최소 3개월 전에 원고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게재내용)

① 원고는 기획논문, 일반논문 및 자료소개로 구분한다.

② 기획논문은 국립광주박물관의 도자 관련 전시 및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으로, 본 규정을 준수하여 투고된 논문으로 한다.

③ 일반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했던 원고 또는 중복되는 내용은 투고하여서는 안 된다. 단,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일 경우, 별도의 각주에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자료소개는 국내외에 소개되지 않은 신자료이거나 기존자료에 대한 새로운 조사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 (원고매수)

① 기획논문 및 일반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은 사진, 도면, 지도 등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00매로 한다.

② 자료소개는 사진, 도면, 지도 등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 도판(도면, 지도 포함) 10매 내외

제11조 (필자 표기 방법)

① 필자명에 현 소속기관 및 직위(급)을 병기한다.

② 공동 집필의 경우, 주저자(연구책임자)와 공저자를 구분하고 주저자, 공저자 순으로 표기한다.

제12조 (본문 작성 방식)

① 본문은 한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외의 자세한 작성 지침은 별표 1의 '원고작성지침' 에 따른다.

제13조 (투고자의 권리와 제한)

① 투고한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다. 다만, 게재된 원고에 한해 정보 제공을 위한 저작물의 활용에 대해서는 허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투고자는 최소한 2회의 교정 기회를 갖는다.

③ 접수된 모든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원고 심사

제14조 (심사원칙)

감일 이내 접수된 모든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친 후 개제 여부를 결정한다.

제15조 (심사절차)

접수된 논문과 자료소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1.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의뢰
2. 심사 결과 취합
3. 수정 후 재심사 원고 재심사 의뢰
4. 재심사 판정
5. 게재 여부 결정

제16조 (심사위원)

① 집위원회는 논문 1편 당 3인으로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자 또는 관련 분야 전공 박물관 연구관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원고를 성실하게 평가하고 15일 이내에 제2호 서식의 '평가결과서' 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을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로 판정한다.

제17조 (심사기준)

① 투고 원고의 심사는 연구 방법의 적합성, 자료 분석의 적절성, 논리 전개의 타당성, 연구 주제의 독창성, 학술적 가치 및 기여도를 기준으로 한다.

② 심사위원은 제1항에 따라 원고를 엄격히 심사한 후 다음 중의 하나로 판정한다.

1. 게재 가능 : 원고의 수정 없이 그대로 게재할 수 있는 경우
2. 수정 후 게재 : 수정 사항이 경미한 경우
3. 수정 후 재심사 : 중요한 내용 또는 상당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4. 게재 불가 : 원고 수준이 미흡하거나 게재가 부적절한 경우

③ '수정 후 게재' 의 경우,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원고 필자에게 통보하여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한다.

④ '수정 후 재심사' 의 경우, 동일한 심사위원이 수정된 논문에 대하여 재심사하여, '게재 가능' 또는 '게재 불가' 로 판정한다. 다만, 재심사 수락 여부를 원고 필자에게 확인하여 수락할 경우에만 재심사 할 수 있다.

⑤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별표 2의 '심사판정표' 에 따라 최종 판정을 한다.

제18조 (이의 제기)

① 심사 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투고자는 이의 내용을 판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이의 내용을 검토하여 사안에 따라 직접 처리 또는 편집위원회의 심의에 부쳐 처리 하고,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원고작성지침(제12조 관련)

구분		작성 방식
장절 표기		Ⅰ → 1 → 1) → (1)
본문 형식		휴면명조, 11pt, 160%
각주 형식		휴면명조, 9.pt, 130%
인용문		사료(자료)는 한글 번역을 원칙으로 하며, 출전은 각주로 처리
주석	저서	홍길동, 『아시아 도자』(광주: 국립광주박물관, 2018), pp. 1~3.
	논문	홍길동, 「한국 초기청자 연구」, 『아시아 도자문화 연구」 1(국립광주박물관, 2018), pp. 22~25.
	재인용	홍길동, 앞의 논문(2018), p. 26.
	사서	『世宗實錄』 卷9, 世宗 6年 5月 庚子, "원문"
도판	원칙	사진, 도면, 지도는 모두 '도'로 통일한다.
	형식	600dpi 크기의 JPEG 파일 형태
	설명	도의 번호, 제목, 작가, 연도, 재질, 크기, 소장처, 소장번호 순으로 기재 다만, '도'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 세부 항목 생략 가능
	출처 표시	개인이 촬영하지 않은 사진의 경우, 필수적으로 출처 표기
초록		국문 및 영문초록은 A4용지 2매 이내로 제한하며, 각각 5개 내외의 주제어를 초록 말미에 기재하여야 함

[별표 2]

심사판정표(제16조 관련)

구분	최초 심사 판정	재심사 판정	최종 판정
논문	AAA		A
	AAB	A	A
		C	편집위원회 결정
	AAC	C	편집위원회 결정
	ABB	AA	A
		AC	편집위원회 결정
		CC	C
	ABC	A	편집위원회 결정
		C	C
	BBB	AAA	A
		AAC	편집위원회 결정
		ACC	C
		CCC	C
	BBC	AA	편집위원회 결정
		AC	C
		CC	C
	ACC		C
	BCC		C
	CCC		C
자료소개	AA		A
	AB	A	A
		C	편집위원회 결정
	BB	AA	A
		AC	편집위원회 결정
	BC		C
	CC		C

비고
1. 위 표에서 'A' 는 '게재 가능 또는 수정 후 게재' 를, 'B' 는 '수정 후 재심사를' , 'C' 는 '게재 불가' 를 의미한다.

편 집 위 원

박경도 _ 국립광주박물관/위원장

김현희 _ 국립광주박물관

박경자 _ 문화재청

이종민 _ 충북대학교

이희관 _ 전 호림박물관

장기훈 _ 경기도자박물관

한성욱 _ 민족문화유산연구원

편 집 실 무

장효진 _ 국립광주박물관

아시아 陶磁文化 硏究
JOURNAL OF ASIAN CERAMICS AND CULTURE

제3호
2020

발행처 국립광주박물관
발행일 2020. 12. 30

61066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110
Tel. 062-570-7809 Fax 062-570-7066

110 Haseo-ro, Buk-gu, Gwangju, 61066, Korea
http://gwangju.museum.go.kr

ISSN 2635-8891

Journal of Asian Ceramics and Culture

VOL. 3
2020

Special Theme Articles

Current State and Future Prospects of Sinan Shipwreck — Choi Yu Ri 005

Current State and Future Prospects of Artifacts with Inscriptions Recovered from the Sinan Shipwreck — Park Yeri 025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of Ceramics Excavated from Sinan Shipwreck — Kim Youngmi 053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of Metal and Woodcrafts Excavated from Sinan Shipwreck — Lee Yong Jin 081

Distribution of Yuan Ceramics: The Mongol Impact on the History of Ceramics — Mori Tatsuya 101

Current State and Outlook of Research on the Sinan Shipwreck in the West — Heena Youn 149

Article

The black glazed bowl marked with "Gongyu (供御)" or "Jinzhan (進琖)" of Jian ware and beyond its horizon - Third research report on Jian kiln (建窯) — Lee Heegwan 165

A Further Discussion of Kraak Ware: Focusing on the Domestic Market in China — Zhaohui Liu 197

Research Materials

The historic value and meaning of *Cheongryang Sanbang Sichuk* — Park Dongchoon 243

Publishing Regulations 259

GWANGJU NATIONAL MUSEUM